

北濟州郡 舊左邑 終達里

現地學術調查報告

(1999. 7. 31 ~ 8. 3)

調査経緯 • 226

마을개황 • 229

方言 • 254

民謠 • 301

說話 • 345

信仰 • 450



종달리 전경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 두문포구



비석거리 →



← 맛조개 잡이 체험어장

調查經緯

우리 국어교육과의 학술조사는 방언·설화·민요·신앙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하여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재발견 및 재평가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조사 참여자들의 자긍심과 협동심을 고양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학술 조사는 1999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복제주군 구좌읍 종달리에서 이루어졌다. 학술 조사지는 3월 초에 미리 정하여 졌기 때문에 오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제1차 사전 답사는 5월 초에 이루어졌다. 우선 숙식 장소의 문제 해결과 마을의 도움을 부탁하려는 목적이었다. 종달초등학교를 숙식 장소로 예정했었다. 하지만 학술조사 기간 동안 학교 내부 공사로 인해 부득이 종달리 마을 회관으로 숙식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장님으로부터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2차 사전 답사는 각 반 반장과 학술부장으로 사전 답사반을 구성하여 7월 초에 이루어졌고, 숙식 장소인 마을 회관의 규모, 마을의 지리, 제보자 명단과 전화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답사 후에는 1, 2, 3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모여 현승환 교수님으로부터 학술조사의 역사와 의의, 조사 방법에 대해 강의를 듣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처음 조사에 참가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는 학술조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려 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답사는 반장과 학술부장 그리고 사업부장으로 구성되어 7월 중순경에 이루어졌다. 숙식장소인 마을회관 공간 이용과 취사도구 임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제보자를 만나 각 반의 조사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제보를 들었고, 추가 제보자의 명단을 확보하였다.

조사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재직 교수, 재학생, 그리고 동문이 참가했다. 현승환(마을개황), 최규일(방언), 윤석산(민요), 안성수·문성숙(설화반), 손오규(신앙) 교수가 각 분야에 걸쳐 지도를 하였다. 그리고 장훈·고창근·좌혜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경·변성구·임용진·강정식·변숙자 등 여러 동문이 도움을 주었다. 참가 학생은 다음과 같다(() 속은 학년).

마을개황 : 강은주, 좌은재(3), 현미주, 고정녀(2), 김현주, 현정대, 김윤희(1)
방 언 : 김상희, 문행선, 김애리, 현금미(3), 김지연, 강보경(2), 강경탁, 고은영(1)
민 요 : 양정생, 김초롱(3), 송경은, 범설아, 한유숙(2), 지영희, 강경희,
강지혜, 고동석, 김동률(1)
설 화 : 송지연, 강연심, 이태은(3), 현지현, 조소민, 문승현(2), 이경석(1)
신 앙 : 이향숙, 강건후(3), 양현숙, 강현영, 김나영, 백일화, 이승조(2),
장은주, 고정혜, 변영철(1)

조사 활동은 3박 4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 1일차 -

전날부터 불어닥친 폭풍우가 계속되었다. 미리 마을회관에 설치해 놓은 천막의 안전과 제주시에서 종달리로 이동하는 버스의 안전문제가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종달리에 도착한 후, 바로 숙소 배치와 정리를 하였다. 그리고 오후에는 종달리장님과 노인회장님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이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에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계속되는 비로 인해 조사 활동보다는 각 반이 모여 역할 분담과 조사 방법, 학술 조사 일정을 공유하는 정도의 활동만이 이루어졌다.

- 2일차 -

첫날은 많은 비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 날씨가 좋아져 오전부터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임하게 되었다. 간단한 전체 모임을 갖고 난 후 각 반은 제보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다. 민요반의 경우 제보자가 직접 마을회관까지 찾아와 자료를 제공해 주어 종달리의 많은 전승민요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저녁 때에는 교육대학원 동문과 총동문회 선배님들께서 방문을 해 격려를 해 주시기도 하였다.

- 3일차 -

이틀 전의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씨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더운 날씨를 보

였다. 종달리 지역이 당근 파종 시기여서, 제보자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 걱정했다. 하지만 이틀 전의 폭우로 인해 파종이 어렵게 되어, 낮에도 제보를 받을 수 있었다. 오후 들면서 '국교인의 밤' 행사를 위해 조사 활동이 마무리를 지어야 했으나, 첫날 폭풍으로 인한 조사 시간의 부족, 각 반 제보자의 중복으로 저녁 늦게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곤함과 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약간의 동료들간의 마찰도 있었지만, 조사의 열기는 뜨거웠다. 특히 교수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같이 민요를 부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국교인의 밤'은 예정보다 두 시간 이상 늦게 시작되었다. 학과 교수님, 동문 선배님 그리고 재학생이 참여하여 학술 조사 활동을 정리하였으며,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 4일차 -

오전에는 대부분의 반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거나 전사를 하였다. 조사가 부족한 반은 마지막 조사를 실시했다. 오후에는 숙식장소였던 마을회관 주변을 청소하고, 취사도구 등을 반납했다. 그리고 기념촬영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학술조사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였다.

끝으로 조사에 도움을 주신 종달리 마을 주민들과 종달리 이장님, 노인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하셔서 지도해 주신 교수님과 여러 동문선배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땀흘리며 조사를 이끈 각 반장과 조사 반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마을개황

〈목 차〉

- | | |
|------------|----------|
| I. 자연환경 | IV. 산업환경 |
| II. 역사적 배경 | V. 세시풍속 |
| III. 인문환경 | |

I. 자연환경

종달리는 제주시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도 취락형성의 일반적 경향에 따라 형성된 마을이다. 행정구역상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로 되어 있으며 여기 종달리를 마지막으로 북제주군의 경계가 마감되고 있다.

이 마을은 북위 33°29′ 동경 126°54′에 위치하면서 동쪽으로는 우도면, 서쪽으로는 하도리, 상도리, 세화리, 송당리, 남쪽으로는 성산읍 시흥리, 수산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마을의 상징인 해발 165m의 지미봉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과 동쪽은 높고, 남쪽과 서쪽은 낮은 제주도의 지세(地勢) 때문에 동부지역인 이 마을에는 내(川)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종달리는 구좌읍에서도 동부지역에 속하여 토지 형태는 준 평야이며 척박한 흑색사질토의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밭농사 위주로 발달하여 농업 소득면에서 구좌읍 외 타지역보다 낮은 실정이며, 자연발생적인 취락 구조 형성으로 문화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도내에서도 관광자원이 가장 부족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안도로의 개발로 '맛조개 잠이 체험어장'과 같은 여러 형태의 해안 관광지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다.

종달리의 기후는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 다변성 일기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강수량은 평균 1,693.5mm이고, 증발량은 780.3mm이다. 평균 습도는 78%인데 10월부터 3월까지의 건조기에 속하고, 4월에서 9월까지의 우기로 1년 강수량의

75%가 이 때 내린다.

마을의 용수 상황은 상수도의 경우 상도리에 있는 상수도 관정(管井)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하수도는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폐수의 경우 모두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농수의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특히 마을의 앞에 넓게 펼쳐 있는 논답의 물의 경우는 종달리 수리조합 내의 양수장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이 마을은 육지 1752.1ha에 바다(어장) 338.4ha로 총 2091.1ha의 면적을 보유하면서, 농업과 어업을 겸하여 하고 있다.

〈표1〉 면적

구분	육 지									바다	총계
	밭	논	대지	과수	초지	임야	모지	기타	소계	어장	
면적(ha)	472.1	41.4	16.2	10.4	692.0	377.0	22.6	121.0	1752.1	338.4	2091.1
백분비(%)	26.9	2.4	0.9	0.6	39.5	21.5	1.3	6.9	100	100	

〈1999. 5. 30 현재, 종달리사무소 제공〉

II. 역사적 배경

종달리는 과거 18세기말까지는 제주목 소속이 아닌 정의현 소속이었다. 19세기 중반까지 정의현 좌면에 소속되었다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제주군 좌면에 소속되었고 그 후에 구좌면을 거쳐 구좌읍에 소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그 마을의 설촌 유래와 지명 유래, 유물·유적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설촌유래

종달리에는 설촌에 관한 유래가 크게 세 가지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여러 가지 유래와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도 전설지』(제주도편, 1985)에 실려 있는 종달리의 설촌유래를 살펴보면, 최초의 종달리민은 좋은 토질과 「물징거」라는 생수가 흐르는 은월봉의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넓은 평지(넓은드리)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 후 고종달이가 이 섬에 와서 맨 먼저 「물징거」라는 물의 「혈」을 떠 버렸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자 물을 찾아 바다 쪽으로 내려온 것이 지금의 종달리 마을의 설촌 유래라고 한다.

또한 김윤생氏는 어릴 때 선민들에게 들었던 바를 이렇게 전한다. 오래 전에 현 용가봉과 손자봉 사이 황무동이라는 곳에서 여러 선민들이 농업을 주로 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살았는데, 이들은 「엉덕물」을 음료수로 이용했으며 「황모리」라는 절간도 세워 살다가 몇몇 선민들이 종달리경으로 이주해와 살면서 지금의 종달리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는 600여년 전 남평문씨가 「문쟁이 올래」에 터전을 잡고 거주했다는 설이다.

위의 사실들을 살펴볼 때 종달리의 설촌은 오래 전에 은월봉을 중심으로 <넓은 드리>·<황무동> 등의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선민들을 근거로 그들 중 생활에 불편을 느낀 선민들이 <안카름>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할머니당이 있던 자리 : 현 종달초등학교>

2. 지명유래

종달리가 지금의 이름「종달(終達)」로 불리게 된 데에는 여러 유래가 전해진다. 먼저 『제주민속총서(7)』의 '남국의 지명유래' (진성기著)에서 살펴보면 종달리의 지명유래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종달리의 위치가 이조시대 제주목(濟州牧)의 마침이란 뜻에서 지리적 또는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란 데서 「종달리」라 호칭되었다 한다.

또한 한글학회의 지명총람(1894)에서는 종처럼 생긴 산(지미봉) 밑이 되므로 「종달」이라 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종달리」라 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김영돈의 탐라문화총서(1985)에 나타난 「고종달(Ⅱ)」 전설에 미루어 볼 때 이 마을은 오래 전부터 마을의 명칭이 「종달」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다가 제주도가 태종 16년(1416년) 지방 인구가 증가되고 처리 사무가 불어 정의와 대정 2현을 신설할 때 종달리는 '제주목의 끝마을, 즉 마지막 마을'로 '종달'이라 명명했다고 추측되어진다.

그러나 종달리 지명유래에 대한 내용으로 최봉래氏는 그 지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종달리 '안총다리' 경에 위치한 지미봉은 짐승의 꼬리와 비슷하고 이것이 바다 쪽으로 돌출하고 있으므로 마을 이름도 이것과 관련해서 종달리라 했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종달리란 지명은 마을의 위치, 주변 환경물과의 조화, 마을의 모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승민들이 가장 유력하다는 설은 지역의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종달리라 불린 것이라고 보는 설이다. 하지만 다른 설들도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

3. 유물 및 유적지

종달리에는 초기 철기시대에서 탐라 전기 시대쯤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산포지가 있다. 이 유물산포지는 해발 165.3m 지미봉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안에는 1.2km 내륙으로 들어와 해발 10~15m 평탄대지를 이룬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에는 2군데 패총구역과 주변의 유물산포지가 있는데, 그 중 종달리

1) 안총다리 : 종달리 안쪽을 지칭함.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1708번지와, 125번지가 패총구역을 감싸고 있는 유물산포지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확인된 유물은 제주도 탐라시대 전기를 대표하는 경질무문토기편 및 각종 석기류, 갈색·회색·회청색타날문토기편 등의 토기와 돌도끼, 대패, 공이, 흙돌, 갈돌, 갈판, 솥돌, 석촉 등인데 특히 주목되는 토기는 말기형 점토대 토기로, 늑도(勒島)와 군곡리 패총에서 말기단계의 점토대 토기로 관찰되어 지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말기형태의 점토대 토기들은 한반도 동일 시기 유적과 비교해 볼 때 기원전 1세기경의 유물로 파악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이 유적지는 그 발굴작업이 모두 끝나 다시 흙을 덮어놓은 상태로 직접 그 유적의 형태를 볼 수는 없지만, 이 유물산포지의 발견은 현 종달리의 자리에 얼마나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4. 염전

『한국수산지』제3집(1910)에 의하면 이조 중엽 1573년 강려(姜侶) 목사가 종달리 해안 모래관을 염전 적지로 지목하고 종달리 유지를 육지부로 파견해서 제염술을 전수하게 하여 제염을 장려한 것이 제주도 제염의 효시라고 한다. 이 마을에서 생산되던 소금은 그 품질이 좋고 공급 또한 차질 없이 잘 이루어져 '소금 하면 종달, 종달하면 소금'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마을의 대표 생산물이 되었다. 현재는 개간되어 논으로 사용되어져 그 형태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영향력은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종달리 소금의 제염과정과 제염기구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판매 방법과 염전의 관리, 생산·판매 시기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제염 과정

종달리의 소금은 천일염이 아니고 모래에 바닷물을 뿌려 <근>이 핀 것을 녹여 솥에다 넣고 불을 때어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맨 처음 <산태>로 모래를 실어다가 모래밭에 골고루 뿌려 <나무삽>과 <모살부지대이>로 잘 널어 놓은 다음 바닷물을 <물지게>로 길어다가 그 모래 위에 골고루 뿌린다.

다음 날 햇빛을 받으면 모래 위에 뿌린 바닷물이 증발하여 하얗게 <근>이 피

2) 근 : 일명 소금꽃이라 할 만한 것이다. 수분이 증발하면서 모래와 모래 사이에 하얀 성애처럼 소금꽃이 피어난 것을 말한다.

는데, 이 <근>이 편 모래를 <서래>로 갈아 덩어리들을 푼 다음 다시 바닷물을 뿌려 햇빛을 쬐인다. 이렇게 3일을 반복하여 생긴 <근>이 편 모래를 다시 <서래>로 갈고 <근대>로 한 <산태>씩 모아 <모살눌터>에 옮긴 후에 <느릅지>를 덮어두고 다시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쌓아둔 이 모래들을 사리 때 <서술>이란 기구에 넣어 바닷물을 붓고 모래에 묻은 <근>을 녹여 모래와 <근물>로 구분을 하고, 이렇게 받아낸 <근물>에 밥알을 띄워 염도를 측정한다. 이 때 처음 녹인 물을 <근물>, 두 번째 녹인 물을 <모듬물>이라 하여 따로 보관한다.

이렇게 녹여진 <근물>은 <가망터집>의 나무통으로 옮겨지고 <근물>과 <모듬물>이 잘 가라앉으면 실질적인 소금 만들기에 들어간다. <가매>에 <모듬물>을 먼저 넣고 끓이다가 소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다시 <근물>을 3~4회 정도 부어 10~12시간 정도 달여 소금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중탱이> 위에 <구덕>을 놓고 소금을 삼으로 떠서 넣어 밑으로 물이 빠지게 한다. 이 때 받아지는 물은 <춘물>이라 하며 두부공장에 팔기도 한다.

2) 제염 기구

- ① 산태 : 모래를 실어 나르는 기구. 1.5m의 긴 막대기 두 개를 평행으로 놓고 소나무로 연결하여 대를 엮어 짜고 위에 다시 새를 엮어 짜서 만들었다.
 - ② 나무삼 : 모래를 뿌리는 삼. 참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 ③ 모살부지대이 : 모래 덩어리를 부수는 막대기.
 - ④ 물지게 : 바닷물을 나르는 지게. 물통은 함석이나 나무로 되어 있다.
 - ⑤ 서래 : 모래밭을 긁는 기구. 통나무에 촘촘한 발이 일직선으로 박혀 있고, 통나무의 중간에는 긴 자루가 달려 있다.
 - ⑥ 근대 : 모래를 긁어모으는 기구. 평평하고 조금 두터운 판자에 긴 자루가 박혀 있다.
 - ⑦ 느릅지(느래미) :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덮는 기구. 띠를 엮어 만들었다.
 - ⑧ 가망터집(가망집) : 소금을 굽거나 <근물>을 보관하는 집.
 - ⑨ 가매 : 소금을 굽는 숯. 무쇠 판의 가장자리를 잘라 접어 올린 형태. 사이의 새는 부분은 소금 <근>이나 송진으로 막아 사용함.
- ※ 가매덕 : 가매숯을 엮어 넣는 덕.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⑩ 중쟁이 : 가마의 소금을 건져 물기를 빼기 위해 나무로 만든 그릇. 통나무를 파서 만듦.

⑪ 구덕 : 구워진 소금을 담은 그릇. 대나무를 엮어서 만듦. 10~15말 들이가 있음.

3) 판매 방법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금은 육지부에 나가서 판매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제주도의 마을이나 오일장을 돌면서 필요한 생활용품과 물물교환 식의 판매를 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이 없을 때는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식량, 생활비, 자녀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은 겨우 식생활을 이어갈 정도의 빠듯한 정도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해서 '소금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소금의 운반은 가까운 곳은 소나 말을 이용하고, 거리가 먼 곳은 뚝단배를 이용해 운반했다.

4) 염전의 소유와 가마의 운영

염전의 소유 경계는 돌로 표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에 돌이 흘러가 그 경계를 알 수 없게 되면 염전의 소유권 싸움이 나기도 했다고 한다. 염전의 크기는 보통 가구당 200평 정도인데 크게 하는 집은 400~500평 정도로 하기도 했다고 한다. 소금의 생산은 가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마는 보통 10사람이 한 조로 운영하는데 돌아가면서 그 가마를 사용했다. 독(獨)가마를 한 집도 있었고, 가마를 대여하기도 했는데 가마를 대여할 경우는 소금 수입의 50%를 대여세로 냈다.

5) 소금의 생산과 판매시기

소금의 생산과 판매는 주로 3~4월에 생산하고 5~6월에 판매, 7~8월에 생산하고 9~10월에 판매, 11~12월에 생산하고 1~2월에 판매하는 1년 3주기의 생산·판매를 하였으며 판매는 보통 10~15일 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소금들은 마을의 주된 소득원으로 자리잡았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염전은 당시 외지인들을 마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현재 종달리의 주민들 중 상당수가 토박이가 아닌 외지인들이라고 마을 주민들은 전한다.

5. 마을의 유물, 유적 소장물(所藏物)

종달리에는 그 마을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장물(所藏物)들이 여럿 있다. 이 소장물(所藏物)들은 대부분 현재에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들로 그 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많다. 하지만 종달리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 이 소장물(所藏物)들은 그 의미가 깊다. 여기에서는 그 소장물(所藏物)들을 하나 하나 살펴 이 마을의 역사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을의 소장물(所藏物)들 중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제주도 기념물 제23-16호로 지정되어 있는 종달 연대이다. 이 연대는 불빛이 잘 보이지 않는 낮에 사용되던 것으로 연기를 이용해 서로 통신을 주고 받았던 군사 시설이다. 남쪽으로 오소포 연대, 북쪽으로 입두연대와 연락을 취했었던 것으로 지미봉 북동쪽 해안 가에 위치하고 있다. 수산진(水山鎭)에 소속되었던 연대로서, 지금도 그 축조 방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석재들이 남아 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보았던 종달 연대와 그 용도가 같았던 지미 봉수이다. 이 봉수는 종달 연대와와는 반대로 밤에 사용되던 것으로 횃불을 이용해 통신을 주고 받았다. 구좌읍 종달리 북쪽 해안에 접한 해발 165m의 지미봉 정상에 있었으며 이 봉수 역시 수산진에 소속되어 있었다. 주소는 종달리 산 1번지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한경면 두모리를 내리라고 하고 이곳을 ‘땅 끝’이라고 했었다. 봉수대 남동쪽으로는 별방진,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독자봉(獨子峰)이 위치한다. 지미 봉수는 남동쪽의 성산 봉수, 북서쪽의 왕가봉수와 서로 연락을 취했었다.

다음으로는 종달리 서쪽 일주도로변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효자비이다. 이 비석은 1909년 겨울에 세워진 것으로 비석의 규모는 너비 23cm, 높이 57cm, 두께 13cm이다. 내용은 “효자 이영조가 아프신 노모를 위해 손가락의 피를 내어 이를 마시게 하자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효행을 면·동(面·洞)에서 철종에게 하소연해 포상을 받자 이를 기리기 위해 효자비를 세운다”고 그 내용이 비석 뒷면에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엽전을 개간하여 만든 논답이다. 이 논답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1957년 제주도의회 의장인 김도준이 마을 앞 엽전으로 이용되던 지역을 매립하고 논을 만들면 굉장한 이익이 농민에게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돌아갈 것이라 믿고 동부 수리조합을 창립하여 만 3년 만에 32ha의 간척지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그 후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폐허상태로 있다가 1968년 보릿고개가 심해지자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배려와 마을 주민들의 성원으로 본격적인 개담 사업이 조성되어 1969년 준공식겸 권농일 행사를 가지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논답의 정면에 있는 비석거리에는 당시 이 개담 사업에 참여했던 구자춘 당시 제주도지사와 김영화 당시 복제주군수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이 논답은 마을주민 총 484세대 중 105세대가 소유하고 있으며 수입을 위한 재배가 아닌 자급자족의 형태로 재배되고 있다.

벼농사의 순서는 양력을 기준으로 4월 30일에서 5월 10일 파종을 하고 현충일을 전후하여 6월 20일까지 모내기를 끝내며, 심어서 일주일 이내에 제초제를 뿌린다. 그 후 10월 초순쯤에 벼가 익으면 수확을 한다. 논답의 농사는 일년 일모작인데 그 이유는 물이 간수여서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은 재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Ⅲ. 인문환경

종달리는 동동, 동중동, 중동, 전수동, 서동 이렇게 다섯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마을의 1999년 5월 30일 현재 인구를 살펴보면 총 484세대, 1526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중 남자 인구는 753명이고, 여자 인구는 773명으로 성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2〉 종달리 각 동별 인구

(단위 : 명, 가구)

	동 동	동 중 동	중 동	전 수 동	서 동	계
남	155	206	148	142	104	775
여	152	201	191	136	128	808
가구수	103	105	100	84	73	465

〈1999. 5. 30 현재, 종달리사무소 제공〉

마을 자생단체로는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각기 분야와 연령층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활동 경비는 각 단체별 활동 수익

금이나 국가 보조금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이들 단체의 활동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회는 7년전에 결성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만 가입할 수 있다. 정해진 회칙은 없으며 읍에서 내려오는 노인강령을 기본으로 이끌어져 간다. 노인회의 활동은 매월 1일에 행하여지는 교통정리와 쓰레기 줍기가 있으며, 열흘에 한 번씩 한 달에 세 번 구좌읍에서 개최하는 노인대학에 참가한다. 농한기 때에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모여 게이트 볼 등의 운동을 즐기기도 하며, 그 외의 대부분 행사는 주최보다는 참여 위주로 행하여진다. 이들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강제는 없으며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모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노인회 회원 수는 할아버지 48명과 할머니 80명 총 128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원들의 연령층은 70대가 단연 많다. 임원은 회장-부회장-총무-감사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임기는 3년이다.

다음으로 종달리 청년회는 68년에 발족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활동하는 회원 수는 마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남성들로 총 153명이 활동하고 있다. 청년회는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임원이 상당히 많은데, 청년회의 임원은 총 32명으로 전체의 약1/5에 해당하는 수로서 청년회의 대부분의 활동은 이들 임원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청년회에서 행하는 활동을 보면 먼저 종달리 전화번호부를 4년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으며, 체험어장의 관리, 여름 모기 방역사업, 해안가 청소, 기일 보조금 관리 등을 주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부녀회와 연합하여 경로잔치, 마을 체육대회 개최, 재활용품 모으기(청년회는 고철만 수집) 등도 하며, 읍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따라 봉사활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마을 방범활동을 위한 방범대도 구성을 했지만 체험어장의 일과, 여러 가지 사업이 겹쳐 발대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종달리 부녀회는 언제 구성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회원은 현재 1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다. 종달리 부녀회의 회원 구성은 종달리에 시집와서 거주하는 65세 이하의 부녀자들이다. 이들 중에서 주 활동 층은 35~55세로서 40대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 부녀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2명, 총무, 감사, 각동 회장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녀회장은 2년제로서 재임이 가능하다.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부녀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마을 주민들의 시장 가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찹쌀, 쌀 등을 그리고 정월 때는 콩나물 같은 물품들을 사다가 판매하기도 하며, 일년에 2~3번씩 청년회와 연합으로 재활용품 모이기 운동(부녀회는 고철을 제외한 재활용품 수집)도 한다. 여기서 얻은 수익금은 각자 단체의 활동비에 사용된다. 또한 2년에 한 번씩 번갈아 경로잔치와 마을체육대회도 청년회와 연합으로 개최하며, 여름에는 리사무소를 지어 준 우회동씨의 후원으로 또한 번의 경로잔치를 연다. 겨울에는 불우이웃 돕기와 7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보며, 해안 경비초소에 김장김치를 담가주는 일도 한다. 그 외에 읍에서 주최하는 마을 꽃길 조성, 봉사활동, 총회 등에 참가한다.

자생단체 이외의 단체로는 어촌계와 흥농계가 있다. 이들 단체들은 반농반어의 종달리 산업구조 특성상 존재하는 단체들로 어촌계에서는 해녀 사업과 어업, 투석 사업 등을 관리하며, 흥농계에서는 마을 농사관련 사업 중 비료와 농기계, 농작물 판매 등을 관리하며 특히 마을 앞 염전의 수로관리 등 수리조합의 일까지 흥농계에서 모두 관리한다.

이러한 단체들 중 대표로 청년회의 규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종달리 청년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종달연합청년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단결과 협동심을 발휘하여 국가시책에 호응함은 물론 향토의 명예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치참여 금지) 본회는 제2조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일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종달리에 둔다.

제 2 장 회원의 구성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리거주 및 출신자로서 만 20세 이상 45세 미만 종달리 거주자로 한다.

제 3 장 운 영

제6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각종 봉사활동
- 2) 자체수익사업
- 3) 체육대회 개최
- 4) 각종 대회출전
- 5)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회원의 임무)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
회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8조 (부서와 명칭) 본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2) 직전회장
- 3) 상임부회장
- 4) 감사 2인
- 5) 부회장 2인
- 6) 총무, 기록, 사업, 홍보, 체육, 봉사, 사무국장, 사무차장
- 7) 구좌읍 연합청년회 임원
- 8) 운영위원 10명 이내
- 9) 고문 10명 이내
- 10) 역대회장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거직의 경우는 연
임할 수 없으며, 유고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을 재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세부사항은 임원선출
규정에 의한다. 단, 총무이하 각 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능 및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그 업무를 관장한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 2)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終遠里 學術調查報告

-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 5) 총무는 회무 일체를 관장한다.
- 6) 기록은 본회의 기록일체를 담당한다.
- 7) 사업은 제반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8) 체육은 본회의 체육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9) 홍보는 본회의 홍보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 10) 봉사는 본회의 봉사활동 일체를 담당한다.
- 11) 사무국장은 본회의 조직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 12)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관장한다.
- 13) 운영위원은 회무운영에 관하여 임원과 같은 자격으로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14) 고문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할 수 있다.
- 15) 역대회장은 본회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6)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총 회

제1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3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하며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가 요구할 때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총회소집은 개회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과 시, 장소를 종달리 지정 벽보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 시는 상임부 회장이 대행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임원선 임규정의 제정 및 변경
- 3) 예산, 결산 안의 승인
- 4) 선거직 임원의 선출과 해임
- 5) 본회의 해산과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분방법 결정
- 6)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특별의결)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재적 회원 3/2이상 출석과 3/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선거직 임원의 해임
- 2) 본회의 해산

제20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의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1조 (이사회 구성)

제1항 :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1) 회장 2) 직전회장 3) 상임부회장
- 4) 부회장 5) 각부 이사 6) 운영위원 7) 읍 연합 청년회임원

제2항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 소집 및 의장)

제1항 :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때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제2항 :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이사회 의결)

제1항 :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이사회 의결사항)

제1항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3) 정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세칙, 내규의 제정 및 변경
- 4)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 종료 후 지체없이 의사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6조 (수지)

제1항 : 총회의 각종사업 수익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제27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관 리

제28조 (정관 등의 비치) 회장은 정관 및 재규정과 회원명부 그리고 총회, 이사회 의사록을 항상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 (보고서 제출)

제1항 :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 20일전까지 회장 재임 사업 년도에 대한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한다.

- 1) 사업 보고서
- 2) 재무 보고서
- 3) 기타 증빙서류

제2항 : 전항에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감사는 엄정하게 감사를 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3항 : 회장은 전항의 의견서가 첨부된 전 제1항의 서류를 당해 정기총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0조 (잔여자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될 경우 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종달리에 귀속한다.

제31조 (규정, 세칙 등)

제1항 : 본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본 정과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규정, 세칙, 내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항 : 본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칙 제10조에 의한 선거직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본회의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 (구성)

1.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위원은 본 이사회에서 3명을 임명한다.
2. 임기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위원당이 유고 시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제4조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사무를 관장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결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투표권자의 확정
3. 선거운동의 규제
4. 투, 개표의 관리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5. 당선자 확정보고

제6조 (선거권)

1. 후보등록마감일 현재 종달리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제7조 (피선거권의 자격) 본회 이사급 이상 임원을 1회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제8조 (입후보 등록) 선거직 임원 입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사항의 등록을 필해야 한다. 단, 입후보등록금은 당.락에 관계 없이 환불하지 않는다.

1. 입후보 등록금 및 신청서

회장 등록금: 300,000원

상임 부회장: 100,000원

부회장: 50,000원

2. 입후보자 이력서

3. 명함판 사진 2매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입후보자 소견서 1통

제9조 (등록일정)

1. 입후보자 등록은 총회 10일전부터 5일전 17:00까지로 한다.

2. 입후보 마감일 까지 회장 입후보자가 없거나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 등 사유가 발생하여 후보자가 공석이 되었을 때는 이사회가 각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이사회에의 추천을 받은 자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투표와 개표)

1. 투표와 개표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2.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3. 투. 개표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당선자 결정)

1.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확정한다.

2. 다수 득표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동점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 (당선자 발표)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장에
에게 통보하고 당선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복제주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종달리는 성산읍과 구좌읍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달리는 구좌읍이면서도 구좌읍의 중심지와는 거리가 멀어 그다지 좋은 생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좌읍 지역에는 고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초등학교 7개의 교육시설이 있고 4개의 보건소 및 의원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은 대부분 세화리를 중심으로 자리잡아 있다. 주요 관청이 모두 세화리에 밀집되어 있고, 상권 또한 세화리를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어 종달리 주민들은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생활에 필요한 주요 필수품을 사기 위해 다른 지역(세화리 쪽)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교통편이 많이 발달되고 세대 당 자동차 보유율(총 386대)도 높아져서 종달리 밖으로 나가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다.

종달리에는 교육시설이 종달초등학교밖에 없다. 과거에는 몇몇 서당이 있어 문화 및 유학 진흥에 이바지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모두 없어지고 종달초등학교가 종달리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남아 있다. 종달초등학교는 1946년 12월 9일에 개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1999년 현재 6학급에 74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현재 종달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다른 학교와 통폐합을 고려 중인데, 마을에서는 이 학교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표3〉 연도별 재적 현황

(단위 : 명)

학년도	학급수	재 적 상 황							졸 업 생			진학 자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남	여	계	
1948	3	42	54	51				147				
1950	5	30	34	42	54	51		216				
1960	6	43	50	32	23	31	23	202	18	5	23	
1970	9	92	68	88	73	87	62	473	29	33	62	36
1980	9	53	71	70	89	60	56	399	30	26	56	54
1990	6	21	25	37	31	34	29	177	14	15	29	29
1999	6	13	10	12	11	17	11	74	10	6	16	16

〈1999. 7. 30 현재, 종달초등학교 제공〉

〈표4〉 종달초등학교 교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교 장	교 감	부 장	교 사	유 치 원	기 능 직	조 리 보조원	계
남	1	1	2			2		6
여				5	1		1	7
계	1	1	2	5	1	2	1	13

〈1999. 7. 30 현재, 종달초등학교 제공〉

IV. 산업환경

종달리는 농업분야에 있어서 전작위주로 발달하여 당근과 감자, 감귤이 주로 생산되는데 현재 종달리는 당근 작목반 10개와 감자 작목반 2개, 감귤 작목반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종달리는 자연발생적인 취락 구조 형성으로 문화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도내에서도 관광자원이 가장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체험 맛조개잡이 어장의 개발로 새로운 해안 관광지로 각광받기 시작하였으며, 신선하고 풍부한 해산물과 아름다운 해안도로 등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

먼저 마을의 어업현황을 살펴보면 종달리의 어업소득은 해녀사업과 어선업을 모두 포함하여 연간 10억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 어선업과 해녀사업의 소득 비율은 6 : 4로 아직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지만 현재 해녀의 연령층이 고령화 현상에 있어서 그 수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달

리에서 포획되는 주요 어종은 옥돔, 갈치, 한치, 소라 등이며 소라의 경우는 거의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그 외에 전북양식장에 전복의 종묘를 키워 납품하는 종묘 배양장도 보유하고 있다. 종달리는 현재 총 33척의 동력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촌계 총 조합원수 310명(남:51, 여:259-여자 중 127은 잠수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 90%가 농사와 겸업을 하고 있으며, 7척의 어선만이 전업으로 어업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종달리의 농업현황을 살펴보면 종달리는 전국 점유율 40%, 도내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산물인 당근재배가 관내 농업인들의 생명산업으로 자리잡아, 농가소득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감자, 감귤 등이 그 뒤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 축산업은 그 빈도가 미약하여 현재 말 54두, 오리 6수, 돼지 315두 등의 가축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달리의 주요 농산물 생산과 농기구 보급, 지목별 토지의 현황 등을 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주요 농작물 생산 현황

작물명 구분	벼	보리	감자	당근	쪽파	마늘	유채	감귤	계
면적(ha)	30	37	77	295	3	3	26	39.6	510.6
단수(kg)	400	389	1,957	3,150	2,600	1,233	123	1,148	11,000
생산량 (ton)	120	144	1,507	9,293	78	37	32	455	11,666
수입 (천원)	157,410	129,000	1,130,250	4,088,920	124,800	83,250	26,496	483,513	6,223,639

〈1999. 7. 30 현재, 구좌읍사무소 제공〉

〈표6〉 농기구 보급 현황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휴대용예취기	동력분무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바인더	채소재배 용은풍기
보유 대수	159	22	9	98	102	1	0	17	2

〈1999. 7. 30 현재, 구좌읍사무소 제공〉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표7〉 지목별 토지 현황

구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필지	1,733	156	62	166	1,803	557	
면적(㎡)	4,197,095	356,743	211,616	2,025,775	8,441,439	194,736	
구분	학교용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필지	6	1,027		5	36	70	3
면적(㎡)	11,622	849,985		5,279	26,480	271,719	313
구분	공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계
필지		4		1,190	52		6,870
면적(㎡)		1,982		243,902	154,802		16,993,488

〈1999. 7. 30 현재, 구좌읍사무소 제공〉

V.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농사의 주기, 즉 절기에 따라 신앙과 생산의 공동체가 절후에 맞게 치르는 명절 의식, 놀이의 관습이다. 또한 세시풍속에는 생활과 의식이 응결되어 엮여지고 있어서 폭 넓은 생활문화가 반영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세시풍속이 종달리에서 어떻게 행하여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월

정월맹질 : 음력 정월 초하룻날 종달리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새 옷으로 갈아 입고 조상에게 제를 지낸다. 가정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설날 아침 새벽 3시경에 '떡국제'라고 하는 간단한 차례를 먼저 지낸 후에 날이 밝으면 다시 정식으로 명절 차례를 지낸다고 한다. 이는 염전이 있을 당시 외지인의 유입이 많으면서 마을에 흡수된 풍습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월 초하루 아침 한라산을 처음 볼 때 한리산이 잘 보이면 그 해 운수가 좋다고 믿고 있다. 명절 차례를 마치면 이웃을 돌면서 세배와 덕담을 주고 받는다.

방서 : 정월 대보름날은 '액막는 날'이라 하여 〈방서〉를 하는데 이 방서란 말은 〈방새 : 放邪〉라는 말로서 〈새(邪) : 放神〉을 쫓는다는 뜻이다. 한 가족이 제각기의 몫을 표시해서 한 시루에 같이 떡시루를 찌서 떡이 선 사람은 운이

나쁜다 하여 그 떡을 먹지 않고 백지에 싸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 한복판에 가 던져 버린다. 그러면, 그 나쁜 액운이 조금이나마 면해진다고 믿고 있다.

허재비, 허우새비 : 정월 대보름 저녁에 허수아비(허재비)를 만들어 길가에 갖다 놓으면 이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것을 처음 본 사람이 허수아비를 만든 사람의 나쁜 운을 다 가져간다고 믿었다. 이것도 방서의 일종이다.

연방사 : 음력 정월 보름 저녁에 연에 액(厄)자와 생년월일을 써서 연을 공중에 날려 올리고 “나 액 날아가라” 하면서 연줄을 끊어 날린다. 이것도 방서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2월

영등제 : 영등할으방³⁾을 위한 제사를 말한다. 영등할으방은 1월 말일에 소섬(牛島)으로 들어와서 2월 1일에 한수리 영등당에 와서 제를 받고 그 후 3일간 섬을 일주하고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때 어부들은 해상의 안전을 비는 당굿을 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빨래를 하거나 지붕을 일면 집안에 벌레가 일고 곡식엔 흉년이 든다고 하여 금기하고 있다.

입춘 : 입춘 날에 남의 집에 찾아가면 그 집에는 그 해의 농사에 잡초(김)가 무성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날은 여인이 몸가짐에 조심한다. 또한, “새철 드는 날 반물치매 입은 예편을 보민 액운이 닥친다”고 하여 여인들의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 왔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새철 드는 날 상제 만나민 그 해 운이 대통한다”고 하여 상주를 만나면 기분 좋게 생각하기도 한다.

3월

묘제 : 삼월 삼짇날은 평소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5대 이상의 조상의 묘에 벌초를 하고, 제를 지낸다. 이를 묘제라 하며, 이와 방식은 같으나 10월에 하는 제를 시제라 한다.

3) 다른 지역에서는 영동할망을 위한 제사라 한다.

4월

청명 : 청명일에는 선묘를 단장하고 손보는 날로 관념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한식과 청명 양일에는 이 고장의 모든 신들이 하늘에 올라가니 평소에 신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일 보기를 꺼려 하던 일들을 처리해도 화를 안 입는다고 해서 선묘에 가 허물어진 묘를 손보는 풍속이 있다. 또한 이날의 날씨는 조금 어두워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날이 좀 어두워야 그 해 농작물에 풍년이 들고 너무 맑으면 농사가 좋지 않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5월

단오 : 음력 5월 5일은 단오 명절이라 해서 설, 한식, 추석과 더불어 4대 명절의 하나로 치고, 조상에 대한 명절 차례를 지내 왔는데, 이 날에는 보릿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부풀게 만든 빵의 일종인 <기주떡>과 <곤떡>, <새미떡> 등을 만들어 제를 지냈다. 하지만 오늘날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6월

갈증이 만들기 : 이것은 감이 빨강게 익기 전인 풋감 상태의 감을 이용해 감물을 들이기 때문에 6월에 치러진다. 갈증을 만드는 천은 미녕(무명)이라 하여 광목과 비슷하나 광목보다는 가격이 싼 것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제주산 무명을 주로 사용했으나 산업이 발달하면서 육지의 값이 싼 무명 천을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아쉽게도 이러한 풍습이 거의 사라지고 없다.

닭 먹는 날 : 해마다 음력으로 '유월 스무날'이 되면 무더운 여름 날씨를 잘 이겨내기 위해 집집마다 가족들이 모여 닭을 잡아먹었다. 이것은 몸을 보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옛날부터 삼복 날은 그냥 지나치고 유월 스무날 닭을 먹고 잃었던 원기를 회복한다.

7월

칠월칠석 : 이 날에는 한 가족이 마당에 오손도손 모여 앉아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찾아보는 풍습이 있다.

백중 : 이 날에는 되도록 밭에 일하러 가지 않고 바닷가로 모여들어 소라, 보말, 오분재기 등 많은 해산물들을 잡았고 시원한 <서느렁 물> 또는 바닷물에 목욕을 하여 몸의 열기를 빼면 '중기 같은 것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물을 찾

았다. 또한 이날에는 밭에 있는 호박을 때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호박이 잘 열지 않았을 경우, 호박 썩은 것을 삼으로 만든 막대기로 때리면 잘 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8월

소분 : 음력 8월 초하루가 되면 육지부에 나갔던 자손들도 모두 모여 조상들의 묘소에 찾아가 별초를 한다. 이날은 별초의 의미도 있지만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척들이 다시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며 어우러진다는 의미도 있다.

추석 : 이날의 과정은 <정월명절>과 비슷한데 다만 세배가 없음이 다르다. 동네에선 춤과 노래, 그리고 동대항 운동 경기도 벌이는데 아이들은 친구들과 때를 지어 지미봉 꼭대기에 올라가 넓다란 자연과 대화를 하면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밤이면 보름달을 맞이하여 미래를 설계하기도 한다.

출베기 : 이것은 풀들이 가장 무성한 8월에 행해진다. 소나 말을 키우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먹을 식량을 위해 출을 베는 것이다.

10월

지붕잇기 : 지붕 잇기는 12월쯤에 띠를 해서 가을 추수가 끝나면 한다. 별다른 풍습은 없으나 지붕 잇는 날을 고를 때, '불이 난다'고 하여 날 중에 화(火)일은 피한다.

11월

동짓날 : 11월은 '동짓달'이라 부르는 달이다. 이 달 중에서 초순(보름 이전)은 '애기동지'라 하여 죽을 쑤어 먹지 않고, 보름 후에야 죽을 쑤어 먹는다. 또한 양력 12월 22일경에 맞는 동짓날에는 죽을 쑤어 집안 구석구석에 숟가락으로 뿌리며 가정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한다. 그 후에는 뿌리고 남은 죽을 먹는데 이것은 남은 죽을 먹으면 그 해 감기를 면하게 된다는 믿음에서이다.

12월

선달 그믐 :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날은 일년 중에 있었던 거래 관계를 모두 끝맺게 된다. 새해 정초에는 빛 독촉을 못하는 것으로 관념시 되기 때문에 이날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진 빚을 모두 청산하려고 한다. 그리고는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편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연싸움 : 설달 보름부터 어린이들은 연을 만들어 날리는데 어떤 아이는 연줄에 사기 그릇이나 유리병 같은 것을 잘게 부순 가루를 입혀 연싸움을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연줄이 굵다 해도 <사기>를 올린 연줄을 당해 낼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기>를 올린 연줄이 뜨면 이 쪽에서는 지나가던 성인들까지도 이에 가담하여 응원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제기차기, 팽이치기, 팔방놀이 등 여러 가지 놀이를 즐겼다.

위에서 살펴본 세시풍속 외에도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풍속이 있다. 먼저 이사 풍습인데, 종달리에서 이사를 할 때는 집에서 사용하던 술 안에 요강단지를 넣어 먼저 이사갈 집의 부엌에 갖다 놓고 다른 이삿짐을 옮긴다. 그리고 이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집안에 소금을 뿌리고 처음 들고 왔던 술에 밥을 해서 식구들이 제일 처음 나눠 먹는다. 이렇게 하는 데는 나쁜 잡귀를 쫓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사 온 다음 날에는 아침밥을 해서 동네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이사는 보통 제주도 고유 이사 기간인 친구간에 행하여진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추렴풍습이다. 추렴이란 농·어촌에서 고기가 필요한 사람끼리 나누어 갖기 위하여 소나 돼지를 잡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추석절 전에 추렴이 이루어진다. 이 때에는 먼저 지원자들끼리 모여 인원이 채워지면 일정 기금을 내고 소나 돼지를 구하여 잡고 각자의 요구에 따라 고기를 나누어 가지게 된다.

방 언

〈목 차〉

I. 농 업	V. 주생활
II. 어 업	VI. 기 타
III. 의생활	VII. 지 명
IV. 식생활	

이번 방언 조사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전에 다른 지역에서 조사되었던 어휘를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어업과 농업 관련 어휘를 더욱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방언을 표제어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표준어를 뒤에 제시하였다.

I. 농 업

1. 곡류

(1) 나룩/나룩 - 벼 ※ 산두 - 밭벼¹⁾

(2) 녹되 - 녹두

옛날에 많이 갈아놨저.

(3) 콩 - 콩

① 보리콩 : 돌궤(돌멩이)로 갈아그냥 즈배기 같은 것도 많이 해나고. 한 각제기에 일곱 개쯤 영 들어가는 거. 퍼렁한 색깔. 솥앙도 먹고 밥에도 뉵먹고 방울은 훑나(크다). 색깔 시커멓흔 거.

② 잔콩 : 방울 땡글땡글흔 거.

③ 두불콩 : 빨간 것도 있고 얼룩얼룩흔 것도 있고.

1) 산두 : 표준어는 산도(山稻), 타지역에서는 산되라고 함.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 ④ 검은 둥비 : 시커멍흔 거. 솥앙 밥에 먹는 거.
- ⑤ 머드레콩 : 장 담그는 거(파란 머드레, 흰 머드레 : 조팃되 거)
- ⑥ 가마귀콩 : 볶앙(볶아서)도 먹고 솥앙도 먹고.
- ⑦ 팔월배 : 된장 담는 거. 콩나물 국에 최고.
- ⑧ 검은콩 ⑨ 준자리 * 둥비 - 동부

(4) 보리 - 보리

- ① 맥주보리 ② 솔보리 ③ 떡보리

(5) 꺾 - 깨 * 덧부지꺾

(6) 쫄 - 팔

- ① 능갱이 쫄 ② 춤쫄

(7) 서숙 - 조

- ① 모인조 ② 호린조 ③ 흰조

(8) 피 - 피

피쌀 해그냉 모인 밥 행 먹고 혼다. 거 헤영혼다(하얏다). 조 걸지 안혼다.
까락까락행.

(9) 모물/모말 - 메밀

- cf) 베개 속에 넣는 것 - 모물채

(10) 감저 - 고구마

(11) 쌀 - 쌀

(12) 보리쌀 - 보리쌀

- ① 골보리쌀 : 보리를 반으로 가른 것. ② 통보리쌀

(13) 좁쌀 - 좁쌀

2. 채소류

(1) 버섯- 버섯

- ① 뭇뭇버섯 : 샷갓매끄로 풀어지지가 안해. 희고 꼭대기는 고동색이라.

② 소낭버섯 : 못 먹어. 독 이신 거라. 소낭버섯 해대기네이. 이렇게 영
닥닥닥닥 조상 접시에 영 낱 놔두면이 푸리가 거기 아자.
푸리가 거기서 죽어. 게난 그게 조금 위험한 거. 붉은 색이
이서이. 짝 떼겨긴에 나무가 씨워진 뚜껑이나 흰 비(빛깔)
가 하나토 어서.

③ 폭낭버섯 : 독 있는 거이. 진고동보다 좀 검은 색깔이 있지.

(2) 녹뒤늑물/녹뒤주름 - 숙주나물

(3) 지름늑물 - 유채

(4) 노랑늑물/갯늑물

알태기도 노랑해. 지름늑물처럼 크면서도 잎사귀가 조금 탄나(달라). 지름
늑물은 이파리가 너풀너풀하고이. 그 노랑늑물 이파리는 조금 좀질아(작아).
노랑늑물 씨를 털어보난 노랑호영 노랑늑물이랜 호주. 갯늑물이 늙어서 한번
호고, 그 씨 떨어정 또 한번 호면 그게 막 세어져분 거 닳아. 독이 막 세영.
갯늑물씨는 털어보면 호꿈 좀지랑행 붉은 색깔나고이.

(5) 갯늑물

파란 갯늑물 잇고. 보라색 갯늑물 잇고. 보라색 갯늑물이 돈도 더 받아. 더
비싸. 지금 사는 것도. 짐치도 해 먹꼬. 갯김치 맛있주게. 배추김치 양념홀 적
에 그 보라색 갯늑물 이파릴 해당 고치 썰영 양념에 같이 호영 배춧 속들에
행먹으면 갯늑물 그 맛이 나.

(6) 동늑물

배추가 자라서 꽃피면은 꽃봉오리 몽글몽글 아지면 거는 다 버려동 짐치
호랜 호메. 거기 다 독이 있덴. 꺾을 때 똑똑 꺾이는 거 해야지. 꺾을 때 질
긴 게 꺾어지면 그게 질건 못 먹지. 게난 꺾을 때 똑똑 꺾어지는 거 해당 저
릴 적에 꽃봉오리만큼은 무지블렌 호는 거라. 뜯어내블랜. 지름늑물도 홀 때
뜯어블렌.

(7) 시금치 - 시금치

(8) 도라지 - 도라지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9) 던덕 - 더덕

(10) 토란/토란때 - 토란

흐나로 올라강 이파리 있주게, 졸랑흐게. 먹어. 거기다가 물 노민 물이 안 붙어. 툅툅툅툅 흐니까. 가만히 흐면 토룩흐게 떨어지거든. 게난 옛날 할머니 말씀이 우리 목숨이 토란 잎에 물같다. 다니당 툅 떨어지면 죽는 게 그거 같다. 대도 먹고, 빨리도 먹고, 고사리굴이 갈릿갈릿허면 맛 이서. 알이 감자ㄹ추록 막 많이 붙어. 막 베경 먹어사돼. 썰엉 반찬흐면 맛 이서.

(11) 신늑물 - 취나물

(12) 당근 - 당근

(13) 초마귀 - 열무

이파리만 해 먹는 거.

(14) 돌늑물

젤 처음 돌아날 때논이. 잎생기 이렇게 패기 붙으면서 거 흐끔 늑으면 노란꽃 피. 무청흐나 붙침치흐면 맛있주게.

(15) 콩풀

(16) 새우리 - 부추

(17) 대축 - 수수

① 강낭대축 : 옥수수 난 거.

② 사당대축 : 나무로 씹엉 먹으면 단물 나는 거이. 키가 퉁 막 위로 올라가.

③ 누렁대축 : 빗자루 만드는 것.

* 대축부레기 - 옥수수

(18) 고치 - 고추

* 풀고치

(19) 양애 - 양애 : 뒤언네 가기넨 양애 뜯엉 오라.

(20) 유잎 - 깻잎, 들깨잎

쌈만 싸서만 먹어나서.

(21) 마농 - 마늘

- ① 콥대사니 : 찌정 반찬에 낱 먹는 거.
- ② 패마농 - 쪽파
- ③ 풀마농 : 콥대사니가 풀인 때, 빨리 안 들었, 어릴 때 해 먹으면 그게 풀마농이주게.
- ④ 드릅마농 - 달래
- * 마농종 - 마농지시, 콥대사니지시

(22) 가자리

딱 가운데부터기네 막 가지 이렇게 났는다. 요가지 버더가다가 또 요래 이렇게 버더기네이. 가자리 이파리는 요 낭댕이는 하난디. 요렇게 세 개로 달려서 다른 부락은 안먹는디이. 박박 돌에 뭉키면 퍼런 물이 나와 그 물 대강 빼동 국 끓여 먹어.

(23) 난생이 - 냉이

(24) 감자줄/감자쫄거리 - 고구마 줄기

감자줄 버더가든 영 앞으로 버더가는 송에도 똑똑 끊어다그네. 그 너븐 이 파리는 때어둥 너무 데치지 안행 살짝 데쳐 먹으면 맛있고.

(25) 물웨 - 오이

물웨는 영 조금 족게 나왕 노랑호고이.

* 청웨 : 청웨는 노리질 안호여. 껍데기 좀 토실토실향면서 퍼렁훈 거 이서.

(26) 춤웨

- ① 호박춤웨 - 동글랑행이 베끼민 솔도이 팡팡안행 무썩무썩행이 맞인다.
- ② 청춤웨 - 퍼렁훈면서도 익지 않아.

(27) 싹늑물 : 밭에 강 파란꽃 피메, 뿌릴조차 캐다기네 국끓이른 싹쏘롱해.

(28) 무수/놈뻬 - 무

- ① 단지무수 ② 알타리무수
- ③ 빨간알타리 : 알타리무수면서도 밑에 빨간 거.
- ④ 봄무수 : 이파리 도든 머리에가 푸른 부분이 하나도 어서.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 무수잎생기 : 무수 위에 달린 이파리.

(29) 시레기 - 시래기

(30) 대파 - 대파

(31) 양파 - 양파

(32) 고사리

- ① 꿩고사리 : 모가지가 뱅뱅 웅크라정이네, 달뱅이처럼 되고, 그것이 풀어 지른 한 쪽으로 가는 잎싸리처럼 되고.
- ② 설덕고사리 : 설덕(숲 속 지핀디)에 들어가민 막 큰 거.
- ③ 백고사리 : 배짱한 동산에 피멍 많이 못 커. 세 가달로 피어나젠 해주.
- ④ 허공고사리 : 말만 허공고사리지 잘 먹진 안해. 어릴 땐 똑 꿩고사리처럼 나긴 하는데 먹진 안해.

(33) 숙/숙 - 쭈

(34) 민네기 - 미나리

(35) 들겍낭/들겍송에 - 두릅나무

몸뎡이에 까시가 돌아서 데우청도 먹고, 까시가 이서도 속에는 까시가 연해. 겨울엔 잎사귀가 어서. 봄에 나른 거 해당 먹으면 맛 이서.

(36) 가지 - 가지

- ① 붉은 가지 ② 파란 가지 : 파란 거는 몸뎡이가 살이 이서.

(37) 호박 - 호박

- ① 웨호박 : 둥글락허게 생기면서 짙은 초록색에, 배꼽이 툭 튀어난 거.
- ② ㄱ래호박 : 둥글락허게 납작헌 거.
- ③ 갑호박 : 갑이 어떻게 깊은지 칼질을 흐젠 흐면 못해. 퍼렁헌 건디이 익으면 붉은색 나와. 사이가 막 쭈 들어가. 퍼진듯행 밑엔 솔락허게 현이.

※ 갑 - 들어간 부분

- ④ ㄹ디호박 : ㄹ디에서 여러 패기대면서 마디에서 열아. 요새 호박은 줄 버덩가명 여는데이, 요건 딱 ㄹ디에서 열아.

(38) 콩지름 - 콩나물

밑에 새를 꼴아이, 맨물 낱 못 키와.

(39) 피대기

김치로 행으네 먹었주.

(40) 뭇쓸/뭇썰

밭디 이신 검질이거든. 뿌리먹는 거. 마늘 곶이 생긴 거.

3. 농기구

(1) 방에 - 방아

※ 돌혹 : 가운데 홈파진 부분. 나무에 돌 행으내 혹 박은 거에 드러간 거.

(2) 선장

(3) 차경

(4) 산태

거름 낼 때, 두 사람이 앞뒤에서 들고 가는 것.

(5) 소스렁 - 쇠스랑

소 거름 낼 때, 쓰는 것.

(6) 도깨 - 도리깨

① 어서 : 꼬닥한 나무른 뉘. 종나무가 곧거든. 옛날은 소가죽, 말가죽으로 해서 하는데 감기른 질겨.

② 도깨아덜 : 까는 나무에서 한 흔발짜리른 되어. 율누리남이고 두 가달이라.

③ 도깨톨래 : 어시와 도깨아덜을 잇는 것.

(7) 군대 - 고무래

(8) 멍석 - 멍석

① ㄱ래방석 : 동그란 것. ② 멍석

ㄱ래낱 곶고 조그만 흔거 얼마 하지 안은 거. 예를 들어서 관대로 하나두 개 되는 거. 조그만 흔 거. 넓게 땡근 거고 크게 너는 건 멍석에 꿰아서 널고.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9) 갈래죽 - 삽

(10) 썩이 - 광이

① 썩썩이 ② 썩이

땅 지프다가 암석 박히면 빼주만은 썩썩이인 파내지 못하거든. 썩썩이인 힘이 없으니까. 썩썩이는 땅 올림적에.

(11) 항 - 항아리

① 대정항 :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럿이라. ② 오가리

(12) 두지 - 뒤주

큰 남(나무)으로 만든거.

(13) 골채/궤채 - 삼태기

대나무, 정나무로 만들.

연탄재도 담아 갈 수 있고 모살도 담아갈 수 있고 자갈도 담아갈 수 있고. 옛날엔 대로 맹근디 지금은 대로도 맹글수 있고 또 정당으로 맹글수 이서. 정당은 들녘에 나는거 이서. 대보담 낫지. 하도 질겨.

(14) 낫

서서 풀 같은 것을 베는 자루가 긴 연장.

(15) 골각지 - 호미

(16) 체 - 체

① 푸는 체 - 키 ② 체

③ 얼맹이 : 얼맹이는 굵기(구멍)가 크지. 얼맹인 곡식들 거친 거 골리는 게 얼맹이고 방앗간에 가서 ㄱ루 해서 홀 땀 체로 하거든.

* ㄱ루체 【小】 → 거름체 → 대체 → 얼맹이 【大】

(17) 맥/거름차부지

거름 낼 때 쓰는 것.

맥에 그만큼 현 쓸개그릇을 짜. 그것에 담아서 양옆이 툭툭 담아서 매.

(18) 보리클 - 출태

보리 훑트는 거.

(19) 박 - 바가지

- ① 솔박 : 나무를 둥그스럼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 비슷한 그릇.
- ② 대왓세기 - 식되 : 잠안에 밥홀 적에 쌀 거릴 때.
- ③ 작박 : 아주 조그만 솔박.
- ④ 물박 : 작박은 술디 물 굽을 때, 물박은 항에 물 뜰적에, 종자는 골은디 쓰는 것만 뜨나주.
- ⑤ 함박 : 옛날 머슴들 밥 거려 주는 거.
- ⑥ 두렁박세기/콧 : 그걸로 물 거령도 먹고, 그걸 땅으내 술디 삶으나 널 영으넨 그저 몬딱 몰른 다음에 톱으로 썰영으내.

(20) 호랭이

집줄을 놓을 때 줄을 뒤트는 기구. 초가집 만들 때.

(21) 뒤치기(디치기)

집줄을 놓을 때 뒤에서 감기게 하는 기구.

(22) 구불탱이

여긴 그것이 놓는 사람들만 낡 땡기지 안 논 사람들은 안 낡 땡기주.

(23) 마께 - 방망이

- ① 물마께 : 빨래할 때 쓰는 방망이.
- ② 다듬이마께 : 안반 위에서 두드리는 방망이.
- ③ 던드렁마께/덩드렁마께 : 짚을 두드리는 방망이.

(24) 메 - 큰 망치

- ① 큰 메
- ② 작은 메 : 메는 쇠가 커, 옛날 사람덜도 죽으믄 영장하게 되믄 개판(관우에 덮는 남, 뚜꺼운 거 있주.) 맨들 적에 쓰는 거.

(25) 대패 - 대패

(26) 썰기

돌 깎을 때 박는거.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27) 공배

밭을 갈아서 병뎡이가 진 것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 질긴 나무면 되어. 소
 낭도 되고 나무면 다 뒤.

(28) 따비 - 따비

남 따빈데 즈락을 두 개해서 쇠로 박아. 발판을 만들고. 씨는 판 위에 뿌
 려. 골드렌 안 뿌리고. 골에 가도 자라지 못하여. 깨는깨는 하여. 가달은 두
 개.

(29) 씨맹탱이

씨 뿌릴 때 씨를 담아 두는 것.

짚으로 맨들어서. 양쪽 끈 달아매영 씨 뿌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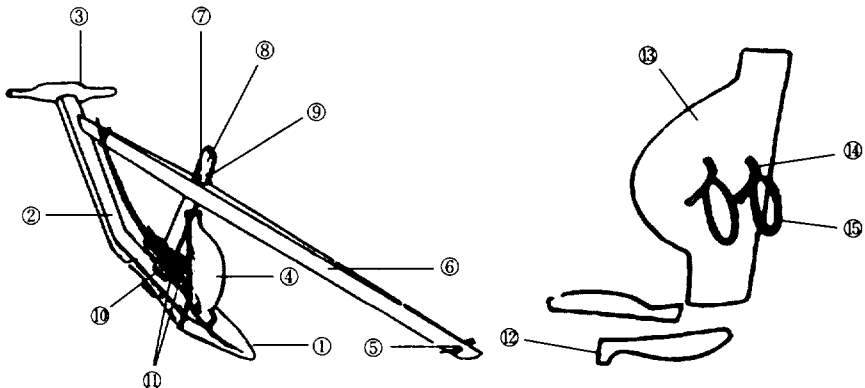
(30) 남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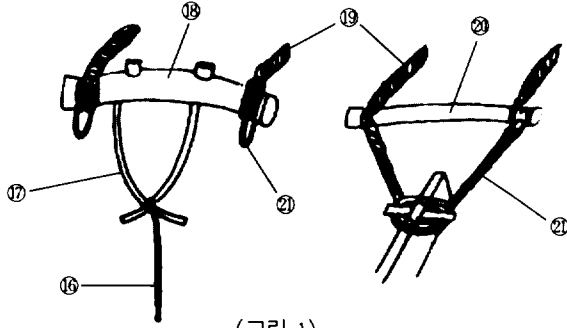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면서 박아 붙여서 만들어 밭을
 밟는 데 쓰이는 기구. 돌로도 만들고 남으로도 만들고.

(31) 푸재기 - 선비

곡식 뿌린 후 긁는 것.

(32) 잠데 - 쟁기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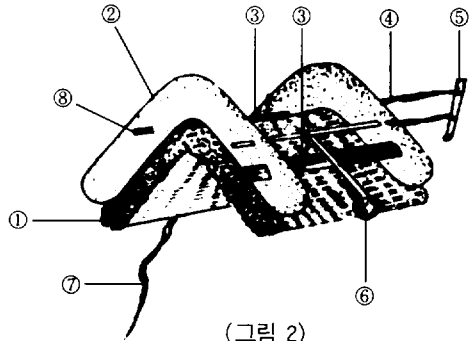


(그림 1)

- ① 보섭-보습(쟁기의 맨 밑에 붙어 있는 것으로 땅을 파는 날) ② 몽클
- ③ 양젯머리/양지머리 ④ 벧-벧 ⑤ 달뱅이뿔 ⑥ 성에 ⑦ 설짚썰기
- ⑧ 설짚 ⑨ 설짚코 ⑩ 벧받침 ⑪ 벧바드랭이 ⑫ 벧탈래 ⑬ 벧앞 ⑭ 벧친
- ⑮ 벧코 ⑯ 친 ⑰ 쉼집게/줍게 : 쉼 영 모가지 묶으는 거
- ⑱ 쉼명에 : 쉼 영 목에 거는 거 ⑲ 한줄 : 멍에에 묶어그냥 줄 훑트는 거
- ⑳ 벌레줄 ㉑ 오리목 : 한 줄 뒤에 묶으는 거

(33) 질매 - 길마(그림 2)

맹탕이 두 개를 걸 수 있는 것으로 소 등에 얹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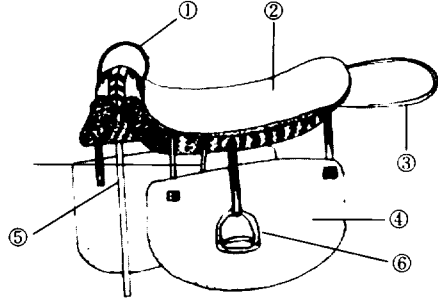


- ① 도곰 ② 앞가지
- ③ 도곰발톱 ④ 고들개친
- ⑤ 고들개 ⑥ 오랑코
- ⑦ 오랑 ⑧ 쇠왕이

(그림 2)

(34) 안장 - 안장(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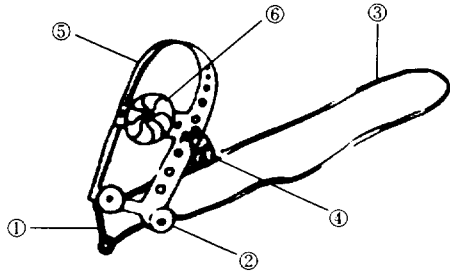
- ① 앞손잡이 ② 방석(안장)
- ③ 돌래친
- ④ 돌래 : 물이 뚝이 잘나거든.
뚝에 옷이 젖지 않게 흔거.
- ⑤ 여비끈 ⑥ 발걸이



(그림 3)

(35) 마음 - 굴레(그림 4)

- ① 자갈 ② 자갈코
- ③ 끄내기
- ④ 왕방울 : 물타그네 갈 때
달랑달랑 소리나민 사람
비켜줘
- ⑤ 무재미 ⑥ 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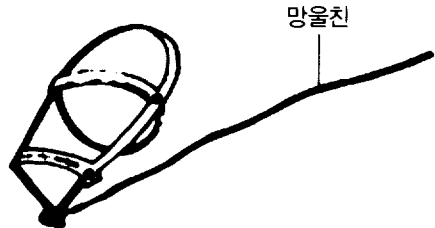


(그림 4)

(36) 망울 - 녹대(그림 5)

이거 석와불민 풀이나 출 못
먹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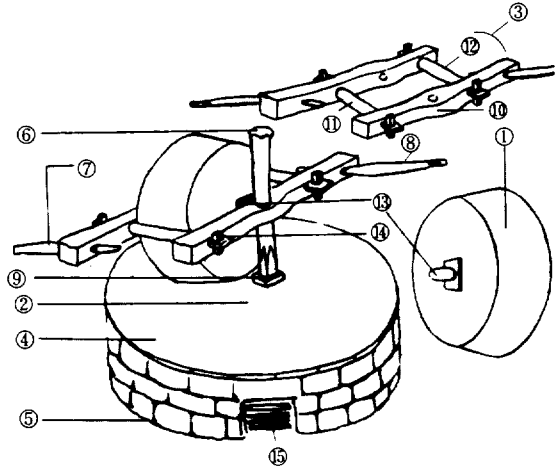
* 망울친



(그림 5)

(37) 마래 - 맏돌/연자매(그림 6)

- ① 마랫돌 ② 마래판
- ③ 마래틀 ④ 판대기 돌
- ⑤ 받침돌 ⑥ 언주목
- ⑦ 앞차경 ⑧ 뒷차경
- ⑨ 접시판 ⑩ 틀개
- ⑪ 앞쇠짱 ⑫ 뒷쇠짱
- ⑬ 접시 ⑭ 썰기
- ⑮ 공기통



II. 어업

1. 어류

(1) 코생이 - 놀래기

쏘롬흐게 생겨신디 다양한 색깔이라. 코생이나 술맹이나 얼추 같으고.

(2) 독두장개

몽땅흐 거. 몸이 새까맣흐고, 자리같이 생기고 사스미해 먹고.

(3) 어랭이 - 황놀래기

이쁘게 하얀 색깔도 있고, 붉은 색깔도 있고, 실무늬같이 이쁘지.

(4) 술맹이 - 용치놀래기

(5) 문저리

사스미로 썰 맛있는 건 문저리흐고, 독동양개흐고, 맥진다리. 맥진다리가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젤 맛있는 거. 모래바당에 하얗게 생긴 거. 몸뚱이 길게 생겼어.

(6) 멧슬장게/멧살장게

머리 크고 팔랭이 부분은 가늘고, 까맣고 삼각형같이 생긴 거. (머리뺀)

(7) 불락

빨간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우럭같이 생긴 거.

(8) 구릿 - 흑병에돔

돔같이 생긴 건데, 엉덩이 속에 살면서 커가는데, 비린내가 되게 나지. 횡감으로 맛있어. 새까만 거.

(9) 줄락 - 노래미

해초틈에서 살면서 먼 바당엔 없고 갯에.

(10) 맥진다리 - 어랭놀래기

어랭이나 슬맹이나 같은 바당에서 자라는 건데 맛이 좋지. (색깔은 어쩡허파?) 빨갛고.

(11) 섯 - 가자미

손바닥같이 납작한 거. 대이파리 같이 생긴 거. 밑바닥은 하얗고 우에는 모래색깔. 넙치종류라. 광어 있잖아이, 그 종류디 이거는 대이파리같이 생기고 광어는 더 넓잖아.

(12) 북바리 - 별우럭

붉은 점이 다 배겨져 있어.

(13) 너뱅이 - 넙치

(14) 다금바리 - 자바리

동글랑하지 않고 길지. 약간 가문색도 있고, 약간 붉은색도.

(15) 물툰 - 돌돔

새까만 거. 감은돔허고 비슴직해도 생김새가 약간 틀리다고, 좀 죽고. 통통하지 않아서 얇고.

(16) 고줄맹이 - 꼬치고기

숭어 닮은 놈이라. 몸피가 크지 않고 쭈름허고 길지.

(17) 숭어

몸피가 있지.

(18) 돔 - 돔

① 감은돔 - 감성돔 ② 붉은돔 ③ 자리 ④ 웅이 : 돔 종류에 들어가는데, 머리뺨에 흑이 있어. 갈색이라도 약간 불그롱흐지.

(19) 우럭 - 썸베이/붉감팽.

(20) 빗개 - 수염상어

물렀다 하면 생전 놓지를 안해. 소살 어실 땐 수건 영 물러노면 생전 놓지를 안해. 갓에 끌려와도 놓치를 안해.

(21) 가오리 - 가오리

(22) 방어

자리 하나 꿩기네 낚으는 거. 큰바당에서 낚으는 거.

(23) 한치 - 한치

(24) 삼치 - 삼치

(25) 각재기 - 전갱이

(26) 객주리/바당객주리 - 쥐치/말쥐치

이쪽에서 잡는 건 그자 객주리고, 바당에서 떼로 땡기는 거 잡는 건 바당 객주리. 쥐고기랜 흐는 거 있잖아. 이걸 좀 쭈름허고 아주 객주린 좀 방탕하고, 종류가 같아도.

(27) 족 - 새끼상어

(28) 망치 - 망사어/주벅치 : 막 존 괴기라.

(29) 박주리

까만 거. 막 쫓아 다니는 거.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30) 배운갱이

얼룩얼룩해 까만 줄 이서, 거는 안 먹어.

(31) 고질맹이 - 꼬치고기

(32) 조기

(33) 존다니 - 두릅상어

(34) 맥마구리

(35) 멍텅구리

고등어굴이 생겨도 방탕하여.

(36) 가수 - 가다랭이

고등어같이 생김.

(37) 솔치 - 쭈기미

(38) 멜 - 멀치

2. 해조류

(1) 등복 - 구슬모자반/툼니모자반/짜잎모자반

① 노랑쟁이 : 우이로 낭으네 막 질게 번어붙은 잠수 다리에 다 감아정 막 옛날엔 사람도 죽국 해놔주.

② 지등복 : 좀진좀진 몸 굴이 생긴 거.

③ 왕등복 : 버꿀래기 많이 나는 왕등복이라고. 왕등복은 버꿀래기가 막 이 만씩 하여.

(2) 퍼래 - 파래

① 참퍼래 - 홰파래 : 먹는거, 요즘은 초초초초 어서져 감서.

② 갯퍼래 - 잎파래 : 걸름하는 퍼래는 갯퍼래. 막 너블너블 혼 거.

(3) 가시리/카시리 - 가사리(우뭇가사리)

① 주넷가시리 : 짙짙짙 생김 거.

② 맛카시리 : 막 꼬불꼬불 막 그냥 좀진좀진. 머리 막 붉은 머리굴이 맛

카시리 있고.

③ 돌카시리

(4) 패

① 패 : 까릿까릿한 거는 패.

② 넙패 - 넓패 : 넙패는 입생기가 조금 돋았고.

(5) 한각 : 까릿까릿하면서도 몸 부분이 살이 좀 붙어.

(6) 몸 -모자반 : 이걸로 돈 하양 벌었져. 선돌 그믐날까지 우리가 즈물어서, 동짓돌에 너븐 뉘이 안열리고. 선돌 정월(음력2월)까지 해주게.

(7) 툄 - 툄

(8) 주뫼

요만한 게 나가믄 땀히믄 새파랑흔 게 그게 맛있주.

(9) 물췌기

눈에 잘 안 보여.

(10) 물망태

해파리 산 거. 발로 진진헌 걸로 췌믄 혼나. 이디 착 그서져. 바다에서 꿩 어경 도망치는 거.

(11) 물미지름 - 말미잘

영 모살에 강보믄 우가 탁 퍼진 거.

(12) 정각 - 청각

즈물아그네 물리는 거라.

① 돌청각 : 갓에 나. ② 물청각 : 깊은 딜로만 나매. 모솔바위 곶은 디나.

(13) 계수리

고기 낚으는 니곹(미끼)은 계수리.

(14) 메역 - 미역

① (下) 메역귀다리 → 메역줄거리/물가리 → 유예 (上) ② 메역새 - 미역쇠

(15) 넙메역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갈쿠리로 영 건진댄 혼 거. 깊은 디 나는 거 이서. 넓적해그네이 두 발, 세 발 되는 거.

(16) 우미 - 우뭇가사리

발래면(빨앙 너는 거) 흰 색깔이 나.

① 개우미 : 갓에 나는 거. 말리른 검어.

② 바당우미 : 말리른 별경혼 거. ③ 돌우미 ④ 촘우미

곳에서 맨 것은 개우미, 말리면 시커멓하고, 바당에겐 촘우미니까 말리면 뽀으고, 색깔이 붉게 나오고.

* 적 : 우뭇가사리에 달라붙는 이물질.

(17) 지꺼리/지커리

못먹나. 플로만 쓰는 거. 과랑혼 거. 물 바짝 쌀 때 나.

(18) 진도바리

(19) 멩지도박/명지도박

진진혼 거. 풀써기네 방에 브르는 거.

(20) 성묵

바다에서 이렇게 물 내려가민 물 잠박잠박혼디, 길게 이렇게 나서 좀진 거. 길게 이렇게 나가기네 일로 이만이 버드는 거 이서. 것도 해다가네 내당 말려기넨 풀도 호고 데우청 먹기도 호고.

(21) 지총

질게 나면서도 옆으로 존존존존 잎생기 영 나긴에 툄호고 영 섞어진 거. 먹진 안해. 흑시 해다가 발에 들연 걸름이나 호지 먹진 안해.

(22) 보릿대

실처럼 질게 나는 거. 가운데 풍선에 공기든 거만치 보이메.

(23) 감태

여름에 호는 거.

* 갯물 : 바닷물

(24) 고지기

가릿가릿한 거. 밑뿌리는 한뿌린다 막 이렇게 가릿가릿해진 거 이서.

(25) 도박/개도박

갓에 물웅탱이에 가릿가릿하게 돌아서. 잡으은 꺼칠고 누립스그럽히고 말리면 빨강게 색깔나.

(26) 독고달 - 갈래곰보

빨강하고 잘도 이빠. 돌 들이친 디는 나.

(27) 고장풀 - 가시우무

되게 이쁘매. 딱 요거 흔 패기 되그네 앞생귀 줌진거 많이 매달려서. 모솔 발에 난 것은 패기가 막 커.

(28) 늑기(처녀죽은 구신)

오백원짜리 돈만이 흔 건디 갓에는 파관색 존존흔 발이 도찌고 또시 먼 발로는 흰색 조금 나누게.

3. 패류 · 갑각류

(1) 조개도독놈

거명흔 건디 살이 많을 거 같아. 껍데기는 압셀압셀흔디 이. 조개를 잡아 먹어부러이. (먹어도 집니까?) 먹어도저. (큘니까?) 커라. (어떻 생겨수과?) 거 육지 우렁이렝흔 거 너네도 봐실 꺼라. 바로 그렇게 생겨서라.

(2) 쟁베름 - 애기삿갓조개

쟁베름은 조금 크고 옷부분이 검은 거고 이. 옷부분이 요렇게 가운데 뼈가 생기고. 돌에 강 딱 경흔 거 붙은 거 게.

(3) 땅개비

뼈가 없어. 민짜하게시리이. 조금 작기도 하고 이 우게 튀어나오지 안흔여. 조금 납작흔여.

(4) 벨쟁베름

벨같이 생긴 거 쪼끔흔 거 이서. 그건이 너무 작안 때당 먹지는 못해. 눈에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보이기만 하지. 벨골이 생긴 거 꼬장꼬장 돌에 영 붙어도 옷부분이 꼬장흔 거.

(5) 빗재기

큰 것은 쟁베름이고 작은 것은 빗재기엔 해주.

(6) 대우살

돌구멍에 딱 박아정 돌에 붙어 있는 거. 것도 솜양 빨아 먹는 거주.

(7) 꿀 - 굴

① 동글랑꿀 ② 납작꿀

(8) 합저 - 흥합

우리 바당에는 큰 것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존존흔 것이 돌트망에 박아전 붙은 것이 이서.

(9) 오배기/오가재비 - 합저새끼

(10) 귀 - 성계

새카만 거.

① 붉은 귀 ② 검은 귀

(11) 솜

좀진좀진 흔 가지 이신 거. 조금 연고동색. 허연 거.

(12) 구쟁기 - 소라

(13) 오븐재기/오븐작 - 오븐자기

(14) 섯

(15) 문개 - 문어

※ 알 싹 문개 : 살은 얼마 없고 껍데기만 헐렁헐렁하여. 삶아노른 짜그네 못먹어.

(16) 낙지 - 낙지

(17) 쭈꾸미

(18) 생복/천복 - 전복

눈이 빠끔빠끔 하여.

① 암천복 : 붉어. ② 솟천복 : 살이 검어.

(19) 보말

① 먹보말 - 구멍방고등 : 먹보말은 이제 이거 까망하여. 거명해그네이 된 짝허게 하고.

② 수드리 - 납작소라 : 먹보말이면서도 끝이 높아. 끝이 높은 거 이서, 그 끝이 높은 거 있고, 또 높으지 않은 게 맨작행 이쁜 거 있고.

③ 돌포말

④ 웬보말 - 방석고등 : 질다란 건디 끝 툭툭 모사그네이 쪽쪽 입으로 빨 문 나오는 거.

⑤ ㄹ매기/가매기 - 울타리고등 : ㄹ매기가 코 잘 토다지주게.

⑥ 매옹이 - 두드럭고등

⑦ 마타실 - 맵사리 : 매옹이 종자 비슷하여면서도 알낭 그 아래 문딱 붙어.

(20) 굴벗

① 물굴벗 ② 팡굴벗/돌굴벗 : 껍질 붉으스름. 잘 안먹어.

(21) 게들레기 - 소라게

놈이 집 사는 거.

(26) 가매기 쟁반

요즘은 조개 파래 가문 별로 없대, 둥굴랑하여면서도 갖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해진 거.

(27) 불가사리 - 불가사리

바당에서 고동이영 오븐자기영 잡아 먹는 거는 거 ㄹ랑 불가사리.

* 검은 불가사리 : 검어그네 솔 부분이 하고 다리부분이 족은 거. 별경헌 거는 불가사리엔 해주.

(28) 킁이/격이 - 게

① 춤격이 - 참게 : 발이 붉주게.

② 돌격이 - 부채게 : 먹긴 먹는다 세여, 양발이 어떻게 센지 즘은 이빨로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썩지 못하여. 게니까 그놈은 들갱이.

- ③ 넙파리갱이 : 넙파리갱이는 돌음도 잘 돌아. 넙파리갱이는 등에 파란 점 찍어진 거. 발 부분이 희여.
- ④ 지름갱이 - 바위게 : 옛날에 우리 잡아 먹던 갱이. 몸은 찌끄만 하면서. 지름갱이도 큰 종자 있고 작은 종자 있주게. 우리 이디 옛날 논밭 안 훔 때는 이 앞에 존존한 지름갱이가 막 오물오물 나와. 게문 그 놈이 어떻게 잡기가 힘든지 빨랑 못 잡아. 몸덡이도 둥글락하고 물론 맛살은 희니까 흰이신 부분까지만 파면 지름갱이를 잡아. 그렇게 우리가 잡아당 먹어서.
- ⑤ 농갱이 : 몸 부분이 질여. 스랑흔거. 대조개굴이 이렇게 진진흔 거.
- ⑥ 왕갱이 : 이젠 많이 어서져서. 논밭이 있다거. 겐디 저 논밭 쪼끔 갖에 가른 흔 몇 개 있는 거 같아. 조개 파래 강 보문 그 갖에 구멍에 있는 거 보난 왕갱이가 있어. 왕갱이는 몸부분도 크고 다리 부분도 커. 겐디 털은 안돋아서.
- ⑦ 섯갱이 : 요렇게 물 들어오ندي 영 보면 저 물 들어 올 때만 나와. 그 놈이 조개왓디(모래밭) 강보문 영 아자난 자리가 이서. 요렇게 모살을 고물고물 해노문 이렇게 둥그랑 행 이서. 발로 영 밟앙 영 흐른 밑에 이서 그 놈 막 물어 붙은 되게 아프메. 둥글랑하면서도 옆에 카시똥고 육에는 하얀 것에 까뭇까뭇한 진한 고동색 닭은 그런 점이 쪼끔쪼끔 백여서.
- ⑧ 놀갱이 : 육지서 들어 온 게 종자면서도 죽아 꽃게 닭아도 물밑에서 영 우리 히여 가당 물질 하다 보문 흔썩 다린 썩 똥고 흔썩 다리로만 기어오 되게 빨라. 게난 그걸 못 잡아. 발이 길고 네모난 까시 양쪽에 딱하게 나고.
- (29) 조암조개 : 훔끌락해그네 요만 흔거고 색깔로 구분 못해. 여러 가지 이서.
- (30) 대조개 : 납작하고 막 커.
- (31) 대우살조개 - 맛조개 : 맛소금 낱히는 그거.
- (32) 마리조개 : 크진 았아. 겐디 요렇게 세모나. 등부분이 특 튀어나지 았고 납작해. 하얀 것에 고동색 무늬가 이렇게 굽어져서(길게 이서).
- (33) 물콧조개 : 물 발쿠리굴이 생긴게 물콧조개.

- (34) 명지조개 : 배부분이 붙지 안해. 소름하고 쪼끔 긴 편이지. 납작한 편이지.
(35) 가마기 조개 : 존존한 거 크진 않아. 요즘은 어찌다가 갯에 파른 하나
씩 났지. 옛날 논밭 앓홀 떡에 그 가마기 조개 정말 많
이 나타나서. 색깔은 흰 부분에서 고동색 그런 거. 무늬있
고(ㄹ로이서).

4. 해녀 관련 어휘

(1) 해녀의 등급

- ① 오륙도 상군 : 물질을 잘 하는 사람.
오륙도라고 바닷가운데 섬하나 이성으네 그디가 물 잘가. 그렇게 잘 가주
게. 게니까 그 물을 이기는 사람보고 오륙도 상군.
② 중군 : 물질을 보통으로 하는 사람.
③ 똥군 : 물질을 못 하는 사람.
예고, 똥군들 저디 아즌 거 보라.

(2) 줌수 - 해녀

(3) 화덕

불 쪼는 곳.
요래 화덕 출리라. 새 화덕 호믄이 셋보름 불멍 물질 못 혼다. 새 화덕 출
리지 말라게.

(4) 소쟁이

속곳을 옛날 옛날은 소쟁이.

(5) 뚜데기

위에 쓰는 거.

(6) 콕태왁 - 태왁

(7) ① ㄹ군 : 갯에서 호는 줌수. 할망들이 늙어가믄 ㄹ군이 되어. 자연히.

② 뱃군 : 배 타고 나가서 물질 호는 사람.

우리 종달리는 뱃군이 이성. 배로 물에 즈물래 가믄 뱃 시간 물질을 하여.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8) 물숨

빨리 나와진단 거게. 물숨이 안난다는 거는, 물밑에 갓 10분 살거면 그 10분의 반을 못 산다는 거라.

(9) 흙비소리

물위로 올라와서 숨을 쉴 때 내는 소리.

겐디 그것도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아니고이. 어찌다가 고비고비 꺾으면서 잘하는 분들이 이서. 아주 듣기 좋게 “호~이” 영 흐면서도 참 듣기 좋아.

(10) 비창

전복 뜨는 거.

(11) 연철

고무옷 입을 때 차는 거.

(12) 밀 - 귀마개

소나무를 끊어 놔두면 소나무에 썩이 나와. 그거를 집이 왕 막 제조를 하여. 만들어. 막 참지름도 놓고, 벌주시하고 참지름 곁은 거 같이 영 흐른. 그게 살에 달라 붙지 안행. 말썽말썽하면 귀에 막아놔주.

(13) 까꾸리

문개 잡는 거. 7자추록 끝이 영 오그라져서.

(14) 골각지/골개기 - 호미

검질 메는 골각지같이 안 생기고 양쪽 다 납작하게 흐영. 앞생긴 너무 크지 안해. 잡는 데는 나무자락. 구쟁기 잡는 거.

(15) 작살(괴기작살)/소살

고기를 쏘아 잡는 기구.

굽에는 쇠 니빨 도치고, 가운데는 대. 옥에는 고무줄.

(16) 안경 - 물안경

① 큰눈 : 코까지 막아지는 거. ② 작은 눈 : 탁 벨라진 거. 두 개짜리. 안경 닦은 거. 쇠는 구리쇠로 하고, 유리는 요새 곁은 유리주게 ③ 고무눈/쇠눈

(17) 관디

① 옷관디 ② 아랫관디

두렁박이 이렇게 생기면 우엿관디가 있고, 밑엿관디가 있는 것은, 밑에 거 하고, 우엿거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중심삼앙 양 쪽의 줄을 그것에 다 강 걸려잉. 든든하게 메는 거.

(18) 어음

돌아매는 것. 망사리 엮으는 것.

* 배또롱줄/베리똥줄 : 옷관디와 어음을 연결시키는 줄.

어음더레 잘라매는 줄이 요쪽에 세 개는 지둥, 위에 세 개 묶우고, 요기 한 바티 묶으주게. 그건 베리똥줄이랜 하고 밑에 묶으는건 지둥(지둥줄).

(19) 망사리

채취한 불건을 담아 넣는 그물로 엮어진 것.

(20) 남총

나무에 영 올라가면 돌아가멍 께는 거이. 그거 떼어기넝 파기넝 망사리 만 들고.

(21) 산디칩/산디

망사리 만드는 거.

(22) 호맹이

키(성계) 흙 푸는 거.

(23) 조락

망사리 곁에 매다는 것. 큰 망사리에는 구멍이 크니까 고동이라도 잡아놓고 조락에는 그 구멍에서 나가는 거 못나가게 오분작 같은 거, 존존흔 건 못 나가게 담아 두는 거.

(24) 닻

태왁에 닻을 묶어야 돼. 똥군덜은 혼 서너발 해도 지금 물질하는 사람들은 열두발까지 하여. 막 길게.

終遠里 學術調查報告

- * 메역즈문 : 3월에 미역을 케는 것.
- * 우미즈문/ 우미허치 : 5월 1일경에 우미를 케는 것.
- * 즈문다 - 케다.
- * 짝구리 : 배에 풍선에다가 맨들어, 오븐재기 트는 거.

5. 물찌 - 물 때

6. 터베/터위 - 테우(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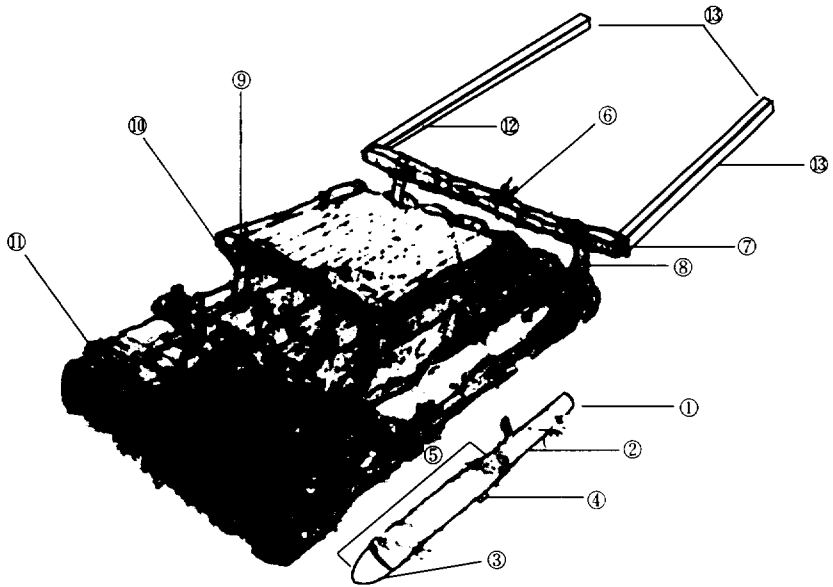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여듭물	아흙물	열물	열훈물	열두물	막물	얏간재기 /얏간조기	한조기	훈물	두물
						조 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물	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듭물	아흙물	열물	열훈물	열두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막물	얏간재기 /얏간조기	한재기 /한조기	훈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조 금								

- 보통 길이 5m에 두께 600mm짜리의 구상나무 8개로 만든 구상남 터위를 만들어 사용함. (구상나무 : 물에 젖어도 썩지 않고 아주 가벼워 물에 잘 뜬)

- ① 뇌/뇌 - 노 ② 손잡이 ③ 네쇼 ④ 네썩 ⑤ 원목 ⑥ 네쫓 : 길이는 50mm 정도
- ⑦ 멩애 ⑧ 멩애쇠 ⑨ 상자리 : 대나무로 엮음. 사람이 올라서는 곳
- ⑩ 상자리쇠 ⑪ 쇠짱 : 보통 4개 ⑫ 닳줄 ⑬ 강다리 : 닳줄을 거는 곳(멩애 쪽:50mm 두께에 50cm 높이, 반대쪽:50mm 두께에 30cm 높이)

겨울쯤은 되면은, 상자리도 뜯어 버리고 또 이것도 다 분해해버려. 분해해그네 저 어디 담에다가 걸쳐가지고 말려야. 또 뒷 해에 허제허든. 가벼우니까.

7. 엽전



(그림 7)

<1> 제염기구

(1) 산태 : 모래를 운반할 때 쓰는 기구.

틀은 소나무로 만들며 어억으로 엮어 모래가 안 내려가게 되어 있음.

※ 어억 - 억새

(2) 군대 : 모래를 긁어 모으는 기구. 서슬 끝이 생겼는디 폭 얇은 거.

(3) 가매집/가망집 : 소금을 굽는 가매가 있는 집. 소금집/소금 군대라고도 함.

(4) 가매 : 소금을 굽는 솥.

(5) 순태/물지게 : 양 어깨에 물 지어 나르는 것.

(6) 바금지/소금 구덕 : 가매에서 구워진 소금을 건져 놓는 큰 구덕. 여기서 소금물의 물기가 빠짐.

(7) 갈래죽/낭갈래죽 : 가매에서 소금을 풀 때 사용. 국자처럼 생겼음.

(8) 서리/서래 : 모래밭을 긁는 기구. 서래밭, 서래친, 서래자락으로 구성되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어 있음.

(9) 박세기(꺾박/꺾바가지) : 중뎡이의 물을 뜨는 기구. 물을 뿌리는 바가지.

(10) 가매덕 : 가마솥을 엮는 덕.

(11) 부르뎡이/부지뎡이 : 가마솥에 불을 댈 때 사용하는 쇠막대기.

(12) 느람지 :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덮는 기구. 하루에 2~3번씩 물을 뿌림. 들에 강 새 해다가 질게 예퍼. 현 열뒤개나 맨들아. 게민 그거 해왕 모살을 비 안들게 다 싸 놓는 거라. 느람지로 감양 딱 덮영 줄 나가게 빙빙 불러나 지 말게 돌 지들르고 딱행 놔뎡 날 좋을 때는 일기 보멍 그 물기를 빠대는 거라.

(13) 수통 : 근물을 보관하는 나무통.

(14) 멕 : 소금을 팔러 다닐 때 썼던 구덕. 산뎡침으로 만든 것으로 구덕보다 큰 것.

(15) 중뎡이/중뎡이 : 축물을 받기위해 만든 나무로 만든 것. 소나무, 풍냥으로 만듦.

거 잔물 놔났다 동그란 낭 2/3 흐쳐가지고 판 저지. 찢다라고, 소금 굽는 물을 거기다 놓는 거라. 중뎡이더레 구덕냥 구덕 바트는 더두리 이시난 그건 냥 소금구덕이랜 현 큰 거 이서. 물내려가는 데가 중뎡이라.

(16) 묵 : 잔물이 다 빠진 모래.

(17) 물산태 : 역새 없고 나무로만 만든 것으로 물을 나르는 기구.

(18) 남태 : 모래밭을 가는 기구로 서래와 비슷.

(19) 솔덕/가매덕 : 가매 올려 노믄 가매덕 되는 거고 .

(20) 물골 : 물골은 언제나 소금을 못하게 돼있어. 물골은 언제나 물이 있기 때문에. 거난 이기 쪼끔 동산진디 이. 이런디서 이제 소금을 허게 되는다.

(21) 서술/서실 : 물 빼는디 가믄은 서술이라고 나무로 아까 거 저. 불 때는 골이 그렇게 만들어져 이서. 물 빠지게 알로 물빠지게. 그 모살을 이래 놔가지고 모살 안빠지게 해가지고 놔가지고 이제 물을 그 모살에다 냥 허믄은 짜분물이 다 빠지게 돼이서. 그 짜분 물이 빠지면은 그 짜분 물을 이제 알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통에 담아가지고 싹 가라앉히지. 전부 통나무로 만들지.

(22) 솔박 : 구운 소금 풀 때.

〈2〉 제염과정

- 밋밋한 몰래밭디 강으내 서래로 물 끄시믄 그 몰래가 밧 갈민 판이 일어
 낭. 흙이 일어나듯이 일어나거든. 일어나면은 이제 그걸로 그 우테레 쩌물 질어
 당 막 뿌려. 뿌려놔으내 그 뿌리믄 뒷날 가 보믄 우에 소금 곤이 허영허거든.
 그걸 또시 서래로 갈양으내 진 막땡이로 병대이 굴렁 그걸(몰래) 군대로 모양
 산태로 들러당 동산 우테레 놔으내 지름 빠듯이 이만씩한 남구덜 놔으내 그
 다음에 대 막댕이 수대기 행으내 이만씩 끈영 조그조근 딱 여퍼낭 끌어낭 따
 시 그 우에 여평 그래 또 끌어. 세 번착 끌어는 이제 그 우테레 모다다 논거
 몰래 담아놔. 담아노민 솔전 ㄱ추룩 평평하게시리 멩그라놔으내 그냥 물을 비우
 면 몰래가 흠파지거든. 흠파지니까 흠파지지 못하게시리 검질행으내 영 묶어그
 냥 방식 ㄱ추룩 행 멩그랑 이래 놓거든. 그 우테레 물을 지러다 낭 지름 빠듯이
 영행. 일로 물이 나와. 체암 나온 걸 밥 티와보멍 밥을 티며는 체암헌 거 제일
 짠건 곤물. 두 번째 난 거는 모든물이랭 행. 또 마지막 물은 훗물. 경행 그걸 해
 당 지만씩 지만씩 담양 옛날 수통. 잘도 큰 수통이 있주게. 그 수통더래 영 항
 아리 저당 향아리더래 영. 체암 곤물이랭 혼 물만 두 허벅이나 세 허벅이나 지
 러나민 영 밥 티와보멍 따시 모든물이랭 혼 걸 또 그 정도 행 지령으내. (조사
 자: 소금이 짠지 안 짠지 알아보잔 허믄 무슨 방법 어서수까?) 밥티우면은 물
 이 짜민 밥이 트고. 경허민 그 이제 모든물로 곤물하고 놔으내 가매에 놔으내
 막 알로 불 때왕 해 가민 이제 소금이 구워지거든. 구워지믄 영 소금되는데 보
 멩 짬직허믄 훗물이랭 혼걸 더러 놓고. 안 짜며는 그대로 헤어낭. 소금 되어낭
 건져나며는 가매가 저 거시기 아래 밥호믄 누랭이 놀르듯이 누랭이 놀지 이.
 누랭이 놀믄 누랭이 일적에 훗물을 낭 누랭이 일렁 그 물로 다시 소금을 구워.

- ① 모래밭에 가서 서래로 물을 끌면 모래가 인다.
- ② 모래 위에 쩌물(바닷물)을 길어다가 뿌린다.
- ③ 다음날 가보면 그 위에 소름 곤이 하얗게 피어 있다.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 ④ 끈이 편 모래를 서래로 간 다음 덩어리를 푼다.
- ⑤ 그 모래를 군대로 모아서 산태로 든 후 동산 위로 옮긴다.
- ⑥ 나무들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막대기를 작게 꺾어서 세 번을 펴 놓은 후 모래를 담아 놓는다.
- ⑦ 잡초를 묶어서 방석처럼 만들어 놓고 모래 위에 놓는다.
- ⑧ 그 위에 바닷물을 붓고 처음 나온 끈물에 밥을 띄워 본다.
* 끈물(처음 나온 제일 짙물) → 모든물(두 번째 나온 물) → 훗물(마지막 나온 물)
- ⑨ 끈물과 모든물은 수통에 담는다.
- ⑩ 끈물과 모든물을 두 허벅이나 세 허벅 길어다가 가마솥에 넣어 불을 때면 소금이 구워진다.
- ⑪ 소금이 되는 걸 보면서 짤 것 같으면 훗물을 붓는다.
- ⑫ 소금이 다 구워지면 건져낸다.
- ⑬ 가마솥에 소금이 누른 것에 훗물을 붓고 다시 소금을 굽는다.
* 고리 : 뭍 잡앙 거리는 거.(멸치를 잡아서 뜨는 것)

Ⅲ. 의생활

1. 의복

- (1) 중이/감중이/갈베중이 : ① 모시중이 ② 베중이
- (2) 감중이-남/강(감)굴쟁이-여 : 남자들은 감중이주마는 여자는 감굴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탁 퍼진 거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다님을 찌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님을 딱 찌민 여기가 탁 퍼져. 일복인데 집에서도 입고 밭에서도 입고. 거 이제 좀 그대로 입는 사람은 그대로 입었지만은 좀 깔끔한 사람. 멋내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광목에 까만물을 카망게 들여가지고 그거를 막 예쁘게 주워. 막 편치훈 옷을. 그거 막 숲으면은 감물 싹 빠지지.
- (3) 속곳 : 해녀들 훔 때는 속곳이엔 훈 게 있어. 한쪽은 이렇게 해서 요디 이제 벌마작이엔 훈 거 이서. 그래서 이렇게 꿰매서 이제 예쁘게 해주.

(4) 단속곳 : 뒤에 터지고 이디는 좀 혈탕허고 갹 끈 해그네 허리 해그네 영
줄라매는 것이 단속곳.

(5) 벌마작 : 속곳에 단추처럼 사용.

형겼하나 막 까누룽허게 호영 좁작하게 실로다 감청 경 행 이추룩 길게
호민 그걸로 벌마작을 만드는 거라.

(6) 치매 - 치마

(7) 적삼 - 적삼

① 감(갈)적삼 ② 베적삼

(8) 저구리 - 저고리

① 소개 저구리 - 솜저고리 ② 멩지 저구리 - 멩지 저고리

(9) 보선 - 버선

※ 소개보선 - 솜버선

(10) 소개바지 - 솜바지

(11) 짚깨 - 조끼

(12) 두루막 - 두루마기

2. 상복

(1) 심옷/시므옷 : 상제가 입는 옷.

아버진 죽으면은 이것이 영 오그리질 안 호영 아래, 밑에 오그리지 안 호
영 그대로 영 감침만 호는다. 어머니 돌아가면 이걸 이렇게 오그려서 주워.
심옷은 솔진(불태우진) 안호는 거. 불로만 확확 그스리고 띠 솔고, 행경 솔고.

(2) 제복 : 큰 상제가 입는 옷.

(3) 건대 : 머리에 쓰는 것. 베로 만듦.

(4) 건복 - 두건 :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 친척아닌 사람에게.

(5) 건 : 여자 친척들에게 주는 것.

(6) 대 : 상제가 짚는 막대.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① 머구냥 방장대 :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② 왕대 방장대 : 어머니가 돌아가신 때.

아버진 죽으믄 마디마디 생각을 흐라고 해가지고 이제 왕대 막대이로 방장 땄흐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항상 생각을 흐랜 행 이제 머구남이엔 혼거 이서.

(7) 쫓쟁이 : 나룩쫓으로 만드는 건디, 거 다른디 풍습은 몰라도 우리 동촌 이 풍습은 그것이 큰 대중으로 생각해여. 그거 만일에 성광(형과) 동생이 싸움해서 장(상)난때 싸움을 해가지고 그거 가져가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라. 그것이 아주 귀중흔 거라. 근디 그것은 강을 넘어가진 안는덴 해 그거는. 건 사름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강은 안 넘어 간덴 해. 그 쫓쟁이라고 혼 것은. 계민 그것이 강이 안 넘어 강 육지 사는 상제가 여기서 어머니가 죽었다. 그래서 올적에는 그걸 안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만들어. 산 사람도 강을 넘으면 좀 위험하다하는 뜻으로 그러는 모양이라.

(8) 행경 - 행전

(9) 허리띠

(10) 머리창 : 여자 상주가 머리에 매는 하얀 천.

성북 전에는 옛날엔 삼이엔 혼거 이서. 막 찢길거. 성북 전에는 옛날엔 다 머리가 기니까 그 머리를 탁 풀어서 그걸로 딱 짜매어. 짜매서 다니다가 성북을 흐면은 이제 기지(천)로 머리창을 들이는 거라. 계민 그거는 삼년가지 딱 들여. 삼년 넘어서 또 백일간은 실을 들여. 굵은 실. 굵은 실로 백일동안 은 이제 실로 들이고 백일 넘으면 그것도 다 스라불고.

3. 혼례복

(1) 관복 : 도복 위에 입는 옷으로 옆이 트임.

(2) 사모관디 - 사모관대

(3) 장옷 - 장옷 : 시집갈 때 한복 위에 입는 옷.

(4) 족두리 - 족두리

※ 벤지 - 연지근지 : 입술에도 바름.

- ※ 가매 - 가마
- ※ 흥새(함) : 광목, 돈, 여장(여자 데려가는 글월)을 넣음.
- ※ 느람지 : 새서방이 들어올 때 마당에 길게 까는 것.

4. 머리 장식 · 도구

- (1) 건지 : 머리를 따서 위로 돌리는 것.
- (2) 총각머리 : 장가가기 전 길게 땀은 머리.
- (3) 처녀머리 : 시집가기 전 길게 땀은 머리.
- (4) 낭지 : 비녀 꽂은 머리.
- (5) 방패 건지 : 결혼할 때 딴 머리로 행으네 크게 하는 거.
- (6) 돌리 : 놈의 머리.
- (7) 이멍걸이 : 건지 맞정으네 또 이마로 호영 이렇게 잘라매는 것.
- (8) 상통이 - 상투
- (9) 탕건 : 뭇총으로 만든 것.
- (10) 비네 - 비녀
- (11) 남얼럭지/남얼레기 - 머리빗
- (12) 쳇빗 - 참빗 : 니 긁어내는 것.
- (13) 얼래기통 : 머리빗을 담아 놓는 것.
- (14) 맹경 - 거울

5. 모자 · 신발

- (1) 패랭이 : 여름에 쓰는 것.
 - ① 대패랭이
 - ② 밀짚패랭이 : 밀짚으로 만든 패랭이.
- (2) 우장 - 비옷 : 새로 만듦.

- (3) 가죽감티 : 가죽으로 만들어 쓰는 것.
- (4) 남신 - 나막신.
- (5) 초신 - 짚신.
- (6) 삿갓 - 비올 때 쓰는 모자 : 남자들이 씀.
- (7) 탕근 : 갓 속에 쓰는 탕건.

6. 바느질 도구 · 바느질법 · 빨래

〈1〉 바느질 도구

- (1) 바늘/바늘 - 바늘
 - ※ 바늘귀 - 바늘귀
- (2) 실 - 실
 - ※ 실패 - 실패
- (3) 골미 - 골무
- (4) ㄱ새 - 가위
- (5) 바늘(능)쌘지 - 바늘쌘지
- (6) 다리배 : 숯불 넣어서 다리는 것.
- (7) 힘벅 - 힘걸

〈2〉 바느질법

- (1) 덩침박는 거 - 박음질
- (2) 호으는 거 - 홈질
- (3) 감추는 거 - 감침질
- (4) 시끄는 거 - 시침질
- (5) 뒷바놓질 - 안단뜨기

〈3〉 빨래

- (1) 세답 - 빨래
- (2) 세답마깨 : 빨래할 때 두들기는 방망이.
- (3) 세답돌(팡돌) : 빨래하는 넓은 돌.
- (4) 다듬이마깨 - 다듬이 방망이
- (5) 안반 - 다듬잇돌

IV. 식생활

1. 밥, 국, 죽

- (1) 툇밥 - 툇밥
- (2) 퍼래밥 - 파래밥
- (3) 근밥 - 쌀밥
- (4) 조팍 - 조밥

* 줌쌀 : 옥수수 골민, 채로 치민 못먹을, 개돼지나 먹음직헌거, 그걸 이젠 줌쌀로 밥으로 먹어서.

- (5) 보리밥 - 보리밥
- (6) 돗밥 : 모자반+밥
- (7) 속밥 : 쑥+밥
- (8) 솜국 - 솜국

갯것디 강 잡아다가 그거 끌러가지고 물행으네 툇라가지고 그거 행으네 국 끓여가지고.

- (9) 웨냉국 - 오이냉국 : 물웨 행으네 냉국행으네 여름엔 그것도 행먹고.
- (10) 호박잎국
- (11) 느물국 - 배추국
- (12) 메역국 - 미역국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 (13) 좁쌀죽 - 좁쌀죽
- (14) 쫄죽 - 팔죽
- (15) 모물죽 - 메밀죽
- (16) 껌죽 - 깨죽
- (17) 녹두죽 - 녹두죽

2. 반찬 및 기타 음식

- (1) 즈배기 - 수제비 : ① 궁둥즈배기 ② 모물즈배기
- (2) 생기리 - 무말랭이 : 무 썰어 맨드는 거.
- (3) 김이장 - 계장
- (4) 멜젓/멜젓 - 멀치젓
- (5) 구쟁기젓 - 소라젓
- (6) 자리젓 - 자리젓
- (7) 게역 - 미숫가루 : 밥에도 비벼 먹고.
- (8) 마능지시 - 마늘 장아찌
- (9) 배추김치 - 배추김치
- (10) 쉼다리 : 밥과 누룩으로 담가 감주보다 덜 달고 새금진 맛이 있게 만든 여름 음료.
- (11) 누랭이 - 누룽지
- (12) 빼때기 : 고구마를 얇게 썰어 말린 것.
- (13) 속범벅 - 썩범벅

※ 못 굳 거

못썰하고 게고 또 갯것디 가서 그 못썰에 혼디 고아먹을 패 해당으네 오가리(항)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디 이제 천역(흙)해그네 그 오가리 다 영 불러 가지고 영 그 항을 카지 말라고 몬다 거 불량으네, 쇠똥이영 똥똥이영 주서당으네 천역으로 항 불량으네 산디 굴아난 채에다가 놓고 똥똥, 쇠똥해다

가 흐룻밤 흐를 구워.

※ 지름 - 기름

① 춤지름 - 참기름

② 동(뚱)박지름 - 동백기름

튀기는 거 튀경 먹젠 하면 생차 볶으지 마랑 그 녹물씨를 빠면 볶으지 안행 썩지름 빠기엔 튀기는 디 좋구. 식용유가 되고 또시 뭐 묻히는 데 노면 그걸 볶양노면 쿠시고.

③ 유채지름, 유지름

④ 피만지 지름 : 먹지도 안애고, 지금 곱으면 밴비 이신 사람이 먹으면 좋넨 행 써나서.

⑤ 갯녹물 지름 : 한 맨년 전꺼지도 유채녹물에 갯녹물 지름 섞엉 먹어나서.

3. 떡

(1) 상왜떡 - 삼매떡 : 밀을 갈앙 ㄱ는 거에 다 갈앙 상왜떡이랜 헨.

(2) 빈/빙 - 빙떡

(3) 절벤 - 절편 : 돌 반짜 닭은 떡.

(4) 솔벤 : 뚱그랑흔 거 놀렁 하는 거.

(5) 설기 - 설기

(6) 새미, 만디 : 태우로 얇게 밀어그냉 동그랑 걸로 딱 떠그냉 순매냥 줌는 거이 찌끄만하게 줌는 건 새미랜 하고 큰 거는 만디랜 하고.

(7) 지름떡 - 기름떡

(8) 둘래떡 : 메밀,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동그랑게 만든 떡.

(9) 송편 - 송편

(10) 침떡 - 시루떡

(11) 속떡 - 쑥떡

(12) 묵 : 밀가루로 동그랑하게 흔 거.

4. 식기

- (1) 사발 - 그릇
- (2) 대접 - 국그릇
- (3) 밥사발 - 밥그릇

※ 가지땡이 - 밥뚜껑

- (4) 보시 : 반찬 놓는 작은 거.
- (5) 수저 - 숟가락
- (6) 줌뿔 - 젓가락
- (7) 젓통 - 수저통

큰 왕대가 이서. 왕대 찢르믄게 그 쪽은 막아지고게 위에 영 트지 안해.

- (8) 살레 - 찬장

칸칸한 거 칭칭이 나그네. 문 들 다 각자로 열게 뉘서. 영 양쪽으로 자치게 뉘신디. 대로 헤그넵 다 물 빠지게끔. 수까락두 놓구 저까락두 놓구.

- (9) 돛베 - 도마 : 나무로 만든 거.
- (10) 남죽 : 밥 짓는 거.
- (11) 밥자 - 밥주걱
- (12) 도고리- 함지박 : 순 낭으로만 다 판 거.
- (13) 낭푼 - 양푼 : 낭푼에 낭 국만 따로따로 거렁.
- (14) 시리 - 시루 : 떡 익게 하는 거. 그때는 평균 큰 건만 이서나서. 사기로 해진거 밑에 2냥이 바롱바롱 현. 개민 큰 일 땐 그거 그득 하나 낭 죽썰꼬루로 해그넵 치주게. 건 아무나 빚지 못해서. 아무나 비우민 떡이 딱 갈라진땡 헤그넵
- (15) 즈막단지 : 죽은 단지. 강이장 홀 때 하는 거.
- (16) 항/오가리 : 큰 단지

① 통개 : 항아리 중간 거.

② 항뚜개 : 항아리 뚜껑.

- ③ 장뜨간 : 밖에 향아리만 놓는 것. ④ ㅓ팡 : 향아리만 놓는 거.
(17) 대차반지 - 도시락 : 대 사이로 바람 들어강 쉬지 안호여.
(18) 큰 차롱
(19) 고령(착) : 제사 때에만 떡 놓는 것.
(20) 적차롱(착) : 적, 빙, 묵 등 이것 저것 다 놓는 것.
(21) 구덕 : 조금 규모가 큰 바구니.
 * ㅓ는대구덕 : 제사 때 멍쌀 낱 가져 가는 구덕.
 ① 구덕 바위 : 바구니 윗부분 돌레 ② 구덕 창 : 바구니 바닥
 ③ 애염 바위 : 바구니 주변 돌레

5. 제사

- (1) 메 : 젓상에 올리는 밥.
(2) 갡 : 젓상에 올리는 국.
(3) 젓상 : 제사때 쓰는 상. 옛날엔 젓상이란 훈 게 따로 이서나서계.
(4) 멧사발 : 제사때 쓰는 밥그릇.
(5) 갡사발 : 제사때 쓰는 국그릇.
(6) 젓사발 : 제사때 쓰는 그릇들.
(7) 상노상납 : 향 피우는 거. 다리 달리고 훈 거. 향까지 막 까그녕 놓는 거.
(8) 문전상 : 문전제 지내는 상.
(9) 잡식 : 제사 보러오는 영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온다하는 뜻으로 몰래 따라온 사람들 모아치루 뵈우는 거주. 이제 올래해당 다 해당 만일에 우리 조상이 제사 먹으러 물 극는 사람들, 자손들이 없는 사람들, 그 구신이 혹시 따라오지나 아니 험신가 행 이제 그 사람들 모아치루 행 빙는 거.

V. 주생활-가옥구조

1. 집 전체 구조

- (1) 정재/정지 - 부엌
- (2) 큰 구들 - 안방
- (3) 삼방 - 마릿방
- (4) 무똥 : 신발 벗는 곳.
* 뒷마리 : 신발 신게 앉을 수 있는 곳(삼방 전).
- (5) 밖거래 - 바깥채
- (6) 안거래 - 안채
- (7) 헛간 - 창고
- (8) 통쇠/통시 - 변소
① 두들팡 : 발을 디디는 곳 ② 도새기 막 : 돼지가 들어가 사는 곳
③ 돛도구리 : 돼지 먹이를 주는 그릇
④ 구진물 항 : 더러운 물이 있는 항아리 ⑤ 채/겻 : 돼지가 먹는 것.
- (9) 우영 - 텃밭
- (10) 고팡 : 쌀, 그릇, 항아리 곱은 거 안트레 모시는 거. 큰방 뒤에.
- (11) 올래 - 골목
- (12) 이목간 - 대문(부잣집에나 대문이 있었음.)
* 정살 : 잘 사는 집에나 놈. 낭쟁이 하나가 보통. 쇠있는 집엔 정살 놈.
- (13) 물팡 : 허벅 부리는 팡. 정지 앞에. 돌 두 개 세워서. 넓적한 거 올려놓.
* 물허벅, 물지게
- (14) 쉐막 - 외양간
- (15) 물꺾랑 : 물 나가라고 만든 고랑.
- (16) 울담 - 울타리

(17) 출늘, 조침늘 : 날가리 쌓아둔 것.

※ 노랍지, 주쟁이 : 늘 덮어두는 것.

※ 지들커 - 땀감 : 검질, 유채대, 보릿대. 장작 : 남(나무)으로.

2. 부엌

(1) 솔강알 - 아궁이.

(2) 솔전 : 솔 앉히는 돌레. 솔 위에 영 호른, 솔 영 안치른 솔 안친 돌레.

(3) 솔덕 : 솔 앉힌 곳.

(4) 부리땡이 - 부지깥이

(5) 불치 - 재

(6) 내 - 연기

(7) 불망굴 : 잘사는 집에서는 적쇠에,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불망굴에서 구움.

(8) 화곽 - 성냥

(9) 기스름 - 그을음

(10) 창꿈 : 내가 다 못 나가든 다 그을렁 털어져서.

(11) 군대 : 불치 밀리는 거.

(12) 돌궤래

(13) 도리판 : 동그랑 판.

(14) 화리 - 화로

Ⅵ. 기 타

1. 바람 - 바람

(1) 셋바람 - 동풍

(2) 하늬바람/높하늬 - 북풍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 (3) 갈벼름 - 서풍
- (4) 마벼름 - 남풍
- (5) 높새벼름 - 동북풍

2. 맛, 색깔 관련 어휘

<1> 맛

- (1) 둘다/둘코롬하다/둘착지근하다(달기도 하고 बे지근하다) - 달다
- (2) बे지근하다 - 맛있다
- (3) 찝지름하다 - 짜다
- (4) 찻잡지다 - 뺏다
- (5) 매웁다/맵지롱하다(하영 맵지 안행) - 맵다
- (6) 능크랑하다/늑늑하다/닝크랑하다/니큰하다 - 느끼하다
- (7) 코시롱훙도/코심도 - 구수하다
- (8) 시다/독하다/시끔하다 - 시다

<2> 색깔

- (1) 노리롱/노리시롱 - 노란색
 - * 누렁 : 변질된 색(파나 배추가 유령져), 바랜 색(흰 옷이 빨아도 때가 안 빠진 경우)
- (2) 새커멍흔게/가마귀 빛/돌멩이 마치 거무릉하다/까무릉/거멍하다. - 검은색
- (3) 퍼리롱/프리롱/퍼렁흔게(저 바당 물도 퍼렁흔게)/청하늘 닳져(낮과 밤 둘다 쓰임) - 파란색
- (4) 불그롱/불그스롱/벌경하다/빨강하다 - 빨간색
- (5) 희영하다/희다/백새 닭다/백구름 닭다(뽀얀 애기살) - 하얀색
- (6) 어중간하다/어중그랑하다 - 애매한 색(예전에는 교과서가 없어서 색깔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다. 그래서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흰색, 검은색

등을 제외하고는 애매한 색이라고 함)

※ 으납졌다 - 안개가 낀 : 눈이 콧콧 행 못 배리켜. 부영하다.

〈3〉 기타

- (1) 실롬도/ 석석하다 - 차갑다
- (2) 떠버라/데불다/떼빌다 - 뜨겁다
- (3) 매지근하다/맨드롱하다/땃땃하다/ 뚝뚝하다 - 띠땃하다
- (4) 무습다 - 무섭다
- (5) 금척 놀래져라 - 놀래다
- (6) 내걸치다 - 내세우다
- (7) 어중그랑하다 - 애매하다

3. 지명

- (1) 조개왓
- (2) 자리코지 : 풍선 대기 좋은 디.
- (3) 중통굴 : 물질가고 배타는 곳. 중신삼양 배 다니는 디.
- (4) 방망시기 : 첫번 내려가는 여 이름. 옷 벗어 놔두기 좋게 됨. 불 주인 담을 썬 데.

※ 여 : 물 짜면 나오는 돌동산.

- (5) 누룩돌
- (6) 납대기덕
- (7) 선여꾸미 : 섬 닭은 거 있는데. 히영(수영해서) 들어가야.
- (8) 안꿀여덕

※ 덕 : 불 최난 디.

- (9) 세꿀여
- (10) 메안꿀여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 (11) 한강여트멍
- (12) 수산하르방통 : 고기 낚으당 돌아가셔서.
- (13) 물여동산 : 물가치 생겨서 그 이름을 붙였는지 몰라: 시흥리, 종달리경계(남.북군 경계)
- (14) 큰몸여동산
- (15) 작은 몸여동산
- (16) 만서
- (17) 할망집발
- (18) 근여 : 물이 싸는 디.
- (19) 안근여
- (20) 검은여 : 돌이 시커멍해.
- (21) 두문이개 : 두문포는 요즘말.
- (22) 삼빌레
- (23) 비창엽봉오지 : 삼빌레 아래. 옛날 고지가 저물래 갈 때도 비창엽봉오지 가민 고지기도 있고 감태도 좋았젠 해그네 이, 비창엽봉오지 가게 가게 했는데…….
- * 만서에서 두문이개 쪽으로 가는 물 : 썰물
 두문이개에서 만서 쪽으로 가는 물 : 들물
- (24) 염수부리 : 염수부리굴이 생긴 생이라. 섬하나 가다보민 크게꿈 낫하고 이. 둥굴렁한 동산이 우뚝하게 서고, 물 드는 게 아니고 그냥 돌른 동산이 이서. 이디가 염수부리.
- (25) 고망난 돌
- (26) 돌청산 : 저 청산 오름 이?
 * 성산일출봉 - 청산 오름
- (27) 소농곳
- (28) 소릿질

(29) 독터럭밭 : 물밑에 가민 독터럭굴이 생긴 풀이 이서. 마지막 종달리 바다가 있는 디. 밭이랜 호메. 밭은 아니라도.

(30) 영산(이) : 고망난 돌 부근. 연날에 연날 사람이 고기 낚으레 갔당 그 자리에서 죽어서게. 죽었는디 장화 혼 착은 갖에 잇고 장화 혼 착은 물 밑에 이서나서게. 개니까 연날 할망들은 요디가민 아이구. 나 장화 혼 착 도라. 나 장화 혼 착 도라 허는. 이디 물 밑에 구신이 난덴 행이. 어린아이들은 거디 가민 놀려. 겁나게끔. 요즘은 그 말이 차차차차 어서졌주이. 경 골아난디가 고망난 돌 앵이라.

(31) 모살 : 할망집밭과 거른 여 사이.

(32) 오름 앞 동네 : 요새는 동동, 동중동. 연날은 오막개 동네. 오막개통 물이 이서나서. 오름 옆으로 가민 이. 지금은 매와붙어서. 물통 이름을 돌라그네 오막개동네랜 해났져. 경혼디 그디 사람들이 이, 말 호젠호민 새가 호설(약간) 쫓랐는지(쫓았는지) 어떻했는지 몰른디 할망들 그디 별호를 필로 지어시냐민, 오막개 동네 물 먹으니깐, 말 호젠호민 쪼끔 새 쫓랑 말 호는 식으로 말을 호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지 몰르주만은, 아이구, 저 오막개 동넨 오막개물 먹어부난 새 쫓랑 말도 새 쫓른 소리혼덴. 경호는 물 해그네 저던 오막개 동네랜 해났져.

(33) 새밭디/새밭동네 : 논, 밭 가운데 있는 동네. 새로 동네를 만들어서. 연날에는 거기 나룩밭 안홀텐 이. 그동네 집은 멧 가위 이신디는 쪼끔 이 동네 땅이 두덕이 높은가. 연날엔 혼 열 가웃밖에 안혼디 지금은 거기 살긴쫓덴헐 많이 지서 살암져.

(34) 지미봉 : 종달릿 오름.

(35) 연기동산 : 종달리 마을에서 두문이개 가는 곳에 있음.

돌동산 이서나서. 여기서 지금은 가로등 이서그네 가는게 문제가 아난디. 이 종달리 동네에서 두문이개 가젠호민 거리가 조금 먼다게. 겐디 이 연기동산이랜혼 이 동산을 넘어갈려민 이. 연날에는 구신을 만난덴 호잖아. 건디. 연기동산이 경 위험한 동산이라. 여기 가면은 구신도 많이 나고 귀신새, 연날에는 구신 이름이 귀신새라는 구신이 이서난 모양이라. 귀신새라는게 우리도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연날 할망들 곤는거 들었주 우리는 본바는 없주게. 귀신새는 어떻게 생겨수가? 영 하민, 귀신새는 육에 머리뺍도 크고 몸 전체도 크고 또 이 다리도 길고. 겐디 이 몸 전체가 이렇게 사람맨크롬 몽클락하게 하지 않아. 귀신새라는게 연날 지붕에 새로 이러그네 그 짐을 뜯은 귀신새 걷어내주게. 검질 걷어내는 것이 검질이랜 안행 초집 걷어낸 것은 귀신새랜 하때. 덮을 적엔 새엔 하고. 그 초집을 걷어그네 이제 그거 치워낼 때는 귀신새. 귀신샌디. 그 귀신새가 지붕에 덮어나그네. 막 영 깨끗하지 않호주게. 조금 먼지써그네. 막 귀신새 걷는 사람들 보민. 집 뜯영 귀신새 걷은 거 보민 얼굴이고 어디고 막 새카망호주게. 이 막 그 불때난 그 먼지가 몸에 다 그냥 새가 그랑그랑행. 어떤 할아버지가 그 귀신새를 발견호거라. 어이구. 저 연기동산나민 귀신새나그네. 귀신새라는 그 구신 강알로 넘어간 사람은 오래 살지를 못해서. 이 동산이 되게 센 동산이라. 겐디 그 귀신새는 나그네 이. 무심히 걸어가는 사람을 매다 쳐그네이. 얼굴이 다 갈키고 이. 또시 더러 정신 못차령 하당 정신 차령 보민 귀신새라는 구신이 매다쳐비영 여러 사람이 막 뒤향났져. 거기 넘어갈 때는 이. 어디 살을. 새를 깨물던가 하영 가났져. 핏 냄새를 나면 구신들이 안달라 붙는덴 호주게. 경현 동산이라. 겐디 그 연기 동산이 켈 침은 막 우뚝 솟은 막 큰 돌동산인디 이제 그 동산을 깨어그네 질 만들었주마는. 연날은 한 30년전에는 그 동산 종달리서 헤쳤단 이. 헤쳤던 사람이 다 죽어서. 그렇게 센 동산이라.

가당 보면은 큰 하물(화물), 거기 지섰저게. 창고도 짓고. 하물을 조금 가기 전이 이. 좋은 별장굴이 집하나 지서서. 거기가 연기동산. 동산은 어서도.

(36) 매망머루

(37) 신산머루

(38) 돌삼봉

(39) 돌미옆댕이 : 돌삼봉쪽으로 가는 곳.

(40) 개남밭 : 나무가 탁 엮어져서 무성. 옷이 찢어질 정도로 가시덤불이 무성해나서.

① 옷개남밭 ② 알개남밭

(41) 윤두루목

(42) 도새기 동산 : 종달리 동네에서 산쪽으로 곧 올라간 곳. 연날 도새기고 뛰고 먹을게 없으니까 공출(공출: 부락에다 바치는 거)을 많이 했던헨게. 게니까 그 연날에는 돼지를 많이 키우니까 돼지를 키워야 먹고 살았주게. 게니까 우리 돼지도 심어가불민 우리가 걸 팔아야 먹고 살겨주게. 그니까 못 살 것같으니까 우리가 공출 하기전에 돼지를 그 올라가는 그 동산에 가네 이, 굴팡 숨겨나서. 게난 도새기 동산.

(43) 장어머루

(44) 방운디

민요

〈목 차〉

- | | |
|---------------|---------------|
| 1. 검질 매는 소리 | 8. 밧 불리는 소리 |
| 2. 노(네) 짓는 소리 | 9. 진토긋 불리는 소리 |
| 3. ㄱ레 ㄱ는 소리 | 10. 시집살이 노래 |
| 4. 마당질 소리 | 11. 창부타령 |
| 5. 자장가 | 12. 해녀 항쟁가 |
| 6. 서우젓 소리 | 13. 동요 |
| 7. 출 베는 소리 | |

1. 검질 매는 소리

①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제 보 자 : A-김복순, B-김복녀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A : 검질 짓꼭 굴너른 밧디¹⁾

B : 영 어야 디야로구나

A : 검질 손도 츠직츠직²⁾

B : 사데소리³⁾도 츠직츠직

A :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B : 영 어야 디야로구나

A :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B : 영 허야 디야로다

A : 영~어긔야 디야로구나

1) 감이 많고 골이 넓은 밧에.

2) 재빠르게.

3) 검질 매는 소리. 사디소리라고도 한다.

②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오후

제 보 자 : A-현옥란 할머니, B-김복녀 할머니, 오병주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 | | |
|-----------------------------------|------------------|
| A :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 B :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
| A : 앞뒷명에 다 나고나 간다 | B : 아 형 허야 디야로구나 |
| A : 요 검질아 뭘 흐레 나서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검질 짓고 굴 너른 밧되 ⁴⁾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앞발로랑 허우치멍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뒷발로랑 거두어치멍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뒷명에랑 다 나고 간다.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형 어기야 디야로구나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저 산천에 흐르는 물은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오만 남썩 ⁵⁾ 다 썩은 물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요내야 눈으로 내리는 눈물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눈에 눈물 피가 난다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해다 지고 날 정근 ⁶⁾ 날에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골목골목 연기만 난다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형 어기야 디야로구나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너와 나와 만날적에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백년 살라고 만났는데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너와 나와 영 이별홀 제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경찰서가 웬 말이더냐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형 어기야 디야로구나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산에 가난에 살장기 소리 ⁷⁾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4) 풍이 많고 골넓은 밭에.

5) 온갖 나무 잎사귀.

6) 날이 저물다.

7) 산에 가니 살장구 소리.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 | | |
|-----------------------------------|------------------|
| A : 아 물엔 가난에 숨비질 소리 ⁸⁾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집인 오난에 애기 움 소리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형 어기야 디야로구나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이 세상에 무슨 죄로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여자로나 태어나서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일천 고생을 다 허는고나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형 어기야 디야로구나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방아 방아 물방아야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콩콩 짓는 방아로구나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형 어기야 디야로구나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새야 새야 파랑새야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녹디나 밭에 앓지나 ⁹⁾ 말아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녹디 꽃이 떨어나지면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장포나 장시 울고간다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형 어기야 디야로구나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형 어기야 디야로구나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비야 비야 오거든 오라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장에 ¹⁰⁾ 로나 내리는 물가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 A : 아 형 어기야 디야로구나 | B : 아 형 어야 디야로구나 |

③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제 보 자 : A-김도원 할머니, B-현봉여 할머니

조사장소 : 김도순 할머니 덕

A : 어야~ 디야~ 산이로구나

B : 영~허야 디야로구나

A :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야 나구나가라

8) 물에 가니 숨비질 소리

9) 앓지나.

10) ① 장예수, 한정 없이 많이 내리는 비. ② 장희, 큰비.

B : 영~허야 디야로구나

A : 어야 디야 사래로구나

검질 짓고 굴너른 밧뒤 조래미¹¹⁾ 벗이로구나

B : 영~허야 디야로구나

A : 산엔~ 가~난 살장귀¹²⁾ 소리 물엔~ 가난~ 숨비절¹³⁾ 소리

가름엔~ 드~난¹⁴⁾ 애기옴~ 소~리 귀에~ 쟁쟁~ 열리는구나¹⁵⁾

B : 영~허야 디야로구나

A : 전치~수 방~ 양첩헌 놈~아 대천~바~당 가운데 들~영

돌진~돌 밤¹⁶⁾ ~ 말글 날시~나

④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제 보 자 : A-강경규 할아버지, B-강오백 할아버지, 김도원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A : 이어~ 디여~ 산이로~구나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앞 멍~에랑 드러나~오라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뒷 멍~에랑 나고나가라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앞발~로랑 허우치멍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뒷발~로랑 거뒤치멍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행~ 헤야~ 디야로구나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헤영~ 먹젠 산전에 올라¹⁷⁾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마이정당¹⁸⁾ 췌정당¹⁹⁾ 줄에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11) 줄음이.

12) 살장귀.

13) 숨비절.

14) 동네에 들어오니.

15) 귀에 쟁쟁 들리어온다.

16) 달이 지고난 달밤.

17) 많이 먹으려고 산에 올라서.

18) 마의정당. 마의정동이라고도 하는데 댕댕이 덩굴의 한 가지.

19) 췌정동이라고도 하며, 가늘고 긴 댕댕이 덩굴의 한 가지.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A : 아~ 발을~걸령 ²⁰⁾ 유럽 서라 ²¹⁾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형~ 헤야~ 디야로구나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허당~ 말은 놈이나 웃나 ²²⁾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양 굿~잡앙 재친 듯이 ²³⁾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무슨~ 일랑 잘 허렌 헤여 ²⁴⁾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놈이 욱해 날 보내던고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행~ 헤야 디야로구나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허공~산에 넘~다디야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저 돌랍식 떡이나 구웁주마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행 헤야 디야로구나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허당~말은 놈이나 웃네 ²⁵⁾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양굿~ 잡아 제친 듯이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볼강~ 먹자 ²⁶⁾ 검~질 매자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검질~손을 조직 조직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검질~ 매영 좃으멍 가자 ²⁷⁾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아~ 지서~멍광 ²⁸⁾ 오름엿 돌 ²⁹⁾ 은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A : 둥글당도 살을 매 난다 ³⁰⁾	B : 아~어~야 디야로구나

20) 발을 걸려서.

21) 이올다. 병으로 몹시 앓아 많이 야위다.

22) 하다가 내 버리면 남이 웃는다.

23) 명석의 양 끝을 잡고 쳐서 곡식이 서로 잘 섞이게 함.

24) 어느 일이라고 잘 한다고 하겠는가.

25) 하다가 내버리면 남이 웃는다.

26) 밝을 때 먹자.

27) 풀을 뽑고 주으면서 가자.

28) 정절을 잘 지키면서 집안 일을 착실히 다스리는 아내.

29) 오름 위의 돌

30) 살 도리가 생긴다.

2. 노(네) 젓는 소리

①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제 보 자 : A-김복순 할머니, B-김복녀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A : 이어사 이어도사나	B : 이어도사나
A : 허~어귀야디야 이어차 방아로다	
A : 요목조목	B : 요목조목
A : 울산목가 ³¹⁾	B : 이어싸
A : 젓고 가자	B : 이어도사나
A : 쳐라쳐라	B : 이어차
A : 요물아래	B : 이어사나
A : 은과금을	B : 짚렸어도
A : 짚렸건만 ³²⁾	B : 짚렸건만
A : 높은 낭기에 열매로구나 ³³⁾	B : 이어도사나
A : 이어도사나 이목저목	B : 이어사나
A : 울단목이	B : 어귀야디야
A : 다드렸구나	B : 산이로구나
A : 이어차소리에	B : 산도 넘어
A : 올라나간다	B : 가는구나
A : 이어차 물도 넘어	B : 이어차
A : 가는구나	B : 이어사나
A : 어귀야디야	B : 어귀야디야
A : 저어라 쳐라 요목조목	B : 잘 넘어간다
A : 울단목이	B : 짚물고개
A : 다 들어간다	B : 젓고가자

31) 훑던 목인가

32) 짚렸건만.

33) 높은 나무 위의 열매로구나.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A : 이어사나	B : 언물고개
A : 젓고나가자	B : 이어차소리에
A : 저어라쳐라	B : 올라나가게
A : 어여차디아	B : 이어도사나
A : 어야디아 앞밭로랑	B : 절로 차곡
A : 거뒤차명 뒷밭로랑	B : 뒷밭로랑
A : 차고가자	

②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제 보 자 : A-현옥란 할머니, B-강봉일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A :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네젓고 어디나가코³⁴⁾

진도바당 한골로가자³⁵⁾

이어사나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B : 이어사 이어사 헤 이어사나

간담하니 왜 또 왔나

울고나갈 길 왜 또 왔나

이어사나 저어라 쳐라

A : 저어라 쳐라

허여디여 허기여디여

요목조목 울단목가

헤어나 청청 넘어나가자

어야디아 어기야 디여 어야디아

③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오후

제 보 자 : A-고순자 할머니, (김복녀 할머니)

34) 요 노를 젓고 어디를 가리.

35) 진도바다 한 골로 가자.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요 벤드레³⁶⁾ 끈어지면 부산항구 아시아노³⁷⁾가 업슬말가
요내 손착³⁸⁾ 떨어지면 무슨 약이 업슬소나 이어 사나
이물³⁹⁾에랑 이사공아 고물⁴⁰⁾에랑 고사공아
허릿대⁴¹⁾밑에 화정하야 물 때 점점 늦어나간다
이어도사나 쳐라쳐라 (쳐라 쳐라 잘도 나간다)
잘도 나간다 (흔물고개) 이물저물 (잘 올라간다)
올단 목을 (이어차)젓어나 올라 (이여차)
올라나가자 (이어사나)
요 벤드렌 끈어지면 한라산에 고목나무 업슬소나 이어도 사나
올로 뱅뱅 돌아진 섬에 삼시나 굶영 물질허영⁴²⁾
훈푼 두푼 모여논 금전 정든 님 신짜 안에 다 들어간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목저목 올단 목에 한목지영 올라나가자
(잘도 나간다) 이어도사나 (쳐라쳐라) 쳐라쳐라
(잘올라간다)잘올라간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앞산은 가차와지고 뒷산은 멀어나지네
이어도사나 (쳐라쳐라)쳐라쳐라
잘 올라가네 (잘 올라간다)
어여차(어여차) 소리에 배 올라간다 (이어사) 이어사
언제나 (이어도사나) 진 노미 (이어도사나) 돌아나와서 (이어도사나) 이어
도사 가보니 (이어도 사나)

36)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배 명에와 노 손을 묶어 놓은 밧줄.

37) 아사노, 삼(麻)으로 끈 노끈, 삼의 일본어가 '아사' 이므로 생겨난 말.

38) 요 내 상착, 요 노를 상책. '상책'이란 노의 상반부를 말함.

39) 배의 머리쪽.

40) 배의 뒷쪽.

41) 배의 허릿칸에 세운 돛대.

42)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 삼시나 굶어서 물질을 하여.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모인 즈팍에⁴³⁾(이어도사나) 자리젯에 (이어도사나) 으진 즈진 (이어도사나)
먹을거여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이
어사(이어도사나)

저서라박여 (이어도사나) 저라쳐라 (저라쳐라)

흔물고개(흔물고개) 잘 넘어간다(넘어나간다)

들물고개(들물고개) 잘 넘어간다(잘 넘어간다)

저라쳐라 (이어사나)

우리나 어멍(우리나 어멍) 날 날적에(날 날적에) 요 물질허렌 (요 물질허렌)
날 낳던가(날 낳던가)

어여사나 (어여차) 이어도사나 (이어사)

어기야디아 어기허라 어야차 어기혀 어기허라

어떤 년은 팔즈나 조앙 (흔질두질) 건대강실⁴⁴⁾(들어가민)

높을 적에 (저승도감) 잘 살건마는

어기야디아

요 내야 팔즈(요 내야 팔즈) 무슨 날에(무슨 날에) 날 낳~고(어여차)

요 물질이(쳐라쳐라) 웬 말이다냐(쳐라쳐라) 웬말이다냐 (져어라 쳐)져어라 쳐

산 므루로 (어기야디여) 므루가 있나(저라쳐라) 요물고개(요물저물)

므루가 없나(훈던 목가) 저라쳐라 (이어도사나)

우리 나 ~ (이어도사나) 해너덜(이어도사나) 불쌍혹곡 (이어도사나)

가련허니(가련허니) 흔질두질(흔질두질) 들어가보니(들어가보니)

저승손이 (고동생복을) 물질을 허네(많았건만은)

이착 손에 비창들고 (흔착손에)

흔착⁴⁵⁾ 손에 전복잡고 흔질두질 올라와보니(어야디아)

하널에는 (이어도사나)~ 뻔이 소망(이어도사나) ~나는구나 (잘도 간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쳐라쳐라 히~ (쳐라쳐라)

43) 조밥.

44) 고대강실.

45) 한쪽.

훈목지곡 (어긋야디아) 저목 가자
 요 노를 젓고나 보니(젓고나보니)
 고향생각이 절로나 난다(어긋야 디야)
 이어도사나 ~ 이어도사나
 쳐라쳐라(쳐라쳐라) 어긋야디아 (잘 올라간다) 이어도사나
 (어여차)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어긋야디아)
 혼질두질 들어가서 어야농창 잘못되믄
 돌베개를 베개로 삼고 감태이불 덕더리삼아
 이어서 ~이어서

④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제 보 자 : A-김도원 할머니, B-김도순 할머니

조사장소 : 김도순 할머니 댁

A :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서나~ 이어도사나~
 이 물에랑~ 이 사공아~ 고 물에랑~ 고 사공아~
 허릿대 밑에~ 화장아야~ 물 때 점점~ 늦어나간다
 저라 쳐라~ 쳐라 쳐라

B : 저어라 쳐

A : 이 무루엔~ 그만 치곡~ 이 물에는~ 저 낭 꺾엉

B : 저어라 쳐

A : 어야 디야~ 산이로구나~

앞발로랑~ 허우치멍~ 뒷 발로랑~ 거두어치멍~

거다 철철~ 나가보세

쳐라 쳐라~

B : 쳐라 쳐라

A : 어기여차~ 어기여차~ 이여차

B : 요목조목

A : 짓든 목가~ 올단 목가 ~

B : 사람되야~

A : 저 골목에~ 올려나 쳤던~

A :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B : 젊은 청춘~ 지는 노는~

A : 젓는 손은

B : 고향 천리~ 가건마는~

늪은 놈이~ 지는 노는~ 썩은 나무~ 덕더리*여~

A : 쳐라 쳐라

B : 쳐라 쳐라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A : 우리어멍~ 날 날 때는~ 가시나무~ 몽고지⁴⁶⁾영~
손에 썩이 박으라고~ 날 낳던가
어긱여차~ 어긱여차 어긱여차
산이 높아~ 몬 오거든~ 말이나 타고~ 건나오고~
물이 깊어~ 몬 오거든~ 배를 타고~ 건나오소~
어긱야차~

B : 어긱여차

A : 저라 저라

⑤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제 보 자 : 강경규 할아버지, (김도원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어야디여 어야디여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요 늦동이 (이어도사)

뫓을 먹고 (이어도사)

곰실곰실 잘도 나가네 (이어도사)

요네착이 부러지면 한라산에 나무가 없나 이어도사

(요네상착) 이어도사 (부러지면 부산항구) 요벤들레

꿍어지면 아사이노 공장이 불이났나(어여차)

이어도사 우리나라 배는 잘도 나간다 (이어도사)

요 홀목⁴⁷⁾이 부러지면 제주도의 도립병원이 없을소나

(어여차) 이어도차 스무나믄 설라믄에

요 궁둥이를 놈을 준들 요니착을 놈을 주라

이어도사 이어도사

흐믄루만 젓어나보자 이어도사 올단 목에 배 올라간다 이어도사

흐믄루나 저서나주자

이어사나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46) 나무 둥치.

47)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노 위쪽 끄트머리에 마련된 손잡이.

48) 손목.

요 놋동이 뭐슬 먹고
기름통을 먹었느냐 꿀통을 먹었느냐
궁실궁실 잘도 나간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사
젓엉가건⁴⁹⁾ 우는 애기 젓을 주마~
개 도야지⁵⁰⁾ 채를 주마 이어도사
이어도사나 이어도사
한뫼루만 저성가자 이어도사
원수년이 앞바람에 요내가슴 다 태우네
이어도사 이어도사

⑥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도원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이어사나
우리어멍 날 날적에 가시나무 몽고지엔
손에 썩이 박으라고 날 낳던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촌물나면 동이바당 들물나면 서해바당
동도 철도 없는 사람
어디가면 야픈디⁵¹⁾도 몰라지고
지픈디⁵²⁾도 몰라지고
어서젓엉 어서나가자

49) 저어서 가면.

50) 돼지.

51) 얇은 곳.

52) 깊은 곳.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어여차 어여차 어여차
어기야디아 산이로구나
산천이사 변헌데도
요내속은 변홀소나
이어라쳐라 저어라쳐라 저어라쳐라
우리배는 남니물에엔 노만지고
든니물에엔 절만노네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허릿디 밑에 화장아야
물 때 점점 늦어나간다
쳐라쳐라 쳐라놓차

3. ㄹ레ㄹ는 소리

①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제 보 자 : A-현옥란 할머니, B-강봉일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A : 이영 이어 이어 이어도 ㄹ레 곶양

 즈낙이나 붉은 제 햅영 먹게

B : 이어 이어 어~ 이어도 햅래

A : 본데~ 즈낙~ 어둑은 집이~ 오늘이런 붉은 제 햅⁵³⁾

B : 이어 이어 이어도 ㄹ래

A : 가난허곡 서난⁵⁴⁾ 중생⁵⁵⁾

B : 이어 이어 이어도 ㄹ래

53) 원래 저녁밥이 어두워서 되는데 오늘이라고 일이 일찍 끝나서 밝은 때먹겠는가.

54) 가난하고 서럽다. 빈한한 살림살이를 강조.

55) 중생

- A : 이언~ 이어~ 언 이어도 흐라
B : 이어~ 이어~ 이어도 ㄱ레
A : 이어~ 이~어~ 이어~ 도 흐라
B : 하여~ 먹젠 산전에 올라~
A : 나 놀래야 산 넘어가라⁵⁶⁾
B : 마의 정당 췌정당 줄에⁵⁷⁾
A : 하 나 노래랑 물 넘어가라⁵⁸⁾
B : 발을 걸려 유립더라⁵⁹⁾
A : 산도 물도 넘지나 말어라
B : 이영~ 이~ 영 이어도 ㄱ레
A : 이~ 언 이~ 언 이어도 흐라
B : 어떤 년은 어~ 팔즈가 좋앙
A : 한 술밥을 열 놈이 먹어그네
B : 고대~ 공실⁶⁰⁾ 높은 집이네
A : 오늘 일은~ 붉아렐 호라
B : 이어 이~어 이~어도 ㄱ레
A : 이어 이~ 언 이~어도 흐라
B : 어야 디여 선이로구나
A : 세상~ 만스~ 허스로구나~ 이야
B : 이여~ 이여~ 이어도 ㄱ레
A : 가민 올 줄 몰라야 지는구나
B : 이여~ 이여~ 이어도 ㄱ레

②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도원 할머니

56) 내 노래야 산을 넘어가라.

57) 소나 말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지줄로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것.

58) 내 노래야 물넘어 가라.

59) 쇠정당 줄에 발을 걸려서 나오지도 못하고 굶어 죽고 있더라.

60) 고대광실.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조사장소 : 김도순 할머니 댁

이언~ 이어~ 현 이어동~ 허라
아침~ 밥은~ 정심에~ 먹곡~ 점심~밥은~ 저녁~에~ 먹엉~
이어~ 이어~ 이~언 이어도~ 허라~
본데~ 저녁~ 어둔~ 집의~ 오늘~이엔~ 불가냐~ 혼다~
이언~ 이언~ 이어도~ 허라~
설새~ 구진~ 애기여~ 마는~ 난~보난~ 새남~이러라~
이언~ 이언~ 이어도~ 허라~

③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제 보 자 : 강오백 할아버지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이어~ ㄱ라~ 어 이어동 허라 헤~
지서명광 오름엿 돌은~ 둥글당도 살을매 난다~⁶¹⁾
이어~ 이어~동 허라 헤~
나 어멍~은 그리는 애기~ 남은~ 주난 종으로 매네⁶²⁾
이어~도 허라 허~ 이어~ 이어~ 어~
이어~동 허라 허~

④ 조사일자 : 99년 8월 1일 오전

제 보 자 : 박춘생 할머니

조사장소 : 박춘생 할머니 댁

이 ~ 어 ~ 이어 이어도 ㄱ라
우리 ~ 나 ㄱ래에 뱅뱅 ~ 잘 돌아나 가라
이어 ㄱ래 고들배 ㄱ라그네⁶³⁾

61) 지어미(주부)와 오름 위의 돌은 구르다가도 결국은 산 아래에 멈춰 쓸모있게 된다.

62) 어머니를 그리는 아이. 남을 주니 종으로 쓰네.

63) 같아서.

저녁이나 붉은 제 하라⁶⁴⁾
이어 이어 ~ 이어동 하라
ㄱ레 뱅뱅 잘 돌아 도네
이어 ~도 하라
본데 저녁 어두근 집이여
오늘이엔 붉은 제 하리아
이여 ~ 이여 ~ 이어동 하라
노세 놀 땀 놀고 일 혈땀 부지런히 곱아보라
이어도 ㄱ레 ~ 어서나 곱아보게
이어 ㄱ레 ~ 잘 도나 도네
뱅 ~ 뱅 곱아나보라
이어 ~ 이어 ~ 이어도 하라
언제나 ㄱ는 ㄱ레여
지치고 되나 곱아보게
이어 ~ 이어 ~ 이어도 하라
바쁜 줄 모른 그게 ㄱ레여
이어동 하라

4. 마당질 소리

①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제 보 자 : A-강봉일 할머니, B-오병주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A : 어긱야 흥~ 어긱야 흥~

어야 흥아 어긱야 흥

어긱야 흥~ 어긱야 흥

B : 어야 흥아~ 어긱야 흥아~ 어야도 허나

64) 밝은 때 하라.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요것이사 누게앞고

설은정네 앞이로구나⁶⁵⁾

A : 어기야 흥 허당말면 놈이나 웃나

영긋 잡앙 제친 듯 허라⁶⁶⁾

어기야 흥

B : 어야동허야 어야동허라

어기야 디야 산이로구나 물이로나

요 동산을 헤싸나 보자⁶⁷⁾

어야동허라 어야흥아 어야동 허라

②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오후

제 보 자 : A-김복순 할머니, B.-김복녀, 현옥란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A : 요것은 누게나 앞꼬

A : 에어하야

A : 어기야 흥아

A : 설룬 정녀 앞이로구나⁶⁸⁾

A : 에로하야

A : 어기야 흥

A : 어여하야 어기야 흥아

A : 어기야 흥

A : 어기야 흥아

A : 요것이 생곡일러라

A : (칭취 불능)생곡보른 외고노라

B : 에야하야

B : 어기야 흥

B : 어기야 흥

B : 에로하야

B : 어여하야

B : 어기야 흥아

B : 어기야 흥

B : 어기야 흥아

B : 어기야 흥아

B : 어기야 흥아 설룬 정네 앞이로구나

65) 젊은 貞女.

66) 양끝 잡아서 채친 듯 하라. 멍석의 양끝을 잡아서 곡식이 잘 섞이도록 마무리를 해라.

67) 곡식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을 고루 펼쳐보자. 덜 타작된 이삭이 한데 모여있는 것을 고루 펼쳐보자.

68) 불쌍한 사람의 앞이로구나

白鹿語文 第16輯(2000. 2.)

- | | |
|-----------------------|------------------|
| A : 어긋야 흥아 예로하야 | B : 잘도 한다 |
| A : 예아허야 | B : 어긋야 흥 |
| A : 요놈의 동산 매고농자 | B : 어긋야 흥 |
| A : 어긋야 흥 | B : 어긋야 흥 |
| A : 어긋야 흥 | B : 어긋야 흥 |
| A : 한 므루랑 | B : 어긋야 흥 |
| A : 지고 나가곡 | B : 어긋야 흥아 |
| A : 흥 모루랑 매고가자 | B : 예긋야 흥아 |
| A : 예요하야 | B : 예요하야 |
| A : 어긋야 흥 | B : 어긋야 흥 |
| A : 어긋야 흥 | B : 예야허야 |
| A : 잘도한다 예요하야 | B : 어긋야 흥아 |
| A : 아야하야 | B : 어긋야 흥아 |
| A : 요 마당질 | B : 어긋야 흥아 |
| A : 허고보니 | B : 어긋야 흥아 |
| A : 우는 애기 | B : 어긋야 흥아 |
| A : 젓도 못주고 | B : 어긋야 흥 |
| A : 어긋야 흥 | B : 어긋야 흥 |
| A : 어긋야 흥 | B : 어긋야 흥 |
| A : 매고나 농자 | B : 어긋야 흥 |
| A : 요 동산을 매고나 농자 | B : 매고 놀자 |
| A : 요동산을 | B : 설룬 정네 |
| A : 예요하야 | B : 예요하야 |
| A : (청취불능)생곡에도 므루가 있나 | B : 어긋야 흥아 요 므루냐 |
| A : 요 마당질 | B : 어긋야 흥아 저 므루냐 |
| A : 므루를 주자 | B : 어긋야 흥아 |
| A : 예야 허야 | B : 그칠소냐 |
| A : 어긋야 흥 | B : 어긋야 흥 |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③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제 보 자 : 강오백 할아버지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어긱야 흥~ 어긱야 흥~ 어야 흥~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야~ 나고나가라
어긱야 흥~ 어~ 에야 흥~
내 팔즈야 어~ 어 내 팔즈야
내 팔즈 내 사주를 올린다
어긱야 흥~ 어~ 어긱야 흥~
느 앞에는~ 생곡이⁶⁹⁾여
흔 머루나 놀고나가자 흔 머루나 지고나가자
어긱야 흥~ 어긱야 허야

④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오전

제 보 자 : 이도화 할머니

조사장소 : 황춘자 할머니 덕

어긱야 흥아 허이 ~ 어긱야 흥아
우리 팔즈⁷⁰⁾ 무신 췌 지성
벧난 날에 마당질만 허곡⁷¹⁾
어떤 사람은 만복을 지녕⁷²⁾
요런 날에 일 아니 허여도 잘 살건만
어긱야 흥아 ~ 어긱야 흥아 어긱야 흥아

⑤ 조사일자 : 99년 8월 1일 오전

제 보 자 : 박춘생 할머니

69) 생곡(生穀), 덜 타작된 이삭을 두고 하는 말.

70) 팔자는.

71) 햇빛 나는 날에 마당질만 하고.

72) 지녀서.

조사장소 : 박춘생 할머니 댁

(1)

어여 하야 어긱야 흥 어여 하야 어 ~ 어여하야
요 보릴 두드령 흔저나⁷³⁾ 두들주
요 동산은 ~ 누게나 앞고
서룬 정네⁷⁴⁾에 앞이로구나
모다 들멍 때려나보라
어서 때려 붉은 제 때리게
어긱야 흥아 어여 하야
흔 마루랑⁷⁵⁾ 놀고 나가고
흔 마루랑 때리고 가자
어요 하야 어 ~ 어긱요 하야
모다 들멍 때려나 보자
어여 흥 ~ 어여 흥 ~

(2)

어여 하야 어 ~ 어긱야 흥아
벧난 날에 ~ 요 마당질
어서 어서 때려나 보게
요런 날에 ~ 요런 일 하기
성도 얼마 가실손가⁷⁶⁾
어야 흥 ~ 어야 흥
저 동산을 때려나 보게
서룬 정네에 앞이로구나
모다 들멍 때려나 보게
어야 흥 ~ 어긱야 흥

73) 어서 빨리.

74) '貞女'란 어려움 속에서도 건실하게 집안을 잘 다스리는 여인.

75) 한 마루일랑.

76) 얼마나 성가실 것인가.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어여 하야 ~ 어 ~ 어여 ~ 하 ~
모다 들멍 어서 바빠
붉은 때 ~ 때려나 보게
어여 흥 ~ 어여 하야
어긔야 흥아 ~ 어긔야 하야
요런 날에 ~ 요 마당질
하루⁷⁷⁾나 바빠 때려나 보게
어긔야 흥 ~ 어긔여 하야
모다들멍 때려나 보라
어여 하야 ~ 어긔야 하야
흔 므루랑 쉬고 나가고
흔 므루랑 때려나 보라
어여 하야 어서 때리라
흔시나 바빠 ~ 때려나보라
어여 흥 ~ 어긔여 하야
모다 들멍 즈직즈직⁷⁸⁾ 때려나보라
잘도 잘도 므사나지네⁷⁹⁾
어긔야 하야 ~ 어 ~ 어긔야 하야
놀다가는 므루라고
놀러가고 하루나 바빠 때려나 보라
어여 하야 어긔야 하야
어긔야 흥 ~ 어여 흥
그만 저만 때려나보라
거주⁸⁰⁾ 반 때려나 찢겨
거 마당질 비치락으로

77) 하루.

78) 자빠르게.

79) 부수어지네.

80) 거의.

거두아들멍 때려나 보자
어요 해야 그만 저만 다 들어간다
어긔야 흥 ~ 어여 해야
다 때렸져 그만 때리게 거두와 들라

5. 자장가

①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오후

제 보 자 : 현옥란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왕이자랑	자랑자랑
누왕자랑	애기야
왕이왕이	왕이자랑
무사아닌	잠시니 ⁸¹⁾
느가누왕	자비어사
어멍일을	헐꺼 아니가
자랑자랑	자랑자랑
무사 애기야	울엄디
울지말라	애기야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애기	재와줍서
노미 ⁸²⁾ 애기	재와주마
자랑자랑	자랑자랑
우리애기	착한애기
누왕자라	애기야
울지마랑	누왕자라

81) 왜 안 자느냐.

82) 남의.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윙이자랑	윙이자랑
어서자라	윙이자랑
자랑자랑	윙이자랑
우리애기	잘도잔다

②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우리애기 잘도잔다
자랑자랑 자랑자랑
은자동아 금자동아 누윙자라
금자동아 은자동아 누윙자라
마을에는 이장 날 놀아
군엔가민 군스⁸³⁾ 될 놀아
도엔가민 도지사⁸⁴⁾ 될 놀아
멘엔가민 멘장 날 놀아⁸⁵⁾
윙이자랑 윙이자랑 자랑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윙이자랑

③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보배 할머니

조사장소 : 김도순 할머니 댁

자랑자랑 윙이자랑
우리 애기 노는 소리
은과 금을⁸⁶⁾ 제운 소리
윙이자랑 자랑자랑

83) 군사.

84) 도지사.

85) 면에 가면 멘장 될 놀아.

86) 은과 금을.

은자동아 금자동아
일개⁸⁷⁾에는 화목동⁸⁸⁾아

- ④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도원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자랑자랑 뽕이자랑
자랑자랑 자랑자랑
올지말고 누뽕자라
우리애긴 꽃 밧되다 눅히고
눔으 애긴 개뽕 밧되 눅히고
자랑자랑 자장자장 자장자장
훈저 자당⁸⁹⁾ 깨어나민
어머니가 오시면은
젓도 먹고 우유도 먹고 자장자장
뽕이자랑 뽕이자랑
자랑자랑 자장자장
따뜻헌디 누뽕자라
손도 참고⁹⁰⁾ 밧도 참고
추운디서⁹¹⁾ 줌을 어떻게 자나
누뽕자라 누뽕자라

- ⑤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오전
제 보 자 : 이도화 할머니
조사장소 : 황춘자 할머니 댁

87) 일가.

88) 和睦童.

89) 빨리 자서.

90) 차갑고.

91) 추운 곳에서.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자랑 자랑 똥이자랑
어진 할망 손지⁹²⁾ 잘도 잔다
자랑 자랑 똥이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자는 소린
은과 복을 지우는 소리
놈의 애기 자는 소린
은과 복을 내부는 소리
자랑 자랑 똥이자랑

- ⑥ 조사일자 : 99년 8월 1일 오전
제 보 자 : 황춘자 할머니
조사장소 : 황춘자 할머니 댁

자랑 자랑 똥이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멍멍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자는 소린
은둥개야 금둥개야 짖지 마라
똥이자랑 똥이자랑 자랑 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 ⑦ 조사일자 : 99년 8월 1일 오전
제 보 자 : 박춘생 할머니
조사장소 : 박춘생 할머니 댁

(얘기야 누워 자라)
자랑 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자네

92) 손자.

왕이자랑 왕이자랑
은즈동아 금즈동아
금을 주면 너를 사라
은을 주면 너를 사라
어서 자라 어서 놀라
자는 것은 줌이로다 노는 것은 놀미로다
왕이 왕이 왕이자랑 왕이자랑
(에 에 울지마랑 누왕 자라)
자랑 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어질 ㄹ뜨⁹³⁾ 할망 즈순⁹⁴⁾
자는 것은 줌이로다
노는 것은 놀미로다
부모에게 효심동아
형제간에 우애동아
동네 방네 우념동아
어서 자라 어서 놀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에 에 혼져 누왕 자라 즈녁⁹⁵⁾ 행 먹게)
자랑 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
(에 에 혼져 자라)
왕이자랑 왕이자랑
혼져 놀라 혼져 자라
왕이 왕이 왕이자랑
혼져 누왕 자사 즈녁밥도 지엄 먹게
어서 자라 어서 놀라
어질 ㄹ뜨 할망 즈순

93) 같은.

94) 자손.

95) 저녁밥.

우리 애기 착한 아기
어서 자라 어서 놀라
윙이 윙이 윙이자랑

6. 서우젯 소리

①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제 보 자 : A-김도원 할머니, B-강오백 할아버지, 강경규 할아버지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A : 에야~ 디야~ 방아로구나

B : 아~ 어양~ 어~ 야

A : 나를 두고 가시던님은

B : 아~ 어양~ 어~ 야

A : 십리도 못가서 신 발뽕⁹⁶⁾이 나는구나

B : 아~ 어양~ 어~ 야

A : 어여차 소리엔 배 올라가네

B : 아~ 어양~ 어~ 야

A : 디여차 소리엔 닷을 감아간다

B : 아~ 어양~ 어~ 야

A : 날 버리고 가신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뽕이 나네

B : 아~어양~어~야

A : 대천 바당 한가운디 십리 벗언 혼자가네

B : 아~ 어양~ 어~ 야

A : 어여차 소리로 다 넘어가네

B : 아~ 어양~ 어~ 야

② 조사일자 : 99년 8월 1일 오전

제 보 자 : 박춘생 할머니

조사장소 : 박춘생 할머니 댁

어여디여 방애로구나

어여차 소리에 닷 감겨가네

여든 닷발 버든 닷을

줍줍이나 사려나 보소

이물⁹⁷⁾에랑 이사공아

96) 발뽕.

97) 배의 머리쪽.

고물⁹⁸⁾에 랑 고사공아
벳머령만 돌려나주소
우리나 짓는 적걸이노⁹⁹⁾
배 ~ 빠르게 놓아나가네
어여차 디여차 방애로구나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 노리라
어야 디야 방애로구나
간다 간다 내 돌아가네
어여 디야 방애로다
가시오름¹⁰⁰⁾ 강당장칩이여¹⁰¹⁾ 이름난 부호였는데 욕심이 지나쳐 망했다.
식콜방애¹⁰²⁾ 새 글러가네¹⁰³⁾
우리 성제¹⁰⁴⁾ 삼성제 드난
식콜방애 맞아간다
어여디여 산이로다
산도 물도 단단히 넘영
저딛 올레¹⁰⁵⁾지 넘영가네
어여 디여 산이로고다
어긔여 디여 방애로고나
간다더니 왜 또 왔소
올고 갈 길 왜 왔던고나
어여 디여 방애로다

98) 배의 뒤쪽.

99) 저룻배 양 옆에서 짓는 노.

100)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101) 康堂長집에.

102) 제주도 특유의 '남방애'를 세 사람이 짊을 경우.

103) 두 사람 이상이 절굿공이를 들고 '남방애'를 짊을 경우, 그 사이가 애긔나서 어울리지 못하고 있더라.

104) 형제.

105) 저딛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③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저녁

제 보 자 : A-김수길 할아버지, B-임태삼 할아버지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A : 동쪽으로 떴던 해는 서창으로 다 지도록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청춘남녀가 짝을 지어 양양삼삼도 다니진만은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동쪽으로 떴던 해는 서창으로 다 지도록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천지시간 만물중에 사람밖에는 또 있으라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놀다 갑시다 자다 갑시다 저 달이 다 지도록 놀다나 갑시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얼씨구 좋다 놀아보세 진도차게 놀아나보자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천리 강산 들어가니 폭포도 장히 좋더라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살장구 소리에 내마음 소리에 그렇게도 힘을 주지 마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하늘 천자 따 지자에 집 우자로 집을 짓고서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날일 자로 영창문을 달 월자로만 달았더니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밤 중에다 유정님 만나 별진자숙이 웬 말이더냐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앞동산엔 푸를 청자 뒷동산엔 내 천자로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무정 세월 여유하야 원수 백발에 돌아나오면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 A : 없는 망령도 절로 나고 없는 시녕도 절로나 난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 A : 천리 강산 들어가니 폭포도 장히 좋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 A : 세월 네월아 가지를 마라 옥빈홍안¹⁰⁶⁾도 다 늙어간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 A : 노세 놀아 젊아 놀아 늙어지면 다 못노나니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 A : 설위를 말어¹⁰⁷⁾ 설위를 말어 늙어지면을 설위를 한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 A : 동쪽으로 드는 액은 이월 한식에 막아나 줍서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 A : 이월이라 드는 액은 삼월 삼짓날로 막아나 준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 A : 삼월이라 드는 액은 사월 초파일로 막아나 준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 A : 사월이라 드는 액은 오월 단오로 막아나 준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 A : 오월이라 드는 액은 유월 유두로 막아나 줍서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 A : 유월이라 드는 액은 칠월 칠석 견우 직녀로 막아나 준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 A : 칠월이라 드는 액은 팔월 한가위로 막아나 준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 A : 팔월이라 드는 액은 구월 구일로 막아나 준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 A : 구월이라 드는 액은 시월 단풍이 다 쓸어갑니다

106) 옥빈홍안(玉嬪紅顏). 아름다운 컷머리와 붉은 얼굴. 곧 아름다운 젊은이의 모습.
107) 서러워 말라.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시월이라 드는 액은 동짓돌 주야로 막아주고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동짓돌로 드는 액은 첫달 비에다 다 쓸어간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천지시간 만물중에 사람 밖에는 더 있습니까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님전 배¹⁰⁸⁾를 빌고서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어머님전 살을 빌어 이내 인생을 탄생하여서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한두살에 철을 몰라 이삼십에 간담하여도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부모님 공덕을 다 못 갚고 애닦고고 서러운지고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무정 세월이 가는 동안에 옥빈 흥안도 다 늙어간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사시 장천¹⁰⁹⁾ 밤마다 있는 천사들이 별 그리고서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울다 남긴 내 사랑은 은하수곡을 들려나다오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천리강산을 들어가니 폭포도 인생이드라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설위를 마러 설위를 마러 이팔청춘이 다 간다해도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A : 늙어지면 못 노나니 청춘이다 놀고나 가자
B : 아 ~ 앙 허 ~ 야 ~ 앵 ~ 헤요

108) 뼈.

109) 사시장철. 사철의 어느 날이나 늘.

A : 천지 현황은 우주 흥황¹¹⁰⁾ 일월 영척¹¹¹⁾으로 놀고 나가시

B : 아 ~ 앙 허 ~ 야 ~ 앵 ~ 해요

A : 일자로소이다 일자로소이다 일자로만은 놀고나가시

B : 아 ~ 앙 허 ~ 야 ~ 앵 ~ 해요

7. 출 베는 소리

·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 제 보 자 : 강경규 할아버지

·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이~ 어~ 디~ 여~ 어~

산이로~구나 ~ 어

이여디여 어~어~어~

어~어~어기요~ 디~ 요~산이로구나 ~

어~ 어주리~ 비주리~

한 탈라미¹¹²⁾ ~ 거시로~구나~

어~ 어~ 어~ 어~ 야

어조리~ 비~ 주~ 래~

한 탈라미~ 것이로~구나 어~ 어~ 어 로야

요집~ 동네~ 지님~어 가네

해영~ 먹~젠~ 산전에~ 올라~¹¹³⁾

마이~ 정당~ 췌정당~ 즐에~

발을~ 걸령~ 유림~서~라¹¹⁴⁾

더~ 러~ 엄 산도~ 넘어나 가네~

110) 鴻荒, 아주 오랜 옛날.

111) 일월영축(日月盈仄).

112) 한 탈낭, 산 딸기나무.

113) 배가 고파서 많이 먹으려고 산에 올랐더니.

114) 발을 걸려서 굶어 죽고 있더라.

어야~ 어~허 디여~ 산이로~ 구나~ 어~ 허~ 야
살랑~ 사랑~ 하늬¹¹⁵⁾ ~ 불라~
늬신¹¹⁶⁾ ~ 부모 배 놓아~ 가네~
더~ 러~ 엄 산도~ 넘어나~ 간다

8. 밧 불리는 소리

-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저녁
- 제 보 자 : 김수길 할아버지
-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얼 ~ 얼 ~ 뱅뱅 돌아나오라
어 ~ 허 형 ~ 아이 월월월 월~월~ 하~랑
잘도 돌아 ~ 가는구나
왼쪽 낙단 쪽¹¹⁷⁾으로 잘도 돌아난다
엉 ~ 허 ~ 형 ~ 월월월월월월 어러러 월월
허 ~ 형 ~ 허 히 월월월월월월 위라 월월 하랑 월월
씨를 뿌리고 ~ 가꿔나가명 ~ 엉 ~
가을이면 풍년 되어서 거두워 들여서
겨울이면은 행복하게 먹엉 살아봅시다
어 ~ 형 ~ 허 ~ 이 ~ 어러러 월월월월월월
아 ~ 허 ~ 월월월 ~ 하랑
빨리 빨리 불려두고
도바끄로¹¹⁸⁾ 나가서는
물도 먹고 출도 먹고 허지 않고
요 몰들아 빨리 빨리 불령 나가기로 합시다

115) 북풍(北風).

116) 늬으신.

117) 오른 쪽.

118) 도 밖으로.

헤 ~ 헤 ~ 아 ~ 월월 ~ 하랑
천리강산 들어가니 폭포도 장히 좋다
유산 경계가 여기로구나
비류적저 삼천척은 옛말 삼아서 들었는데
어자현 나라구천은 과 ~ 언이 아니로구나
어 ~ 아예 ~ 월월월월월월 아 ~ 허 ~ 월 하랑
잘도 불령 ~ 빨리 빨리
대꼬쟁이도 안 들어가게 불려그네
조코고리¹¹⁹⁾낭 나커들랑
덩드렁마께¹²⁰⁾ 만씩이니¹²¹⁾ 허게 해여줍서~
엉 ~ 엉 ~ 아 ~ 예 월러러 월월 위러러 아 ~ 월월 하랑
요 몽생이는 배고파서
잘도 못 걸엄신가 흐는구나 어 ~
어려려 ~ 월월 헝 아 월월월 아 ~ 월월 하랑
천리강산 ~ 들어가도 바람¹²²⁾만 불어주면
선들선들 발 불리기에는 안성맞춤이로구나
헝 ~ 엉 ~ 어러러 월월 허 ~ 아 ~ 예 ~ 월월월
하 ~ 에 ~ 월월 하랑
우 ~ 로 돌면 ~ 뱅뱅 돌아가는 우측으로 돌아가고
좌측으로 돌면은 좌측으로 돌아간다
허 ~ 엉 ~ 빨리 빨리 돌아갑시다
어려려 월월 엉 ~ 아해 ~ 위러러 월월월월월월 ~ 아월 ~ 하랑
요놈으 몰들아¹²³⁾ 소리를 들어가면서
빨리 빨리 불려야만
빨리 빨리 나가서 목 마른 물이 있고 사료도 있으니

119) 조 이사.

120) 짚을 두드리는 방망이.

121) 만큼이나.

122) 바람.

123) 말들아.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많이 많이 먹을 거 아니냐

말들아 빨리 빨리 해영 빨리 빨리 나가도라

형 ~ 아 ~ 아 예 월월월월월월 월러러 월월 월월 ~ 하량

산엔 가난 ~ 산새들 소리만 들려오고

물에는 가난 ~ 해녀들의 숨비질 소리만 들려 오는구나

아 ~ 예 ~ 어러러 월월 아 예 ~ 월월월월월월 어 ~ 형 ~ 하량

9. 진토곳 불리는 소리

①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제 보 자 : 강경규 할아버지, 후렴: 임태삼 할아버지, 강오백 할아버지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A : 아~ 어~ 호 슬기허러 가자 B : 아~ 아~ 어~ 오

A : 파라~ 파라~ 깊이~파라~

깊이 파면~ 물이 나고~ 요리 파면~ 돌이 나네~

어~ 흡시다

B : 예~ 아~ 호

A : 천중~ 세월은~ 인증수요~ 천만에 곤곤 복만거로구나

어~아 흡시다

B : 아~ 아~ 허

A : 우리가~ 살면은 멧 백년~ 살거나~ 중생들아

어 어서어서 젊을 때 노력하고~ 저세상 갑시다

어~ 어 하나 흡시다

B : 아~ 아~ 호

②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저녁

제 보 자 : A-김수길 할아버지, B-임태삼 할아버지, 강경규 할아버지,

문군삼, 김석권 할아버지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A : 청춘 남녀 짝을 지어 양양 삼삼을 다니는데

우리님은 어디를 가고 단오 시절도 못 노나니

- 아 ~ 어 ~ 영 ~ 영 ~ 허 ~ 솔기로 갑시다
B : 아 ~ 이 ~ 아 ~ 오
A : 천리강산에 들어가니 폭포도 장히 좋고
유산경계가 어디러나 유산경계가 여기로다
어 ~ 어 ~ 어 ~ 영 ~ 허 ~ 흥아 흥아야
B : 아 ~ 이 ~ 아 ~ 오
A : 인생 한번 죽어지면 만수당님의 옴으로구나
영 허야 ~ 영 ~ 허 ~ 흥아 흥아야
B : 아 ~ 이 ~ 아 ~ 오
A :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여덟자만 파면 물이 나고 옥이 난다
영 ~ 허 ~ 영 ~ 허 솔기로 갑시다
B : 아 ~ 이 ~ 아 ~ 오
A : 유정이면 불가망이요 무정이면 유정이라
상주불견 하던 님은 어이 그리도 못 보는고
이후에 다시 만나 심중소회¹²⁴⁾나 풀어볼까
어 ~ 흥 ~ 어 영 ~ 허 ~ 흥아 흥아야
B : 아 ~ 이 ~ 아 ~ 오
A : 하늘 천자 따지 자에 집우자로 집을 짓고
날일자로 영창문을 달월재로 달았는데
밤중에다 유정님 만나 별진자숙이 웬 말이요
어 ~ 흥 ~ 어 영 ~ 허 ~ 잘해봅시다 그려
B : 아 ~ 이 ~ 아 ~ 오
A : 사랑 사랑 열 두 사랑 품안의 사랑이 왜 나를 울리는고
어 ~ 흥 ~ 어 ~ 영 ~ 허 멋있게 놀다갑시다
B : 아 ~ 이 ~ 아 ~ 오
A : 무정 세월 여루하야 원수 적발 돌아오면
없는 망녕도 절로나고 없는 시늬도 절로 난다

124) 心中所懷, 마음 속의 생각이나 느낌.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영 ~ 형 ~ 어 영 ~ 허 ~ 솔기로 갑시다

B : 아 ~ 이 ~ 아 ~ 오

A : 세월아 가지를 맡아 옥빈 흥안도 다 늙어간다

인생 한 번 죽어지면 만수장님의 움으로구나

영 ~ 형 ~ 어 ~ 영 ~ 허 ~ 노래하고 춤도 춥시다

B : 아 ~ 이 ~ 아 ~ 오

A : 천리 강산 들어가니 폭포도 장히 좋고 유산 경계가 여기로구나

영 ~ 형 ~ 어 영 ~ 허 ~ 흥아 흥아야

B : 아 ~ 이 ~ 아 ~ 오

A : 앞산에는 푸를 청자요 뒷동산에는 내천재라

굽이 굽이 내천재를 돌아가는구나

어 ~ 형 ~ 어 영 ~ 허 ~ 잘 놀아봅시다

B : 아 ~ 이 ~ 아 ~ 오

A : 북망산천¹²⁵⁾ 얼마나 좋아

꽃같은 님을 두고 홀로 간단 말이 왜 말이나

영 ~ 형 ~ 어 영 ~ 허 ~ 흥아 흥아야

B : 아 ~ 이 ~ 아 ~ 오

A : 천년 만년 살~을¹²⁶⁾ 집을 석괵¹²⁷⁾ 같이나 다져보자

영 ~ 형 ~ 어 ~ 영 ~ 허 ~ 솔기로 갑시다

B : 아 ~ 이 ~ 아 ~ 오

A : 산엔 가난 산새들 소리요

물엔 가난 숨비질소리¹²⁸⁾만 들리는구나

영 ~ 형 ~ 어 ~ 영 ~ 허 ~ 놀다 갑시다

B : 아 ~ 이 ~ 아 ~ 오

125) 北邙山, 墓地.

126) 천년 만년 살.

127) 石槨.

128) <숨비>·<숨비소리>·<숨비>·<숨비소리>·<숨비질소리>라고도 하는데, 물 속에서 해녀가 수면에 머리를 치켜들고 동시에 <호호이>하고 휘파람소리 비슷하게 거센 호흡을 하는 일을 뜻한다.

- A : 사랑에 든 정을 변치를 말고 변치를 마라
무정세월 여유하는 줄은 왜 넌 몰라주나
엉 ~ 헝 ~ 어~ 엉 ~ 허 ~ 솔기하고 갑시다
- B : 아 ~ 이 ~ 아 ~ 오
- A : 천지현황 우주홍황 일월 영측으로 놀아나 보자
엉 ~ 헝 ~ 어~ 엉 ~ 허 ~ 잘덜 햄수다 그러
- B : 아 ~ 이 ~ 아 ~ 오

10. 시집살이 노래

①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제 보 자 : 고순자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아니 놀지는 몬 허리라

너영나영 살게만 되믄

멜젓¹²⁹⁾ 단지도 요만 즈만

요강 단지도 요만즈만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 놀지는 몬 허리라

삼등기차 삼등안에 정든님을 실어노코

너도 병긋 나도 병긋 둘이 눈이 맞아간다

얼씨구 절씨구나 아니 놀지는 못 허리라

바늘 ㄱ치¹³⁰⁾ 약한 몸에 시집살이가 웬 말이나

②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제 보 자 : 현옥란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129) 떨치 젓갈.

130) 같이.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얼씨구 좋다 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 흐리야 아니 쓰지도 못 흐리라
형님 형님 사춘 형님 시집살이가 어떻게가
아이고 애야 말도 말라
장독ㄱ튼 시아방에 암퇘ㄱ튼 시어멍에
슬래기 닭은 시누이에 물함박 닭은 내 서방에
얼씨구나 좋다 저렐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 흐리라
아니 쓰지도 못 흐리라
너와 나와 만날적에 백년¹³¹⁾ 살려고나 만났는데
너와 나와 영 이별 할적에 경찰서가 웬 말이더냐
얼씨구 저렐씨구 아니노지 못 흐리라 아니 쓰지도 못 흐리라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디¹³²⁾ 밧디 앓지¹³³⁾ 마라
녹디나 꽃이 털어지면은 창포나 장신 울고 간다
너와 얼씨구나 좋다 저렐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 흐리라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고 설워마러
맹년이 춘삼월 되면은 꽃도 피어 만반하고
있도나 피어 만반한데
오실님은 안 올망정 잠조차 가져간 님
생각허기만 내가 잘못
얼씨구 저렐씨구 아니 노지 못 흐리라

③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오후

제 보 자 : 현옥란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가 어떻게가

131) 백년.

132) 녹두(綠豆)

133) 앓지.

아이고야야 말도말라
고추생강이 맵다하여도
시집살이 만이나 더 맵겠나
물구덕¹³⁴⁾ ㄱ뜬 서방님에
장독 ㄱ뜬 시아버지에
암푼 ㄱ뜬 시어머니에
물구덕 ㄱ뜬 시누이에
요 시집살이 허젠허난¹³⁵⁾
귀도석덜 막앙살고
요렇게도 답답혀여
저렇게도 서러운데
요 시집살이 허젠허난
마페치매¹³⁶⁾ 혼자락이
눈물씻고¹³⁷⁾ 닦아주고

④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오전

제 보 자 : 이도화 할머니

조사장소 : 황춘자 할머니 댁

시집살이가 맵다한들 고추장보단 매울소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 아니 노지도 못 흐리라
어떤 사람은 팔재도 좋앙 눈물 없이도 잘 살건만
우리야 같은 이 내야 몸은 무슨 죄 와서 날 낳던고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 아니 놀지 못 흐리라
장독¹³⁸⁾ 닦은 씨아방에 암푼¹³⁹⁾ 닦은 씨어명에

134) 물동이를 넣고 지어 다니게 된 대로 만든 큰 바구니.

135) 하려고 하니까.

136) 마베치마

137) 쓸고.

138) 수탉.

139) 암탉.

우리 전생¹⁴⁰⁾은 무슨 쥘 나서 요런 시부모 태와났나

11. 창부타령

·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 제 보 자 : 김도원 할머니

·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 흐리라
아니 스~영¹⁴¹⁾ 무엇을 하나 아니 놀앙 무얼하나
꿨았을 때 먹고 쓰고 거부렁거리고 놀아보자
얼씨구나~ 얼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 흐리라
이구 십팔 열여덟살에 연세 좋아 연애 걸고
삼구 이십칠 스물 일곱 실망당은 너로구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아나는 못 노리라
아니 쓰~영 무엇허나 아니 놀앙 무엇허나
높은 산에 눈 누리듯 낮은 산에 재 불리듯
널리리야 널리리 널리야 널널~리 널널리야
나~ 나~ 나~ 난나나~
널널리 널리리~ 널널~ 널널리야
한강 바당 배 띄워 노코¹⁴²⁾ 심정타는 내로구나
아니 놀앙 무엇하명 아니 쓰영 무엇하리
널널리 널리리야 널널~ 널널리야~
한라산이 돈이라도 시름웃이는 그만이고¹⁴³⁾
한강수가 술이라도 먹을 놈 웃이는 그만이라

140) 전생.

141) 쓰다.

142) 배 띄워 놓고.

143) 한라산만큼 돈이 있더라도 시름 없이는 필요없고.

얼씨구 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 흐리라
아니 쓰~영 무엇을 하나 아니 놀앙 무엇하나
나~ 나~ 나나~ 나라

12. 해녀 항쟁가

①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오후

제 보 자 : 강봉일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우리는 제주도의 가이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로다
추운날 더운날 비가 오는 날에는
저 바다에 물결우에 시들이 운놈
아침 일찍 집을 떠나 밤이 되면 돌아와
우는 아이 젖 주면서 저녁 밥 진다.
하루 종일 일했으니 밤이 되어 돌아와
우는 아이 젖 주면서 저녁 밥 진다.

②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도원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우리는 제주도의 가이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로다
추운날 더운날 비가오는 그날에
아침 일찍 집을 떠나 장군되면 돌아와
어린 아이 젖먹이며 저녁밥 진다

13. 동요

① 조개파는 노래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제 보 자 : 현옥란 할머니, 김복순 할머니

조사장소 : 종달리 마을회관

조왕조개 하나만 주라

나발에랑 몽콜 몽콜

놈의 발에랑 맨질맨질

조왕조개 하나만 주라

든물조개 하나만 주라

조왕조개 조왕조개

② 조개파는 노래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제 보 자 : 현봉여 할머니

조사장소 : 김도순 할머니 댁

조왕조개 하나만 주라

나 발에는 몽콜 몽콜

놈이¹⁴⁴ 발에랑 민질민질

조왕조개 하나만 주라

③ <헤엄치다가 큰 배가 들어올 때 부르는 노래>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도원 할머니

조사장소 : 김도순 할머니 댁

배때 배때 콩콩 물아래비 동동

배때 배때 콩콩 물아래비 동동

144) 남의.

④ <여럿이 마주 앉아 다리를 엇갈려서 펴 놓고>

흔다리 인다리 거천개 시나노자 버문개
어장장 곤노곤노 으리룩 다리룩 돌깜 세꾼

⑤ <모래밭에서 손으로 두꺼비 집을 지으면서>

핑집 짓이라 생이¹⁴⁵⁾집 짓이라
핑집 짓이라 생이집 짓이라

⑥ <꼬리 빠먹기>

시바리 칭~칭 양양
뭔 새끼 낳어 사람 새끼 나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뭔 새끼 낳어 고양이¹⁴⁶⁾새끼 나서
아이고 굿다¹⁴⁷⁾ 아이고 굿다
뭔 새끼 낳어 뱀 새끼 나서
아이고 굿다 아이고 굿다

⑦ <비 오는 날 벽을 타고 기어가는 달팽이를 보면서>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오전

제 보 자 : 황춘자 할머니

조사장소 : 황춘자 할머니 댁

발 갈라 출¹⁴⁸⁾ 주마

발 갈라 출 주마

145) 새.

146) 고양이.

147) 나쁘다.

148) 풀.

설화

〈목 차〉

I. 조사경위·제보자	(寄人)들 (2)	40) 일곱 마리 뱀
II. 자 료	20) '오마깨' 물	41) 지들광
1) 도채비(1)	21) 지명유래 : 전수동	42) 산신령
2) 도채비(2)	(前水洞)	43) 못된 첩
3) 도채비(3)	22) 여우 이야기(2)	44) 귀 달린 뱀
4) 도채비(4)	23) 용 이야기	45) 종달리에 용천수
5) 도채비(5)	24) 벼락 맞은 소, 바위,	가 많은 이유
6) 도채비(6)	나무	46) 산세에 따라 인물
7) 바보사위	25) 고종달(1)	이 난다
8) 진범찾기	26) 홍소저(1)	47) 모기와 소파리의
9) 김삿갓	27) 홍소저(2)	혼(魂) 이야기
10) 설문대 할망	28) 도채비(10)	48) 소만이
11) 축지법 : 양주(楊	29) 도채비(11)	49) 애기엄마의 혼(魂)
洲)의 지명유래	30) 부예산달	50) '그신세' : 도채비
12) 영조 대왕	31) 도채비(12)	(14)
13) 효자 이영조	32) 효자비(2)	51) '행깃물'
14) 도채비(7)	33) 도채비(13)	52) 정 지관(地官)(1)
15) '그신세' : 도채비(8)	34) 노일저대	53) 정 지관(地官)(2)
16) 도채비(9)	35) 고종달(2)	54) 정 지관(地官)(3)
17) 여호(여우) 이야기	36) 고종달(3)	55) 정 지관(地官)(4)
18) 종달리 기인	37) 순작과 지다리	56) 부대각
(寄人)들 (1)	38) 각시 길들이기	57) 도채비(15)
19) 종달리 기인	39) 양어머니 이야기	

I. 조사경위·제보자

제1일(1999년7월30일)

예정보다 한 시간 늦게 종달리에 도착하였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간단한 짐 정리를 마친 뒤 12시 20분 경에 점심을 먹었다. 점심시간 후 모여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나눈 뒤, 김병주 할아버지를 3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3시 15분이 넘도록 마을회관으로 오시지 않자 전화를 드렸다.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개황반에 도움을 주시던 김태순 노인 회장님과 강경규 총무님을 모셨다. 1차 조사는 우선 우리가 묵고 있는 마을회관에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김태순(남·79세) : 현재 종달리 노인회장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몸소 마을회관으로 나오셔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 주셨다. 종달리 태생으로 해방 때에는 일본과 중국을 다니시고 부산, 광주 등지에 10년간 돌아다니시다가 30세쯤에 종달리로 돌아오셨다고 하셨다.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예전에는 엽전일과 조, 보리 등의 농사를 하셨고, 소학교까지 나왔으며 일본어와 한문에 능하셨다.

▷김병주(남·69세) : 1차 조사 중인 5시 35분에 만났다. 바쁜 일이 있어서 약속한 시간 3시 보다 늦은, 5시 30분에 만났다. 종달리 태생으로 15~6년간 부산에서 살다가 37세 때 돌아왔다고 한다. 현재 4남 2녀를 두셨고 동남수고(現 성산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야기할 때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옛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꺼려 하였다. 중학교까지 나와서인지 표준말로 하였다. 처음 얘기를 하실 때에는 포제에 관계된 얘기를 안다고 하시고 자기 집에서 포제도 지냈다고 하였다. 농사를 지으시며 자식은 4남 2녀를 두셨다. 4남 중에서 육사를 나와서 소령인 아들과 제주대 나온 2명의 아들 등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제주대 다니는 학생들이 남가지 않다고 하셨고, 아는 것을 잘 말해 주겠다고 하셨다. 치아도 고르시고 점잖게 말씀하시는 편이셨다. 5시 30분 쯤에 오셨는데, 6시에 일이 있다고 하셔서 서둘러 말을 하셨다. 그러곤 6시가 되자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내일 또 찾아 뵙는다는 약속을 하며 헤어졌다.

저녁식사 후 반원들은 2차 조사에 관해서 얘기들을 나누었다. 달리 제보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2차 조사에서는 직접 제보자를 찾아나서기로 하였다. 2차 조사 때에는 동문 선배이신 박성언 선생님과 같이 나가게 되었다. 마을회관에서 마을로 내려가다가 가게에서 앉아 얘기를 하시는 두 분의 할머니를 만나게 되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었다. 처음에는 우리들이 의도한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으나, 우리들이 옛날 얘기 잘하는 할머니를 여쭙어 보았고, 제보자 중에서 이도하 할머니가 잘 하신다는 얘기를 미리 알고 있었던 우리는 이도하 할머니 댁을 알려 달라고 하였다. 위치를 말씀하시다가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다. 자신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낮에도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동네 한바퀴는 돌아다녔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제보자들을 많이 가르쳐주셨다고 하였다. 이도하 할머니댁에 도착한 우리는 정작 이도하 할머니한테서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고, 다른 할머니 즉, 강경규 할아버지의 妻인 이옥순 할머니와 나중에 호박잎까지 주신 황춘자 할머니, 그리고 제보자로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해 주신 임태원 할머니에게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 네 분의 할머니를 모시게 되자 다른 얘기도 하시고 자신들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무식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려면 유식하고 책을 많이 읽는 분들한테나 가보라고 하였다. 농사를 지을 때에도 별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얘기들을 듣고 숙소로 향하였다.

▷임태원(여·78세) : 동네 가게를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었다. 나이에 걸맞지 않으시게 정정하셨으며, 성격이 급하고 시원시원한 편이다. 29세에 남편은 군에 가서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자식은 모두 2남 3녀로 부산에 사는 아들은 손자가 5명이나 되고 딸 한 명이 지금 가게를 하신다고 하셨다. 학생들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서 다른 할머니들을 모아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셨다. 처음에는 얘기들을 해주시라고 하여도 모른다고 하시며 다른 얘기들을 꺼내시더니, 이도하 할머니댁에서는 들은 얘기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처음 듣는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다. 그리고 소철, 문주란, 선인장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셨다고 하였다.

▷이옥순(여·74세) : 강경규 할아버지 처로 2남 4녀를 두셨다. 동네에서는 판사 어머니로 통하였다. 둘째 아들이 한양대 법학과를 나오고 사법고시에 합격이 되어서, 지금은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큰아들에는 아들 형제, 둘째 아들에게서는 1남 2녀인 손자, 손녀를 두셨다고 하였다.

▷황춘자(여·70세) : 지금 혼자 살고 계시며, 2남 2녀를 두셨다. 나이에 비해 상당히 젊어 보였으며, 치아는 고른 편이며, 목소리가 컸으며, 활달한 성격

이셨다. 다른 제보자의 이야기에든 많은 설명을 덧붙여 주셨으며, 제보자의 이야기를 유도하시기도 했다. 그리고 호박잎을 주는 등의 호의를 베푸셨다.

제2일(7월 31일)

3차 조사는 나가지 않고 마을 회관에서 어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사하기로 하였다. 비가 그쳤고 조용한 가운데 청년회 회의실에 5명이 모여서, 전사 작업과 제보자 상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4차 조사시에는 어제 만났던 김병주 할아버지 댁과 강경규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길을 가다가 여러 노인 분들을 만나서 정보를 얻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김병주 할아버지 댁을 찾아간 후, 황춘자 할머니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가 얘기를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녁을 먹은 후 전화를 드렸다. 날씨가 개어 금방 밭에서 와서 씻을 준비를 한다고 하였다. 찾아 뵙겠다고 하자 아들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하셔서 8시 30분 쯤에 가겠다고 하였다. 마을을 돌다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은 9시 경에 집을 찾아 갔다. 마침 마을 개황반이 와서 얘기들을 듣고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돌아 가려고 했으나 마을 개황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얘기를 들었다.

▷김순자(여·67세) : 먼저 온 개황반의 조사가 끝나고, 많이 피곤해 보이는 할머니가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드리자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과마 머리를 하셨고, 처음에는 아는 얘기가 하나도 없으시다고 하셨다. 그러시다가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없으시냐고 묻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하셨다. 많은 의성어, 의태어 등을 쓰시면서 참 말을 잘 하셨다. 종달리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결혼을 했고, 2남 2녀를 두셨으며 지금은 혼자 산다고 하셨다. 그리고 어릴 적 자신도 옛날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참 좋아해서 많이 들었다고 하였다. ‘담벼랑에 소랑소랑’ 등 평소에는 들어보지 못하던 말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한바탕 웃으면서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손짓, 몸짓을 해 가며 열심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생생하게 얘기를 들었다. 슬픈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신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많이 울었다고 하셨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할머니께서 내일 밭에 나가야 하시기에 내일 찾아 뵙겠다며 나왔다.

제3일(8월 1일)

아침식사 후 6차 조사가 시작되었다. 동네 여러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문석주 할아버지를 추천하셨다. 그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찾아갔으나, 이야기 하시는데 몹시 힘들어 하셔서, 별 성과없이 발길을 돌렸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신앙반과 말씀하시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다.

▷김복희(여·60세) : 큰 나무 아래서 신앙반과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많은 얘기를 아시는 것 같아서 신앙반의 조사가 끝나자 할머니에게 질문을 꺼냈다. 종달리에서 태어나고 계속 사셨으나, 지금은 제주시 아들집에서 손주를 보고 계시며, 일주일에 일요일날만 종달리에 오신다고 하셨다. 2남 3녀를 두셨고, 발음이 정확한 편이었으며, 손짓을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다. 당근 농사를 지으시며, 나이에 비해서 젊게 보였다. 아는 것도 많고 얘기도 잘 하시며 사탕을 잘 드셨다. 얘기 도중에 다른 할머니들이 지나가면 꼭 딴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다가 다시 말을 잇곤 했다. 신앙반이 드린 수건을 머리에 쓰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들은 후 어제 찾아갔던 김순자 할머니댁을 다시 찾아 갔다. 마늘을 까야 된다고 하시자, 우리는 도와 드리겠다고 해서 마늘을 같이 까면서 할머니의 얘기를 들었다. 다른 얘기들이 생각이 나면 말을 해 주겠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마을 회관으로 돌아온 우리는, 그전에 강경규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했으나 만나지 못했던 참이었는데, 마을 회관에서 만났다. 할아버지는 자신은 잘 모르겠고, 다른 할아버지 댁을 가 보자고 해서 봉고차를 타고 어떤 할아버지 집으로 향하였다.

▷고만형(남·77세) : 방금 발일을 끝내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다. 우리가 찾아가자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1남 8녀를 두셔서 자식들의 일로 편히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다고 하셨다. 발음이 그리 정확한 편은 아니었지만, 수박과 커피를 내 주시는 등 자식같이 생각해 주셨다. 할머니도 '조사자들이 친딸 같다'고 하시면서, 밥도 먹고 가라며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 종달리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소학교를 나왔다고 하였다. 고만형 할아버지께 묘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옆에서 묵묵히 계시던 강경규

할아버지께서 입을 여시며 말씀해 주시기 시작 하셨다.

▷강경규(남·73세) : 종달리 노인회 총무로 현재 계시며, 키가 작고 돋보기 안경을 쓰셨다. 자식은 2남 4녀를 두셨다. 동네에서 판사 아버지로 통했고, 항상 책을 보시며 제일 유식한 분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소학교도 나오시지 못했지만 혼자 독문 수학하시고 서당만 2~3년 다녔다고 하셨다. 학술 조사 온 학생들을 위해, 직접 발벗고 제보자들을 찾아 주시는 등 많은 협조를 해 주셨다.

제4일(8월 2일)

전사작업보다는 조사를 나가기로 계획을 잡고, 민요를 잘 부르시며 청년 회장님께서도 종달리 보물이라고 부르는, 김해룡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전화를 드리자 마침 집에 계셨고, 우리는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였으나, 집에 도착하자 어디 일을 보러 가야 되겠다고 하시며 갈 채비를 차리고 있었다. 우리는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 주시라고 하면서 나무 그늘이 진 곳으로 자리를 잡았다.

▷김해룡(남·61세) : 종달리 두문포에 사시며, 종달리에서 계속 사셨다. 소학교를 나왔으며, 현재 어촌계에서 어류판매 담당을 하신다고 하셨다. 당근, 감자, 벼농사를 지으시며 5남매로(3남 2녀) 아들들은 모두 종달리에서 산다고 했다. 안경을 쓰시고 금이빨이 두드러지게 보였다.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으로 유명하다. 아는 얘기는 하나도 없으시다고 하였다. 바닷가 동네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잘 모른다고 하셨다.

II. 자료

1) 도깨비 1

제 보 자 : 김태순(남·7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밤에 갈대밭에서 애들이 장어를 잡으려고 불을 켜 놓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도깨비 불이었다.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조사자 : 이동넌 도채비 관한 얘긴 엿수광?〉

응?

〈조사자 : 도채비 밧다는 얘기, 도채비.〉

도채비는 참 거 이상하단 말야. 도채비, 도채비는 우린 보았는데.

〈조사자 : 언제 밧수광?〉

응?

〈조사자 : 언제 밧수광?〉

언젠가 하나까 현 30년, 40년, 40년 되신가? 우린 도채비 봅니다.

〈조사자 : 자세히 좀 곴아 줘써.〉

예.

〈조사자 : 어떻 나타난 거.〉

거 유명한 것이 있는데, 예 그게 예, 여기 나가 배를 허는다, 하도(지명) 사람이 하도 달라고 하길래 그, 저, 멜(멸치)그물 허는다, 그 디 허며는 멜로 줍니다. 멜이 잘 들면 이제 얼마씩 주는데, 그렇게 배를 만이 놔주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밤이, 밤이 아니고 한 낮후지, 저, 지금 같으면 4시쯤, 밤 4시에, 동틀 무렵 4시쯤 가 가지고, 여기 오름 저디 가 가지고, 저디에 가서,

〈조사자 : 지미봉 조꼬띠(옆에) 마씨?〉

예, 저디에 가 가지고 하도 쪽에서 보면 예, 그물 노면, 그물 논 거 알아? 집즈게 멜그물, 멜들었느냐며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자자' 소리나고 뭐 하는데, 거민 '멜그물 안 놔는가?' 하고 가만히 안잣는데, 여기 그 논 있지 안으광, 여기 갈대밭이 그때는 저 갈대가 없고, 저 머시 물, 어 치안 막아 놓은 때라니까 그 디 장어도 만이 나오고 뭐 하나까, 밤에 아이들이 장어 만이 잡으러 가 거든, 장어, '허어어머!' 아! 현디 불쌍허고 장어 잡는데.

"아! 이놈들이 초저녁에 잡다가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지금도 장어를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야. 불이 하나 잇어 가지고 가만히 안자서 불 밧단 말야.



김태순(男) 79세, 좌 · 강경규(男) 73세, 우

장어 잡는게 아니라,

“아아! 이것이 바로 도깨빈가?”

난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이놈이 어딜 갖는고 허니까, 바로 일주도로 이 길로 싸악 올라. 올라가 가지고, 두루만치 이만큼 올라 올라가야, 올라 올라 딱 올라오니까, 동산에 어떨 것이 사도 만코게 불이, 불이 샅는디 좌악 갈라져 가지고 불이 한, 스물 한 개 갈라져 브러서, 여기 좌악.

〈조사자 : 하나가 스물 몇 개?〉

응. 불이 좌악 갈라져서,

“야! 이거 참 히안하다.”고,

아! 내가 그때 처음 봐서, 그때는.

〈조사자 : 그 이후로 아무 일이 어서 봤수광?〉

응. 일이 업고. 그런 것이 잇다고. 응 응 응.

2) 도채비 2

제 보 자 : 김태순(남·7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구태경이란 사람이 도깨비 불을 배의 신호로 오인해서 배가 좌초되었다.

(앞의 도채비 1과 이어지는 이야기임.)

〈조사자 : 다른 사람이 봐난 건 못 들어 봤수광? 누가 봤다.〉

아, 누가 봤다는 것도 있고.

〈조사자 : 거 쫓 굴아 줘써.〉

거또, 경 허니까. 이 저, 바다에도 그런 것이 잇습니다.

〈조사자 : 바당에도 마씨?〉

예, 예. 바다에도 예. 그러니까 저, 여기 구태경씨라고 허는 그 사람이 배를 허는디.

〈조사자 : 구태경씨. 예.〉

예, 배를 허는디. 가덕이라는 헛 디가 있거든 예. 부산 지역에 거기에 배를 몰아 가서 타는디 앞의 배가 있거든 예. 건디, 저 왼쪽은 불근 등, 오른쪽은 칭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등, 청등·홍등 있다.

〈조사자 : 예.〉

이걸 잘못 봤거든 예.

〈조사자 : 예.〉

예, 그러니까 배, 배가 서로 엇갈리게 될라고 허며는 저 디 가서 청동 뵈오고, 여기서 청동 뵈오며는 이제 서로 영 갈라지는 것이다. 저기 등이 틀리거든 예. 틀리는데 그것도 생각 하지 안하고 그거 쫓아 가다가 그만 여우 틀에 그만 좌초 되버런.

〈조사자 : 어디 바위에 박아버런 마씨〉

돌 위에 올라타부런. 그대로 배가 뺏서져 브렀거든, 경허난 도깨비 불은 도망가고.

〈조사자 : 그 그 불은 그냥 가불고 마씨?〉

응, 뺏서져브니까 그만 메기지(끝이지).

〈조사자 : 헤엄칭 돌아왔덴 마씨?〉

응, 배가 뺏서져브렀지, 뺏서져브러서 거기서 완전히 경허난 거. 옛날 얘가지 요샌 그 저, 도깨비도 이젠 맥을 못 쓰나보나 마씨.

〈조사자 : 경헌디 예, 구태경이라는 그분 예? 그분, 이 동네분.〉

아니 돌아가신지 오래뒀소다.

3) 도채비 3

제 보 자 : 김태순(남·7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도깨비는 남들 몰래 모셔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 장모가 도깨비를 모시다가, 남들이 알까 두려워 '소농곳'이라고 하는 곳에 모시게 되었다. 장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사위가 장모를 놀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가서 숨어 있었다. 장모가 제물(祭物)을 바치자 사위는 도깨비 흥내를 냈고, 장모가 도망치자 사위는 그 제물을 잘 먹고 제기(祭器)는 가지고 와서 집에 두었다. 얼마 후에 장모가 집에 와서 그 제기를 보고는, 차마 사위에게 말을 하지는 못하고 자꾸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조사자 : 도깨비 얘기 알아지른 골아 줘서?〉

여기 도깨빌 모시니까 살피거든. 응, 도깨비, 도깨비. 이제 때 나며는 이제 거기 가서 도깨비 모시거든.

〈조사자 : 아, 당에서 모셔 마썰?〉

아니 집이, 집이서.

〈조사자 : 집이서 모셔.〉

응. 집이서. 어딜 모시려고 허니까 그, 거 옛날 지금 집이서 뭐라고허면 될 견고. 고팡(광)이라고 우예 있지 안애?

〈조사자 : 예, 예.〉

거기다 이제 모셔나. 경허면 이제 때가 나며는 거기, 이제 거려 가지고 이제, 거기, 또 올리고, 그 음식.

〈조사자 : 메 올리는 거 마썰?〉

어, 올리고.

〈조사자 : 끼니때마다 밥 올리는 거 마썰?〉

어, 끼니때마다. 그렇게 되민 남을 알아서는 안 되거든. 남은 모르는데, 남 알아가민 건 아이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젠 잘 해서, 잘 했는디 이제 그 그 할망이 놈덜 다 알아가니까 이젠 일이 안되겠다고 해 가지고, 날을 정해 가지고 어디 저 '소농곳'(지명)이라고 헌 디.

〈조사자 : '소농곳' 마썰?〉

응. '소농곳', 저디 저 설덕이(魚類名) 많이 이수다게. 요 바당(바다) 아래 설덕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시리 강이네(가서), 이젠 그걸 똑 한테다 한번 씩 영 이렇게 했다 허민 해논디. 거기 사위가 있다.

"에이! 이놈의 가시어멍(장모) 좀 뭘 해야 되겠다."고.

그런 줄 아니까 딱하게 시리 미리서 간 고만이 아쟈서. 강에 아쟈는데 가시어멍이 뿜을 음식을 행 가 가지고.

"영감님 계십니까? 에 이거 좋지 못한 음식을 해왔습니단만 자썰서."랜 허니까.

"뭘 조, 좋고 굿고 험게 있느냐?"고, "그냥 이리 가정 오라."고, "나 먹겠다"고.

아 경허난 그 예미가 겁이 나 가지고 고만 그릇 내버어두고(내버려두고)…
(웃음)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조사자 : 돌아나 부린마씨?〉

돌아나 부러주게, 거기서 대답을 허니까 게. 지 혼자만 곤는(말하는) 거주게, 음식을 가져가지고,

“이거 좋지 않은 거주만은 자십서.”

이렇게 해서 지냥으로(자기 스스로) 곤고 먹고 허는 거라, 거니까

“뉘, 좋고 굿고 험게 잇느냐?”고, “나 이거 가지든 먹겠다.”고,

거 사위가 그렇게 지랄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지네 가시어멍 거 가정 강(가져 가서), 이제 그걸 집에서 먹고 그놈의 그릇을 자기가 가정왔다. 가정왔는디, 혼 매칠 있으니까 지네 가시어멍이 오라가지고 그릇을 자꾸 봐,

“이거 참 이상하다”고,

차마 사위한테 그런 말을 곤질 못허고(웃음), 무사 그 그릇보니까(웃음),

〈강경규(남·72세) : 대축범벅?〉 응, 대축범벅(수수범벅).

〈조사자 : 잘 텃젠?〉

응, 본인들은 잘 텃다고 허여.

4) 도채비 4

제 보 자 : 김태순(남·7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제사음식을 가져오면 도채비가 따라온다는 말 때문에, 표선 사람 중에서 자신 의 진정에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앞 도채비 이야기와 이어짐)

〈조사자 : 그 얘기, 도채비 얘기 더 곱아 줘서.〉

응?

〈조사자 : 더 곱아 줘서.〉

게 이 표선 사름들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저 누이가, 저 딸이, 자기네 친정 에 가서, 이제 제사를 먹으레 가는디, 이제 메 쌀이나 이제 뭐 뭐 허영 가져가 지 아니 됩니까? 이젠 가정 가도 거기에 뭐 물건을 저, 제(祭) 해 먹당 무신 떡 이나 무신 거 쥐도 안 가져와, 이 사름은, 그 붙어간다고, 그, 그 딸신디 많이

붙어분다는 거라. 거 저 도채비가. 그래서 가져가긴 가져가도, 가져오진 안한다. 이렇게. <강경규(남·72세) : 무사 계난 양 형님. 거 서촌에서 그걸 주장헌답디다. 서촌에선 도채비를 주장헌다. 영.>

5) 도채비 5

제 보 자 : 김태순(남·7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표선 사람 중에 도깨비를 모시고 잘 살게 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도깨비를 향아리에 가두고 땅에 묻고는 새 집으로 이사가 버렸다. 새로 이사온 사람이 집안 단장을 하다가 곡괭이로 땅을 파는 중에 그 향아리가 깨져 버렸다. 이 사실을 안 새로 이사온 사람이 이사간 사람을 찾아가 보니, 도깨비가 복수를 해서 집이 불에 타고 있었다.

<조사자 : 도채비, 들은 얘기 더 골아 줘서. 더.>

더? 도채비, 표선 도채비가 하나 이서났는데, 도채비 모셔가지고 잘 살아가니까.

“에이, 이제 그만허자.”고,

거 도채비를 어떻게신고 허니까. 허벽, 물허벽 닳은 거, 요만이헌 것 이신데, 그 스굽에(속에) 막 도채빌 막 담아가지고, 잘 봉해가지고, 땅 파가지고, 땅판 집이 물어 부러서.

<조사자 : 예.>

겐 도채비란 건 뭐냐 그러믄, 건 무신 옷가지나 저 무신 군겨, 무신 군것풀(?).

<조사자 : 빗자루나 예?>

응, 군것풀. 무색옷이지, 무색 그, 그렇게 해 가지고 멩그는(만드는) 모양이라. 쟁이네(그래서), 이젠 거기 이젠 겐 물어났다 말이야. 저 땅파 가지고 나오지 못허게 시리. 이제 그래서 잘 살아지니까, 이거 판 집, 좋은 집 상(사서) 가지 안앗습니까? 갔는디, 다른 놈이 이사온 놈들이 에 들어오라 가지고, 어 허간디(여러 군데), 이제 오자시여, 어디 영, 더러 뭐, 좀 더러진 디 이시믄(있으면) 고치고 뭘 허고, 이젠 새로 이사 오민 경 그러치 안험니까 게.

<조사자 : 예.>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게서 이젠 팽이로 찍다보니 뿔이 '재글락' 현 소리가 난. 하! 그만 파 보니까 그거라.

“아이고, 아이 저놈의 자식, 이거 아무 놈의 자식, 거 도채비 모셔났구나!”

곤는다 보니까, 벌써 그 이사간 사름. 먼저 해난 사람, 그 집이 불이 붙어서. 저 '와랑와랑'

〈조사자 : 그 깨져부니까.〉

깨전, 응.

〈조사자 : 복수했구나, 복수.〉

복수, 응.

6) 도채비 6

제 보 자 : 김태순(남·7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도깨비를 모시던 사람이 바쁜 일이 있어서, 점심 올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다가 돌아와 보니, 부엌에서 도깨비들이 모여 집에 불을 지르려 하고 있었다.

(앞의 도채비 6과 이어지는 이야기임.)

〈조사자 : 도채빈 복수할 때, 꼭 불내는 걸로만 복수해 마썸?〉

아! 그런 모양이라. (웃음) 겐, 게서 이 저 한 사람은 발을 가는데, 높은 빌어놓고, 아 이 점심을 빨리 행 가얏 것인데, 막 부랴, 이제 저, 막 이 급허게 시리 헨 허는데, 그만 팍허게 잊어부러던 말이야.

〈조사자 : 예.〉

또, 또 모셔 동(두고) 갈 것인데, 또 논.

“아, 이 이거 안되겠다.”고.

이거 저 현 일키로쎄 거의 가다가, 아이고, 이제 잊어부러시니까 강 돌아오랑 뤄헨, 아이 집이 돌아왕 보니까, 아 그 병긋(병거지 : 모자의 일종) 쓴 놈들이, 무시저 현 놈들이, 그 부엌에 가 안자 가지고, 불을 '부욱, 부욱, 부욱' 붙여서(불고 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웃음)

〈조사자 : 거, 오랑 잘못했습니다 안해시른 불을 '부욱부욱' 불영어네, 불 날 뻔했구나.〉

불 날 뻔했주.

7) 바보사위

제 보 자 : 김태순(남·7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자신의 딸이 세상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하는 딸이 있었다. 그런데, 딸이 동네 사람과 싸고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기로 하였다. 이를 모르는 아버지는 그 사람이 제일 잘 난 사람인 줄 알고 사위로 삼게 되었다. 하루는 소장사가 오자 사위는 부인 도움으로 똑똑한 사위로 인정받았으나, 장모가 아프다기에 부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장인의 집에 갔다. 그곳에 가서 누워있는 장모를 보고 소를 고를 때 하던 말을 그대로 하자, 그 어리석음이 들통나고 말았다. 연산군이 물러나고 사위의 친척이 죄를 면하여 벼슬길에 오르자 사위에게 어떤 고을의 원님 자리를 맡겼다. 하루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부인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명관 소리를 듣게 되었고, 죽은 소를 공평히 처리한다고 인심을 사게 된다. 그런데, 고을 이방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부인에게 묻지 않고 죽은 소를 다룰 때처럼 이야기했다. 그래서 또 한번 어리석음이 들통나게 되었고, 벼슬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

(타 지역과 달리 여러 가지 바보사위 이야기가 혼재된 경우임.)

〈조사자 : 여기서 그 소금들 허영어네 영 다른데 풀래 가지 안합니까? 다른디, 다른 마을엔 보른 소금 풀래 가는게 아니라 그냥 뭐, 쉼 풀래 가든가 쫄 풀래 가든가 허영 장사를 이렇게 하당 보면은 거기서 이제 사위 꼬신걸 만나 가지고, 영 게 사위 꼬심들 만나 가지고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시켜놓고는 이 사위가 어떻(어떻게) 똑똑한가 안한가 시험허는 그런 얘기도 어디 있기 있는디.〉

없어.

〈조사자 : 바보사위, 바보사위.〉

그런 거 이십주게. 있기는 게 딸이 하나 있는디,

“이 세상엔 내 딸보다 나은 딸이 하나도 어실 것이다.”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똥 자랑을 허는다. 누가 오라가지고 사가는 사람이 이서야지(있어야지). (웃음) 그래서 이젠 혼 번은 이제 그 똥이 동네 사람보고 이제 좀 짜놔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만저만한 멋이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너 장가가고 싶지 안허냐?” 허니까,

“왜 장가가고 싶지 안허니까? 어디 상대방이 있어야지. 뭐 아버지신디 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해라.”고 말이야.

“너네 집에 느릅나무 있는디 이제, 이제 거기에 멧 말 들이냐?”하면, “솔이 멧 말 들고, 뿔이 있느냐 허면, 솔이 멧 말 있고 궤에 또 뿔이 멧 말 있고 이렇게 하면 꼭 맞출 것이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 그러냐?”고,

이젠 갔다 영. 강 보난(가서 보니까) 가 가지고 이제 방이제,

“뿔을 봐 가지고 왔다” 아 허. 허니까,

“아이 좋다.”고, “우선 건 언제 어디 느릅나무 저 궤에 있는디, 저것이 뿔이 들었느냐?”

“아, 저것은 뿔이 들고 뿔이 들고...”

“아따 이거 이거 올은 말 곤고(말하고)...”

<조사자 : 똑똑한 사위라?>(웃음)

“장가 보내젠 골르다 보난 제라한(대단한) 사위 허나 만났구나.”(웃음)

두 가지(부부)가 사는다, 이제 거 사위뻘겨든.

<조사자 : 사위 삼안?>

응, 사위로 삼안. 경 행(그렇게 해서) 이젠 두 가시가 이렇게 사는다, 한번은 저 소장시 오라가지고, 가시아방이(장인이) 소를 살라고 허는다, 요 요 사위에게,

“요거 이제 소 오랑 봅서” 허난 이제 “보라.” 영 허난 이제,

“경협주게(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각시가 그거 방 이네(봐서),

“니(이 : 치아) 영 들러봐 가지고, 니도 좋고...” 소는 니가 없거든, 웃니가. “좋고, 또 이렇게 등허리, 이렇게 그 거시기도 좋고, 뱃간(배 근육)도 좋고, 게 니가 일 잘해질꺼우다. 새끼도 잘 낳아질꺼고.” 이렇게 허니까,

계난(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에, 경허주(그렇게 하지).”

강 이제 소를 이렇게 만직엉(만져서),

“하, 니도 구썩허고(곧고) 등허리도 좋고, 이 저 뭐 뭐지? 배, 뱃집도 좋고 새끼도 잘 나쿠다(낳겠습니다).” 허여

“하, 그러냐?”고, “우리 사위가 최고다.”고,

이젠 그렇게 하니까 됐다. 한번은 또 빛이 있는고 허니까, 그 거시기가 오라가지고 에 저 뭐야 거 처가침이 강 이렇게 보니까, 아

“니네 각시어멍(장모) 몸 아픈거 담다. 강 보라.” 영 허영, 각시한티 듣기도 뭐허고

“에이, 이거 나냥으로(내 스스로)….”

이렇게 해서 나가 이제 아팠는데 말이여. 강 니게 들어강 이제,

“니도 구썩허고 그냥…”(웃음)

〈조사자 : 장모한티 가그네 예?〉

등허리도 영 쓸어 보고,

“아이고, 등허리도 좋고, 장기도 잘 허여? 아이고 장기도 잘 허고…”

아이고 그렇게 허니까, 아이고 그 놈의 사위가 퍼대느라고, 이거 (웃음)

〈조사자 : 들통나 부러구나 예?〉

응.

“농담을 해도 분수가 있지? 어디 이렇게 할 수가 잇느냐?”고, “당장 나가라”고 욕을 했지.

“아, 아이고 이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시님.” 이제 각시 보고,

“이제 벨 일이 이서도 다음은 꼭 나한티 들영가라”고, “듣지 안허민 맨날 그렇게 됩니다. 거시기 한다.”고.

아 경 현디(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계 저 연산땀가 광해땀가, 그 뭐 뉘 가지고 저 그 사름이, 이 저 그때 저 잡으래 가민 돌아나 가지고 막 거시기 해그네 살당이네, 이제 논 사람들이 있긴 이서 마썸. 그때도, 지금 이제 산적으로 뉘 행 살던지 뭐 허든지 잡으래 가민 영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썩 나오라가지고, 이제 연산이가 죽으니까 죄를 풀려서 이제 벼슬길에 올랐거든. 올라시니까,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에 내가 벼슬길에 올라시니까 우리 옛날 조카가 하나 이섯는데(있었는데), 그놈을 좀 쳐다보자(찾아보자).”고,

어디 이서 영 보니까 조카가 요 요 있거든. 이놈을 이젠 불러봐 가지고. 아 그렇게 멍청헌 줄 알아서? 아 이걸 벼슬 거시기 이젠 어디 원님을 하나 시켰단 말이여. 거 원님을 하나 시키니까 딱 허게 가 가지고 이제 잇는디 어떤 놈이 오라가지고,

“아. 저 사름이 죽었습니다.” 해.

“어째서 죽었느냐?” 허고,

각시는 뒤에 안자 가지고 거시기 하는데, 조종을 하는데,

“어째서 죽었느냐?”

“하. 이거 간밤에. 어제 나갔는데다가, 아 결국은 물에 빠져서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젠 건져다 놉니다.”하고,

“아. 그러냐?”고. “좀 보자.”고,

아. 머리에다가 포리가 ‘웅웅’ 댓거든. 각시가 이젠 다 조종허니까 게,

“저저. 저저 죽은게 아니다.”고, “머리에 뭐 이상이 있을 것이다.”고,

아. 보니까 잠자는 거 머릴 그만 못을 박아부니까 그디(그 곳이) 터져 가지고 포리가 ‘웅웅’ 댐. 아. 이거 행(이것을 해서),

“너희들 그 짜놔 가지고 했다.”고,

해 가지고 각시를 닥달해 가니까(추궁하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젠 들통나 부러다 말이여. 이젠. 아. 경허난(그렇게 하니까) 게, 그걸 이제, 잘 거시기 행 이제, 죄를 이제, 뭘 하니까, 아 그때부터 ‘명관이다’

“우리 사또, 뭐 범죄, 잘 허는 행동이 아주 명관이다.”고, 잘한다고.

〈조사자 : 그, 그 각시가 다 해준 거 아니우파 예?〉

응. 각시가 다해준 거지. 아 계단에(그래서) 또 혼 번은 그 부하들이 오라 가지고,

“아. 저 소가 저 다리(다리 : 橋) 넘다가 소가 자빠전(넘어져서) 저 거시기 해시매 저 어떻게시든(어떻게 했으면) 좋으쿠가(좋겠습니까)?” 영(이렇게) 허

니까.

“아 그거 뭐 대단치 않으니까 잡아먹으라.”고, 저 “뿔랑이네, 그 활 맨드는디 화살 축으로라도 행이네 쥐불고, 행이네 갖다 쥐불고, 배설랑이네(내장은) 해당 너희들 내복이랑이네 거시기 먹고, 솔이랑(살은)이네 영 갈랑(갈라서) 가랜 행(가라고 해서) 영 먹어불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걸 다 날보고 들어보민 어떻게 되느냐?”고, 하이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참 사또님, 가장 인심이 좋고, 하 좋다.”고, “하이 고맙습니다.”고, 하 경허난 이젠 건 보냈다, 이젠.

“어떻게 인심 샷수광(인심을 샷습니까)?”

겐디(그런데) 조금 이시니까 저 그 이방인가, 거 형방인가 게 거, 것도 이 부락에, 그 원에 들어가면 그 육조가 다 있거든, 형방, 이방, 뭐 호방, 무스거 육조가 다 있는데, 그 이방이랜 현 사람이 가 가지고,

“아이고, 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십니다.”고,

“아이, 경허냐?(그러냐?)”고,

“이젠 가 봐야 되쿠다(되겠습니까).” 허고,

“그, 그 가지 말고 그디셔, 고만히…” 거 저, “어머니이니까 뿔은 어시니까 그만두고, 그걸 잡아 가지고, 배설랑이네 그 저 창자, 그걸랑이네 너희들 이제 ㄹ라동이네 갈라서 먹고…”

〈조사자 : 예〉

아 그 각시신디 곱아 들을 것인디, 듣지 않아가지고 먼저 한다고, (웃음) 아 저 그래서 곱아 보니 이런 놈의, (웃음)

〈조사자 : 또 들통나 불고 예?〉

응, 들통난… (웃음)

〈조사자 : 경 행(그렇게 해서) 어떻(어떻게) 되수가?〉

경 해는데 게 될 꺼우까? 게, 경허난 게…

〈조사자 : 쫓겨나 부러수가?〉

쫓겨나 부러지게.

〈조사자 : 벼슬을, 벼슬을 아무 벼슬이나 먹는거라, 그거?〉

8) 진범 찾기

終遠里 學術調查報告

제 보 자 : 김태순(남·7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한 어사(御使)가 있었는데, 주막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어사는 주막에 가서 곧바로 나와 나중에 찾아와서 누가 가장 주막에 먼저 나타났냐고 물어보았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못하여 사건 현장을 돌아보게 된다.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

(앞의 바보 사위 이야기와 이어짐)

〈조사자 : 그건 그 사또가 죄인을 찾아내는데, 죄인을 찾아내는데, 아까처럼 무슨 파리가 웅웅거리고 하는 그런 그,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꽤 이서 예?〉

응, 잇고 말고.

〈조사자 : 거 뭐 이제 죄인은 누구다 허는 걸 이제 알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야겠다 할 때, 저 사람이 진짜 그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의미에서 반찬을, “고기 반찬을 해서 오십쇼.” 그러믄 “안먹습니다.” 안먹는 걸 보믄 이제 “중의 아들이다.” 이젠, “중의, 중의 아들이 죄인이다.” 해 가지고, “처벌해라.” 이렇게.〉

경 행 이제 어사들도 이렇게 허믄 어디가 가지고 보는다.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겐(그래서),

“어느 주막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허니까,

그 사람이 뭐, 죄인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했는디 그 주막에 똑 들어갓거든, 주막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주막집 그 아주마니 보고,

“여기 살인 거시기가,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헌 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아니, 모르쿠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 뭐 동네에서 이렇게 나라를 거시기 헌 생각이 납니다.”

계난 이젠 그 말만 들었이네(들어서) 그 사람이 나오라 부렀다. 나오라 부니까 오라서, 한 멧 시간 행 어디 강(가서) 둥글어(돌아) 대니다가(다니다가) 또 집이 들어가서,

〈조사자 : 주막에?〉

주막에. 주막에 들어가서,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더냐? 여기.” 허니까, 한 동네 사람이,
“이만 저만 현 사람이, 왔더라.”고,
“그사람 뭐랜 곧댄(말 했느냐)?” 허니까,
“아까 오란 저 어사 오랏젠(왔다고) 곧젠?” 행이네(해서) “무시거옴(뭐라고)
라라니(말을 했느냐)?” 경(그렇게) 라라라고(말하더라고),
거, 그놈이 거 살인을 행 눈치로게 자기가 죽여놔시니까 한번 영 돌아본 거
저든. 여 여 그 어사가 와 나신디,
“어사가 뭐 때문에 와신고(왔을까)?” 영 허영.
<조사자 : 죄인은, 죄를 지어놓으면은 마음이 편안하지 못 허영(해서) 한번
강 돌아보게 되어 있는 거주.>
어, 그런 모양이라.(웃음)

9) 김삿갓

제 보 자 : 김태순(남·7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김삿갓이 한 대감의 잔치에 대접받으려고 갔다가 문장(文章)을 시험받고, 그
실력을 보여주었다.

(앞의 진범 찾기 이야기와 이어짐.)

<조사자 : 할아버진 어떻게 허당 옛날 고담(古談) 경 많이 알게 되수가?>
팔십ㄱ정(팔십까지) 살명(살면서) 한 일년에 하나씩만 들어도 팔십 가지 아
니라? 요새는 텔레비도 보고, 뭇도 허고 허주만은, 옛날은 안즈른(않으면) 고
담이나 허고 그런 것이나 하지 뭐, 다른 거 헐 리가 이서?

옛날에 김삿갓이 어디 (웃음) 그렇게 해서 거지 노릇 해면서 말이지, 그렇게
안해도 살 것인디. 어디 가다가 보니까 요새 어디 대감님이 환갑 잔치를 한다
영(이렇게) 허영(해서) 행, 게니까(그러니까) 가게 되었어.

“저기 가서 술이나 좀 얻어 먹어야겠다.”고,
턱 들어갈려고 하니까,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에이, 저 영감이랑 나가 불라(버려라!)”고 말이야. “저지 달은(닭은) 게 와 가지고 뭐, 감서!”

“그러지 마, 이런 잔치집이 오랑이네(와서) 뭐, 술 한잔 주는 게 아까우냐?”고 말이야.

해 가지고 옥신각신 해가니까, 영감이 있다가,

“아, 이리 왕이네 이제 술이라도 한잔 쥐동(쥐서), 췌(쥐서) 보내라.”고 말이야. “아무리 저지라도 그렇게 행(해서) 되느냐?”고,

이제 말쪽에 똑 앵 저 술 한 잔 주니까, 아 먹어 가지고,

“이것도 적다.”고 말이야. “이왕이면 영감 안즌(앉은) 디(곳), 자리, 안즌 자리 안장(앉아서), 가지고 같이 먹어야겠다.”고,

아, 그러니 영감도 그 보기에 또 뭐라고 영 해(이렇게 말했다). 또,

“저지가 이거 오란, 에이 이거 조치허라! 에이, 술 대접행 보내라!”고, 또 한 놈이 있다가,

“거 여기는 다 문장들만 잇스니까 글을 못 지으면 안된다.”고, “그러니 글이나 질 줄 알면은 이제 한자리 켜 가지고 술이나 줄 테니, 줄 텐데, 글을 못 지으면 안된다.”

“뭐, 글 조금 배웠으니까 나 혼 번 짓겠다.”고,

“아이, 그럼 좋다.”고,

“우선 술이나 혼 잔 달라.”고 허니까,

술 한잔 먹어 놓고, 거 한문으로 허는데, ‘피자노인’은 ‘불사연’이라, ‘저기 아즌(앉은) 늘근이는 사름 곱으지(갈지) 아니허다’고, 아, 이렇게 허니까,

“아이, 이 사름은 잘 대해주당 보니까 어평(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고 말이야.

“아니, 이거 왜 그러냐?”고,

쟁 거기 서 있다가, 가만 있어 거, 바작 짓는 걸 보든 알거든, ‘이시청상방선’이다, 이거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이 아니가 생각헌다’, 이젠 ‘피자노인불사연’이래 현 건 ‘저디 안즌 노인은 사름 곱으지 안이허다.’ 이제 신선이다. 이렇게 떡 그러니까 아주 보답할거 아니우파? 신선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 이젠, 또 그 다음엔,

“저, 자식들이 멧이나 되우까?”

“조식 일곱 형제지. 일곱형제.”

칠자. ‘신라’의 ‘칠자’는 ‘대이도’라. ‘당신 그 일곱 이들이 다 도둑놈이라.’
(웃음)

“도둑놈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 그디 셋아들이(막내 아들이) 있다가.

“저 자식 헌댄(한다고) 허니까 점점 뭐 함부로 말한다.”고,

막 때릴라고 이제 대들젠. 그 디(곳에) 안즌 사람이,

“가만 이서, 바작을 짓는 걸 보면 알 것이다.”고,

갱이네(그렇게 해서) 이젠 게, ‘윤독왕도연수연’이라 해 가지고 차례로 천도
복숭에가, 아마 그 오래 사는 뫏이 뵈는 모양이라. ‘그것을 구해다가 그 아방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그 갱(그래서) 하루에 가 가지고 천도를 훔쳐
다가 거시기 허니까, 그것이 도둑이다. 이렇게 허니까...

<조사자 : 아.>

“과연 문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젠...

<조사자 : 바보같이만 생각했던 사람이, 예. 더욱 문장이라.>

응.

10) 설문대 할망

제 보 자 : 김태순(남·7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설문대 할망의 자식은 오백 명이였다. 하루는 설문대 할망이 사냥나간 자식들
을 먹이려고 죽을 쑤다가 그 죽에 빠져서 죽어 버렸다. 사냥에서 돌아온 자식들이 그
죽을 먹는데, 막내가 자신의 그릇에서 뼈를 발견했다. 오백 장군은 모두 얼어 버리고,
막내는 달아나다가 차귀성이 되었다. 또 설문대 할망이 섬 사람들에게 속옷을 만들어주
면, 육지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천이 모자라 속옷을 만들지 못했다. 영등
신은 1월 14일 제주에 들어와서 2월 15일에 나간다.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제보자는 설문대 할망 이야기와 영등굿의 영등할망·영등하르방과 혼동하고 있음.)

〈조사자 : 할아버지. 여기 영등굿이래 험 거, 압니까? 영등뎡. 그거 관련된 거, 애기같은 거 어수과?〉

영등굿. 뭐 거 설문대 할망, 뭐, 영등하르방, 영등할망, 뭐 뭐, 굿 험거주, 뭐 다른 거 이서?

〈조사자 : 설문대 할망 애긴 또 무신거라?〉

영등굿, 게 영등할망이래 험건 설문대 할망, 것이 아닌가?

〈조사자 : 그거 어떤 거우과?〉

응?

〈조사자 : 그 할망에 관한 말, 곱아 줘서.〉

그 할망은 저 옛날, 여기서, 종달리선 이렇게 말하거든. 성산 오름에 안자 가 지고(앉아서), 이제 소섬(지명 : 우도) 강(가서) 이 지미봉(지명 : 종달리 소재 오름), 그렇지 안양이네(안고), 저 별래를 저 디서 했다고 이렇게. 그런 말을 나오는다, 그게 이 저 다른 디선 그런 말을 하더구만. 한라산에서 영실기암이래 험 거, 오백 장군이 있는데, 오백 장군이 그게 영실, 그 설문대 할망 아들이거든, 아들이다. 이 오백 장군이 전부 이제, 전부 아침이 사냥을 허레 갔다, 갔는다. 이 할망이 이제 사냥허레 강 오면은 줄라고 죽을 쑤는데, 이렇게, 이제 죽을 쑤는데, 죽 늘어가니까, 이제 그 간을 헛그는다(젓는데), 거시기 놔 가지고, 이제 그 젓 담그고, 젓다가 그만, 풍당 빠져 부러서, 그러다가 이제, 그 죽 쑤물에 빠져. 이제 결국은 죽을 쑤는다, 이제 죽어 불지 않아서? 죽어 부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험, 사냥을 행 오랑 보니까, 어명이 죽 썰(썰서) 나뉘 시니까 이제, 험 그릇씩 다 먹었거든. 제일 끝에 놈이 올라가지고 영 젓어 보니 죽은 거의 먹고, 아 보니 뼈만 남았던 말이야.

“아이고, 이 뭐인고.”

영 행 보니까 지네 어명이 죽었던 말이야, 거. 아이고, 그러니까 그만 그 오백 장군들이 그만 그디서 다 얼어부러다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오백 장군 중의 하나가, 제일 끝에 놈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나가 당신네광(당신들하고) 곱이

(같이) 살이 안이하겠다.”고, “어떻게 울거먹고 어떻게 뭐 있느냐?”고.

그래서 드라나 버린 게(달아나 버린 것이), 거 차귀, 차귀섬이 되어 부러지고, 그것이. 그 오백 장군 제일, 그때부터 차귀섬이다.(웃음)

이제 육지에 드리 놔 주는데 저 내의, 속곳 한 벌 하는데,

“저 한 벌만 해 주면은 다리 놓겠다.”고, 이렇게 “놔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 다 허당(하다가) 처신가 어디 좀 부족했다고, 그래서 못했다고.(웃음) 갱(그래서) 아흔 아홉 길이 다 못허카? 속곳 하나.(웃음)

〈조사자 : 그 설문대 할망이 영등할망하고 곱은 할망이라 마씨?〉

그런 말도 허고, 나 원 영등 할망이랜, 하르방이랜 현 그런 건주 알주.(웃음)
그거 정월 열 나흘 날 허영이네. 행. 열 나흘 날 들어 오라. 보름날 나와, 이월 보름에 나간다. 현다 이렇게.

11) 축지법 : 양주(楊洲)의 지명유래

제 보 자 : 김태순(남·7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숙종 대왕이 길을 가다가 물을 얻어먹었는데, 물을 떠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었다. 숙종 대왕이 축지법을 쓰며 달아나다가 한 버드나무 구멍에 들어가 숨었는데, 호랑이가 따라와서 밤새워 나무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죽어버렸다. 숙종 대왕이 날이 밝자 나무에서 내려와서 고을 이름을 양주(楊洲)라고 고치고, 해마다 나무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앞의 설문대 할망과 이어진 이야기임. 종달리에는 ‘나무’의 고어형인 ‘남·남’이 보존되어 있음.)

옛날 축지랜 현 것이, 것이 이섯던가 어섯던가(있었던가 없었던가). 것도 거 짓말이주만은 축지랜 현 게.

〈조사자 : 막 날아 다니는 거 마썬?〉

응.

〈조사자 : 막 빨리 걷는 거?〉

응?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조사자 : 빨리 걷는 거.〉

게, 숙종 대왕이 어딜 가다가 이제 보니까 어떤 여자가 하나 있거든. 게서(그래서) 가 가지고, 이제 강(가서),

“물, 물이나 좀 달라.”고,

해 가지고 물도 얻어 먹고 거기서 말, 말하는데, 여자가 어떻게 예쁜지 아주 마음에(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라. 게난에(그래서), 그런데, 아 게니까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이게 뭐 하리 증생, 뭐 여이, 여우라고 뭐, 호랭인가 뭐 가 해 가지고 여이.

“야 이거 참 안되겠다.”고 이거. “물은 얻어먹었지만은, 이거 어떻게 피해서 드라나야 되지, 안되겠다.”고.

살짜기 영 헐, 드라나젠(달아나려고) 허니까,

“으헝.”

“간만 돌아나지믄 내가 축지(縮地)허니까, 내가 축지야 당할 수가 있느냐?”고, 콧하게 시리 뒷을 짚으니까 한번에 막.

〈조사자 : 천 리를...〉

몇 십 리 가는 모양이라. (웃음) 가다가 보니까 어떤 남이 있다 말이야. 거 버들, 양버들, 양 나무, 나무채 ‘탁’ 허영(해서) 올라가 보니까, 남이 굴이 이서.

〈조사자 : 굴, 양?〉

굴이니까,

“이거 잘됐다.”고,

속굴이여, 속굴, 굴인디 특히 들어가 안자 부러거든(앉아 버렸거든).

“이젠 호랑이가 와도 이젠 끄떡 안해도 되겠다.”고

정헌디 거디서 보니 그놈의 호랭이가 와 가지고,

“왕 ! 왕 ! 올라가쿠다, 올라가쿠다.” 경 행(그렇게 해서),

밤새낭(밤새) 영(이렇게) 허다가 보란, 그만 발가(밝아) 보니까 호랑이가 죽 었더라고.

〈조사자 : 무사 죽어서?〉

지청(지쳐서).

〈조사자 : 지청.〉

지청. (웃음) 이젠 그 숙종 대왕이 나오라 가지고.

“이 마을이 어디 마을, 어디냐?”

“이거, 저 강 고을이오다.”

“이거 저 잘못됐다.”고, “양주라고 허라.”고,

거시기, 이, 저 버들 ‘양’ 자에, 이거 버들기 남이(나무가), 버드남이, 이 거 저, 거시기, “자기가 이제 살아났다”고 해 가지고, “이거 양주라고 지으라.”고 해 가지고 지어 놓고 “이 남에다가 제사,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 해마다 오늘 이제 기념해 가지고 제사를 지어달라.”고,

“나 이 남 때문에 살아났다.”고.

〈조사자 : 응.〉

12) 영조 대왕

제 보 자 : 김태순(남·7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영조가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전국에서 불러모아서 사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물었다. 가지각색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처지가 영조보다 낫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노인의 여덟 아들이 모두 양봉을 하는데, 벌(蜂)의 수효가 삼천 만이 넘어, 이전 만을 다스리는 영조보다 낫다고 하였다.

(앞의 축지법 이야기와 이어짐.)

영조 대왕 때라. 영조 대왕이 팔십 셋 ㄱ정(까지) 살았거든, 양, 제일 나일 만이 오래 산 사람이 영조 대왕인데, 이제 왕이라고 하면, 거 원래가 예순을 넘기는 사람이 었다. 잘 었었거든, 왕은. 그런데 이 하르방은 팔십 셋에 돌아갔는데, 전국이 이제 공문을 돌렸거든.

“자기허고 영감이(나이가 같은) 사람이랑 전부 혼 번 면면허겠다(만나 보겠다).”고,

이제 자기하고, 또 그 영감 전부 모다가지고(모아서), 그럼,

〈조사자 : 모다가지고.〉

“이제 당신은 뭘 했소?” 이렇게 허면,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난 무엇을 통해서 무얼 해 가지고, 아무 것. 이제 해놓은 것이 이제 뭔데, 이제 그러저럭 오늘까지, 여든 셋정 살아수다.”

“그러면 됐다.”고,

“게문 당신은 나만이 못허겄수다.” 이렇게,

에이, 자꾸 이제 이놈도 오랑이네(와서) 갓댄 사람은 원 오랑이네,

“뭘 했느냐?” 허면,

또 이럭허고 허는데, 또 한 놈은 잇다가,

“에이, 조금 내가 여기 이놈을 조금 뭐 해야되겠다.”고,

“게니까 나는 나, 아니 나보다도 남아에게로선 (?) 함이다. 남아에게로선 (?) 이사람, 나는 지금 이천만, 뭐 거느리는 이런, 이런 저 임금인디다가 게난(그래서) 뭣이 부러울 게 잇겄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허니까,

“아이고, 그러십니까? 저는 한 삼천만이나 됩니다.” 이래,

“뭣이 삼천만이나?” 하니까,

“지금 내 아들이 여덟 갠데(명인데), 양봉을 하는데 나도 한 백 통, 또 아들 여덟 개가 다 양봉한다.”고,

“백 통 백 통 허면, 경 행 다행 얼마 됩니까?”

“헌 팔백 통인데, 한 통에다가 어떻게 만 개 씩만 됩니까?” 이렇게 허면,

“그 근사가 얼마입니까?”허고

“다 무장 군인이다, 거.”

그렇고 일반도 이렇게 허는데,

“당신보단 내가 낫지 뭐, 뭐 헐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이 거, 요거 참 ! 이놈의 자식, 내가 질, 질로구나.” 이렇게, (웃음)

그래, 그 사람이 낫거든.

13) 효자 이영조

제 보 자 : 김병주 (남·6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이영조란 사람은 어머니가 위독하시자 약지를 잘라서 피를 어머니 입에 넣어

어머니를 살려 내었다. 그러자 나라에서 효자비를 내렸으나, 이상하게도 그 후손들이 끊겨 버리게 되었다.

〈조사자 : 할아버지, 전설의 고향 봐 봤지 예? 거 보면 뭐 효심이 깊어가지고, 하늘이 감복해가지고, 그런 말 나오잖아 예? 끝에 자막이 예, 그런 거 보면서 예, 종달리 그런 거 어서 마씨?〉

그런데 저 이영조, 저 효자비라고 있는데, 저디 가면은, 그건 어떡 허냐면 우리 어릴 때도 들었는데, 어머니가 죽어가 가니까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조사자 : 어느 손가락을 잘랐덴 마씨?〉

이, 이 저,

〈조사자 : 네 번째 꺼 마씨?〉

두 번차 꺼, 두 번차 꺼,

〈조사자 : 거꾸로 두 번째 꺼.〉

어, 두 번차 걸 잘라가지고, 이제 어머니 그 입에 놔 가지고, 그 피를 먹어가지고 살아났다고. 우리도 그 이영조, 이영조, 이간테(李家), 그 친척들이 여기 지금 살고 있어. 음 계난(그래서) 그 연대로 봐서는 몇 년? 한, 경 오래지 안앗주. 한 이백 년 땀을까?

〈조사자 : 근디 그 어명한티(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나뿐 마씨?〉

아들이 업서, 아들이 업서. 그 자손들이 그 성하질 못했서. 다 그 돌아가 가지고 후손들만 있주, 후손.

〈조사자 : 그 손가락 끈어진 그 아들, 아니 마썸?〉

아들, 아들의 그 손(孫)이 업서.

〈조사자 : 아들의 손자가 업다고 마씨?〉

그 아들로써 이제 일생을 마쳐분(마친) 거주게(것이지).

〈조사자 : 아들의 형제지간은 어서난 마씨(없었습니까)?〉

응, 업고, 그 친척들만. 그분도 지금 돌아갔는데, 그분, 그 친척들이 돌아갔는데, 그 분 자체분들은, 그 친척들이 몇 대 손도 되주게. 그러니까 십 오대 손이나, 한 십 삼대. 뭐 이렇게 한 이백 년 가까이 땀으니까(되었으니까).

〈조사자 : 근데 아들이 효심이 깊잖아. 예? 그러면 하늘에서 감복해가지고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자손들이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우꽈(아닙니까?)

아 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또 그렇게 그, 그렇게 잘 살질 못했서.

〈조사자 : 하늘이 나쁘다, 예?〉 (웃음)

〈조사자 : 열녀 애긴 어수가(없습니까)? 열녀.〉

여기서 열녀?

〈조사자 : 안 나 나수가(났었습니까)?〉

아, 그렇게 열녀는 안 나 냈지, 열녀는. 지금 뭐 열녀는 그, 열녀랜 해 가지고 부친, 특히 부모님을 그렇게 모신 사람은, 우리 부락에는 그렇게 업는 거 같은 데, 내가 보기에는.

〈조사자 : 효부도 없고 마씀?〉

응, 효부. 뭐 효부도 있지만은 소소한 효부지게. 뭐 중간에 뭐 단체에서 상을 받고 이. 이런 상 골은(같은) 거. 음.

14) 도채비 7

제 보 자 : 김병주 (남·6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도깨비는 위에 형상만 있고 발이 없다. 도깨비와 씨름을 할 때에는 왼쪽발을 공격해야 이길 수 있다. 종달리에서는 '올란디' 라고 하는 곳에서 도깨비가 많이 나타났는데. 가로등이 생겨나면서 사라졌다.

(위 제보자는 '도깨비' 를 '도채비' 라고 하는 다른 지역 사람들과는 달리, '도태비' 라 함.)

〈조사자 : 종달리에서 좀 유명한 얘기들 어수과(없습니까)? 막 어떤 할아버지, 노인회장님은 권선달이, 윤선달이 얘기도 하시던데.〉

글쎄, 그것은, 그 뭐, 그 유명한 말이라는 것은 그 권선달이 뭐여, 것도 일개 뭐 풍문에 지나지 않는 건데, 실은, 실지적인 것이 아니고, 옛날 하르방들, 뭐 안장(앉아서) 놀면서, 뭐 권, 선달이라 해 봐야 큰 벼슬이 아니니까 선달은, 선달은.

〈조사자 : 선달이 이름이 아니고 벼슬이우꽈?〉

벼슬이주, 벼슬.

〈조사자 : 아.〉

선달.

〈조사자 : 봉이 김선달 추록(처럼)?〉

봉이 김선달. 뭐 그 훈장 이런 뭐, 그 이런, 그러한 것이지. 뭐 그.

〈조사자 :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예? 좀 예?〉

마. 그런 걸로, 그렇게 봐야지 뭐.

〈조사자 : 좀 골아 줘서(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그런 것은 난 잘 모르겠는데, 그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것은 우린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것을 풍문으로 다 들은 거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 그건, 풍문은 뭐 말에 불과한 거지. 뭐 김삿갓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조사자 : 아니, 우린 그런 거 조사하는 거 마썸. 우린 도채비 얘기도 막 조사하고 예?〉

그래 뭐 전에 그 도채, 도채비라는 것은 옛날에 그 불이 잇기는 잇섯는데, 우리도 실지로 보긴 봤는데, 도채비는 우에만(위에만) 잇고 밑에는 업고.

〈조사자 : 발이 업덴 마썸?〉

발이.

〈조사자 : 형상이 마썸?〉

알 수 잇다 이거지. 그러면은 또 밑에 그림자가 업고, 도채비는.

〈조사자 : 뭐 손에는 들르는 건 업고 마썸?〉

어, 들르는 것은 없고, 이제 종달리도 그 이 유명한 곳이 있었는데, 도채비 많이 나는 곳이.

〈조사자 : 어디 어디 마썸?〉

그 저, 저쪽으로 가면은 그 '올란드' (지명)라고 하는데, 그 굴에 발에 잇섯는데.

〈조사자 : '올란드' 마썸?〉

응, 이름이 '올란드' 인데, 거기서 이제 날, 날이 곳을라고 하면 이,

〈조사자 : 예.〉

비가 올라고 하면은 막 이 불이 나와 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텃다가 여섯 개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뻐다가. 또 때로는 이제 그 집에 와 가지고 불도 지르고 이.

〈조사자 : 아.〉

그 도태비들이 말이야. 그래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업서졌냐 (없어졌느냐) 허면, 이제 가로등이 생기고 이, 불이 환하니까, 이제 그 과학에는 아마 것도 못 견디는 모양이라, 실지가, 과학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뭐, 옛날에 그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것도 한 가지 내용은 도태비하고 그 씨름하자, 이제 씨름하자 헐 때게는, 이 그,

“왼쪽 발만 치면은 그 도태비를 드러준다.” 이거지. 왼쪽발. (웃음)

〈조사자 : 무사 마씨?〉

오른쪽 발을 때리지 말고, 왼쪽 발을 치면은 도태비는 진다 이거지. 사름한테. 게 도태비 한 가지는 그림자가 업고.

15) ‘그신세’ : 도채비 8

제 보 자 : 김병주 (남·6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종달리에는 ‘그신세’ 라는 도깨비가 있는데, 그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죽었다. 제보자의 어머니가 새벽에 길을 가다가 ‘그신세’ 의 밑으로 지나가게 되었고, 친정에 가서 넋을 들인 후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

(위의 도채비 7과 이어지는 이야기임.)

그 옛날 또, ‘그신세’ 라고 현 그런 도태비가 잇섯는데,

〈조사자 : 예?〉

‘그신세’

〈조사자 : ‘그신세’〉

응. ‘그신세’ 라고 현 도태비가 있었는데, 그것, 그 밑으로 이제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 죽고 이렇게 했는데, 단 한 가지 내가 그 기억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시흥인데,

〈조사자 : 예.〉

여기서 이제 옛날에 이제 종달리서 소금을 굽다가, 소금을 굽다가 이제 친정

에 불일이 있어 가지고 새벽에 갈려고 하니까, 달이 아주 밝고 하니까, 이제 다 밝근 줄 알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그신세'가 나왔다 이거여. '그신세'가 나가지고 그 '그신세' 밑, 그 '그신세' 그 밑으로 우리 어머니가 아마 지난 모양이야. 그래서 그 우리 친정, 어머니 친정이 아주 부자로 살았는데. 부집, 시흥리 부집이라 해 가지고. 그래 가서, 가서 그런 애길 하니까, 그 즉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냇을 들여 가지고, 그 어머니가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린 만이 듣고. 이렇게 옛날 그 실지적이면서도 이제 그 참 거짓말 같은 그런 거지.

16) 도채비 9

제 보 자 : 김병주 (남·6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도깨비를 모실 때에는 대축(수수)떡을 한다. 또한 도깨비는 백마피를 무서워하여 입구에 백마피를 묻혀 걸어 놓아 도깨비를 쫓곤 했다.

<조사자 : 집안에서, 예? 도채비 몰래 모시면은 막 좋아지고...>

그 옛날은 그 뭐 대축떡 이런 거 해 가지고 도태비를 모시면 이제 부자로 된다고, 그렇게 허는데, 뭐 옛날 부부간이 사는데 제일 도태비가 무서워 하는 것은 그 백마 피, 말 피.

<조사자 : 말 피, 흰 말 예?>

응, 흰말. 백마. 백마피를 이제 걸어 놓고, 이제 입구에 걸어놓으면은 그 백마가 못, 그 도태비가 못 와 가지고 그런 그. 것도 한 가지 전설인데, 실지적으로 보거나 그 해 온 사람은 업스니까. 것도 한 가지 거, 풍설에 지난 거지.

17) 여호(여우) 이야기 1

제 보 자 : 김병주 (남·6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요약 : 여우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여우의 변신 도구인 구슬을 몰아서 삼켜버렸

終遠里 學術調查報告

다. 그런데 하늘을 보고 땅을 봐야 할 것을, 다급한 김에 땅만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알았다고 한다.

(위의 도채비 9와 이어지는 이야기임.)

〈조사자 : 게문 옛날에 뭐 백마피로 예. 도채비 이렇게 막 오는 거, 그걸로 방어하고 예, 그걸로 물리친 적 이시난(있으니까) 그런 얘기 돈 거 아니 마씨?〉

아마 그런, 거 옛날 할아버지들이 뭐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지.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여호라고 있었어. 여호 이?

〈조사자 : 예.〉

여호, 여호 그.

〈조사자 : 여우.〉

여우, 옛날에, 그 이것도 한 가지 나도 들은 얘긴, 들은 이야기인데, 그 여호하고 아주 다정하게 둘이가 지냈는데, 친구하고, 그런데 여우에는 그 입에 이것을 무는, 그 은방울 같은 게 있는 모양이라. 이것, 이것을 물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여우한테 부탁을 한 모양이지. “거, 나도 조금 물어보자.”고 말이야. 이것은 여우가, 이것을 뺏겨 불면은 거 되질 안아.

〈조사자 : 변신하지 못해 예.〉

자기가 변신을 할 수가 업서.

〈조사자 : 예.〉

그러니까 다정한 친구가 그것을 물었는데, 그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여우하고 사람하고 물었는데, 그 여우가 걸 물은 다음에 이 사람이 것을 밑으로 먹어버렸어. 먹어버렸는데, 묻져(먼저) 하늘을 보고 땅을 봐야 될 건데, 거 엉겁결에 땅만 봐 부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몰르고(모르고), 땅에서 일어나는 말이, 일은 잘 알았다고 옛날 그런.

〈조사자 : 아.〉

그, 풍설이 있는데, 우리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연령 맞는 사람들한테 만이 들었지, 그런 거. 우리가 실지적으로 뭐 본 것도 아니고, 그 옛날 풍속이니까.

18) 종달리 기인(奇人)들 1

제 보 자 : 김병주 (남·6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김병주 할아버지댁

요약 : 종달리에서는 가문끼리 묘자리를 놓고 싸움을 하곤 했다. 제보자의 집안에서 한 사람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러 오면, 불을 입에 넣어 겁을 줘서 사람들을 쫓아버리곤 했고, 다른 사람은 나무를 뽑아서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한다. 또 한 사람은 상투에 새끼줄을 이십 발쯤 매달고 달려도, 그 새끼줄이 땅에 닿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은 우도에서 잠자는 머슴을 두문포에서 소리를 질러 깨워 일을 시킬 만큼 목소리가 컸다고 하며, 두문포에서 우도까지 헤엄쳐서 건넌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힘이 센 두 사람이 씨름을 해서 사흘 동안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고 하고, 한 깡패는 상대방이 사과를 할 때까지, 그 집 앞에 이불을 가져 가서 잠을 잤다고 한다.

〈조사자 : 혹시 예, 묘자리 잘 썩이네(써서) 부자 텃덴(되었다고), 가문 잘 텃덴 현 말.〉

건데, 건데,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집안이 거 모, 묘자리를 이제 놈의 집이, 그 우리 켜당 하나가 굉장히 그 부자로 사는 분이 있는데, 그 묘자리를 이제 소분(伐草)을 하래 땡기고(다니고) 보니까, 전부 그, 놈의 산(산소 : 봉분) 있는 그 우에 간 다 산을 썩더구만, 소분허래 땡기니까.

〈조사자 : 놈이 산 썩는 디(곳에) 거기 위에 강.〉

응, 그 우에 간에 우에간 썩는데, 그 옛날에 그 산 싸움, 그 허면 이제 산 싸움 허잔아, 산 싸움, 산 싸움을 허면은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지독했던 모양이지, 지독했기 때문에 그 산 싸움을 하래 사람들이 막 와 가면은, 불상 치우다가 그 불을 움막 들러 먹어분(삼켜버린) 하르방이 이서 나서, 우리 집안에, 그, 그.

〈조사자 : 불을 먹어부런.〉

불, 불을 먹어불른 이제 겁나서, 그 사람들이 안이 오는 거라,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이 오고 뭐, 그 또 그렇게, 그 지독한 할아버지가 이서 나서, 우리 집안에, 그래서 지금은 그 가지가 여러 가지가, 그 가지도 지금 뭐 잘 살긴 잘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사는데, 보니까 그 뭐, 그 하르방 자손들이영 같이 이제, 우리 어릴 때 소분허 레 댕겨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 힘이 좋으니까, 그 저쪽에서 이제 싸우레 와 가면은 남 잇잔아, 남, 남을 그대로 메어 가지고, 몽덩일 안 가 정가고 힘이 워낙 좋으니까, 남(나무) 메어가지고, 그 남으로 막 이자(이제) 오는 대로, 막 이제 내려 갈기고 말이지, 그렇게 그 해난, 음 하르방이 있고.

〈조사자 : 몇 대조 되시는 분이우짜?〉

우리가 그렇게 허니까 우리하고 그분이, 내가 그분한테 삼촌, 삼촌 허니까, 우리가 그 김수로왕 74대 손인데, 거니까 그긴 72대 손쯤 되게꾸만. 우리 보단 선열이 높으니까.

〈조사자 : 거문(그러면) 그 일정(日政) 때.〉

일제 때주, 거니까 옛날, 옛날 오래 된 일이주. 거 뭐, 지금 일도 아니고, 지금은 또 그렇게, 지금은 가족공동묘지 생기고, 또 그렇게 허니까 또 그렇게 허니까 또, 그 집안에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뭐 이 새끼 한 열 여덟 발, 스무 발 해 가지고, 머리에 줄라매 가지고, 이 상통이에(상투에) 줄라매 뛰어도, 돌음을 돌아도(달리기를 해도) 그 새끼가 이 땅에 닿지 안허게, 그렇게 음을 잘 돌아다 허니까, 그 옛날 하르방들.

그리고 이 저, 그 옛날에 그 머슴이 우도에 가 가지고 이제 잠을 찾는데, 우도에 가서 이, 할아버지가 여기서 보니까 그 머슴이 우도에 가서 잠을 자고 잇거든. 거니까 이 두문포(지명 : 종달리 소재 포구)랜 헌디서(한 곳에서) 그 좀자는 사람을 목성으로, “이놈아, 자지 말아 가지고 그 밭 갈라.”고 말이지. 그렇게 목성으로 그 머슴을 깨웠다는 그런 전·전설도 있고, 여기.

〈조사자 : 여기 두문포가 어디 마씨?〉

저디 저 배 대는데 있잖아.

〈조사자 : 예.〉

배 대는 디서, 저 우도에 저쪽에, 우도에 잠자면은, 거기에 잠자고 잇스니까, 그걸 이제 호령으로 해 가지고 깨워 가지고.

〈조사자 : 힘도 완전 썩시쿠다, 예?〉

어, 그러니까 힘 썩니까 그걸 현 거주. 게니까 지금 우도, 여기서 우도에서, 두문포에서 우도까지가 한 이천메다 가까이 되는데, 거기 옛날은 거 회여(혜엄

쳐) 가지고, 아무 것도 업시(없이) 그저 회염쳐 가지고, 뭐 왔다갔다 했다는 그런 그 전설도 있고, 건 아주 참 유명하주, 그런 거는, 그.

〈조사자 : 그거 어디 책에서도 있었던 같은데 예?〉

아마 책에 그 종달리 그 뭐 지(志)에도 이실거라, 그것은, 거 그런.

〈조사자 : 더 힘쌩이네(힘이 세어서), 더 다른 일 더 안했덴 마씨(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힘 싸, 뭐 그 힘 썼는데, 이제 힘센 하르방 둘이가 씨름을 했는데, 이제 씨름을 했는데, 서로가 메다치지 못해 노니까 혼 삼일 동안 둘이가 7만히(가만히) 붙잡아 가지고 말이지. 그 이섯다는(있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우리가 그 옛날 하르방들은 힘 좋지 않아?

〈조사자 : 예.〉

힘이 좋으니까 그 서로가 이제 안 넘어 가지고, 가만히 잇서 가지고, 한 삼일 쯤 잇섯다고 말이지. 그런 그 전설이.

〈조사자 : 나중에 누가 이기지도 못허고 예?〉

응, 이기지. 이기지도 안허고, 지지도 안허고 그렇게 그.

그 옛날에 또 그 우리 부락에 유명한 강패 한 사람이 이섯는데, 육이오, 저 저 우리 어릴 적에, 그 사름은 한 번 싸웠다고 하면은, 한꺼번에 이불을 가정가(가지고 가서) 가지고 그 집에 입구에 가 가지고, 자기가 이겼던 그 사름이 사과할 때까지 잠 잔 사람도 이섯서. (웃음) 그, 그런 사름이 잇섯어. 거 실지가.

19) 종달리 기인(奇人)들 2

제 보 자 : 김병주 (남·6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김병주 할아버지댁

요약 : 종달리에는 기인들이 많았는데, 한 사람은 상투에 새끼줄 20미터쯤을 매달고 달려도, 그 새끼줄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빨리 달렸다고 한다. 또 다른 사람은 목소리가 아주 커서 우도에서 낮잠자는 사람을 두운포(종달리 소재:지명)에서 깨울 정도였다고 한다.

〈조사자 : 그 요기 한동(지명)가 보른 예, 범천총이런 현 사람 들어나수?〉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범천충.>

응.

<조사자 : 눈 번쩍 허믈 닭도 막 죽어붙고 헌댄 헌 거 예. 그런 장산 종달리 쪽엔 어수가(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업지. 그런 사람은.

<조사자 : 게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잇섯다. 그런 거 안 들어나수가? 하나도 안 들어나수가?>

그렇게 어, 거니까 그,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그 힘이 좋고, 그 그 들음도 잘 달고, 그 그 할아버지는 상당히 유명하지. 한 이십메다 쫘 새끼를, 저저 상통이에 묵겨(묶어)가지고 뛰어도 그 새끼가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뛰어서.

<조사자 : 새끼가 무슨 새끼파?>

새끼, 새끼줄.

<조사자 : 새끼줄.>

응. 줄, 지금쫘 잇섯으믄 그런 할아방들 올림픽, 그거 나가믄, (웃음) 잘 뛰어서 줄도 모르주.

<조사자 : 새끼줄 길이는?>

응, 한 이십메다 쫘.

<조사자 : 이십메다.>

응. 이십메다 쫘 상통이에 묵경(묶어서) 뛰어도 그 줄이 안 닿았다고 허여. 거 우리도 여기서 게 두문포에서, 그 저, 저기 우도에 잠자는 사람을, 낮잠 자는 사람을 깨와 가지고, 그 일하게끔 만든, 그런 그 목성을 가진 하르방들도. 것도 참 유드문 일이주. 실지가.

20) '오마깨' 물

제 보 자 : 김병주 (남·6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김병주 할아버지댁

요약 : 종달리에는 '오마깨' 라는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으면 허가 짧아진다고 한다.

(앞의 종달리 기인들 2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임.)

에, 또 이것이 된지가, 수도 된지가, 한 이십 · 한 이삼년? 수도.

〈조사자 : 그전엔 우물.〉

그전에는 통, 우물, 저기 가면 오막, 또 또 유명한 것이 있는데, '오마깨' 랜
헌 디가 있는데, '오마깨'.

〈조사자 : '오마깨' 마썸?〉

'오마깨' 물이 있는데, 거기 물을 먹으면은 세가(혀가) 달은다(닿는다) 해
가지고, 그.

〈조사자 : 아, 혀가 닿아 마썸?〉

응, 응, 세가 달아서 말을 잘 못한다고 말이야. 그니까 그 물을 먹지 말라 해
가지고, 저기 '오마깨' 랜 헌 디, 유명한 물이 있주, 저기.

〈조사자 : 어디 이신(있는) 거우파(것입니까)?〉

저 그 당 있는 디, 바로 옆에, 이젠 그 문혀져 버려실꺼주.

〈조사자 : 당 있는 디 옆에 마썸? 지미봉 밑이 당 이신디(있는데).〉

응.

〈조사자 : '오마깨'〉

'오마깨', '오마깨', '오마깨' 물.

〈조사자 : 무사 '오마깨' 랜 해수가?〉

게메 그, 그것도 나 잘 몰라. 어떻 행 '오마깨' 랜 해신지 모르켜(모르겠다).

〈조사자 : 혹시 거기에 대한 전설 같은 거, 어서 마썸?〉

글썸 그, 전설 같은 게 어서. '오마깨' 물이엔 허니까 '오마깨', '오마깨',
'오마깨' 그 물을 먹으면은 세 달으니까 그 물 먹지 말라고 말이지. 요 상도
(지명)에, 상도에 가면은 웃다리여 노니까, 상도 있지? 상도 이.

〈조사자 : 예.〉

요기 상도, 거기 가면은 통이 밑에 물을 안 뵈일 정도야. 그렇게 깊이 파야
돼, 물을.

〈조사자 : 안 나 마썸? 물이?〉

아 물이 안 나니까 그렇게 깊이 파야 돼, 물을.

〈조사자 : 경허른 '오마깨' 에서 세가 달는덴 소릴 들으면, 그렇게 한 사람이

이서 마썸?)

아, 그 그렇게 된 사람은 없는데, 그 그, 것도 낭설인가. 뭐, 현실적인 건 아니지. 우리 어렸을 때, 그 그, 우리 '오마깨' 거기 강이네, 거기 물 먹고 해도 세 달으거나 그렇겐 안 허는데, 그 하르방들이, 옛날 하르방들이 "오마깨, 야! 오마깨 물 먹지말라, 이." 세 달는덴 해그네(해서).

21) 지명유래 : 전수동(前水洞)

제 보 자 : 김병주 (남·69세)

조사일자 : 1999년

조사장소 : 김병주 할아버지댁

요약 : 6백여 년 전에 '안카름(지명)' 사람들이 전수물(종달리 소재 용천수)을 식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달리에서 내려오곤 했다. 그리고 그 물 이름을 따서 지명을 '전수동'이라고 했다.

〈조사자 : 종달린 식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예?〉

어.

〈조사자 : 그럼 거기에 신이 산다는 그거 어서 마썸?〉

아 그런, 그런 거 업고, 물에 대해서는 그 '오마깨' 물이 유명했고.

〈조사자 : 거기서 뭐 전설 어수가?〉

요기 전수물, 거 전수물이엔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종달리에 그 전수물 하나 박게 업섯덴. 그, 그 통이 이젠 다 메꽂(메워) 버렸는데, 그 전수물이엔 해 가지고 그 통이 제일 먼저 전수물로 해 가지고, 이제 유명해 가지고 종달리 이름, 그 전부를 이제 맥엇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물.

〈조사자 : 전수물 상당히 중요했겠다예?〉

어, 그 계란 그것이 시초예, 그 전수물 하나가,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저 안카름이랜 헌디서 종달리 내려왔다 그래. 그 물이 좋으니까, 그 옛날 무슨 뭐, 저 뭐 물고, 거 무슨 만이 있주만은 거 소소헌. 저 억물(종달리 소재 용천수)이라든지, 저기 억물이, 억물. 저기 가면 또 억물 잇었고, 그 전수물, 허여튼, 전수. 그래서 그 동네가 전수동이 똤다는 거.

〈조사자 : 전수물에 관한 그런 얘긴 어수과(없습니까)?〉

계난 전수물이란 현 것은, 종달리에서 그 물을 먹기 위해 가지고 안카름에서 여기 내려왔다 이렇게.

〈조사자 : 그 관련된 내용 마씨?〉

계난 계. 그 제일 먼저는 이것이 뭐, 이 종달리도 집이. 한 육백년 전이니까 몇, 몇 집 어서난 걸로 봐야주. 그래서 그 물로 인해가지고, 그 그 통 이름을 따 가지고 이제 그 동네가 전수동으로 이제 됐다 말이야. 동네 이름이, 전수도. 그 전수물. 전수물이란 현 계. 이제 전, 앞 전(前) 자. 이제 수, 전수, 물 수(水) 잔데, 이제 그걸 따 가지고 전수동, 이름이 생긴거라. 앞에 그 통, 걸 해 가지고, 이제 중동(中洞), 서동(西洞), 전수동(前水洞), 동동(東洞), 동중동(東中洞) 이렇게 돼(되어) 있는데, 이제 그 단 한 가지 특성이, 그 물이 해 가지고, 동네 이름을 뺏다는 그런 것이 있고, 겐디(그런데) 전, 전수동 사람들이 옛날은 막 큰 체 허주게, 실은, 그 자기네 동네 물로 먹어가지고, 종달리 사름들 다 햇덴 해그네(해서), 옛날은 막 으시대고, 경도 해 낫주게. 옛날 거 뭐, 또 옛날은 쌍 놉 계, 뭐 구별 현 때는 계. 요새는 뭐, 그런 거 구별, 요새사 돈만 하든 부자주 만은, 옛날은 종달리도 돈 만은 사름들은 계, 막 큰 체를 해 낫주게, 실은 계. 우리도 영 어릴 때 보면은 큰 담뱃대나 물어그네(물어서) 딱딱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은 뭐, 옛날이니까 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시절 이 잇섯단 말이야, 실은.

22) 여우 이야기 2

제 보 자 : 김병주 (남·6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김병주 할아버지댁

요약 : 한 홀어미가 여우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이 사실을 동네 할아버지에게 말하게 되었다. 그 할아버지는, 여우가 천도구슬을 주지 않아도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킨 이후, 하늘을 먼저 보고 땅을 본 후에 자기에게 오라고 하였다. 홀어미는 할아버지 말대로 했으나, 급한 김에 하늘은 보지 않고 땅만 보았고, 그때부터 천기(天氣)는 잘 모르고, 인간 세상의 점은 잘 쳤다. 여우는 천도구슬을 뺏기게 되어 변신도 못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되었다.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이 이야기는 여우 이야기 1과 같은 이야기로, 1차 조사 당시에는 저녁 식사 시간과 시간대가 겹쳤기 때문에 짧게 축소되었음. 여우 이야기 2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고 있음.)

거, 여호는 이제 구실(구슬)을 그 물엉 냉기고(물어서 다니고)이. 그런 거, 그런 거 옛날 하르방들 한티 들은 거, 여호하고 친해은 부자된덴 현 거주(것이지), 여호하고 친해은. 어떤 흠어멍이 그 여호하고 친했는데, 그 여호를 뺄 수를 업스으니까, 어떤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엇던 모양이지.

“할아버지, 나 여호하고 이렇게 친해가지고, 이 여호를 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야, 이야기하기를,

“여호는 천도구실을 물고 있다.”

〈조사자 : 천도구실?〉

천도구실이랜 현 건, 그.

〈조사자 : 아, 구슬, 천도구슬〉

응, 천도, 천도, 천도구실 물으면은, 천, 천 가지 그 요술을 부린덴(부린다고) 현 거주계(것이지).

〈조사자 : 구슬 마썰?〉

구슬, 구슬, 이런 구슬, 그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그 천도구실을 여호가 주질 안을 것이다, 너에게. 그러면은 그 천도구실을 달라고 하라.”고 말이야.

그러든,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제 그 여호하고 그 여자하고 그 부부관계도 맺어지게 된 거주계, 그러니까 이제,

“천도구실을 달라고 하라, 그러면은 그 여호가 그걸 주지 안을 것이다, 꼭 그것을 타 가지고 그것을 주거든, 너가 입에 물어가지고 것을 썬겨볼라(삼켜버려라).” 이거여, “너가 썬겨볼라.” 말이지, “뱃속드레(뱃속으로) 썬겨 가지고, 하늘을 먼저 보고 땅을 먼저 봐라.” 말이야. 응, “그러면은, 다음에 너가 말이지, 그 무슨 일이 생길 꺼니까, 그거 생긴 다음에 나신디(나에게) 오라.” 말이야, 물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호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야.

“거, 거 나누면 나 영(이렇게) 한 번 보겠다.”고 말이야, 볼 테니까 한 번 주랜 허난(주라고 하니까),

“이건 주는 것이 아닌,” 거 여호가 허니까,

아, 그래도 한 번 영 보겐, 한 번 나도 물어나 보겐, 게 그 하르방 말한 대시로 이제 걸 몰영 이제 샘켜부렀다. 그 때 여호가,

“이, 이젠 난 여호 생활을 다했다.”는 거지.

그것이 업스면은 그,

〈조사자 : 변신을 못허지, 예?〉

“변신을 못해서 이제 평생 여호로 이제 죽고, 처벌을 받는다.” 이거야. “그 친구들한테라든지 그 딸림을(따돌림을) 받는다.” 이거야.

그것이 어서 노니까(없으니까), 그 자기가 뭐 하니까, 그래 그 여자가 바쁜 집에 땅, 하늘 보고 땅을 먼저 봐야 될 건데, 땅만 먼저 봐 부니까, 하늘의 천기는 몰르고, 땅에서 일어난 점 있잖아, 점, 점 끝은(같은) 거, 그 우리 일생에는 그렇게 그, 잘 쳤다는, 그 우리 그 할아버지들이 제사 먹으레 가든 그런 이야기.

23) 용 이야기

제 보 자 : 김병주 (남·6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김병주 할아버지댁

요약 : 뱀이 늙으면 용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 뱀이나 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용이 되고, 나쁜 짓을 행하면 그대로 뱀으로 늙어 죽게 된다. 또한 승천(昇天)하는 용의 머리를 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한다.

(앞의 여우 이야기 2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임.)

이제 용도, 용 잇잔아 이,

〈조사자 : 예.〉

뱀이 늙으면 용이거든, 그 용도 하도, 그 제사 먹으레 가면 그 할아버지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용도 나쁜 지랄을 하면은,

〈조사자 : 예.〉

아! 뱀도 나쁜 지랄을 하면은, 그 용의 대응을 하지 못 허여, 게 내가, 뱀도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옛날 그, 자기가 뱀으로 있을 적에 좋은 일을 만이 해야 그 천도에서. 하늘에서 용 되게끔 하는데, 나쁜 일을 하면은 그 용도, 그 뱀도 용 못 되가지고 생전 뱀으로 늘거 죽는 것이 그렇게 맞는 모양이라게. 그니까 사름도 좋은 일을 만이 해야 되고, 그 뱀도 그 좋은 일을 만이 해야 용이 돼 가지고, 그 용 구실을 하는데. 그 옛날은 뭐 저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하늘에서 뭐 용 올라간다 뭐 한다 이렇게 허는데, 그 하늘에 용 올라갈 적에, 그 대가리, 용 머리를 보면은 그 사름이 죽는다고 그래, 거기서.

〈조사자 : 음.〉

24) 벼락 맞은 소, 바위, 나무

제 보 자 : 김병주 (남·69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김병주 할아버지댁

요약 : 예전에는 벼락을 맞은 소, 나무, 바위가 병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믿어서 비싼 값에 팔렸다.

(앞의 용 이야기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임.)

응, 그렇게도 하고, 이제 벼락 같은 거 치잔아, 벼락, 이 천둥.

〈조사자 : 천둥.〉

지금은 뭐 워낙 그 의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 벼락을 쳐도 관계가 업는데, 벼락 친 남이라든지, 남을 찢라다가 먹으면은 그 폐병, 폐병 잇잔아, 폐병, 폐병도 좋고, 그 벼락맞은 돌, 돌, 돌 같은 것도 이제 그것을 살마(삶아) 먹으면은 위장병도 좋도, 이렇게 허고 뭐 옛날은 벼락 맞아서 죽은 소 같은 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소 와랑 만나니까, 소도 벼락 맞은 소가 잇서 게, 그런 소고기는 뭐 옛날에 흔 근에 천원 하다가 뭐 오천원에도 사가고,

〈조사자 : 아.〉

거, 거는 약이 된다 해 가지고,

〈조사자 : 벼락 맞은 게 좋은 거구나.〉

소나 나무나 돌이나, 하르방들이 옛날 하르방들이 뭐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만이 들었주게, 요즘은 워낙 약이 발달, 아마 이것은 의학적으로

도, 뭐 책에도 나오진 안을 거야. 거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그 들은 이야긴데.

25) 고종달 1

제 보 자 : 임태원(여·78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이도하 할머니 덕

요약 : 고종달이 수맥을 끊으러 왔으나, 종달리의 수맥이 소질매에 숨어 버려서 끊지 못하였다. 또한 고종달이 오조리에서 장군의 기운이 서려 있는 돌을 썰어 버려서 장군이 나오지 않았다.

〈조사자 : 도채비 봐난거나 곱아 줘서.〉

어릴 때 들어난 옛날 얘기?

〈조사자 : 고종달 설화 어수파?〉

고종달은 옛날에 신으로 물노리는 똥구질 허명 내려오당. 발가는 사람이서랑 심으러 오라가난. 옛날에 쇠질매, 소질매에 발가는 사람이 발에 놔시난게. 고종달인 막 내려오명, 물을 뜨명 내려오당. 심으러(잡으러) 어단 그 이제 소질매 속에 곱아 분 거라. 쇠질매 속에 움막하게 곱아 부난(숨어 버리니까) 쇠질매, 소질매헌거 이서, 요만이 헌 거. 그 속드래 곱아 부난, 심으러 온 사람은 좃당으네 못 츠으난 가분 거 아니, 그 사람은, 그 꼬장은 터오고 느려 나 옛말 모르켜(잠시 다른 이야기를 함.) 곱아 부난 물을 뜨지 못해서, 하간디 물을, 종달리 땅 흔 질만 파민 그렇게 물이 나오는 거라. 물줄기도 여러 밧디(곳에) 경헤난(그래서) 그 역산 들은 얘기이서.

저 오조리 헌 딘 바위오름 달든 돌이 이스난에(있으니까), 그 췌에선(속에선) 장군들이 나오렷젠. 기운센 장군. 그건 우리 시어명한티서 들어서, 그 돌이 잇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장군이 나오랏젠. 그 고종달인가 무슨 장군이 그 돌을 싸뻬어(툭으로 자름), 싸가난 그 돌에서 장군이 싸부난 피가 탕탕 쏟아져 부난, 그 마을에서 장군이 안 나오랏젠. 그 말을 들어서, 오조리 안카름헌 디 장군같이 돌 이신 디(있는 곳), 장군같이 돌이 크게 세워지고, 그 돌 덕분에 나오민 큰 장군들이 기운센 나오랜. 어떤 이름이신 장군들은.

26) 홍소저 1

제 보 자 : 임태원(여·78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이도하 할머니 덕

요약 : 홍소저 할아버지는 기르던 말 한 필을 팔았다. 그런데 조금 가서 그 말이 죽어 버린다. 그러자 홍소저 할아버지가 죽은 말을 때리면서 잠을 너무 많이 잔다고 호통 치자 말이 벌떡 일어났다고 한다.

옛날 우리 시어멍 이제 초상이 홍소저라고 허는 하르방, 하르방이 잇서 낫주게 홍소저. 옛날.

〈조사자 : 소저 들어봤는데〉

게난 그 하르방이 부모들이 죽으나네. 옛날 하르방이주게, 부모들 죽으나네 괴기도 낙그레 가민 바농으로(바늘로) 혼디 바농으로 나까다그네, 이제 산 차(살아있는 채)해 다그네, 거시기 초허루 보름에 산 차 강으네, 바당에 뇌낫젠 허여. 노민 살앗젠. 일절 이 중이(쥐), 생이(새)나 무시거나 목숨 신(있는) 건 죽이지 안 허는 하르방이여, 게난 소저랜 허나네. 게난 초허루 보름에 이제 저 득랑쉬오름에 가그네, 초허루 보름이 허는다. 옛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초 허루 보름에 상내리젠 나게끔 햄뎨 허나네. 옛날 오조리주게, 제주도 오조리. 홍 아무 것이 하르방이 나가 초허루 보름은 햄뎨. 나라에서 우리 시어멍 옛날 초상이 홍소저로 나라에서 이름을 지은 거라. 지은디 그 하르방이 물을 백 마리 허영으네 허문. 옛날은 제주도 조가 장대굴이 허문, 물들이 글로(그곳으로) 밭으로 넘어오랑도 조 낭드리 하난 건들이지 안 해서. 게난 어떤 하르방 어떤 사람이 이젠 그 하르방신디 오란 하르방님 물 하나 팔아 줌센 허나네, 경허랜. 경허랜 행 물을 펀디 돈을 다 회계해 내. 그 어느 오름 그 산 넘어가난, 그 물이 툇허게 죽어버렸어. 죽어부난게, 오라네.

“아이구 하르버님. 아이구 물을 오꼳 죽어버렸수게게.” 가나네(가니까).

경 허거들랑 옛날은 그 병거 씨고(쓰고) 막 가죽옷 입고 해그네 그 모시 보래 땡기지 안으허?

경허민 그 막대기 그 저 모시 모는 옛날은 윤일이랜 허여. 옛날에 물 몰앙

댕기는 그 죽은 자릴 강 고르켜서(가리켜서) 사 간 사람이 확 혼 번 무시 거
허지도 안행 오꼴 죽어부러던. 가네 그 하르방이 몰을, 죽을 몰을 확 후리멍.

“좁을 너미 잠꾸나.” 허여네.

그 몰이 와들르게 일어나네 살아났젠 허여. 와들르게 일어나나네. 몰 두들리
멍 이제.

“너 너미 좁 잣구나.”

와들르게 일어나나네 그 사름을 가불구. 게은 그런 경헌 하르방이 경허난.
그 하르방이 경허난 소저. 소저라. 소저랜 이름을 지어내. 그건 우리 시어멍 이
제 옛날 초상이주게. 오지리라. 게난에 그 경 헌(그렇게 한) 유명한 하르방이
이서났젠. 우리 시어멍이 골안.

〈조사자 : 그 말을 그 할아버지가 다시 갖고간 마썸?〉

어?

〈조사자 : 그 말 잇잔아. 예. 다시 살아났잔아 예?〉

다시 살아났으네 폰 하르방이 이젠 몰앙(몰아서) 오랏거든. 몰앙 오나네, 그
하르방 머신 이젠 막 소문은 나나네. 폴랜 해도 그 하르방은 그 하늘 하르방이
라노나네. 경 가당 죽어부나네. 그 하르방이 막대기 두들기난 와들르게 일어나
네 살렸젠 햄시네. 그런 그것도 이젠 전설이라. 그것도 우리 시어멍. 혼 4대가
된 하르방이라 홍소저라.

〈조사자 : 홍소저 마썸?〉

어, 홍소저. 그 하르방 이름이.

〈조사자 : 어느 동네?〉

오지.

〈조사자 : 그 사람도 오지리 마썸, 오지리 여기서 멀어 마썸?〉

시흥리 넘어가면 그 다음이 오조리라.

27) 홍소저 2

제 보 자 : 임태원(여·78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이도하 할머니 댁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요약 : 홍소저라는 사람은 살아 있는 것은 죽이지 않았다. 어느 날 미역장수가 할아버지의 가죽옷에 있는 이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할아버지를 속인다. 그 후로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뜨지 못해 미역 장수는 육지로 가지 못한다. 점쟁이가 말하기를 홍소저 할아버지를 속여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하자, 미역장수는 할아버지에게 사과를 한다. 그 후 바람이 불어서 미역장수는 육지로 갈 수 있었다.

〈조사자 : 더 재미난 거 더 골아 줘서.〉

또 그 하르방인가 어땡 하르방이, 아! 그 하르방이로구나. 이제 니(이)도 하나 안 죽이고 바당에 귀기도 뉘아오라도 그물에 다시 올려나. 초록에 올라당 오꽃 고만이 냇두고(가만히 놔두고) 허당에. 이젠 어떤 영감산디(영감인지) 어떤 사람이 혼디(같이) 오랑에, 하르방 그 가죽옷 옛날은, 가죽옷 행 날 터럽서(털고 있었어). 죽이지 안 허는 하르방이, 그 가죽옷은 예, 술이 나동에 도돌랑 치른 거 니 죽지도 안허고 예, 아무것도 어서집니께(없어집니다). 영 허난에 경 골어난 그대로 헐 꺼 아니? 하르방이 그걸 치여서, 치나네. 그 가죽옷은 치나네 오그랑 허게 몬(모두) 몰아져볼 꺼 아니?

〈조사자 : 예.〉

그 하르방이 곧는 말이,
“고약헌 놈 날 칙여서.”

영해낸 영 골은 사람이 메역 장실 현 생이라. 옛날 옛날에 배 해영이네 메역 장수 허난에, 그 하르방 칙영이네 허였담시게, 저 석달 열흘을 브롬(바람) 하나 어성에(없어서), 메역 받아논 걸 노시(절대로) 육지로레 가질 못 허게 되었어. 가질 못허게 되나네, 그거 속인 사람이 장사꾼이난, 이젠 저 어디 강 빌어낸 노시 석달 열흘을 브롬 어성에 육지 못가게 되난, 메역은 사놓고 못가노나네. 어디강 땡기나네, 막 노픈 하르방 칙여서 점쟁이신디 경 들었서, 들으난 아이고 땡기난에 나 이제 막 물헌 영감 하르방 칙인 놀에가 있게네. 이 가죽옷을 막 털어 니 해가넌, 그걸 치민, 니도 하낫도 어성 뵈 헌텐 현 하르방신디 가그네. 옛날은 제주돈 그 새 허그네 날으민 쥘그주게, 날으민, 그 집안에서 올래꼬장(길까지) 싹 퍼그네, 숙불 피겨내. 그 하르방신디 빌랜 현거라. 경허난 이젠 그 하르방신디 빌랜 허난, 이젠 점쟁이 곧는 대로 이젠 향불 피워놓고 노랭 허난, 올래는 그 하르방신디 빈거라 .

“할아버님 잘못 했수다.”

거난 하르방이 곤는 말이,

“어염 사람이 나신디 오랑 스정 햄시넨게 무신 독분에(덕분에) 스정햄시.”네 허난,

“아이고 하르버님 대단히 잘못했수다”

허멍 빈저 아니. 빌엉그네 이젠,

“장사꾼인디 석달 열흘을 하르방이 석인 노시로(까닭으로) 내가 육질 못가게 댕수다.” 허난에,

“막 잘못했수다.” 비렁 가난에,

“경허거든낭, 널라그네 배 나가.”

이틀날은 그 하늬 뒷 벚름이 살허게 불어그네, 저 육지 갓젠 허여. 전설 경현 하르방이 이젠 어서. 경 하르방이 시어멍 그전 당초상이라. 옛날 하르방 나 시어멍 한티 들었저. 나가 옛말 하영 곶안.

〈조사자 : 그 할아버지 아무것도 안 죽이른 풀만 먹언 마썸?〉

보통 하르방이 아니. 하늘 하르방이난.

28) 도채비 10

제 보 자 : 이옥순(여·74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이도하 할머니 댁

요약 : 옛날에 장모가 도깨비를 몰래 모셨다. 사위가 그 사실을 알고 도깨비를 못 모시게 하기 위해서 도깨비 행세를 했다.

옛날에 종달리 사람이, 저 거시기 가시어멍이(장모가) 가시어멍이 이젠 막 대축범벅(수수범벅)을 해여네. 막 낭푼에(그릇에) 막 담양가난. 그말은 우리도 들은, 사위가.

“이 이놈의 할미, 할망 한 번 놀리죽.” 해네.

저 새개(사계 : 지명) 엉덩이랜 현 디. 저 도채비 모성 대접허는 굴이 이서. 저 두모리(頭毛里).

〈조사자 : 어디 마썸?〉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저 두모리 저 젊은 거시기 배우는 디 워랜 허느니? 저 무시겨 저 전문 거시기 저 전문대.

〈조사자 : 전문대 마썸?〉

전망대계. 전망대. 그 동산 아래가 굴이라 이. 경허난 그 우리 어머니 고라난 알주게. 저 대축범벽을 막 여러 개 오곡음식을 해나네. 이젠 그디 강 대접 허젠 출려가난, 저 사위가,

“장모를 놀려야지.”

우장, 니네 잘 모를 꺼여마는, 쇠를 엮은 우장이서. 옛날 우장쓰고,

〈조사자 : 비웃 마썸?〉

어, 비울 때 쓰는 거. 머리도 또 거 쓰는거 셔. 그거 행 씨고 행 가네. 영 강 (이렇게 가서) 안자서. 안자네 가시어명이 이젠 음식을 다 차령가네,

“참봉님 입에 맞진 음식을 해왔습니다.”

사원 이젠 “예” 해 가지고, 겁나 가지고, 그 땐 귀신 아닌 사람이난 대답해. 쪽 귀신 이녀냥으로(스스로) 곤꼭, 이녀냥으로 대답허꼭, 이녀냥으로 곤꼭, 가 부루국 경해주게. 경허당계 사위가 가네.

“참봉님 저 입에 맞진 음식을 해 왔습니다. 채려 왔습니다.” 허난,

“예. 잘 먹었습니다.” 허난.

그냥 터져네, 그냥 터전. 가시 어명이 도망을 해 부러서. 가 부러서. 경허난 그 걸 다 먹고 그릇을 안 아서(가져)가난. 곱쩌난. 곱쩌냥. 한 몇 십 년만이 그 그릇을 내방 쓰난. 시난계 톨레집이난 물론 어명이 갈 꺼 아니? 강 그릇 옛날 낫냥푼. 낫으로 낫푼이 크게 써 맨든 거 잇서. 게난 그것이 당신네 꺼 나와시난.

“아이구 요놈의 자식이 날 저 척였구나” 해네.

그거 그거 나 들어 거. 우리 어멍한티(웃음). 도채비 모성으네. 향아리에 담양 집 앞 마당에, 우영 밭에 문영으네. 문영 이사를 가분 거라. 예.

〈조사자 : 들언 마썸?〉

가 분거라. 예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사왕. 거기 땅 청소허멍 땅을 파신디, 그게 깨져땀 마썸. 그런 애긴 못 들언 마심. 나중에 도깨비가 불질러 불고.

29) 도채비 11

제 보 자 : 황춘자 (여·74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이도하 할머니댁

요약 : 옛날에 도깨비를 모시는 집에서는 도깨비의 뒹으로 밥을 떠 놓았었다. 그런데 하루는 밥을 퍼 놓지 않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도깨비가 집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었다.

조용설에 가민이, 큰 도채비 구신 모신 집이, 도채비 적시(뒹) 밥을 떠나동 갖지, 떠나동 가는다. 흐 번은 이 그 밥을 안 떠나도네, 저 조 빌리레 갖당 왕 보난(가다가 와서 보니까), 가나네 가당, 경 행 이젠 밥을 못 떠나동 가난 가당 생각허난, 이젠 밥을 못 떠나동 가전. 밥 떠 노랜 오난 보난, 도채비가 부엌에 올라네 이, 막 이 불 붙이젠, 불 붙어렌 햄시네.

〈조사자 : 아 아, 예.〉

경 헛젠 해라. 옛날 도채비 모신 집인.

〈조사자 : 혹시 뱀 모시고 그런 얘긴.〉

뱀은 토산땅.

〈조사자 : 토산땅만?〉

토산땅 있는 집은 뒤에 무슨 물이 있지. 저 주지창 거, 새로이 그건 모신 집은, 그건 칠성이란 허주게, 칠성이란 해도 그거라.

〈조사자 : 그거 어신 집은?〉

그거 어신 집이도 놓긴 놓는다, 정에 사람들이 그런 미신을 잘 모셔, 게난 냥을 잘못 모시른 그것이 나오란. 집안이 안되젠 허른 그것이 나오랑 땡겨, 그런 거 못는 집이.

30) 부예산달

제 보 자 : 우근호(남·66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우근호 할아버지댁(종달리 중동 1731-1)

요약 : 옛날에 활도 잘 쏘고 창도 잘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머리에 듣게 없어서 심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사에서 낙점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그 사람이 자기 배알을 입에 무니까, 심사관들이 그 기백을 높이 여겨 장수에게 선달 벼슬을 주었다.

저기, 저 종달리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조사자 : 예.〉

거, 부에선달이라고. 응. 부에선달이라고. 여기선 그 사람이 상당히 참 식견은 업서도 힘이 장사라. 힘이 장산데 이 왜구, 저 하예 장사 알지? 이렇게 상판 들러 가지고 그 자체 방어 보호를 했던 그런 뭐가 있었는데, 여기, 저, 그, 소위 말하자면 군졸이 모자라니까 급기야는 이제, 그 급조양생이란게 잇섯던 거 같애. 글썄 지금으로 같으면 저, 장수머들이라는 곳이, 그게 뭐냐면 병련장이라. 혼련장. 병련장. 거기서 했는데. 거기 뭐 활을 쏘거나 또 창을 던지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저 그 심사관이 이렇게 죽, 이렇게 심사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조사자 : 할아버지 저기 안장허게 마씨.〉

이 사람이 아니 안즈면 애기가 안 되잔아. 서야, 응. 경해서 이사람이 말야 남보단도 힘이 좋아노니까, 창을 멀리 던지고 활도 참 이렇게, 그 멀리 쏘기도 하고 적중률도 좋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머리에 든게 업서노니까, 심사관들이,

“당신은 힘도 좋고 창도 잘 던지고 활도 잘 쏘지만은, 사람 통솔력이 업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낙점을 쥐 버렸다 이거라. 낙점을 쥐 버리니까, 이분이 말야, 어떻게사 화가치밀엇던지, 아마 이 추위 가지고 화로에다가 불을 이렇게 숯불을 살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말야, 그 자기 배알을 갖다가 막 숯 그 불덩이 입에 탁 물엇단 말야.

“이렇게 해도 안해 주냐?”고 하니까,

아니, 이제 그, 그 심사관들이

“아, 그, 당신 참 기백이 좋다.”

그래 가지고 그 장수는 장수지만, 응. 선달 벼슬을 쥐 가지고 이제 그, 이 좀 한직(閒職)에, 응.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했다는 일설이 있지. 그건 실물이야, 실물. 응.

〈조사자 : 언제쯤 전에 얘기 마씨?〉

언제쯤? 근데 우리 나라 왜구가 해안선을 침범할 때가 이제, 그 장병을 급조한 시대란 말야. 경 허니까,

〈조사자 : 400년.〉

응. 이제 여기 장수머들, 그것이 유래가 된 걸로 보면, 여기 인가가 상당히 응 살고 있었다고, 바로 여기 너머 고성(지명), 고성 있지? 응. 고성 저 동남(지명), 동남 위에 올라가면 고성리란 마을이 있거든. 거기가 저, 저 이, 성읍리. 있잔아. 성읍리. 거기에 거 지금 뭐냐, 원님 살아난 디 뭐냐 거.

〈조사자 : 민속촌 마씨.〉

아, 지금 민속촌이지만은 그게 원래 고성에서 글로 옮겨간거라.

〈조사자 : 관아 그런 거.〉

응. 관아. 거기가, 그래서 그 성벽을 들으면서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고역을 치렀느냐 허는 거는, 그런 책들 어샤. 그 저, 또 학교에 저 뭐야. 도서실이나 뭐 그런 뭐 어시냐.

31) 도채비 12

제 보 자 : 우근호(남·66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우근호 할아버지댁(중동 1731-1)

요약 : 도깨비 대접을 소홀히 해서 집에 불이 날 뻔 했는데 사과를 해 가지고 불이 나지 않았고, 사위가 도깨비 목소리를 내어 장모를 놀라게 해서, 장모가 병이 들 지경이 되니까 사위가 사실대로 말해 장모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에는 우리 제주 사람이 어떻게 신에 의탁을 좀 많이 한 모양이라. 이제, 뭐 저 도채빌 보고 우리는 혼한 말로 도채비, 초채비 허지마는, 그때는 그 도채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 갑자기 허니까 잊어버렸네. 아, 참봉님, 참봉님 이라고 그렇게 그 우째던 것 같애, 그래서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여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 많이 할 때니까, 이제 조밭, 이제 밭 있지 안아? 그래서 이제 했는데, 참봉님 모시는 쪽에는 모든 식사가 참봉님 제일 위주여, 이 참봉님. 이 먼저 대접해 놓고 비록 먹든 안 먹든 간에 이제 우째는 장소에 탁 해놓고, 이 식구들이 나눠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밭의 일에 그 이제 놈을(일꾼을) 밭에 가지고 밭의 일을 하러 가다보니까, 그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 이 참봉 대접에 소홀 했던 모양이지, 그래서 우선 그때는 저 그 조밭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의 발일을 하면은, 우리 그때 당시로 말 테우리 잇잔아? 잉. 저 말을 해 가지고 다박을 해야 되거든, 뽕야야 되거든. 그러니 이제 소홀하다 보니까 참봉이 와 가지고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라. 왜 그러냐면은 집에다가 불을 놓을라고 해 가지고, 불 아궁이에다 마려, 불을 이렇게 ‘푸푸우’ 이렇게 일으키는 그 뿔해 가지고, 그 이제 주인 아줌마가,

“아이 참봉님. 저 깜빡 실수해 가지고 이제 대접을 소홀리 했습니다.”해서,

막 사정을 빌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이제 그, 이 참봉님은 뿔을 잘 드시나. 이렇게 되며는 일반 음식과는 다른 건데 범벅을 잘 먹는다고 그래.

〈조사자 : 대축 범벅?〉

대축 범벅 잘 아네. 이 응. 그래서 이제 대축 범벅을 딱 해 가지고서, 그것도 밥사발에 거리지않고, 큰 이 낭푼이에다가 걸고 해가지고, 그 이제 참봉이 좋아하는 음식을 고루 고루 갖추어 가지고, 저 지금 ‘소농곳’. 저 어느, 그 이 도채빌, 그를 모시는 어디 뭔가 잇섯던 모양이지. 잉. 거기 가서 이 밤과 저 밤 사이에 가 가지고, 이제 그 장모님에게 그 이제 자기 잘못을 막 빌고 잇는데, 그 집에 사위가 이 보니까, 그 참봉한테 대접을 할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눈에 띠면 안 된다고. 그래 자기 자기만 그 이제 허면 돼. 경헌디 어떤 사위가 자기 장모가 무엇을 이고 급히가니까, 사위가,

“도대체 이 장모가 뿔 그렇게 이 밤중에 가느냐?”

해 가지고 뒤를 발븐(밝은) 거여. 뒤를 발바 가지고, 가도 가도 하도 가니까, 끝이 없이 갖거든. 밤은 야심에 갖는데. 경헌디 이 그, 이 밤과 저 밤 사이에 해야 된다는 거여. 거기 가서 이제 ‘탁’ 그렇게 차려놓고,

“참봉님 저가 순간적인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참봉님을 소홀리 대접했다.”는 데서,

막 이제 그 하고 잇는데, 앞으로는 아 그 이. 그 막 빌고 잇는데다가 어딘가 목소리가 나온 거여. 아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서만 빌고 빌었는데, 아 이날 따라 이거 뭔가 말소리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그 주위를 상기시키는 얘기가 나와버린다는 이 말이여. 아 그러니,

“아이고 죽을 죄를 지고 뿔 죄송합니다.”했다 허니까,

“따시는 그런 것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 그 아무리 지금까지 해온 참봉에 대한 대접할 때도 이런 말소리를 못들어 봤는데, 아 말소리가 탁 들리니까 그래서 그냥 장모가 혼쫓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음식을 거기 다 놓고 뭐 뭐 참 으 사람이 걸어나 나 살려라 해 가지고 황급히 집으로 온 거야. 그냥집으로 왔는데, 그 이제, 당 사자는 시름, 시름. 막 걱정으로 저 지샌단 말야. 그래서 으 하 이거 누구 앞에 가서 뭐, 또, 자랑, 자랑 할 일이 아니고, 얘기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딸이니까 딸 앞에 가서 고백 할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주로 아낙네들이 그 출입 할 때는 그 대문으로 이렇게 그 들어가는, 그 떠서 마시고, 응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제 딸 이름을 부른 것 같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이제, 그 이 뭐야. 그릇, 응, 옛날 같으면 살레라고, 그러나 거기다가 그릇은, 물 그릇은 이렇게 틀게서 자기에게 먹으려고 이러는데, 낮익은 그릇이 탁 이렇게 셋겨서 얹어져 있 거든. 아 그렇다고 해 가지고 딸애보고, 딱 이거 어디서 낫느냐고 물어 볼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아 이제 이날 따라 그 참봉님이 이제 말을 하는데,

“으 나는 이제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당해보질 았았는데.”

아 그러니까 그 이 장모 경우에는 병이 될 지경이 되브런 일?

“이젠 이러다가 또 장모가 병이 나면 어땡허나?” 해 가지고,

그 실상을 그 사위가 공개한거라.

“사실은 어머니 내 사실은 이제 저 이, 뭔가 이고 이렇게 황급히 가길래, 어디서 내나 그 어머니 그 가는 발자국을 발바서, 으 그 말소리를 내가 낸 것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장모님 죄송합니다.”

이러니 그 원인이 풀리니까, 으 풀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그 으 병에 걸리지 안고 했는디, 그 있지 이, 이 동네 있었던 얘기라. 으 경 허니까 그 누가 참봉 본 사람이서? 본 사람은 엮는 거고. 으 경 행 나 이거 꼭 두 번째 얘기했잖.

32) 효자비 2

제 보 자 : 우근호(남·66세)

조사일자 : 1999년 7월 31일

조사장소 : 우근호 할아버지댁(중동 1731-1)

요약 : 머달이 문에 자식 손이 찍혀 가지고 어머니가 손가락을 빨아주었다. 그러자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엄마의 병이 낫게 되었다. 그것이 미화되어 효자비가 세워졌다.

저 어머니가 생활 불능에, 그 이제 병고에 시달리니까 이제 그, 누가 이 지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 아이가, 어머니가 병환이 중환인지, 경환인지, 그걸 판단 못 할 때고, 아마도 일시적으로 봐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안았느냐 싶은데, 그때에 그 으 우리 생활 인과구조가 지금 모양으로 뭐 미담이가 뭐 이다, 뭐 그러한 이 문짜으로 마는 안된 것 같고, 그 이 바람에 팍 닫히고 뭘 하다 보니까, 으 손가락이 아마 그 문에 팍 찍킨 거 같애, 찍켜서 엄마 '후 후' 이렇게 한 것이, 그게 어떻게 으 으 그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 그래서 참 엄마가 그 피로 생활이 됐다고 허는 말이 있는데, 아 어느 미친 책, 저 이, 저 철부지가 마려, 손가락 끈어다가 어머니, 저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이끌어 그 말이 맨들어 저야지.

〈우근호 할아버지의 妻 : 갱허도 효자문 썩지(세우지) 안아서.〉

아니 썩기야 세웠지마는, 그 암행어사가 뭐 참 기특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서, 이런 면을 뭐라 허는디, 갱헌디 주위에서 말을 보태준 저지, 으 우린 나는 그렇게 생각돼, 이 그 나이에, 아무리 요새 뭐 애들이 영특해서 뭐 영재도 나오고 뭐도 한디지마는, 아 세 살, 네 살, 다섯 살, 먹은 애가, 으 으 한 번 생각해 봐, 엄마가 지금, 이 저 병이 중환인지, 경환인지 그 판단 못할 때고, 어떻게 문이 닫혀가지고서, 엄마, 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틈에다가 손가락이 찌겨(껴) 가지고서 피가 나니, 엄마 '후 후'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아프니까, 이렇게 한 것이 그게 어떻게 참 수혈이 되가지고 살아난 거 아니냐, 그 뭐 그 시대 본 사람이 업스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33) 도채비 13

제 보 자 : 김순자(여·67세)

조사 일자 : 1999년 7월 31일

조사 장소 : 김순자 할머니덕

요약 : 제보자의 아버지가 소도둑을 도깨비로 오인했던 이야기.

그 밧디(밭에) 농사 지레 갓당(갓다가) 비오라 가난 오젠(오려고) 허난, 그

소를 이렇게 막 줄 사그네 그릇bat테 사나동 허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매동 허젠. 영 매젠 허난(매려고 하니까) 어둑운 디(어두운 곳) 어디 저디 보난 불이 베롱허게(희미하게) 보여, 왁웁헌디(어두운데), 가만히 보니까는 불이 베롱허게 보여, 왁웁헌디. 가만히 보니까는 불이 도태비 불이 아니고 담배 불이라.

“아아! 요것들 소도독질 해 가젠 험구나. 산담 옆에 아찻구나(앉았구나).” 해네.

이젠 솔 막 이렇게 막 야가지다(모가지에) 영 묵그멍(묵으면서), 조름에(뒤에) 줄줄이 다 목경. 앞에 쇠만 이끄민 뒤에 소도 따라가게 막 목겨 나뒤에, 이젠 쉼 묶으는 줄을 말뚝 이만씩 헌(한) 말뚝 이서. 땅에 박는디, 계난 그걸 탁(돌로 박는 소리) 막 허영 박느렌 해 텡(두고) 쉼(소를) 솔짜 끄성(끌어) 오라 부난(와 버리니까) 저 오름에 검은 오름이서 이. 이 ‘동검은오름(지명)’

〈조사자 : 검은오름?〉

검은오름. 숄버리가 방애혹 달마부난(앉아 버리니까).

〈조사자 : 방애?〉

방애혹 달마부난, 그 오름 굼버리를 방애 굼버리렌 허여, 방애굼버리. 거기서 도태비 불이 나오디 만은. 막 이만헌 것이 나오라 가난, 소덜이 무서웁. ‘썩썩’ 허멍, 막 돛젠(달아나려고) 해 가난, 몽둥이로 ‘확’ 허게 쉼(소) 옆구리 두드리난, 이 그 놈의 도태비가. 거 생인(生人) 도태비. 막 천 만개 벌겨전(갈라져서). ‘와자착’ 벌겨전. 도망가버리렌 허멍.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런 것에 무섭지도 아니허면 잘 행 덩겨. 집인 그 밤이 쉼(소) 이견(테리고) 와 나서, 경 뒷날 강 보난 도독놈 맞아. 쉼줄에 박은 것 문딱(모두) 빠 가부러서, 소 거디 놔 시민 그날 저녁 소 일러볼꺼(도독맞을 뻔 했다).

〈황춘자(여·74세) : 쇠줄레 빠다 뭐 허젠?〉

거기강 부에(화가) 나난 “이놈의 자식 이저라도 빠가분덴.”

빠가 부러주. 담 어염에 산 어염에 베롱베롱 불이 이시난(있으니까),

〈황춘자(여·74세) : 이제 ㄹ트면 강도지.〉

예 게, 계난 거 쇠 도독질덜 해 가젠. 그디 강 안즌 거주. 아이고, 옛날은 도채비가 말도 못허게 하나서(앉았다). 계난 요디도 저 우물앗띠로 두문짜더러 가고 오고 해 나신디 어서전(없어졌다).

〈황춘자(여·74세) : 옛날 이제 곶이 불이 흰 허여서? 다 이제 그냥 고요허

여 노나네.>

34) 노일저대

제 보 자 : 김순자(여·67세)

조사일시 : 1999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김순자 할머니댁

요약 : 남선비는 돈을 벌기 위해 육지로 떠난다. 그 뒤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부인은 남선비를 찾아 나선다. 남편을 만났지만 남선비와 둘이 살고 싶어하는 노일저대는 그 부인을 죽이고 남선비와 육지에서 내려와 아들들까지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죽어서 뒷간 귀신이 돈다.

경허난 이제 아방신디레, 서방신디레 곶아 부나네, 이제 아방을. 또 그것에 이 이건 저승본이라. 저승 본 푸는 뭐이 남선비.

<조사자 : 예, 말씀 허십써.>

남선비렌 현 하르방이 아덜을 일곱성제 난디. 옛날에 못 살아나세. 옛날은 별이가 이서 나샤(있어 닐느냐)? 어스난(없으니까), 못 사난 하르방이 어디 육지 장사 하누렌, 이젠 쪼그만 뽕 탕 나가 불고, 어멍만 애기 아덜 일곱성젤 돌아 사는데(데리고 사는데), 거 살단 보난 아기들이 육아가난(철이 들어가니까), 옛날에 초신삼양 신어세이? 쫓세기, 나룩칙으로 영 행 신으난, 아 어멍이 어디 강 한 후에 당기창오고 (?) 아들 일곱성제가 삼아도 신이 모지랭(모자라서) 못 신어. 이 할망이 무사 영 햐신고 아들들이 다 호끔(조금) 어디 축축허당, 죽은 아들이 켈 요망 저난 생이라. 게난 죽은 아들이 이젠 어머님, 뭐허레 땡기명 경험어쎄. 하이고! 바른말만 햐쎄. 하이고! 경허겐 아니라 느네 아방이 연날 아무시절에 어디 육지 어디 장사가노렌 배탕 나흔디 이제 소식이 어서부난 나가 어디 죽영이나 올라신가 살양이나 오카. 개맛(포구)마다 돌명 강 그말 허누렌. 경허난 아이고 어머니 경해결랑 우리 배 지성 내농켄 어머니 배탕 나강으네 아버질 강 훗안 읍센. 경허난 이젠 그 아들 일곱성제가 뽕 짓어 내완. 영 행 가단 보난 어멍을 좃으레 사공해네 보내난. 춤(참) 어느 섬에 강 느런(내려서). 어떤 아가씨, 애기가 물을 영행 아잔 물을 '즈룩즈룩'. 연날은 그 물 질영 먹어세. 저 웃드르 산천집이 태옥밭티(잔디밭에) 물 골르난 '즈룩즈룩'

영 지르멍(물을 길으면서) 대바지에 물 지르멍 허는 소리가,

“아이고 요 새야 새야, 저 박줄이(鳥類名) 옥은 칸에 노일저대. 아! 남선비 옥은 까네도 구일저대 저 노일저대 호탕에(꼬임에) 들언 하이고 눈만 멀쭉멀쭉 쪽 험쩌.”허멍 허나네,

할망이 그 말을 들언 남선비엔 들으난,

“하이고! 나 무신 거랜 곶앗수까? 아이고! 요 생이고라(참새에게) 곶앗주.”

“아이고 요 새야 새야 너미 옥은 체를 말라. 요디 남선비도 저 노일저대 구일이 돌 호탕에 드룬 대축낭 집이 아잔 눈만 멀쭉멀쭉 험쩍 곶앗수다.” 허나네,

“하이고 애기야, 거 어디로 나 훗솔 고르차 도라.” 허난,

“하이고, 요디우다, 요디우다.”

강보난 춤 대축낭무로 영 해네. 어디 웬 막(움막) 어샤이 연날이(옛날에) 그 추룩 짓어네 허난, 삼수색(?)이 풀이 막 올란 더꺼(덧어). 부재집에 강 뵈. 방에 영 찍어난 방에후에 채 아래 복작 현채 한 줌 썩 신 거 썰영. 치매 자락에 영 싸앗안 혼질혼질 오라. 그, 것에 쑥 수영 하르방 한 직(순가락) 쥐 두고 지도 먹곡. 따시(다시) 어디 나강 땡기멍 혼질혼질 경허멍 행 살암시난. 할망은 이 이젠 고운 좋은 술에 막 괴기에 아산 강, 그 것 싯영(씻어서) 밍허고, 하르방만 신 디 강.

“중니(주인) 호곰 빌립 썬.” 허난 하르방이,

“아지민 똥내, 사민 찌렁내 낭 이 방에 못산데. 이 거 방도 아니고 못 산덴.” 허난,

“아 영해도 좋으메 나가 조낙만(저녁밥) 묵영 가켄.” 허연,

각신 봉그레(주으러) 가비연(가 버려서) 어서 분 때라. 들어강 허난 할망이 막 쫄 싯어넌 밥을 행, 그 거 행 이젠 하르방 와서난,

“그 덴 괴기 국 끌리고(끓이고) 묵행 안네난(주니까) 멩노랜(먹었다).” 허난,

이젠 그 노일제대가 이 그 치멧자락에 그 체 한줌 해야사네 혼질혼질 오라 시난,

“어이구 이디 어떤 할망 오란 밥 행 췌, 이거 나 먹영. 어이구 막 이디 냄새 난 못삼니덴해도 영 오란험쩍.” 경허난,

“어이구 어떠한 어른이우파, 어떠한 어른이우파?” 해가난, 할망이 곶아서,

終遠里 學術調查報告

“옛날에 나 이 하르방 가시노랜 경헌디 이거 나오란 못 찾아부난 여기 좃으러 나온고렌.” 허난.

“아이고 계민 아이고 성님, 읍씨 요 못띠 강(연못에 가서). 읍씨. 목욕이나 행 가게.”

아 이젠 아 가켄 허는디 할망을 둘앙 간(데려 갔다).

“아이고 성님부터 먼저 헉씨. 성님부터 먼저 헉썬.”

옷 벗어내 그 할망 머리 좋은 머리에 좋은 옷에 입영 강 거 벗어나 텅(두고).

“하이고 먼저 굽읍씨 굽읍씨.”

영 굽영. 경허난 등 영 미는체 허당(하다가) 바닷물들에 그리 밀령(밀어서) 할망 죽여 불지 안아샤. 죽여동 이젠 그 옷에 그 머리에 헤아상 오란.

“하이고 저 노일저대 나 물들레 간 그리 갓당 비왓수다. 그 년 죽여 부러수다. 읍씨. 우리랑 이제 가게.”

하르방 고정들언(그대로 믿고). 아메도 눈도 헌착은(한쪽은) 멀어 부난.

〈황춘자(여·74세) : 그 하르방이랑 살쥔 했구나.〉

응. 경 헨 이젠 그 배 탕 오락수게. 오는게 이젠 아무날은 오랴쥔 해네. 보난 아들들이 다 나선 보난 막 민영전필 도릴 와간다 무신 도릴. 뤼. 명지전필을 와간다 허당.

“죽은 아들은 아니엔. 우리 어멍, 절대 우리 어멍 안 살앙웁썬 이젠 막 칼산 도릴 나부러썬.” 아들은 죽은 아들은.

〈조사자 : 칼산도리?〉

칼산도리렌 헌 건 칼 영 세우는 거 잇나. 경 헨 이젠 탁 들어오니까는. 아 보난 얼굴도 아니고 아니라.

“아 이거 우리 어멍 아니엔.” 허는디 성들은 몰란(몰랐다).

“아이고 어멍 간 막 고생해 부난 영 줄어 부난 이제 영 굿어쥔.” 계난.

“아 계민 우리 어멍 오민 우리 상 출려주는 거 보민 아난, 우리 일곱성제 상 출려주는 거 보민 안덴.”

죽은 게 경 영리해난 생이라(모양이라). 그추록 헨(그렇게 해서) 상을 출려주난 모뎡 바뀌지지 안아샤. 성상이(형의 밥상이) 아시신디(아우에게) 가고 아시상이 성신디.

“이저 보렌 우리 어멍. 우리 어멍 절대 아니렌.” 아 혼솔 경해도 살아 가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 놈의 어멍이 이제 막 오망텅을 해영.

“이젠 아이고 요 앞집이 가민 맥슨 점쟁이도 잇쨌 마는, 그디간 점 문점이나 해 봐시민.” 허민.

하르방은 텔레텔레 가노렌 허민. 셋담으로 호룩하게 강. 맥 둘러썩 안장. 이 맥이렌 현 거 아냐? 영 나룻짚으로 저런 거. 옛날 이 무신 곡석 담아난 맥이서. 맥 맹텅이. 큰 맥.

〈황춘자(여·74세) : 맹텅이렌 현 거.〉

저 뒷덜 산디고 모물이고 조고 담아난 거 맥이서. 갱 그, 것에 썩 안장이네.

“어떻게 오라시니?” 허민.

“문점허레 오랏수다.” 허민.

“하이고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肝을 꺼내어) 먹으민 좋커라.” 허민.

이제 그 말 들언 이제 텔레텔레 오노렌 허민 셋담으로 호룩하게 오랑 누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노렌 허민. 하르방 오라시민

“하이고 무신 거엔 헷디까?” 허민.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으민 좋켄 해고.” 허민.

“아이고! 새 배, 두 배 한 배에 두 개씩 새 배 한측 나민 기주마는 일곱 개 주마는 어뎡허영 이제 그 걸 저 행 먹습니까?” 이제 경 해동.

“하이고 요 뒷집이 망대기쓴 점쟁이도 시우다. 하이고 그디도 강 해봅써.”

행 말해지걸랑 영허나 정허나 텔레텔레 가노렌 허민. 이제 그 셋 길로 호룩 허게 강. 거 망대기썩 안장. 망대기렌 현 건 옛날 물동이 사기동이 잇쨌께. 구 두당 영 물리는데 거 영 톱 둘러 썩 불민 누겐지 몰르지. 얼굴 썩 불민. 게난.

“어뎡 행 오라시민?” 허민.

“문전허레 와랜.” 허민.

“하이고, 저 거시기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으민 좋커라.” 영 고르민.

〈조사자 : 뭘 먹으민 좋덴 마씨?〉

아들 일곱 성제 간 냉 먹으민 존덴(좋다고). 아들 일곱 성질 잡아 먹으민 좋 켜했젠. 게난 두 집엔 강 경허난 경 고라(말해) 부난.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조사자 : 예?>

계난 그 건 노일제대가 강 고른 거, 새 어멍이, 경 헨 고르난(그렇게 해서 말 하나까), 하르방 고정들언(그대로 믿고) 툄레툄레 오노랜(온다고) 허민, 셋 담으로 오랑 방에 누잉.

“하이야! 하이야!” 해 가난.

흐루는 이제 죽은 아들이 영 보난 하르방이, 아방이 칼을 실경실경 곶암시난.

“아부지 칼 무신 거 허렌 곶암수가(갈고 있습니까)?”

“느네 어멍, 저 아들 일곱 성제 애 내 먹어샤 좋켄허난 이제 니네 애 내영 주젠 영 칼 곶암짜.” 허난.

“예, 아버지 칼 잘 곶짜. 형님내랑 나가 해당 안 내걸랑 먹고, 나 하나랑 아버지가 협싸.” 경 허난. 아방이 고정들언.

“경 허라” 행이네.

그 칼을 앗앙(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막 어디 들에 강 댕기당 보난 새끼 여섯개 던(든) 산돼지, 멧돼지, 멧돼지 옛날은 막 서 낫주게, 막 이제도 잇주마는. 그 도새기(돼지) 댕겜시난(다니고 있으니까),

“하이구! 이 도새기야. 그 씨 하나만 내비동 여섯 개랑 날 주랜.” 행.

그 여섯 갠 잡안, 간을 내언 이젠 싰 오란, 이젠 일곱 개난 하난 내비동 여섯 갠 내 놀앙, 계난 이젠 그 걸 이젠.

“나 형님네 간 다 행 왔수덴.”

행이네 아방을 주난, 이젠 그, 걸 앗앙 방으로 갈 거 아니가? 가난 옛날은 이 창문, 종이로 발른 거 아니가게? 세꿈(침) 적전(적시고) 영 고망(구멍) 행이네 툄랑 영 보난, 어멍이 이 걸 영 이디만 벌르멍 지 베개 알드레(밑에) 툄툄 문으난.

<조사자 : 음.>

<황춘자(여·74세) : 먹지 안으고(얹고)?>

먹지 안으고 영 피만 묻허멍 다 그레 묻으나네, 저 도새기 간인 줄 알아시민 먹었주게! (웃음) 경 묻으나네, 이젠 그 댐.

“이젠 어머니 다 먹읍디가? 나 저 어머니 머리나 잘 빗저 내고(빗겨 드리고) 어머니 방이나 잘 치어내팅이네게 나 죽으쿠다. 나 죽어 불민 누구 험 사람도

업수게? “

“하이고! 중병든 디 머리도 안 현다. 중병든딘 방도 안 치운다.”

못 허게 허난 이젠 뭐, 별거엔 머리 빗겨주케 해도 안 허여! 머리 빗겨주켄 해도 안 허난, 그땐 성들고라,

“성님네 저리 고만이 샷당(섯다가) 나가 막 싹 성님네 다 들어오렌허건 와 자착 들어오렌” 아! 이젠 다시 간,

“어머니 영 협씨, 나 이디 치와내동 허쿠덴. 오늘 마지막 나 간 이제 아버지 가 해줘샤 어머니 먹어사 병 좋을거 아니펜.” 허난,

“아이구! 아니텐다. 아니텐다.” 해 가난, 그 땐,

“하이고! 성님네 이제 다 들어 옵씨.” 허난,

와자착 돌려오난 그 게 ‘와자착’ 일어난 돈는게 그 쉰테겐 머리렌 현다! 그 머리가, 어멍, 큰 어멍 머리가 게난 머리 길우완 그 머리로 간 칩간에, 칩간이 렌 현 건 변소, 옛날 디딜 팡 돌로 디딜팡 낭 똥싼 도새기 길와서 이, 그 디딜 팡에강 그 머리로 야개(목) 돌아전, 그 노일제덴 죽어붙고, 하르방은 겁난 돈 단 보난 이 집에 풍채 가 잇서 이, 영 풍채허민 작대기 영 받터나서 비들이 빠 지말렌(들어오지 못하게) 초가집이, 표선이 그저 민속촌에 가민 집 영 문등 아래 또 영 준거행 받든 거 잇서 이, 풍채! 그 것 작대기에 강 어멍 행 눈 박아 부난 현착 눈은 하르방이 먼걸로 행 되부러젠, 갱행 이제 살단 하르방은 허난, 이젠 이 옛날은 사람 살아나는 꽃이 머시 잇어나서, 무신 물어름꽃 술어름꽃 순나무꽃이 다 잇어나서 연날은 게난 그 꽃을 행가네 이젠 그 걸 둘앙 그 종놈을 둘앙간 어디어디고 행이네, 그 걸 그 물에 강이네 그 연못에 그 노일제델 아니! 이 거 무사 자꾸 헛갈렷시, 갱 둘앙간 그 어멍 들이쳐분 물에간 그 어멍 혼, 그 빠다귀 양이네, 뭇 행 어멍 살려단 아들들이 내중에 잘 살당 죽고, 죽으난, 할망은 큰 할망은 주앙 할망 부엌에, 주앙 할망이 되고, 하르방은 문전 하르방이 돼서 이, 문전 주앙이 두 부채라, 겐디 칩간에 저 광란이나 행 얻어 먹으렌 현 건 노일제대라, 게난 칩간에 강도 침 ‘톡톡’ 바깥(뻘어서) 변소 봐사주, 속숨에(조용하게) 갓당은 막 광란이 들리고 배 아팡 죽어.(웃음) 게난 그 건 칩간 귀신이 돼서, 그 노일제대,

〈조사자 : 막 나쁜 딜로 강 보내부러주.〉

완전 나쁜 거, 경험 이젠 그, 걸 허나 이제 큰 할망은 조앙 할망, 이 저 거시

기 하르방은 문전 하르방이라.

35) 고종달 3

제 보 자 : 김순자(여·67세)

조사일시 : 1999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김순자 할머니댁

요약 : 고종달이가 제주도의 수맥을 끊어버려서 물이 말라버렸다.

제주도 산이 다 물내려 난다. 그 고종달이런 현 영감이 다 땡기멍 술을 떠부난 물술이 완전 떠부난 정 물이 다 몰라경 산에 물 안 내려왓쨌.

〈조사자 : 예〉

36) 고종달 4

제 보 자 : 김순자(여·67세)

조사일시 : 1999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김순자 할머니댁

요약 :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못의 물을 빼려했으나 쇠질메로 감춰 두어서 물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바로 앞의 고종달 3와 이어지는 이야기임)

겐디 저 송당과 어디 저 한동 사이에 어디 저 댜 밧소리 어디에. 쉼 질메 아래 생긴 물이런 현 건 잇젠 허여. 그 건 아니 형 이제도 잇인다. 건 경 냉경 가난 옛날 쉼질메런 현 건, 쇠에 영 지왕이네 집 싯구는 거 잇서.

〈조사자 : 예〉

게난 그 거 톡 올려나 부난네(버리니까) 영 올려나 부난 건 못 좃앙 못헛첸 ㄱ르메(말한다).

〈조사자 : 아아, 거기다가 뭘 숨겨나 부런 마씨?〉

쉼 질멜 영 물 우트레 톡 싯어부난 그 걸 영 쇠 질메를 아래 싯어부난 그 물을 못 빼렌, 그 못을 안 떻젠 허여.

37) 순작과 지다리

제 보 자 : 김순자(여·67세)

조사일시 : 1999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김순자 할머니댁

요약 : 옛날에 순작(형의 종류)이 지다리(오소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꾀로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이다.

이건 아주 옛날이라. 참! 짐승이 다 말 ㄱ를 때난 아주 옛날에 저 순작이엔 현 거 잇서. 저 요만이 현 건 꿩 달믄 거라도 '고롱' 허멍 나는 거 잇서. 저 쪽에 가든 순작이엔 현 거 순작허고, '지다리'엔 현 건 이. '지다리'는 제주도에 하서(많다). 그 거 저 지다리고라 뭐엔 고라. 오소리! 오소리!

〈조사자 : 아! 예〉

응. 오소리하고 옛날은 둘이가 말을 곶아 신고라이. 흐루는 이제 순작이 오란 지다리가 톱 행 잡아먹젠 허난.

"하이고! 날 잡지말민 나가 막 먹을 거 만이 행 맥여주켄." 허난.

게민 경허렌 허영. 흐룬 이젠 이 봄에 밧 벅를 이때라. 밧 벅를 때이. 밧을 브르는 게 워네헌민 줄(조를) 막 쪼영 밧디 몰(말)로 막 불려서 몰앙 댕기는 거. 게난 그 걸 불르러 가는다. 막 점심을 행 지어냉 막 땀이(땀이) 찰찰나게 할망이 가노렌 허난. 순작이 앞이 강 요레 푹푹 안자땅. 심젠허민(잡으려고 하면) 푹푹 낭(날아서) 요만히 가민 또 심젠허민 푹푹허난.

"에이 이 놈의 밥을 부러땡이네 내 요걸 심어 가주."

겡 점심 그릇을 질레 광드레 부러땡. 그 놈의 순작을 잡젠. 요레 푹푹 허민 톱 잡으민 돈고, 톱 잡으민 돈고 허난. 천장만장 가부건 아니. 잡으러 강 보난 점심은 막 먼디 부렁 내부난 지다린 그 걸 본 걸 막 먹어서. 그 밥을 막 먹영 허난. 이젠 완전히 먹을만 허난 순작은 이젠 막 멀리 돌아나비서(달아나 버렸다). 게난 이 사람은.

"이젠 아이고 어뎡 행 조코(좋을까)?"

행 오라네. 그 점심 부린 걸 보난. 그 지다리가 문딱 먹어 불지 안아샤. 게난.

"아이고! 요 노릇이여! 밧 불르레 갈 걸 어뎡 행 조코!"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이젠 막 행 어둑우난(어두우니까), 이 놈의 순작이 또 지다리가 좃아와시난.
“오늘 막 잘 먹여지지 않았넌.”

“어, 오늘 막 잘 먹언” 허난,

“게민 내일랑 나 잡질 말민 질 잡아먹질 말민 자꾸 앞으로 잘 먹여주켄.” 현
거라.

“내일은 또 이제 막 좋은 딜로 모셔주켄.” 허난,

경허렌 행이네. 이제 흐론 이제 이시난, 그 꼭새엔 현 건 밤이 이디 날아댕기
명 꼭꼭허는 새이서. 췌이(취) 달픈 거, 그, 것이 높은 낭에 새끼 난 이시난. 지
다리가 강 낭쪽을 북북 글그민(굽으면) 신호를 허민 올라가지도 못해. 낭을 경
현디 북북 굽으면,

“거 누게라” 허민,

“저 새끼 하나 주민 얼어 먹으레 오고렌.” 허민,

“아이고 어디 시닌” 해가민

“올라가민 애미 꼬장 다 먹어 분다”

허멍 해가민, 겁난 새끼 하나 터레 주민 먹영. 아 이젠 또 뒷날은 또시 강 낭
폭을 북북 글그멍 해 가난, 새끼 현 다섯겔 난 걸, 이제 매날 오란 해 가난, 막
해가난 막 울엄시난, 순작 아주망이 가네,

“아이고 무사 울엄디?” 허난,

“하이고! 지다리 아주망 오랑 매날 낭폭 굽영 새끼 도랜 허민 주민 올라오
민 다 먹어볼켄 허멍 허난, 하나 주건 다시 오지말랜 허민 오란 현 게, 다 먹영
이젠 요거 하나 밖에 없덴.” 허난,

“아이고, 이 한새 곱은 낭 우이 절대 못 올라온덴 다시랑 오랑 낭 글거들랑,
너 까지 거 이젠 없덴 그만 허민 말주, 다시 이디 올라오지 못헌덴 올라오라
보렌 헨 막 욱허렌.”

야! 강 북북 굽으나네,

“거 누게고?” 허난,

“난 지다리 아주망, 새끼 하나 노리체렌(내려 보내라).” 허난,

“아이고! 어디 시닌 그만 먹으면 말주 다 물어가동 햐덴.” 허난,

“올라가민 애미껴정 다 먹어분다” 허난,

“아이고! 이 한 새 굴은 낭 우이 올라와 보렌.”

아, 올라오지 못 할 거 아니가? 암만해도 못 올라가난, 이젠 돌아오랑 순작 아주망신디 왕.

“아이고! 너가 머엔 굴아 비연(말해 버리니까), 이젠 오늘은 못 먹고엔.” 허난,

“계민 낼은 이제 나 조름에(뒤에) 오람시민, 나 막 존 구경 시켜주메 존 밧, 같은 밧 구경도 시켜주고 막 저 무신 구경도 시켜주켄.”

막 허난 이제 조름에 돌아가서. 가난 산 개 막 처(많이) 길르는 집일 앞일 가네, 이젠 순작이 들어 강 이레 ‘호록’ 저레 ‘호록’ 허난 이젠 아 그거 방 개 덜은 나오란 ‘왕왕’ 해가난 아이고! 지다리가 봐지난, 지다리 물젠 막 다 올리 건 막 가는 밧일로 돌는게 개가 오죽 혼나샤, 그 지다리가. 경허난 그날 저녁 은 이젠 묵은 갓단 새 갓단 밧디간 하나들 하나들 이제 지다리가 새노렌 허난 순작이 이시난 톱 심영.

“너 이년 이 날 경 개 신디 돌아간 날 경 기실했넨” 막 허나네.

“아이고! 고만 시민 나가 낼은 그, 건 나 저 무신거 허레 가당 경 했주, 내일은 막 좋은 디 구경해주켄.” 행이네.

아 이제 그때부턴 아 이제 따신 해볼 건 어시난 거짓말을 해네, 이제 오꽃더 레 놀앙 돌아나비셔, 경허난 내중엔 그 개가 그 지다릴 막 물엉 잡앙. 잡앙먹 으신지 어떻해신지 잘 모르켜. (웃음)

38) 각시 길들이기

제 보 자 : 김순자(여·67세)

조사일시 : 1999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김순자 할머니댁

요약 : 아내가 바람을 피우자 남편은 곧 아내 길들이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결국 너무 지나쳐 아내는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난다.

옛날에 이 막 이상헌 길로 먼저 굴으켜.

〈조사자 : 예〉

어느 밑에 저 굴아 부난 잇어 부러서. 저 이서짐 스방이랜 현 하르방허고, 어느 막 저 독굴룸이랜 현 하르방이 영감이 이서서(있었어) 이.

〈조사자 : 독굴롬 마씨?〉

독굴롬. 이름이 독굴롬이고, 이서집 서방이랜 현 하르방은 김씨니까는, 아마 이견을 잘 허영던가봐. 이서집이라는 별호가 신걸 보난. 계난 이제 이서집이랜 현 하르방은 할망하고 둘이만 살아. 아기가 어섯던(없던) 모냥이라. 겐디 그 독굴롬이랜 현 사람은 애기가 만하고(많이 있고). 이제 못사니까는 이 우리 부락 골오민 옛날 하인이랜 현 거. 지금은 그런 거 어서. 옛날 하인질을 허영 동네 허간일을(잡일) 봐서 이.

〈황춘자(여·74세) : 옛날에 일을 보는 사람 ㄱ라 하인이랜 하인이랜 해나서.〉

연날 계난 그 ㄱ을 일을 보는 사람이다. 하이고 이서집이랜 현 사람이 하르방 각시광 조양(좋아서) 눈 맞안 게. 맨날 그디 오민 하르방 어디 가 불민 그 것만 말 무신 거 맞존(맛있는) 거 행주고 막 해 가난. 이 하르방이 막 부에가(화가) 난.

“하이고 어떻 허영(어떻게 하면) 요 버릇을 고치코?”

현 것이. 하르방이 막 허당 봐도 암만해도 못 허난. 허이 이젠 후루는.

“내가 먼 디(곳에) 강 올 꺼매 이제 뭐 험시랜. 아침 내일 점심 헐 꺼영 다 싸노렌.” 허난.

“하이고, 경 헐(그렇게 할) 꺼팡(겁니까)?”

그 놈을 이젠 막 떡인가 뭔가 행이네 점심을 싸 줘서. 싸주난 하르방이 이젠 어디 저 만큼 가네. 먼 디 외방. 먼 디 강 올 거랜 현 삼 일 살앙 올 거랜 해팅. 이제 저 집 알래 봐려지는(보이는) 동산에 강 이. 산에 강 이렇게 집 보이는 산에 영 안잔. 그 떡 먹으면서 보니까는 아난게 아니라 그 이서, 저 뭐고 독굴롬이랜 현 영감이 이제 집데래(집으로) 들어가거든. 아 계난 이젠 들어가니까는.

“오걸 이제 내가 집이 강 뭐 잊어분 거 있덴 행 가야지.”

아 이젠 마침 독굴롬 들어오랑. 조금 이제 놀만 말만(누울동 말동) 허난 이제 영감이 들어온 거라. 오멍 “허험”허멍 들어 오난.

“하이고 무사(왜) 오라수팡(왔습니까)? 어떻 허영 오라수팡?”

“난 이디 뭐 잊어분 거 이성 그거 가지레 와서.”

아. 이젠 오란 보난 할망은 스몫 땀이 출출나게 막 독굴롬 맥이젠 막 지름(기름)허영 ㄱ실ㄱ실 지름을 막.

〈황춘자(여·74세) : 독굴롬은 군서방이라?〉

예, 지름을 막 뽕비에 낱 떼와가멍(데위가면서) 막 무신 떡을 만드랍시난, 하르방이 들어 왕 영 보난, 독굴롬은 춤 각시영 혼 번 뉘신지 어떻게신디 보난 방에 좀(잠) 잠꺼든, 하르방이 이제 막 궤는(끓으는) 지름을 이제 막,

〈황춘자(여·74세) : 독굴롬이 군서방이구나.〉

거 어떻게한 말산디 모르켜, 우리 그런거 원귀로 으른귀데레 그 놈의 든 지름을 지러부난(부어버리니까), 거 죽을 꺼 아니가 이 ?

〈황춘자(여·74세) : 독굴롬이 죽어 비어서(버렸어)? 군서방이?〉

예, 죽어 비난 이제 부엌에 강으네,

“떡은 다 허여서”

하이고, 이디 하이고 경 아니라도 하르방 오카부덴 허노렌 허멍 두루 어지르난, 그 떡을 허영 먹젠 허난

“저 방에 눈 거 누게라? 방에 눈 사람고라도(에게도) 떡 먹으렌 허여.”

“하이고! 그놈의 독굴롬인가, 그 놈의 자석 무신 거(무슨 일을) 허래 오라사, 술 잔뜩 먹엉 오란 정 누원.”

“강 일렁(깨워서) 떡 먹으렌 허여.”

강 일리난, 할망은 죽은 줄은 모르고 일리난 일어날 꺼 파게? 죽어부난, 경허난 이젠,

〈황춘자(여·74세) : 거난 본 남편네가 지름 귀에 질러부난 죽었구나.〉

응.

“저 술 취헌 사름을 귀 양착을 잡아 둥그러사 일어나는 거라.”

할망은 쥬 갈 심영(잡아서) 동기난(당기니까) 쥬 빠져볼지 안해샤.

“아이고, 이제 큰일나져 놈의 귀 빠난 어떻게할 꺼고 이제 큰일 낫져.”

각시 버릇 ㄹ르치첸 갱 허영게.

“그래 나뉘 어둡으궐 랑으네 어디래 강 치와, 강 데껴비어(던져버려라), 큰일 나셔.”

허난 어두우민 이젠 지영 강(자기와 가서) 어디 강 데껴뵙(던져 두고) 오렌, 요만히 가노렌 허민, 하르방은 절로 강 싹싹,

“어힘” 허믄.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거 누게고”

허민 할망은 막 겁남. 그냥 도로 지영 들어오꼭 허난.

“이거 온 말산디 모르켜 게” 쟁 제 들어오민,

“올타(올다). 이제 혼 놈 알고 이.”

훗술(조금) 있당 또 요만히 가노렌 허민. 하르방이 또 옴로 셋질로 강. 또 이제 잉끄적 해불민. 할망은 또 겁남 돌아올 꺼 아니가?

〈황춘자(여·74세) : 거 각시 증신 빠졌구나?〉

예, 증신빠전, 경해도 못 했수게. 경 이제 댓 번을 돌아오게 하르방 맨드라서 이. 자꾸 가노렌 허민 강 앞이 강 상이네. 막 거노려 불고 허난. 할망이 바로 죽게 되어서. 돌아 오랑 죽은 사람을 정(짚어지고) 뎅기고 허난.

“그래 놘두랜 이제랑 나가 어떻 허크매 놘두랜.” 허난.

“아이고 이젠 다 죽어지켄 못 허켄” 허난.

이젠 요거 그만허민 버릇 가르첫젠 헌 게 하르방이 막 밤중 열 두시 돼 가 난. 이 하르방이 그 사람을 이제 질머 정(짚어 지고) 나가 보난. 어디 그 무슨 대감의 집이 막 제술해내 켈 지냄서랜. 게난 그 켈 지내는 마당엘 강 영 막대 길 짚어내 세와 뒤네 집 나오명.

“에. 독굴룸 이디 왔습니다. 떡 좀 내 보시오.”

막 말을 건방지게 허벼서.

“하. 제 지내는 뭐엔 허염시넨 저 자식 저거 버르장이 어시 오랑 잡아 혼드 러 불라.” 허난.

아이고 또 하나 제관은 나오란. 그 놈을 고라 것지지도(건들지도) 안 해신디 뎅그랭이 자빠지난(넘어지니까), 죽은 사람이난 자빠질 꺼 아니가 게. 아 경 자빠지난.

“아이고. 큰일 낫수다. 난 것지지도 아니헌. 영 허난 그냥 씨러져(쓰러져) 부 립수다.”

〈황춘자(여·74세) : 그 사람헌티 씩웁꾸나!〉

응. 하이고 죽어 부엌수다. 어떻허민 좋으코

“하이고 이제 큰일났져. 하이 이제 경 허지 말앙. 요디 이서짐 스방을 강 빌 어 어떻 이견(의견)을 내보랜.”

아 계난 이서집 스방은 강 자는 척 허노랜 허난 계, 이젠 강.

“하이고 어떻 험넬까? 이디 이런 일이 서네(있어서) 집일 훗술 ㄱ라쥬사(말해줘야) 쿠텐(하겠습니다).” 허난,

이제 하르방이 오란 보난.

“아이고 영영 허네, 하도 딱만 내노랜 하도 마당에서 해네, 것지지도 안 헨디 영 쓰러진 게 죽어불엇덴.”

“게민 그레 찰리에(그릇에) 떡을 혼 찰리 싸고 행이네 주민, 나가 어떻게 보켄.” 떡 혼 찰리 담아 들르곡 이제 그 사람을 지영 강, 독굴룸에 집이 강, 창문뚱에 강 각시신디 영 영 허멍(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 문 여라, 이 문 여라”

“하이고 이 놈의 자숙”

경 죽엉 맨날 허당 보난, 오죽 여러 날 걸려샤 게, 계난.

“하이고 이 놈의 자숙야, 아기덜 생각도 안 허고 어디강 영 오래 살다 오람 시니, 그디강 살랜.” 허멍 문을 안 여라쥬 비어서, 허난.

“난 게민 이디 야기(목) 돌아정(매어서) 죽어 분다(버린다) 이, 죽어 분다 이.”

“하이고, 죽고 살고 모르켄.”

이젠 막 웨당(소리를 지르다가) 보난, 동그랭이 돌아 매두고 떡 자를 그덜 나뒹, 하르방은 돌아나 불지 안해샤, 가부난 하이고 뒷날 아침인(아침에) 각시가 문을 창문을 영 여난 ‘통그랑’ 허난 보난, 서방이 지랭이 돌아쥬거든.

“아이고 문 여라주렌 험 때 여라 쥬 불겉, 문 안 여라주켄 허난 죽어불켄 험 게, 아이고 요거보라, 야기(목) 돌아정 죽어 비어세.”

〈황춘자(여·74세) : 계난 쥬 다 벗어 부러신게.〉

예, 아이고 어떻허민 조코, 그 땐 동네방네 땡기멍 막 죽어부러덴 오죽했수광?

“아이고 요거 보라 우리 아기덜 먹으랜 떡 받아다놓고 죽어세.”

허멍 허난, 이제 아무 날은 독굴룸 영장을 험젠, 허난 하르방이 또 각시 받젠.

“저 독굴룸 죽는디 묻는단 아니강 보젠”

“게매 무시겉 허코, 상월(?) 허카 낭월(?) 허카?”

“무사 상월허여 이왕 곶은 값이른 낭월허주.”

해넨 떡을 험, 이젠 막 차반지에 담앙 정 가젠 해 가난.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저 올래(길)에서 누게 불렀서.”

허난 이제 그래 가불지 안해샤, 할망. 그래 가분 후엔 하르방이 그 떡을 ‘확’ 비와 텅. 그래 쇠똥 담당 더깁(덮어) 나뉘. 이젠 술 한 되 흰 거 아서 불어뵤(빠 버리고), 오줌 질언. 그래 다 비러서 그디 놔 부난, 이제 들어오란,

“아이고, 강 보난 아무도 어십디다. 누젼디가(누구였습니까)?”

“너미 늦영 가부난, 가 비었져.”

경 현 것이. 이젠 아이고 이젠 그 걸 지어산 하데하데 영장 밧뵤(葬地에) 가지 안해샤. 가난 하르방 떡 비왕(덜어내고) 아상(갖고) 높은 디 강 아장 떡 먹 으명. 영장 밧뵤 베러서 이(살펴왔다). 베리난 이제 쥬 지내젠 허난, 아 경 가 쥬 해. 가난,

“거기 가는 사람은 거기 등땡이에, 붉은 험벅이나 패때 붙영 가사 되는 거라.”

경 곤는 거라. 등땡이엘 붉은 험벅 펄 붙영 갔젠. 할망이 그 떡 게난 그 걸 아사다 놔땡 쥬 지내난, 제주(祭酒)영, 영 앓따 놓지 안해샤. 아 제 지내 보나 네, 쇠똥에 석은 오줌 담으난, 냄새 뽕뽕 난 거 앓따 놔시난,

“이거 누게 앓따 놔시넨” 허난,

“아이고 저 할망 앓따 놔젠.”

허건 그디서 막 할망을 막 모듬치기(집단 구타) 행 막 반 팬.

〈황춘자(여·74세) : 붉은 패를 붙여부난 성 난 거 아니라게?〉

응. 반 팬 저승을 보내여가 허난,

“이젠 죽어 불고 저만허믄, 요 년 버릇 ㄹ르쳐져.”

집에 강 고만히 시난.이제 막 옷이영 즐개즐개 허영 오라시난,

“잘 구경해서?”

“하이고 경허주 만든 재물은 아시다 놔두난 어떤 거 아사가비뵤 석은 오줌 에 저 쇠똥 담아다는 거 바파 가난 나 마악 구채보나 오늘 흙마 죽을 거 살앙 와랜.” 저난에 게민 이젠,

〈황춘자(여·74세) : 군서방을.〉

“어디 가나서 고만히 그 조끄티 아쥬주.”

“고만히 아지신디고 경해 가비언.”

게난 아 이젠 요거 요만허민 버릇고쥬. 아이 살다보민 이 할망이 물질레 가

민 생전 들어오질 안 허여이.

〈황춘자(여·74세) : 또 군서방 했구나.〉

“아니 요거 이상허다. 어떻허난 요거 아니 오람신고?”

하 이젠 그 독굴롬 묻은 디 영감 먼딜로 보민 그당 강 아장.

“하이고 독굴롬야! 독굴롬야! 날 돌앙가라(데려가라)! 날 돌앙가라!”

강 보민 울엄서. 경 행 허당 한참해농 물질렁 집에 오고 해 가난.

“하 요거 영 해도 버릇을 못 고치난 어떻 행 조코.”

독굴롬 앞이 그. 그 사람광 안즌 강 막 하르방이 막 함정을 파네. 이제 우이 영 더경 봐뒤서. 야 흐른 가난 느시 오지 안허영 가난. 아 이젠 거 우리 처음에 대게 웃어나서. 말들엉.

〈조사자 : 재미난 거 마씨?〉

게난 이젠 흐른 간 아니오라 가난. 물질레 강 아니오라 가난. 이제 조름에 영 강 봐서. 강보난 그 함정에 강 빠전. 할망이 나오지 못허영 시난.

“넌 뭇허레 이디 오라시” 허난.

“하이고, 올로 넘영가당 난 요디 영 파진 줄 몰르난 헛젠.” 허난 이젠.

“베 주크메 심영 올라오렌 손등이 묵으렌.”

허영 올라오민 반은 텅경(당겨서) 가당 하르방이 ‘하이쿠! 하이쿠!’ 허명 내 불민. ‘탁’ 털어지민. 또 죽어가젠. 야 여남은 번을 경허난 할망이.

〈황춘자(여·74세) : 벌을 쳤주게 하르방이.〉

할망이 다 죽어가 이. 막 죽진 안 허난 건정 오란 살다네. 할망이 그 병으로 그러저럭 허당 죽었젠 해라게. 게난 글로 부턴 잘 모르켜. 이거 끝.(웃음)

39) 양어머니 이야기

제 보 자 : 김순자(여·67세)

조사일시 : 1999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김순자 할머니댁

요약 : 아내가 죽자 남편은 곧 새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 아내의 흥계를 속아 딸을 쫓아내게 된다. 딸은 모진 시련을 갖게 되지만 결국 행복하게 산다.

하이고 야, 어느 연날에 이제 딸 허난 난 아방이 각신 죽어 비서. 죽어 부난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이제 혼자 살질 못 허난 그 딸난, 각신 얻어다 살아서 이, 사노렌 허니까는, 아이 아이가 그럭저럭 헛 게 열댓이 넘은 아가씨가 돼 가는 거 아니? 경 돼 가난 이제 아방은 난댓일 댕겨 부난 몰라신디, 이제 그 다슴어멍이, 옛날에 부엌에 초가집 부엌에 살레엔(찬장) 헛 것이 영 요만한 거, 찬장 이제는 찬장이렌 해도 옛날에 살레,

〈황춘자(여·74세) : 표선 문화재에 강 보민 다 싯주께〉

큰 살레 아래 밑에로, 이 밑에 이 쥐가 만이 다녀서, 쥐가 만이 다니니까는, 그 살레 밑으로 쥐가 맨찍 나오니까는, 그 어멍이 아침밥을 허다가, 이젠 그 살레 밑으로 쥐가 나오는 쟁이여 쏘 낱으네 영(이렇게) 영 어멍, 옛날은 것도 어디 이 짝인 생이라. 옛날은 피밥을 허젠 허민 영 쏘 낱으네, 영 물박으로 저성 거리멍 물 뜯습니다게, 게난 그거라. 들영 보난 그추룩 허난 그 께는 물을 중이 나온디레 줄타 대끼나네(던지니까), 중이가 할 딱 가족 벗어지난 똑 애기(?) 거 달마서이, 경허난 그 걸 싸단 뜯 눈디 강(누운 데 가서), 이불 속에 가네, 이제 곱정(숨겨서) 놔뒀. 청 다슴, 뜯 다슴 뜯 게 다슴 어멍 경 헛거라. 게난 그 걸 이젠 애기 낙태헛젠 강 이불 속에 강 곱짜분 거라. 경허난 이젠 서방신디 오랑.

“하이고 저 방 강 보렌, 저년 어디강 해네, 저 애기 낙태 헛 거 강 보렌” 허난, 서방신디 아당 해부난 아방은(?) 아방은 이제 그 것 요거 보렌 허멍 학(확) 빼완 앓판(빼앗아 가져와서) 배완팅 대껴 부난, 거 즈세 보른 해도 두루 돈 맨게 똑 애기 난 거 달마. 경 행 허난 께는 물 치대기난 가족이 할딱 벗어져분 거라. 그 아방이 이젠,

“너 이새끼, 너 막 풀 모가질 그차 불겐.” 허난,

“아이고 아버지 그침 아니 날 죽여도 조우덴, 난 어디 혈말이 어신걸 어멍 헛니겐.”

해도 이 아방은(?) 아방이난 막 이 지방에 놔네, 나대로 그치겐 해서 풀을 그치겐, 왼쪽이런 헛게, 왼쪽 풀을 그치겐 허난 그 창 게민 이제 어디레 대경, 무신 가마귀 달른 게 오랑 물어가거든.

“나 안 현줄 압씨.” 허난,

걸 찍영 그치난, 진짜로 대끼난, 그것이 오란 ‘확’ 차가비여, 차가부난 아방은,

“아! 이상하다.”

헌디, 아 이젠 그 피로 그냥 막 헌디, 그 죽은 어명도 머엔 걸 호솔 머해 주지도 안허고 좀 무쳤단. 영 나강게 집동네 일,

“날 살려줍센.” 허난,

어명 어명 해신디 허난 가그네,

“나 영 해부난, 우리 아버지가 저 어명이 머엔 해부난 영 헛젠.”

헛게 그 발로 집아 안 들어오랑 그냥 어딜 나간거라. 경 행 이제 가당가당 우둑어네 열고, 어디 큰 무신 집이 마당에 콩(?) 이시난 콩(?) 에 아 자네 들어가진 못허영. 겐 아자네, 이제 동네집이서 가 영 싸주난, 아산 들영 가단가단 이제 뭐허난 아자네, 이젠 먹고프니까는 콩을 까명, 툇 툇 까명 걸 먹엇젠. 걸 먹엇시난 그 주인 하르방이 깨난, 어명허영 피석피석 소리가 남젠 해난 보난 영 사름 닳은게 시난,

“야! 구신(鬼神)이나? 생인(生人)이나?” 이제 막 호통을 허난,

“아이고! 구신이 무사 여기 이십니겐, 이젠 생인이우덴.” 허난,

“어떻헌 일로 영 와센.”

보난 풀 혼 짝 손이 업거든. 아이고, 불쌍도 허고 어떻게 된 것곤 그 사실 말을 골아서, 고르난 하도 얼굴이 고와부난(예쁘니까) 그 하르방이,

“아들이 서울 어디 무신 과거보레 갖젠.”

경허난 이젠 하도 고난, 손 혼착 어서도 며느리 허젠 막 다 받아들여서 이. 들연 어떻게어떻헌 일고 허난 영 영 헛젠 허난, 데령 살단, 이젠 아들을 오랜 허명, 이제 그 아덜 광 결혼식을 허영허게 되어서. 허난 이제,

“아이고 아버지 암만허주만은 고와도 팔 혼 짝이 손 혼 짝이 어신걸 어떻게 험니겐.” 허난, “손 혼 짝 어서도 나가 마음에 드난 이제 절대 나 말만 들으덴.”

헛 결혼을 시켜서이. 시키난 이제 서울어디 무신 과거방, 아들은 무신 그 때 큰 거 헛젠 해라게. 그 거 헌디 나 제대로 못 굴암제. 허난 옛날은 차도 엇고 비행기도 어스니까는, 이젠 요걸 가정으네, 그 머슴이 그 걸 가정 가고 펜질(편지틀) 가정(가져) 오고 해 낮젠. 게난 가정 가당 가당 머나네 그 머슴이 어디 집이 들어강, 뭐 얻어먹어 가젠 들어간 거. 그 강이네 친정집일 들어간거라게. 친정집일 들어 가난,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어디 가는 누젠디?” 허나네.

하이교 요만 저만 현 사름 이제 애길 나나네.

“이제 저 서울어디 아방신디 펜질 아상(가지고) 가노렌.” 허난.

“어떻어떻헌 사름고?” 허난.

“손도 혼짜 엇고 현 사름이렌.”

그러가난, 이젠 확 알아 분 거 아니? 경허난 이젠 막 독도 잡아놓고 이 놈을 북딱 맥연. 막 쟁 좀 제완 해와 텡 펜질 안네(안에) 깡 보난. 아이고 애기가 그렇게 잘난 막 앞 멩에 뒷 이멍에 돌넘이여. 막 양 독지에 금새별에 오신도신 현 아들을 낳젠. 막 지꺼진 펜질 써네(써서). 보내시난 그 걸 이젠 찢은 대껴비러 된.(던져버려 두고) 이제 이상헌 애길 나시매, 이걸 내쫓차 부느냐 어떻허느니, 이제 펜질 썬 담아내서. 아이고 이젠 그 걸 아산, 뒷날은 가난, 그 서방은 보난 펜지가 경 해시난.

“아이고! 나가 가시민 이제 방 어떻 헐 켜디, 불쌍헌 사름을 어떻허코?” 해도.

“아! 이젠 게도 보내지랑 말앙 이십썬. 나 갈 동안이랑 잘 행 살암십썬.”

펜질 썬 주난 아! 오단 또 잘 먹어나난, 또 그 집일 들지 안해샤. 또 드난 또 잘 맥연 재와된 펜질 깡 보난.

“아이고 경헌 병신 애길 나고 대고, 나 가도록 이랑 고만히 돌앙 살암십썬.”

허영 담아서난, 아 또 걸 찢어텡.

“아 이젠 영 현 애길 나시매 내쫓까불렌(내쫓아 버리라고).”

행 썬 보내지 안해샤. 경허난 펜질 보난 경해시난, 이 아방네가 이 아들을 막 죽이고 파서, 어떻해시민 조콘 막 허난, 또 헐수 어시 서방 명령이난 헐수 엇땐. 그 이제 먹을 거 잘 허영 싸주고, 그 애기 돌앙 막 먼 땐 생이라(모양이라). 막 눈 팡팡 을 땐 고라. 이젠 점심 떡 헐 싸주고 허난, 이젠 그 애기 업고 해 아산 나가는, 게 계난 차도 어시난 걸어 땡겼지. 감감 어둑도록(어두워 지도록) 간 보난, 어디 담 어염(옆)에 영 의지행 아장(앉아서) 호끔 애기 젓도 맥이고, 지도 좀 입 노령 가젠 영 아자시난, 아 ‘속’ 허게 좀이 들어서, 좀이 드난 꿈에.

“아 이 요디 조금 가당 흐르는 청수가 이시난, 그 물을 가 먹어보민 알아 볼도리가 잇덴.” 허난.

배딱 깨난 보난 꿈이라.

“하이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허연 아 이젠 가단, 촘 물이 셔(있어). 물이 시난 이젠 물 먹고젠도 허고 허난, 그 물강 영 업더전(엎드려서) 먹단보난, 물그메에 뭐 가마귀가 닭은게 어뜩 허게 넘어가. 경허난

“하이고! 야 저 무신 거 뭐시 놀암신고?”

물 먹영 영 일어산 보난, 손이 고자져 비여서.

“하이고 야! 어떻 허영 나 손이 이신고?”

이 걸 막 쓸었다가 암만 봐도 손이 고자서. 아 경허난.

“아이고! 이젠 나 어디가도 정말 손이 이시난 살아지켄.”

그 땐 막 지꺼전(기뻐서). 어디 이젠 가단 보난, 어디 이젠 쪼그만한 마을이 그 마을에 들어강.

“아이고 영 넘어가는 사람, 하루 저녁 딱쳐줍센.” 허난.

“하이고 어떻게 얘기 어떻게 이 어둡운디 땡겘시니?”

그 집이 하루저녁 자게 된다. 이디 그 막슬(마을)에서 어디 빌영 살게 돼서. 방 빌영 살게 되난. 몇 년을 살단 보난 얘기가 옥아네(커서) 이, 얘기가 하매도 혼 땡술 된 생이라 이. 경허난 이제 서방은 오란 보난 각신 내쫓아 비겨시난.

“하이고! 무사 경해시니?” 허난.

아방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너 이 놈의 새끼! 뭐 때문에 얘기 내쫓으랜 해시?”

“아이고! 나 경 안 허엿수다. 나 영영 행 썩 보내신디 무사 경 해수과?”

아이고 경허난 이젠.

“아이고 이거 어디서 모락했구나!”

이젠 그놈을 심영(잡아서) 답도리허난(닥달을 하니까).

“난 어디오단 막 잘 맥인 디 셔네(있으니까) 그디서 얻어 먹영 땡기고랜.”
게난.

“아 아 요거 틀림어시 그디구나.” 해네.

이 놈이 이젠 옛장실 출런, 옛판을 정, 옛날 학꾸에 게 옛날 정 땡겨나세. 게난 이젠 그 걸 허영. 옛 풀레 나산거라 이. 이 막슬(마을) 저 막슬(마을) 막.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옛사소. 옛사소.” 허명.

〈황춘자(여·74세) : 2회 두드리명.〉

댕기단 보난 여자가 딱 물지영 댕기단 보난, 남자가 보나네, 딱 자기 신랑이
라게도. 영 확 모른척 행이네. 이제 영 행 가. 가난, 남자도 어쭙 보난 안 모냥
이라. 겐디 손은 고자신디 아니, 아니다만은.

“하! 어딘가 모르게 기담덴.”

야! 이제 경허영. 그 사람 조름을 초잔 강 그 집일 가네, 이제

“옛을 사련.” 허나네.

“하이고, 안 사켄.” 해나된.

이제 옛을 사고 폴곡해 가난 게, 얼굴 츠세 배리난 알 꺼 아니가 게. 경허난
게 옛은 사명 줍쓸을 쥘 옛을 사서 이. 줍쓸을 쥘 옛을 사켄 허난, 영 행 찰릴
받으난, 그 각시가 줍쓸은 이레 반은 비와된, 반은 알드레 비와 부러서 이. 알
드레 비와 부난.

“그저 어둑운데 다 담양 감써.” 허영.

비와 부난 이젠 영 담으명도, 그 사람이 다 담양가랜 허난 것이 생각이 이상
혈 꺼 아이가 게?

“틀림어시 요사름이 기구나만은, 손이 고진거 아난디 이상허덴.”

게 이제 그 줍쓸을 담단, 담단 어둑우난,

“아이고 이젠 어둑언가도 오도 못허고 어떻허고, 요 존목에라도 자당.”

옛날 존목이랜 헛 거 잇쨌. 알로 불 때는디 존목,

“존목에라도 장 가랜.” 허영.

그 존목에 이젠 머지난. 밤중은 돼 가난, 어명이 암만해도 속이 아픈 모양이
지. 그 땐 애기신데레,

“야, 저 존목에 이신 사람이 느네 야, 아빠메 아빠허렌.” 허난 애기가.

“아이고! 아빠.”

행 강 불르난, 그게 좃아네. 춤 울멍불멍 행 오란. 막 잘 살안. 춤 죽어댄 현다.

40) 일곱 마리 뱀

제 보 자 : 김복희(여·61세)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근처 나무 아래

요약 : 어떤 사람이 상자를 주워와서 깨 보니 그곳에는 뱀 새끼가 일곱 마리 들어 있었다. 그 뱀들이 후에 귀신이 되어 문전, 조황, 요왕대신, 한집, 터신, 칠성과 같은 직함을 얻었다고 한다.

〈조사자 : 뱀 일곱 마리 내용은 어떻 햄수까?〉

그거는 옛날에 김녕(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에서 나온 거 주계. 니꾸사꾸에, 조그만한 하꾸에(상자) 올라시난. 어떤 사람이 돈인가 무신가 들어서난 봉가와서(주워왔어). 봉가왕. 깐 보난 뱀 새끼가 일곱 개 들언. 옛날에.

〈조사자 : 어디 물 위에서?〉

물에서 터온(떠내려온) 거주계. 계난 그 역사가 옛날에 그것이 귀신이 된 거라. 그 일곱 성제가(형제) 다 직함을 다 맺는 거라. 벌엉 먹으랜.

“널랑은 문전으로 가라 혼 사람일랑 조황으로 가라.”

그거 험 거주계. 곧사 아이도 다 경 험 거라.

혼 사람은 요왕 대신으로 가라.” 바당에 이.

〈조사자 : 예.〉

고기 먹는다. 뭇고.

“한집으로 가라.”

몇 개고?

〈조사자 : 4개 마심. 문전, 조황, 요왕, 한집.〉

문전, 터신, 조황, 한집, 칠성, 요왕대신 여섯 개. 하나는 무신 거로 가랜 해신고? 일곱 개나네 칠성도 족아서(적어서).

〈조사자 : 변소간은?〉

그것은 즈근 각시(작은 부인 : 둘째부인). 경 행 다 직함을 맡아서 벌엉 먹으랜 행. 다 귀신이 되었다 허는 거라계. 그계 귀신이 되는 거. 그계 곧는(말하는) 거주계. 그런 얘기라.

〈조사자 : 그런 얘기가 있구나예?〉

41) 지들팡

제 보 자 : 김복희 (여·61세)

終遠里 學術調查報告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근처 나무 아래

요약 : 아들 다섯 형제를 죽이기 위해 둘째 부인은 장님인 남편을 속여 아들들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낫겠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칼을 가는 걸 본 형제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형을 죽여 형의 간을 갖고 오겠다고 하였다. 형제들은 산에 가서 산토끼의 간을 가져와 형의 간이라며 어머니께 드렸다. 어머니는 먹지도 않고 둘째 아들 간을 갖고 오라고 하였다. 네 개의 토끼간을 가져간 후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막내 아들의 간을 먹었다고 하자. 이 아들은 어머니가 그것을 먹지 않고 숨겨두는 걸 알고 들어가서 그 어머니를 발길로 걸어 찼다. 그 어머니가 땅에 떨어지면서 큰돌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들팡이라고 한다.

〈조사자 : 지들팡 얘기할 때 처음 어떻게 시작돼 마썸?〉

처음에 얘기? 그거는 죽은 각시를 들엿젠 허지 안해사.

〈조사자 : 예.〉

아들이 다섯 성젠디(형제), 다 이젠 죽여 먹젠 말이여, 서방을 꼬신거라. 다 죽이젠 작정을 해연. 하르방은 눈 봉사라. 계난 칼을 송당송당 굴아 가난(갈아가니까), 아들 다섯이는 무시 거랜(무슨 이유로) 칼을 굴양시넨.

“저 니네 어멍 아팡이네(아파네), 큰 성(형) 애(간)넨 먹임은 좋겐 행 햄찌” 영 허난.

“그 칼 이리 줍써, 내가 성을 죽여 오쿠다.”

행 다섯 성제가 산에 올라강.

“산토끼야. 산토끼야.”

우리 성 죽이젠 산토끼 나오랜 하도 울어가난, 산토끼 하나 나완. 걸 거기서 잡안 죽연. 쟁반에 낀.

“성 애 내 와수다”

허는거라. 주난 다 나가불랜. 초석 아래 묻어 부는 거라. 그넨 먹도 안현(안했다). 경 행 셋아들 해오랜 행. 다시 산토끼 네 마리 다 해당 죽여오난, 그 중에서 제일 죽은 아들이 요망진거라(슬기롭다).

〈조사자 : 예.〉

요망지난 죽은 아들 먹행 허난, 그땐 들어간 초석을 걸어 보난, 초석 아래 문

언. 그땐 그 어명을 발질로 걸어 차는게, 거기서 땅광 걸어진 거라. 게난 그게 지들팡이 뒷젠. 자꾸 전설에 내려와 지들팡. 큰 큰헌 돌로 죽은 각시 지들팡이 랜 허는 거라.

42) 산신령

제 보 자 : 김복희 (여 · 61세)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근처 나무 아래

요약 : 술을 먹고 눈이 멀어 버린 남자와 함께 사는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가 잠을 자는데 꿈에 큰 바다 한 가운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장님인 남편과 돌이 있었다고 한다. 이 여자가 무서워하자 산신령이 나타나 말을 잘 들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듣지 않으면 거지가 된다고 하였다고 한다. 꿈에서 깬 후에 이 여자는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조사자 : 아까 산신령 얘기도 해주시던데.〉

누구? 산신령. 산에 손에 삼촌이 삼촌이주게. 삼촌이난. 하르방이 눈이 어둑은 하르방이 인물은 막 좋아. 혼 서른 다섯에, 그때 친구들이영 부산강, 아루꾸 루술 독헌겨 30도에 헌 술. 아루꾸리.

〈조사자 : 아루꾸리?〉

아루꾸리 헌 술. 옛날 거. 나온거. 먹으면 눈이 다 어두워 부런(버렸다). 옛날 서른 다섯 한창 때. 게난 인물도 좋고, 그렇게 노래가 좋아. 우리 시아방의 스촌(四寸)이주게. 게난 곳사 산식의 딸은 본신랑의 오누게. 그 사람. 아들 하나 나동 배 타러 가난. 죽어 부난 눈 어두워. 온 노래 잘 허난. 노래에 발일 얻어서 게. 우리 삼촌은 곳사 산식은 선생이 말이며. 선생의 얻영 아들 두 개. 딸 두 개. 네 오누이를 나세(낳았다). 그때 이때 젓 떼고 허고 이, 여자가 벌영 눈 봉사헌 하르방도 먹어야 될꺼 아니까? 게난 물질도 해였당 살젠 허난. 게난 하늘에서 복을 준 거라. 눈 어두운 서방에 아들 네 개 나남 어떻헐꺼니게. 이 어른은 노래 탐나고 인물도 좋으난 얻었는디 말이며. 이 여자도 혼 스물 몇에 얻었주. 이 하르방을 얻어 논안 벌어 먹으랜. 어느날 꿈을 누윙 즘을 자는디. 꿈에 큰 바당 한 가운데 신이 잇서랜. 산에 그 하르방하고 이 어른하고 돌이만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잇더랜 허는 거라. 이 여자는 무서울 꺼 아니라. 오도 가도 못하고. 깨난,

“어떻헌 일이우께?” 허난,

“너가 나 말을 들으민 부자가 되어서 살 수가 있다. 나 말을 듣지 않으면 상거지가 된다.”는 거라. 상거지가 된댄. 거지가 될꺼주 어떻행 사느니, 눈 어두운 서방이 끼난.

“말을 들으쿠덴.” 허난이(하니깐),

한강 바당에 오름이 있다네.

“씩 한강 바당에 드리나주랜. 드리나주난 글로 내려왔다.”

허는 거라. 딱 깨난 보난 꿈이라. 혼 댓새 되나네. 어떤 동네 사람이 얘기 아프덴. 깨난 이 여자가.

“돌앙 와 보랜” 행게 돌앙 완(데리고 왔다).

“어 녀들라, 어 녀들라”허난.

딱 좋아 부린. 경(그렇게) 해가난 소문날 꺼 아니가. 깨난 얘기. 아픈 애긴 다 돌앙오는 거라. 다 돌아왕. 다 좋아. 허난 외방수여. 어른도 아파그네 오민. 그 사람 손만 문지거도 좋아 불고, 재만 가도 좋아 불고, 깨난 돈 많이 벌엉 거시기 산시기 출렸주게. 출린디. 요 바당 앵이(근처에) 큰 절이 있어. 그디 그디 출린 거라. 바다 앵이 통과허민 산신령으로 물이 ‘탕탕탕탕’ 쫘물 나올건디. 막 고은 좋은 물만 나와. 깨난 그 물만 산에 올리민 삼십 년 햏주게. 이제 살아시른 칠십 서이라. 깨난 육십 몇에 돌아갓나. 삼십에 나고란 햏라. 우리 아장(앉아서) 골으민(이야기하면), 경허당 어느 날에 얘기도 다 풀고(시집, 장가 보내고), 남편도 죽어 불고 이 혼자 될꺼 아니가? 큰 큰헌 집이 혼자 무서웁고 허난, 그 이디 곳사 강 보난 어서랜 헌디. 산 와서 수돗물 올려야 될 꺼라. 깨난 죄 받았눈 어두워 비언(버렸다). 혼 삼년 살당 죽어 비엿주게. 죽어 부난 아들인가 헌 건 오꼳 폴아 먹엇젠. 것사 안 골아냐(말하더냐). 그 말이주게 산신령.

〈조사자 : 다른 얘기도 좀 골아줍서 게〉

골 꺼(말할 것) 엇다.

43) 못된 첩

제 보 자 : 김복희(여·61세)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근처 나무 아래

요약 :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전처의 자식들을 남편이 직장에 가고 나면, 똥구멍으로 바람을 불어 배를 불게 하였다.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이들의 배를 보고 아이들의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분 걸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에 아이들이 병이 나서, 이 첩이 행한 일들을 안 남편은 첩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조사자 : 첩으로 들어와신디 전처 아기들 구박한 얘기는 어수파?〉

게 그런 얘기들 잊주게. 다숨 어멍 간에 얻은 똥꼬망(똥구멍)으로 브룸(바람)들엉, 배 빵빵하게. 남편 직장 가불민, 애들 두 명 이신 딘디, 굽으랜 해영, 혼 세 살난 것들, 혼 네 살 난 것들 뭐 아느냐? 것들 굴머 죽이젠. 똥고망으로 막 브룸 불어 배 빵빵허랜. 게른 서방은 오면 밥 막 하영(많이) 먹인 건 줄 알아. 다숨 얘기들 다 경한다. 경헨 왕 보민 배 빵빵헨, 잘 먹인 건 줄 알아보른, 얘기가 병낭. 경해넨 갈라 부러시네. 갈란. 옛날 무사 심청이 애(肝) 낭(내어서) 먹이면, 저 죽은 어멍 조켄 해기네, 아들들 다 애난 먹엇젠 안해샤. 그거 옛날에 이제나 저제나 죽은 각시들은 못 뉘먹연 안되어.

44) 귀 달린 뱀

제 보 자 : 김복희 (여·61세)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근처 나무 아래

요약 : 지미봉 뒤에 굴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귀 달린 뱀이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뱀을 잡으러 갔는데, 뱀이 나와 불을 뿜어내는 바람에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한다.

〈조사자 : 지미봉(地尾峯) 올라가 나수파?〉

소금살이 하러 그곳에 가 나서.

〈조사자 : 혹시 처녀귀신 나온다는 얘기 어수파?〉

귀신은 어서. 뒤에 큰 산 배음이(뱀) 이서 나서.

〈조사자 : 그 얘기 좀 해 줘써.〉

뒤에 배음. 뒤에는 언덕이라. 막 큰돌만 이서.

〈조사자 : 저 산 넘어마썸?〉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앞에는 몬(모두) 흑인디 뒤에는 큰돌이라. 언덕, 그 큰 돌에 배음이, 길으던 배음이 이서서. 혼 삼십 년 웹서. 뱀 잡으러 온 놈이 돈 사젠, 그 뱀을 잡젠, 두 번을 갖서.

〈조사자 : 땅꾼이 마썸? 뱀이 커 마썸?〉

그 뱀 잡는 놈 말이여. 그덜 뱀 이섯당에 혼 번 강 봐 온 생이라. 혼 번 '광' 나와. 봄만 해영 구농(구멍)드레 들어가랜 행서. 사흘 채 간 딱 잡으레 가난. 그 뱀이 닥 나완 불을 팍 뿜어 부난. 그 놈이 그 자세로 죽어 비언. 그 자, 죽어 비어세. 아흔 댓난 사람. 우리 봐시네.

〈조사자 : 봐수광?〉

귀 돌은 뱀. 그 사람 곱아라.

〈조사자 : 지금도 있수까?〉

지금도 있주게. 산신령인다.

〈조사자 : 뱀이 완전 커 마썸?〉

게 귀도 달렸주. 산신령인다. 우리 아씨(동생) 한 10년 다 되실 꺼라. 부산 들래다대 아느냐 동내다대. 동내다대 하느네. 우리 육지 한 5년 땡겼는다. 이런 산이 있어. 그런 산을 밀어그네. 아파트를 짓게 땡어. 콘크리 허는 사람 빌언. 이 산을 며칠 동안 이 산을 다 밀라헸어. 딱 와 보난. 그 밤의 큰 배음. 산신령이 대장한테 가그네. 꿈에 선몽을.

“한 일주일만 연기해 주랜. 연기 해주민 우리가 어디 살디를 마련허켄.”

선몽허지 안해사. 경헨 그 놈이 일주일을 보류행 나뒤야 헐 꺼 아니냐게. 그 놈이 살아나켄 허믄. 그 놈이 뵈도 모르고 서른 댓된 놈이난 게, 절믄 놈이고 허난.

“그거 필요어파.”

헿 거 아니가 게. 경허난 그 말을 해도 그냥 밀어분 거 아니냐. 밀어가난. 뱀이 죽어사신지 어뎡헸신지, 그 놈이 열흘 만에 그냥 죽어비언, 깜짝이. 그 대장이. 우리 아씨가 경 곱안. 우리 아씨가 동내다대 살암썸. 그 산 말어동 전부 다 아파트 막 지어세.

〈 조사자 : 여기 뱀 얘기 더해 줘서?〉

(조사자의 질문에 뱀을 이틀 동안 해도 못 잡고 사흘만에 죽은 얘기와 뱀이

무엇을 먹고사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다. 현재 그 뱀을 모셔서 체를 지내지도 않는다고 하셨다. 뱀은 육지 사람들이 잡으러 왔고, 현재 그곳은 소나무가 울창하며, 예전에 불이 났었지만 산신령은 지미봉 뒤에 살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하셨다.)

45) 종달리에 용천수가 많은 이유

제 보 자 : 김복희 (여·61세)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근처 나무 아래

요약 : 어느 남자가 물줄기를 끊으러 왔는데 종달리만 끊지 못하였다. 그래서 종달리에는 다른 지역보다 물이 많다고 한다.

〈조사자 : 이 마을은 당도 있고 절도 있는데예?〉

이 마을은 절이 절 하느네, 여러 가지가 많은디 마을 중에서 물이 절 하, 옛날 하르방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느 남자가 물줄기를 다 떠레 왓젠, 우이로 조근조근조근(차례차례) 물줄기를 떠 뜨러 오는데, 종달리에 딱 오난 어떤 사람이 나타난, 죽이켄다 해신디 물(馬아) 아래로 곱아부난(숨어버려서), 이디 물줄기 종달리만 안 떼젠햐세. 물줄기 안 파브난 요만이만 파도 '꽈꽈' 저만이만 파도 '꽈꽈' 물이 절 하(많다).

〈조사자 : 어디로 어떻 막아부난 마췌?〉

물줄기를 떼어 오단에 종달리 오난, 어떤 사람이 낙하산 뿔들사 모사신디, 그 물줄기 뜨는 놈이 밭가는 사람 곁이 곱아 부니까(숨어 버리니까) 못 떼젠햐세. 옛날 할망 곱아라. 종달리만 물줄기를 못 떠세. 경해심은 물 죽을 꺾디(적을 것인데), 물줄기 못 떠부난, 막 종달리가 물이 절 하(많아).

46) 산세에 따라 인물이 난다

제 보 자 : 김복희 (여·61세)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종달리 리민회관 근처 나무 아래

요약 : 오조리산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 우는 형제라서 그곳에는 과부가 많고, 종달리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에 있는 오름은 산세가 좋아서 병신 된 사람이 없다.

〈조사자 : 종달리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무슨 모양 달맛다는(닭았다는) 얘기어서 마썸?〉

종달리? 저기 오지, 오조리산이 머리 풀어서 우는 형체, 머리 풀엉 우는 형체. 앓은 형체가. 경허난 두루 홀어멍이 만텐(만다고) 허드라고. 남편들이 다 죽어 불언. 산천이 경허넨. 어떤 하르방이 탁 강 둘러 보난 이 지경은 홀어멍이 많이 들켄헬세. 종달리는 그 하르방이 산 운으로 종달리 리민들이 살고, 종달리 사람들이 주로 곱주게. 병신난 사람이 없어. 서알로 저리는 병신난 사람이 하. 왜냐면 이, 종달리가 이 앞이 오름이 고완 이, 안자 부난 종달 사람들은 병신이 잘 안난덴. 역사가 다 내려와. 경헌디 하도로 저리는 병신이 만이 나. 우리 또래 하르방이 경 곱아라. 이 밋을 예는 병신이 안나왔다. 우리도 들었주. 박사나 게.

47) 모기와 소파리의 혼(魂) 이야기

제 보 자 : 김순자(여·67세)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김순자 할머니댁

요약 : 이것은 본풀이로서 옛날 কে양선이라는 여인이 욕심을 크게 내다가 변을 당해 모기, 소파리가 되었다는 얘기이다. 하늘왕 버물왕의 아들 삼형제는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 잠시 쉬기 위해 কে양선이 집에 머문다. কে양선이는 그들의 명주비단이 탐나서 그들을 죽이고 명주비단을 빼앗는다. 삼형제는 꽃으로 환생하여 다시 কে양선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কে양선이가 이것을 불 속에 던지자 구슬로 변한다. কে양선이는 이 구슬을 장난하다 실수로 먹게 되는데 이것으로 잉태가 되어 아들 삼형제를 낳게 된다. 그러나 곧 죽게 되고 কে양선이는 저승사자에게 하소연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저승사자는 কে양선이에 대한 처벌로 아흔 마리의 소와 개를 시켜 কে양선이를 물어뜯게 한 후 그것들을 여기저기 흩어놓는다. 그 흩어진 것들은 모기와 소파리 몸에 붙어 지금도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소파리는 소가죽을 뜯어먹는다고 한다.

(여름이라 마늘을 까고 계시던 할머니를 도와드리며 얘기를 청함. 계속되는 조사자들의 질문에 할 얘기가 없다고 하시던 할머니께서는, 자연스러운 대화

도중 저승애기가 생각나신다면 이야기를 시작함.)

저, 뭐 하나 골아 준다. 다 몰를 거라. 저승이거, 저, 저승왕의 본인디 이. 우리 이거 옛말로 들은 거 심방들 곤는 말이라. 저 옛날 쾌양선이 각시가.

〈조사자 : 누구 마씨?〉

쾌양선이 각시렌 허매. 그 어명고라.

〈조사자 : 고양선?〉

쾌양선이가 저승왕인 생이라. 이.

〈조사자 : 예, 예.〉

거난 애기가 어스(없는) 두 각시가 그런 그런 저, 저승처(?) 시나네. 애기가 실 거라게. 경 사노렌 허난. 어디 하늘왕, 버물왕의 아들 삼형제가 과거보래 가젠 허난. 옛날은 돈이 어스난. 막 거 맹주(명주) 비단을 혼 짐 썩 지영, 과거보래 가젠 허난 걸 지영 나왔젠. 세 성제(형제) 지영 나오단. 가단 이젠 그 집일 드난(들어가니까), 계난 이제 하이고 그걸 욕심나네. 그 저 비단을 다 들러떡젠(빼앗아 버릴려고), 그것덜을 망창 맥여네(먹이고), 술 취해네 재완(잠들게 하고) 그걸 죽여 비뒤네(죽여 버리고), 그 맹주 비단을 몬딱 아사 비여서(빼앗아 버렸다). 아사 부난 아 이젠.

“이건 어디 가시고.”

춧단보난 원 감감무중 해부난. 계난 이젠 그것덜은 죽으난 어디레 간 들으쳐(버려서) 버뒤네. 이제 그 저, 옛날은 성냥도 엇고(없고), 뭐 나이타(라이터)도 어스니까는(없으니까는). 이 솔띠아래(솔아래) 영 불 때와난 디(피워난 곳) 오란. 불에 뒷에 담아다가 저 뭇 해 먹어서 이. 옆 할망이 불 담으레 오라네 이젠. 아이고 잘못 골아 점쳐. 불 담으레 온 게 아니라, 저 그 아들 삼형젤 죽여 부난.

〈조사자 : 예〉

이젠 그 집이 아방이 손가, 몰인가 물 맥이레 못띠(연못에) 가시난 곱떡헌(고운) 꽃이 이젠 못띠 있거든. 이시니깐 하이고 연못이라. 자꾸 잊어 비연(잊어 버렸다). 그 꽃을 하도 아름다우난 그걸 캥 오란 영 이런디. 문전에 걸어서. 이 거니까는 하르방이 나갈 때 들어올 때는 머릴 이렇게 쓰다드마주고, 할망이 땡길때는 박박 앞살작(?)을 뒷살작(?)을 땀다. 북북 매거든. 경허난 나들못(?) 꽃. 이거 안된 거여.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나 어땡허연 머릴 트덤젠(잡아당긴다).”

복복 부버네 술강 아래(술 아래) 지더(불살라) 부러서. 게난 이젠 그것이 카 불 꺼 아니?(타 버릴 꺼 아니냐?) 그 꼬시(꽃이) 그것이 카부니까는. 그 이젠 지둔 사름은 몰라신다. 옆집할망이 불 담으레 오란(와서) 불을 담젠 허난 꼽막 현 구실이(구슬이), 세 방울이, 부엌에 그 불 타난 디 이서(있어). 하난

“하이고, 이디 곱막현 구실 잇져.” 허난,

“하이고, 그거 우리 애기 거우다.”

애기도 어신(없는)사름이(사람이) 그거 허난 빼앗아 불지 안해서. 할망은 불 담아 가불고, 그걸 이젠 그 사름이 입에 놔네 영영 허단 보난, 그거 세 방울이 그난 오꼴 내려가 비여서. 자신도 모르게 이, 그 구실이 다 내려가 부난, 아! 그게 허단 보난 그게 애기가 되연이, 그 버물왕 아들 삼형제 혼이라. 그것이.

〈조사자 : 아!〉

게난 그것이 애기가 되연, 제라한 딜로(곳으로) 애기가 나오지 안 허연. 옆구 리로도 하나 튀어나고, 이런 배따지로도 하나 튀어나오꼭 허멍. 세 밧떨로(군 테로) 다 그자 막 옆으로 다 튀어나온 거라이. 경허영 나난, 막 애기들이 잘 커 가. 무락무락 커가는다. 아이고 이제 막 공부시경, 큰 사름 맹글젠(만들려고) 막 허노렌 허난, 저 머시가 아 아들 하나가 그냥 갑자기 죽어 비여서, 죽어 부 난, 이젠 하이고 운다분다 스못 난리가 현디 아! 이젠 또 호술(조금) 시나네 (있으니까) 또 하나 툭 죽어 불지 안 허여. 아이고 이젠 막 저승사잔가, 무신 어디 막,

“우리 애길 무사 다 잡아감신.”

막 그냥 원정(怨情)을 들어서 이. 막 드난,

“그거 너 애기가 아니고, 하늘 옥황의, 버물왕의 아들 삼형제 혼이연. 경헌디 어디 어느 거 그거 험신. 너 잘못현 쥘 몰람덴.”

막 해네, 그 뭐이고 다 트내질(생각해내질) 못 허겨. 경행 말젠이(나중에는) 무신 무는게 아흔 무신, 찌르는 쉼(소)아흔, 거 해네 그것덜을 막 죽여볼젠.

〈조사자 : 개 마썸?〉

개, 사름 그거 몰렌. 그 췌양선이 각시 물어볼랜.

〈조사자 : 예.〉

경행 허단 보나네, 막 각각이 울음이 찢어. 게난 모기 몸에도 가라, 파리 몸에도 가라, 막 호터부난 이제 모기가 그거 혼정이엔 허여.

〈조사자 : 아!〉

모기가 사름 혼정이라 피만 빨아 먹고.

〈조사자 : 파리도 마씨?〉

응, 파리도. 이런 집에서 나는 파리 아니고, 저 드르에(들)에 쉼 파리가 이서.

〈조사자 : 아! 예.〉

쉼 가죽 다, 쉼가죽 다 뜯버 먹어(뜯어 먹어), 게난 호술허민 모긴 저 거 혼정이엔 허주게.

48) 소만이

제 보 자 : 김순자 (여·67세)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김순자 할머니댁

요약 : 옛날에 사만삼천년을 살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 옛날이, 스만이렌 현 사름이 이서 나서이.

〈조사자 : 예〉

스만이가 하도, 하도이 벤덕을(변덕을) 허영 애기 되었다 어른 되었다 해부난, 이 스만일 잡아 비여사 뭐 혈건디 잡질 못해서, 허난 호룬(하루는) 이제 어떤 뉘엔 그뎀 다 곱아신디, 이름도 곱아신디 우리 잊어 비연 못 곱아서 이.

〈조사자 : 예.〉

경헌디 이제 요 넘어가는 길목에 이제 내(시냇물) 느리는(내려가는) 냇것이라(냇가라), 그런데,

“아자그네(앉아서) 솥을 시섬시렌(씻고 있어라).” 솥을 시섬시민.

“이 솥을 무사(왜) 시섬디” 듣꼴랑.

“이거 시스민 희영헌덴, 곱넌 허네 싯노렌.” 허렌.

경허민 알아볼 도리가 이젠 허난 솥을 막 시섬시난, 아닌게 아니라 그 쪼그만 사름이 오데니만은,

“아 그 솥을 왜 싯느냐?” 허나네.

“이 솥을 시스면은 해영케 고와진덴 행 시노렌.” 허난.

“하이고! 스만 삼철런 살아도 솥 시영 곱넨 허는 사름은 못 보고렌.”

하이고, 그땀 뻑 잠안, 그것이 잠안 죽여비연 어서(없다). 경 안해 비여시민, 거 사람도 다 잡아 먹어 불고.

〈조사자 : 소만이 마씨?〉

만날 벤독 허영 막 혈 건디, 스마삼철런, 스만삼철런을 사난 거 오죽 오래 산 거가게. 이젠 백년도 못살안 죽는다. 경계 옛날, 경허난 그거 심지(잡지) 못 허영 허단, 솥을 시엄시민 이제 뭐엔 ㄱ걸랑.

49) 애기엄마의 혼(魂)

제 보 자 : 김순자 (여·67세)

조사일자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김순자 할머니댁

요약 : 옛날에 애기엄마가 빨리 죽어 버렸을때는, 죽은 어머니가 밤마다 찾아와 아기에 게 젖을 먹이고 갔다고 한다.

응, 옛날엔, 아주 옛날엔, 애기 돌(돌봐줄) 사름이 죽으면은,

〈조사자 : 예.〉

애길 나뉘 가민, 그 밤중에 오랑, 애길 느랑(계속) 젖을 멕여뵈갓덴, 경헌디 이제 동네사람이,

“야, 느네 어멍, 어땡허연 야네덜 어땡허연, 영 젖 안 먹여도 영 잘 살암시?” 허난,

“우리 엄마 밤이민 온덴.” 허난,

아! 그 사름이 막 역사네(?)보다네. 오나네 그 신발을 오꼳 곱쥌 부려서(숨겨 버렸다). 그 신발을 곱쥌 부난, 애기 젖 멕여뵈 가젠 허난. 막 신 좃지 못허연 막 애 타단보난, 득이(닭이) 울어비연, 쟁 늦영 가부난 따신 안 보냈다 허여. 게난 따신 안 보내 저승서 안 보내 쥐 부난, 애기덜토 못보고 그자 가민 거 메기(끝이다). 아주 옛날은 애기 떨어뵈 가민 왔다갔다 했덴. 밤이 혼으로,

〈조사자 : 아! 경혈 꺼라 예.〉

응.

50) ‘그신세’ : 도채비 14

제 보 자 : 고만형(남·77세)

조사일시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고만형 할아버지댁

요약 : 제보자의 어머니가 ‘그신세’ 라는 도깨비에게 홀려 도랑에 빠졌다.

근디 다르게 아니고 뭘 새라고 잊지 않으여? 우리는 그 걸 못 봤으니까 무신 소리로 할 수 없는데, 자네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여기 다녔잔아? 다녔는데 하루는 시흥리에서 물이 경 해부니까, 어머니가 밤늦게 시흥리 가는 길이라. 게난 시흥리 파렌 물 그 우애가 옛날부터 허깨비 많이 난다고 허는, 허는 곳이거든.

〈조사자 : 어느 쪽?〉

여기서 얼마 안 가서 시흥리.

〈조사자 : 그 가는 도중에?〉

그 가는 도중에 시흥리 돌아가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아래로 저워 현 것이, 뭇로 자리를 해 가지고 일로 갈 때는, 에 이것이 통하니까 바로 이쪽으로 가지마는, 학교 앞으로 영 돌아가지마는 올 때는 그 길로 오거든. 글로 그 것이 옛날 길이라.

〈강경규(남·73세) : 그 때는 학교도 어신(없었던) 때우다.〉

가다가 어머니가 당헌 거라. 가다보니까 건 어머니가 당해 가지고,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허니깐 내가 그 걸 알지.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가다 보니까 아주 캄캄하고, 그냥 장대같이 섰는데, 어떻게 보면 흰허기도 허고, 어떻게 보면 캄캄허기도 허고, 영 했던 이 할망은 턱 움직일 수가 업거든. 그 앞이 캄캄한데 어떻 움직여져?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이 건 틀림어서 퍼렌물, 물이 여디가 그런 거 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디. ‘딱’ 하니까 그냥 펍 주저 안자서. 주저 안고는, 주저 안장 이제는 당신, 당신 나오는 대로 뭐 이려고 저려고 막 얘기를, 소리를 허고 뭐 허고 피를 내고,

〈강경규(남·73세) : 혼자서!〉

혼자서 그러는디, 잠깐 헤득허드래 일어난 가불지 않으니까. 그냥 심영 둘러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맹청, 그냥 아래로나가 떨어져본 거라. 그 아래로 심정 아래로 막 가만서 이, 100미터 아래 거 어느 순간인지 모르는다. 그냥 그 알드레 둘러쳐부니까, 이 할망 거니까 반 졸도한거라. 일단 경해도 그 어른 옛날부터 미신을 믿는 할망이라노니까, 이젠 어떡행 어떡하고, 어떡행 어떡하고 해 가지고 그 아래로 털어젖는데, 이젠 그 때 부득이네 집이가 그 물에서 가깝고 멀지 안은디라. 여차피 여기 가야 내가 살지 경 안허면 살지 못하겠다헌 걸. 막 그냥 피를 흘리멍 달떨령 가도, 정신 출령 경해도 다치진 안호고. 경헨 정신차령이네 부득이네 집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거 어뎡헌 일이냐?”고, “어뎡 일이냐?”고.

막 난리아냐? 말좀허렌. 경허난 할망 보니까, 정체가 아니고 맨 나중에 얘기해가니까, 나중에.

“이만저만 해 가지고 그렇게 뻘다.”고.

그래, 거기 할망도 일찍허게 거기 안 들어가시민 살지 못허커더렌.

“거기 들어가시난 내가 살았지. 거기 안들어가시민 진짜 살지 못허더라.”고.

뭐가 깜깜이고 답답이고 아무것도 모르겄고. 그런 걸로 보면 그 큰 길에서 둘러매당 쳐신지, 할망이 잘못 생각해서 그래 나강 떨어져신시, 나가떨어져도 둘러매당 첫덴 ㄱ를 거주, 건 건데 내가 보기엔 두 가지로 생각하주. 할망 입에선 걸어보젠 나가당 그냥 나가떨어져 분건지, 진짜 도깨비가 심어 내다쳐 분건지, 그 건 모르는다. 할망은 도깨비가 내다쳐다는 이런 소리로 허는 거라.

〈조사자 : 예.〉

51) '행깃물'

제 보 자 : 고만형(남·77세)

조사일시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고만형 할아버지댁

요약 : 종달리 물이 너무나 유명하여 중국에서 그 물을 없애려 왔으나, 결국 실패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조사자 : 이 마을 단물 나는 디 있지 안해 마썰?〉

그 물이 유명했지. 옛날에 '행깃물', '행깃물' 허는 것이 우리는 종달리 사람

들은 저 걸 행깃 물이라고 해 낫는데, 그게 아니고 '행깃물'은 옛날 중국에서 나왕. 어느 사신이 나와 가지고 움직였다는. 이런 뭐 꼬부랑 꼬부랑 가지밑에 '행깃물'이라고 해 낫는데.

〈조사자 : 그 거 좀 자세히 굴아 줘서.〉

글쎄. 그 건 아주 옛날 얘기에서 나오는 소리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말 뿐이 나. 본 것 같으면 이 것이 내가 봤스니까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얘기가.

〈조사자 : 그런 거라도 기억나거들랑.〉

어 기억이야 허지. 참. '행깃물' 이랜도 허고 꼬부랑 질메. 꼬부랑 가지 속에 '행깃물'이라고도 허고. 중국 사신이 바로 그 것 같지 알고 나왔는데, 알고 나왔는데. 꼬부랑 가지속에 '행깃물'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라.

〈조사자 : 가지로 영 막아 부난 마씨?〉

꼬부랑 가지는 뭐냐면, 밧가는 농부가 소 질메를.

〈조사자 : 질메렌 헌건 어떤 거 마씨?〉

소의 가지가 바로 요렇게 'ㄷ'자로 이렇게 뻗어. 두 개가 이렇게 되고 독음 받침이네 소에다 탁 언지고, 거기다 집도 실코 다니고, 요 것이 꼬부랑 가지라.

〈조사자 : 휘엇댄 마씨?〉

요거. 나무로 이렇게 뻗는데 두 개 붙인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나온 거라. 나왕 양 쪽에 이렇게 두 개 해서, 요거 가운데 몰아넣고 그 옆에 이제 독음이렌 해가지고, 소 등덜이 아프지 안케끔 경행이네 짚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짜그네 늘여놓는. 그래 짐을 싣고 다니거든. 그래 뭐 좀 거리가 먼 데는 잠베도 밧갈레 가른 잠베도 싣고 가고. 거니까 이 농부가 잠베를 가서 싣고 소를 몰고 갔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밧을 가는데, 소 질메는 그냥 밧 갈려고 하니까 부러 나야지. 내려나 부러야 돼거든. 내려놓고 이제 소 밧 가는 도구를 메워 가지고, 쟁기를 매고 해서 밧을 갈려고 질메를 내려놨는데, 이 것이 꼬부랑 가지지. 두 개 이제. 갑자기 아 이제 어떤 할머니가 나와 가지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이러니

“어떡해 해서 구해야 될까?”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구해 주려는데 사람 구해달라는 건, 사람은 다 그러거든. 구할 수만 이시민 구해줄라고 마음먹는데 어떻게 구할줄 알아야 구하지.

“하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에 요 그릇 가지고 당신 밥그릇.”

그, 것이 옛날에는 요즘에는 사기 그릇을 밥을 끓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행기, 녹그릇, 녹구릇 요 걸 가지고 뚜껑도 있고 현 요 걸 가지고 그 걸 행기라고 허거든. 그 것을 점심밥으로 가지고 갖는데,

“이 행길 가지고 저 물을 떠다가 얼른 이 속에다 노라.” 고 말이야. “그래서 이 질메 속에다 넣어노면, 그래서 날 구해줘라. 그래야 이 물이 살지 내가 못 산다.”

할망이 그러니까 이 사람 당연이 그 걸 그렇게 해야돼거든. 이 물이 업서지면 안 될 것이니까. 이 물을 살릴 수밖에 업서서, 얼른 쫓아가가지고 그 속에다 넣어 논거라. 감춰놨는디, 나중에 중국의 사신이 와 가지고 그 걸 찾으려고. 분명히 이 근방에 딱 알고 왔는데, 아무리 훔아도 못 훔갯거든. 쟁이네 그 농부한테서 물으니까,

“아! 그 거 우린 물론다.”고 말이여.

게 몇 번씩 왓다갓다하면서 꼬부랑 가지 밑에 행기 그릇이, 꼬부랑 가지가 어디냐? 게 이 사람도 꼬부랑 가지 생각을 못한 거라. 알아도 알아도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업지만은. 이 사람은 모른 거라.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디, 꼬부랑 가지밑에 행기 물이 어디냐? 거 옛날에는 그 행기물을, 그 사람들을 와 가지고 혈(穴을) 때붙은 그 물이 죽어버린데요. 우리 제주도에도 여러 군데 중국에서 와 가지고, 그래서 그 놈이 하다하다 찾다찾다 못 찾아 갖고 그 냥 갖데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행기물이 하나 뿐이지.

〈조사자 : 예.〉

52) 정 지관(地官) 1

제 보 자 : 강경규(남·73세)

조사일시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고만형 할아버지댁

요약 : 오훈장이라는 사람이 정지관을 낫추어 생각하곤 했는데, 오훈장 모친의 장지

를 봐 주고는 그 뛰어남을 인정받게 되었고, 정지관이 출입하는 한림쪽으로는 묘소를 잘 쓰게 되었다.

가만 잊서보자. 그 묘 관계에 대해서는, 예 여기서 한 4킬로쯤 가면은 고성이란 부락이 있는데, 거기 정지관, 정지관 허면은 저 정씨지. 옛날말로, 옛날은 정경씨가 잊서고, 오훈장에, 저 오조리에 오훈장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훈장허면은 요새 교육감정도. 또 저 정지관은 글은 많이 알았서도 그런 관직은 못 판 사람. 그 자 평민이라. 평민인데 그 지관보는 실력적으로는 오훈장보다 아주 몇 배가 나쁜 모양이라.

〈조사자 : 아 !〉

저 그 그런 관직은 못 맞서도 땅을 봐가는데는, 아주 참 오훈장보단 몇 배 더 나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훈장 때문에 요 부근에서는 그 정지관이 땅을 못 밟다고 해여. 거 왜냐? 게 우리 속담에다가 '정씨도 꼭 투기가 있다' 이렇게 허는디, 저기가 다른 사람이 헨 것은 꼭 투기성이 잊서 가지고 안땀다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정지관이 몇 배가 낫는데, 오훈장보담 낫는데, 오훈장이 자꾸 치거든. 치지까 저 쪽 한림쪽으로 정지관이 많이 출입을 해 가지고 산을 그 쪽이 잘 썼다' 이렇게 허거든. 요 쪽보다는 오훈장은 실력은 이시면서도 훈장이노라고 해 가지고, 사람을 웬만히 압력을 가해난 모양이라. 그래서 하루는 오훈장 어머니 천리를 헛게 됐는데, 정지관은 그런 그 지리에 대해선 아주 능숙허니까, 요 놈의 묘 속에서는 뭔가 꼭 변동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땡갓단 말이여. 그런데 웬걸 산이 나쁘다 해 가지고 오훈장 어멍 천리를 헛게 됐는데, 천리해서 딱 이제는 묘를 해싸(파)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시신은 몇 십년 돼 가지고 아주 다 녹은, 다 엇어질 버릴만한 정도인데 아! 보니까 시퍼렇고 콧이 이 만씩 해 가지고, 시퍼런 콧이 나고 탁 이렇게 잊섯단 말여. 거 오훈장도 그 광경을, 딱 자기 모친 시신을 딱 보니까 눈이 시퍼렇하고, 그냥 콧이 이 만씩 나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아 겁이 바짝 난. 아 쟁 보통 때는 오훈장이 정지관 부를 때는 정서방, 정서방해서 그 서방이란 소리, 우리 제주지방에서는 조금 낮춰 가지고 하는 소리인데, 육지는 가면은 사위보고 보통 서방, 서방허는데, 나가 생각으로도 그 서방, 서방허는 것은 사위는 조금 한 층 낮게 봐 가지고 이렇게 존칭허는 건 아닌데.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게 항상 오훈장이 정지관 부를 때는 정서방, 정서방 불르는 거여. 그 날 따라 천리를 할려고 해서 묘를 탁 해쌍 보니까, 그렇게 시신이 그냥 눈이 시퍼렇게 가지고 콧이 이 만씩 나고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나 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아 그 날. 그러니까 정지관도 거기는 갔지.

“아 요 놈의 산에서 뭔가 좀 변동이 이실(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이제는 멀리 가 가지고 이제는 딱 안자 잇섯지. 담배만 피와 가면서 안자 잇는데, 아 그 광경을 보고 겁이 나 가지고, 오훈장도 아 그 날 따라.

“아! 정지관 어디 갔느냐?”고, “정지관 이리 모셔 오라.”고,

게난 정지관은 딱 알고 이제는 가만히 잇시니까, 막 상계꾼들이 나서 가지고 정지관을 찾아온거라.

“아 저기서 오훈장님이 쫓는다.”고,

“뭘 내가 가서 헐 게 있느냐?”고,

“아 경해도 이젠 어거지로 막 가서 봐 달라.”고,

그러고 정지관 딱 와서 보니까, 눈이 시퍼렇게 백년이나 된 시신이, 콧이 이만씩 나오그러니까 정지관 보고

“선생님, 저 놀라지 마십서.”

“아 이거 빨리 대책해볼자.”

그 옛날은 천리를 헐라면은 시신을 별을 안 맞춰. 그렇기 위해서는 장막을 쳐, 장막을 쳐 가지고 손을 봐, 경헌디 정지관이 가 가지고, 아 허는 말이,

“이 저 천막 걸어봅써, 장막을 거뒤봅써.”

이렇게 허니까, 그 장막을 거두니까 시체가 사르르 녹아가지고, 아! 뭐 우리 자손 눈에도 안 보이게시리 눈도 제라허게 뉘버리고 제라헌 시신으로 돌아왔단 말여.

〈조사자 : 예 !〉

그 때부터는 이제는,

“정지관이 과연 오훈장보담 특히 잘허는 사람이다.”

라고 허는 것이 거 소문이 나게되고, 그래서 그 오훈장 때문에 요 부근은 돌아댁기질 못해서, 저 한림쪽으로만 돌아댁겨 부니까, 못 자리는 정지관이 본 자리가 잘 본 자리다해서, 정지관이 그 쪽에 많이 출입을하니까 묘소는 한림쪽

이 잘 썼다 이렇게 전설이 돌아가고 있다.

53) 정 지관 2

제 보 자 : 강경규(남·73세)

조사일시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고만형 할아버지댁

요약 : 정지관이 현지관과 함께 가다가 가난한 집에 목계 되었다. 그 집의 어머니의 상(喪)이라 묘자리를 봐 주었는데, 정지관은 일부러 전처(前妻)가 죽을 곳을 정해 주었다. 몇 년 후에 그 집에 가 보니, 전처가 죽고, 그 사람이 젊은 걸인을 아내로 맞아 아들까지 낳아 잘 살고 있었다.

이 정지관은 진짜로 참 귀신인 거 같아요. 하루는, 옛날은 보통 걸어서 아니면 마상으로만 댕기거든. 말 타 가지고 댕기는데, 신당으로는 백년 전 일이니까, 저 한림서 걸어 가지고 송당으로 해 가지고 고성을 오는데, 비는 오고 아 이젠 도저히 걸을 수가 없거든. 송당오니까 비가, 송당오니까 비가 너무 만 이 와 가지고, 아 허니까,

“이젠 어디 들어가야겠냐.”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보담 조금 실력이 뭐 헌사람, 온평리 현지관이 잇섯는데, 현지관허고는 같이 댕기는데, 송당에 딱 든 것이 조그만한 천막에 들었는데, 아 들었보니 아 저 초상이 낫는 집이라. 초상만난 것은 웬고 허니까, 건대 같은 것이 저기 딱 걸어 있고, 주인이 두건을 쓰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할망을 보니 막 늙고 이렇게 했다 말이며, 아 그렇게 허니, 아 이젠 참 초기망이라 방도 두 개 아니고 부엌에 굴이 자면서 정지관 허는 말이,

“주인장 보니까 상을 만난 거 같은데.” 이렇게 허니까,

“아, 예, 상 만났습니다. 저 모친상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허니까,

“그른 저 그 안장은 지냈는가?” 이렇게 허니까,

“아직 안장을 못 지냈습니다.”

그 옛날에는 돌아가서도 집안도 잘 청허지, 돈이 없으면 집안도 잘 못 청허고, 모든 게 그 살림살이가 시원안허면은 당장 안장을 못허지, 그냥 귀토롱 해 가지고, 요새말로 가매장인데, 귀토롱 해 가지고 잇는 형편이라, 아 그렇게 허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니까, 그 살림살이를 보니까 매우 참 처량해서 서럽고 이렇게 지내는 입장이고. 마누란 보니 많이 나이가 가 버리고 이렇게 해단 말여. 두 늙은이만 사는데 정지관이 밤자리에 들면서 현지관 보고,

“보니까 매우 참 집안이 어려운 집안 같으네. 지금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갔다고 해서도 여도 지금 안장을 못허는 실정인 거 같다.”고, “우리 내일 묘자리를 하나 봐주고 가자.”

“경협주 마씀.”

그래가지고 이젠 현지관도,

“좋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는 뒷 날 아침에 이젠 거기서 조반 얻어먹고 그 주인보고, 뒷 날 아마 비가 개편 모양인 거라. 주인보고 허는 말이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터 보래 돌아 다니는 사람들인데 와서 집안에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 가지고 지금 장례도 치르지 못허는 입장인 거 같은데 우리 묘자리나 하나 봐주고 가겠다.”

아이고, 옛날은 돈이 엇으면 그렇게 얼른얼른 지관을 청해 가지고 묘를 못 쓴다 말이여,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는 점심 출리고 점심 지고 행네, 이젠 그 지관 둘 앞세우고 해네, 나가는데 송당에서 몇 리를 걸어 가지고, 가 가지고 여러 자리를 보다가 야! 이제는 정지관이,

“여기 적당하다.”고, “여기 적당하다.”고.

딱 고지를 쳐 가지고 줄을 딱 치는데, 현지관 눈에는 딱 보니까 당장 마누라가 죽게 생기는 고지를 꼽아가는 것이여,

“아 어떡해서 정지관이 이렇게 실수를 허는고? 오늘따라 이렇게 실수를 험신고?”

해 가지고 그자 술만 딱 해는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고지를 치고,

“딱 여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 장을 모셔라.”

이제 그 사람들은 고성으로 나와 버리고, 상주는 다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

고 이렇게 한다. 돌아오면서 현지관이

“아 형님! 오늘 어떻게 가지고 경 실수를 헐디가?”

“무신거 말이고?”

“아 거 마누라, 부인 당장 죽게시리 형님 고지 꼽아불지 안합디가?”

“뽑앗주게.”

“아 사람 죽게시리 고지 꼽아불민 됩니까 게?”

“아! 이 사람! 거 안 봐신가? 마누라가 지금 산기가 넘어 가지고 애기날 황이 넘어 부러신게.

그 집에는 지금 대가 끈어져 가는데 그 마누라하고 살면은 삼년삼 넘게.”

전혀 아닌게 아니라 그 마누라가 딱 돌아갔어요. 정지관이 딱 고지를 그렇게 꼽아버리니까, 그래서 정지관이 땀기면서도 항상 요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허는 것을 정보도 듣고, 모든 걸 그 마음에 딱 체크를 해 놓는 것이지. 그래서 헌 3·4년 만에는 일부러 훔아갔어. 한 4·5년 만에, 5년 만에 훔아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그 때 돌아와 가지고, 그 마누라가 돌아가 가지고 홀로 살게 됐는데, 하루는 그 할아버지 혼자 사는데 한 30세쯤 된 여자, 얻어먹는 걸인이 왔단 말이여.

아 그 날도 역시 비가 축축오는데, 아 그 걸뱅이가 와 가지고, 여자 걸뱅이가, 한 30세쯤 난 걸뱅이가 와 가지고,

“아이고! 좀 밥 좀 얻어 먹읍시다.”

라고 허는, 밥을 주고 허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제는 주인이 그 걸뱅이라도,

〈조사자 : 맘에 들엉?〉

응, 밥을 주고 너무 참 불쌍허니까 이제 옷도 할망 입던 옷덜 갈아 입히고, 아! 살아가는게 결과적으론 부부가 뉘 버렸서, 그래서 한 5년쯤 후에 정지관이 땀기다가 소식도 들으니까 아기도 낳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게 웬걸. 거 한 30대 부인이니까 애기를 낳단 말이여. 그 집에서는 아기를 낳는데, 마침 똑 아들을 나게 됐다 말이여. 그래서 잘 집안이 그렇게 이룩했는데, 현지관하고 이젠 건너가다가 그 집에 들렸서. 어디 가다가 우리 과객인데 들렸노라고. 정지관네는 그 사람네 집을 알고 들어갔지만은 그 사람은 그 것 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라.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황춘자(여·74세) : 정지관을 잊어버렸구나.〉

응.

“아 ! 이 누추헌 집에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해 가지고,

“아! 우리 건너가다가 물도 그럽고 해서 물이나 좀 먹을라고.”

보니까 딱 아닌게 아니라 젊은 마누라가 딱 잇고, 애기도 그 때 기어댕기고 있는 실정이라. 그래서 이제 물을 딱 먹는 형식 해놓고, 현지관허고 둘이 주인네 두 부채를 불러내 놓고,

“나를 모르겠느냐?” 이렇게 허니까,

“아이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해 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여기 와 가지고 자네 모친 장례를, 모친해 가지고 내가 그 때 제를 해준 정지관이란, 정 정씨네.”

“하이고 그렇습니까?”

“내가 그 때 고의로 자네 늘근 마누라를 내가 죽게 고지를 폼앗다. 그래서 아마 얼마 엇스니까 자네 늘근은 마누라가 돌아가 부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누라를 들어오게시리 내가 맨들어 가지고, 이 얘기까지 내가 나오게시리 맨들어 찻다.”

이것이 그 바로 옛날에 묘에 대한 전설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침 그 걸로서 침 아들 나 가지고 잘살고 대를 이었다. 이렇게 헌디, 송당에 그 때 그 광산 김씨라고 그렇게 했는데,

54) 정 지관 3

제 보 자 : 강경규(남·73세)

조사일시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고만형 할아버지댁

요약 : 유명한 지관인 정지관은 현지관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하고, 현지관은 그의 놀라운 실력으로서 시험을 통과한다.

그래서 이 정지관은 유명허기를,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라. 현지관허고 하루는 어디가 가지고 묘자리를 보는데, 그 때는 물을 탕간 모양이라. 현지관허고 둘이 물을 탕 가는데, 딱 안장을 부러났는데, 보니까 이제는 항상 현지관은 상

고지를 잡고, 아 저 정지관은 상고지를 잡고 현지관은 하고지를 잡아 가지고, 묘자리를 꼽아주고 이렇게 허는데, 아 그날은 정지관이 막 사양을 해 가지고, “오늘랑 현지관이 상고지 잡아, 난 오늘 하고지 잡으크메”

경허난 이제는 양보를 해 가지고, 현지관이 상고지 잡고 정지관이 하고지 잡고 해서 딱 고지를 쳐냈는데, 형님! 자리를 아! 정지관이 허는 말이, “현지관이 알앙 해버려. 오늘랑이네 자리를 맨들어버려.”

영 행 허난 현지관도 실력이 당당했던 거라.
“형님, 저 안장 아사 뵘써(치워 버리십시오).”

그게 정철인 모냥이라.
“안장 아사 버립써.”

경 허니까 정지관은 딱 알아채려 가지고,
“음, 자네 이만 허면은 실력 당당하다.”고,
정지관이 그 현지관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정철에 다가 딱 안장을 딱 나버린(놔버린) 거라. 말 안장을.

〈조사자 : 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상고지를 현지관한테 딱 양보를 해가지고 했는다,
“자리를 맨들라.”

이렇게 허니까 현지관이 허는 말이,
“형님 안장, 몰 안장 가져 버립써.”

경허난 침 정지관 허는 말이,
“자네 실력 됐다. 이만 허면은 내가 일부러 자네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그 자리에 몰 안장을 나부렸다.”

그런 그, 그래서 실력이 침 현지관허고 정지관 실력이 침, 아주 세상에는 우리 요, 동 밖에서는 당당하다고 이렇게 했고.

55) 정 지관 4

제 보 자 : 강경규(남·73세)

조사일시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고만형 할아버지댁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요약 : 정지관은 살아서 정혈을 꿈는 유명한 지관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나, 자신이 죽었을 때는 주위 지관의 시샘으로 자신은 정혈에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정지관도 죽어서도 정혈에 못 갔다 이런 말이 잇거든. 오훈장이 말자에 죽은 모양이라. 정지관이 죽었는데 오훈장이 딱 가 가지고 아들들 보고, “상주 아버지 유언 했는디나 잇는가?”

이렇게 허니까 유언이엔 헛 건. 땅을 살았을 때 ‘난 어디 모시라’ 해 가지고 그 유전, 유전허는 소리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허니까,

“가 보자.”고,

가 가지고 투가지.

“이거 저 고쳐야겠다. 고쳐야겠다.”

해 가지고 고지를 틀었다고 허여. 트니까 정지관은 원래에 아들한테 딱 코치 할 때는, 가르칠 때는 ‘여기는 상고지 품고 여기는 하고지 품아라’ 해 가지고 분명히 맨들어 가지고 돌아가 부러는데, 오훈장은 가 가지고,

“상고지 이렇게 틀라.” 해 가지고 틀었던 말여.

<조사자 : 무사 틀어부러 마씨?>

그러니까 그 정지관도 그러니까.

<황춘자(여·74세) : 그 건 명인으로 넘겨두며 자기가 위신이 안 좋으니까, 내가 조금 이 사람보다 낮게꿈 움직일라고 허는 식이지. 정지관도 정혈에 못 갔다. 이렇게 헛디.

56) 부대각

제 보 자 : 강경규(남·73세)

조사일시 : 1999년 8월 1일

조사장소 : 고만형 할아버지댁

요약 : 정지관은 역적이 나올 묘자리를 예견하고 그 곳에 묘자리를 쓰지 않기를 당부했으나, 결국 그 곳에 묘자리를 써 부대각이 나오게 되었다.

그 정지관이 전설이 만오지. 송당에서 넘어오는데 저 시흥리 가민 부대각이란 놀개 돋은 스람. 그 사람이 이제는 돌아오다가 묘자리를 보는데, 경헛디.

“이 자리에 산을 쓰면은 꼭 역적이 나겠다.” 이렇게 했거든. “역적이 나겠다.” 했는데, 아난게 아니라 참, 그 자리에 산을 쓰니까 부대각이 놀개, 이 적갱이에 놀개 돋은 스람이 나왔단 말여.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냥 몰르게 시리 그 놀개를 끈어버렸지.

57) 도채비 15

제 보 자 : 김해룡(남·61세)

조사일자 : 1999년 8월 2일

조사장소 : 두문포 나무 그늘 아래

요약 : 제보자가 새벽에 술에 취해 돌아오다가, 귀신에 홀린 이야기이다. 귀신에 홀려서 남의 보리밭을 동이 트도록 밟고 나서 새벽이 되어 정신을 차려보니, 불덩어리 하나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도깨비를 잘못 모셔서 망한 집안의 묘였다.

〈조사자 : 할아버지가 도채비 직접 봐 나수가?〉

58년도 땃는데, 그 때가 나가 뭐 종달리에서 술도 그렇게 잘 먹고, 장기(장고)도 잘 치고, 놀기도 잘 하거든. 나가, 그 때 당시는, 근데 어느 날 술 만취하고 ‘딱’ 나가 처음 살기는 저 쪽에 집이서 거기서 살았는데, 저 술을 먹게 되면 여기서 안 먹지. 나의 친구들도 다 저쪽 그 부락 거기 가야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먹고 놀고 하다가 이제 밤 1시, 2시 돼야 꼭 언제든지 집에 들어오거든. 나가, 술 먹다가, 술 먹어서 딱 오다보니까, 요 요기 그 논, 논두렁, 지금은 그 세멘으로(시멘트로) 요 가상에(길가에) 논 가상에 요렇게 세멘으로 막어버렸지. 옛날에는 그 때는 막지를 안해서 그 논두렁 그대로 배수로가 그대로 이섯지(있었다). 술이 막 취해 가지고 오는데 나가 고짜한 길 같아도 이 길이 마찬가지. 나가 오는 길 고짜하게 길 오다보니까, 그 또랑으로 평허게 빠지는 거야. 나가, 아 그래서 거기서 뭐 상처도 안 입고, 거기는 빨이거든, 그 물 내려가는 또랑이니까, 빨인데 탁 주저안갔는데, 상처 같은 건 하나도 안나고 그대로 해서 영 정신을 차리니까 말이지. 또랑이거든, 또랑인 건 알면서도 딱 하게 또랑을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뭐 업는 거야. 이거는, 그 때는 그 귀신인지 뭐 도태빈지 그게 나를 인제 홀리는 거야. 그 또랑드레 박아분 것도 고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짜흔 나가 온 길 같이 유도해다가 박게 만들어 버리고, 그때부턴 뭐 한 2시쯤에 경 땀는데 5시까지 말이지. 어디로 갔느냐면 말이지, 요 내려오는데 남의 보리밭땀(보리밭에) 들어갔다고, 나가. 것도 모르지, 나는. 정신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려 가지고, 그냥 혼동시켜 가지고, 그 이제 도태비가 그렇게 혼 거지. 발을 그때 보리가 요만큼 헛스니까, 발이 우리 그 보리밭 밥잔아(밭잖아). 요만큼 되면은 발바야 잘되고 그 여물 잘 된다 해 가지고, 옛날에 다 밭밧다 말이여. 그 보리밭을 3시간 동안 말이지, 갔다왔다. 여기가면은 이 담에 걸려. 걸리는 건 알아. 그믐 그대로 또 돌아서서 또 이래오고 저리가면 걸리면 또 이쪽으로 또 오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경 허는 거라.

〈조사자 : 담에 강 부딪히면 또 반대편으로 가고.〉

응, 그니까 넘어가겄 안허는 거지. 그 즉 말하면 귀신이, 귀신이 나가 그 발을 다 볼르도록 말이지, 끌고 다닌 거라. 다시 말하면, 아 그러다가 이제 5시 되니까 날이 밭가오거든. 그러니까 이 절벽 위로 말이지, 좀 노프지, 절벽위에, 그 위로해서 이 길드레 딱 내쫓그는 거라. 나왔서, 무사하게시리. 그대로 나왔는데 나가 이쪽으로 내려오던 사람이 말이지, 이 길에 나오니깐 또 저쪽으로 딱 가는 거라. 저쪽으로 딱 가당 보니까, 앞에다가 말이지, 딱 그때야 바로 불이, 불, 불덩이가 이만한 불이 말이지, 아피(앞에) 탁 나타나는 거 아니?

〈조사자 : 하나가 마썰?〉

어, 불 하나, 덩어리 하나가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 딱 난거야. 그 때는.

〈조사자 : 흘렀구나 해 가지고.〉

어, 그 때, 그 때 당시 라이타하고 뭐 성냥이고, 나가 보곶땀(주머니)에 이섯거든. 담배도 피울 때니까 이선, 담배 피울 생각도 어섯고 그 때까지 끄선(끌고) 다니다가 했는데, 불이 번쩍 하니까,

“아유, 나가 도채비 만나졌구나.”

해 가지고 담배를 이제 피웠서, 피우면서 이제 정신차리도록 가만히 딱 있으니까 말이지. 버티고 서니까 그 불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나가 지켜봤지. 율로 가다보면은 왼쪽에, 거 지금 오른쪽에 좋은 집 하나 노푼(높은) 다 지영이서, 지금 거시기 저 잇다고, 지금 거 대문간 헛고, 부락 들어가기 전에 그 집이 그 때는 집이 어슬 땀데(없을 땀데), 그믐 일로 가면 왼쪽이고, 저쪽으로 오게 되면

은 오른쪽이지 이. 거 여 저 소낭(소나무)잇는 그 밭이 하나 잇서. 거디다가 무덤이 두 갠가 세 개 이서. 사람무덤이. 그 불이 싹 가 가지고 말이지. 딱 왼쪽으로 딱 꺾어서 바로 그 산(무덤)으로 가는 거 아니. 산으로 가니까 말이지, 그게 싹 하게 업서지는 거라. 그래서 나는.

“아하 이디가 바로 도태비 나는 디로구나.”

이렇게 했지. 생각을 했지. 나는 도태비, 아무리 아무리 도태비 뭐. 뭐해도 밤이, 밤중의 다녀도 비가 와도 나는 겁 업시 다녔거든. 그 때는 겐디 집이 와 가지고 집이 어떻게 와졌는지도 모르겠는디, 딱 하게 와 가지고 흐는 소리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때는 이제 그 한필생이라고 해서 그 영감이 이섯는데, 좀 못사는 영감이야. 근데 한필생이 말이지, 돈을 달라고 해 가지고 나가 뭐 이천 원인가 삼천원 말이지, 그거를 이제 주랜 해 가지고 쫓다고, 나 이제 집사람한테 헛말로 막 흐는거라. 주진 안했는데 주랜 행 주고 어더고 해서 막 흐니까, 집사람이 헛말 흐니까. 그 밤중에 와서 흐니까 겁이 나거든. 아 어떻게 했냐해도 나가 말을 안하거든. 게 정신어시 막 뭐 그냥 자빠진 거라. 나가. 그냥 KO 뉘분 거라, 아예. 해서 우리 집사람은 그래가지고, 거 옛날에는 그 집 이제 새해 가지고 일엇단 말이지, 초가집, 초가집이니까 말이지, 초가집을 그걸 빼 가지고, 한 주먹 딱 빼 가지고 불 부껴가지고 말이지, 이 베끝디서(밖에서) 말이지, 그 올래(길)에다가 불 부쨌네. 막 휘휘 둘러 가지고 말이지, 던져 부러다고. 거는 경 험다 해여. 그거는 옛날사람들 말이 그렇게 해야 좋다 이제.

〈조사자 : 도태비에 홀리면은 그추룩(그렇게) 해야 된다.〉

어. 그렇게. 원칙으로는 나를 안쳐놓고 그 기실새라고 하거든. 그 집가지, 그게 기실새(?)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집가짓개(?) 그게 그걸 가지고 불을 부껴 가지고, 나를 인제 막 휘휘 둘러 가지고, 그 도태비가 나 몸에서 떠나도록 이, 즉 말하면은 떠나도록 이 하기 위해서 그 휘휘 둘러 가지고 해서 막 불 살아 올리곡, 그래야 안전하다 나가 안전해진다 그런 말이라. 그래서 경 험다보니까. 그렇게 흐니까 모르지만은 뒷날은 딱 그렇게 술 먹고 그래봐도 딱 일어난 거라. 나가.

〈조사자 : 정신 차려정으네 예.〉

응. 게메 지금도 뭐 안자서 사람들이 노는 디서라도 그 도태비 말하면은.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어 저 김수길(제보자와 동일인)이 저 도태비 도태비영 말하면서 다닌 사람 아니냐?”고,

그래 다 얘기해 나보고.

〈조사자 : 그 묘 이수계 묘, 거 누계 묻지 알아 봐수과?〉

임침의 문데, 그것도 그 집안이 폭삭 망한 집안이라. 처음은 잘 살았는데 그 집안이 아주 부자로 막 소문나게 잘 살았거든. 겐디 나중에는 말이지. 폭삭 망해부러서.

〈조사자 : 무사 폭삭 망헌지 알아지쿠과?〉

글쎄 그 도채비 모션 살고 뭐 어찌고 뭐 흐는 얘기도 있지.

〈조사자 : 살당 뭐 잘 못 모시난.〉

그렇지 응.

〈조사자 : 망해분.〉

잘 못 모시니깐 인제 망해분다는 거지. 도채비가 들어서 그렇게 한다. 지금도 어디 모셨다는 집들도 있긴 있는 모양 같애. 그런 건 놈 알게 안 하거든. 자기만 딱 알아 가지고 흐는건데 그 흐다 보니까, 이제 잘 모실 때도 있고 못 모실 때도 있으니까, 그 우선 뭐 맛있는걸 해도 뭐 거기서부터 대접을 하고 뭐 한다더마는.

신 앙

〈목 차〉

- | | |
|----------|-----------|
| I. 개 관 | III. 신흥종교 |
| II. 공인종교 | IV. 민간신앙 |

I. 개 관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에 공인종교로는 불교와 기독교가 있다. 하지만 신도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불교일 경우, 같은 마을에 있는 청강사보다 하도리에 있는 금봉사에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 그리고 신흥종교인 삼천교, 산신교, 천지대안교가 있다. 삼천교에는 단 한명의 마을주민도 다니지 않고 있었으며, 산신교에도 두 명만이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천지대안교는 이 마을에서 찾을 수 없다.

종달리의 민간신앙은 남성 중심의 마을 포제와 백중제, 여성 중심의 당신앙으로 나뉘어 있다. 포제는 40여년 전에 중단되었고, 백중제는 말을 키우는 집에서 지금도 치러지고 있다. 이 마을에 당은 오막개본향당, 툭목일렛당이 있다. 그 중에서 오막개본향당은 가장 큰 당으로 대부분의 마을 부녀자들이 이 곳에 다닌다.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툭목일렛당에 다니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짓당에 다닌다고 한다.

II. 공인종교

1. 불 교

1) 명칭 : 한국불교태고종청강사(韓國佛教太古宗淸江寺)

처음 윤선유(尹善有)에 의해 창건될 때의 명칭은 용화사(龍華寺)였다. 그러다가 1990년에 청강사(淸江寺)로 개명했다. 이는 '龍華'란 용어가 미륵존불을 신앙하는 미래신앙을 내포한 말로서 많은 곳에서 사찰명으로 쓰이고 있을 뿐 아니라 '용화사 사건'이라 하여 육지의 한 용화사라는 사찰에서 자신이 미륵존불임을 주장하는 스님이 세상을 어지럽힌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龍華'라는 명칭을 버리고 '淸江'이라는 명칭을 세운 것이다. 이는 성산포 앞(우도 앞) 바닷가가 맑은 강이 흐르는 모습같이 보이는 데서 연유한 것인데, '청강'은 창건자인 윤선유의 호이기도 하다. 개명할 때에는 신도들의 찬성을 받고 동산스님의 증명으로 개명했다. 그러나 세인들에 의해서 용화사 시절부터 '타불교'라 불리어졌다. 이는 구별을 위한 행위로 마찰을 하면서 '아미타불'을 빠르게 외우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미타불을 빠르게 말하면 밖에서는 '타불'이란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지금도 청강사라는 이름보다 타불교라 널리 알려져 있다.

2) 종파 : 太古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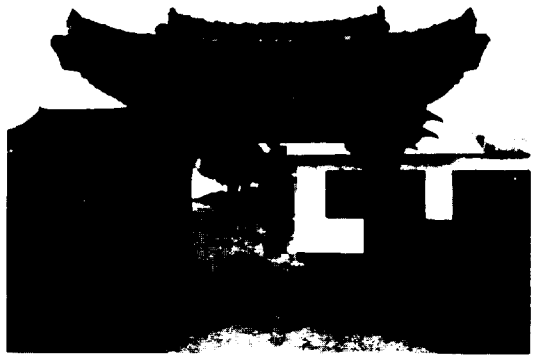
3) 위치 :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755번지

4) 건물 : 대웅전(44평), 요사채-객사 2채(15평, 43평), 전채 대지 약 300평

5) 대표자 : 속명은 권명환(權明煥), 법명은 수행(守行)

이며 호는 청운(淸雲)이다. 64세로 창건자인 윤선유의 아들이다.

6) 연혁 : 부산 영도에서 생활하던 청강(淸江) 윤선유(尹善有)가 김봉남(金



奉南)선사에게서 전법을 받고 1946년 8월 귀향하여 종달리 754번지에 용화사를 창건했다. 구병활동으로 신자 수가 늘어나자 1950년 법당을 짓고 1990년 현재 위치에 대웅전을 지었다. 과거에 법당으로 쓰던 건물은 3년 전에 개량하여 사채로 쓰고 있다. 종달리 마을지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윤선유는 尹明洙의 1남 2녀 중 차녀인데 서기 1899년 음력 8월 21일생으로 本貫은 坡平, 佛名은 大明華이며 호는 淸江이다. 윤선유는 귀향 첫 해에는 농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咸某 女人이 有病 때문에 頃刻에 이르자 朝夕으로 냉수 한 그릇을 먹이고 아미타불 염불을 하도록 하였는데 4일이 지나 회복하고 7일만에 완쾌되었다. 이것이 윤선유의 첫 포교였다. 이후 연평리에서 장님, 앓은뱅이 환자들을 완쾌시키자 각처에서 난치병자들이 모여들었는데 포교 시작 3개월만에 100호를 초과하였다. 그런데, “물 한 그릇 먹고 염불하면서 마찰하여 병이 나을 수 있느냐?”하는 모함으로 결국에는 사도로 몰려 성산 사구서에 출두와 구속까지 당했으나 재판으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윤선유는 출감 후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완숙한 불법으로 포교활동을 계속하니 제주시를 비롯하여 전도에서 천여명의 신도가 몰려들었다. 이후 일부신도는 천지대안교(天地大安教)의 유혹으로 신앙을 옮겼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윤선유는 구병을 위주로 한 포교를 바탕으로 수많은 중생을 계속 구제하였다. 그러다가 1949년 奉南八菩薩 選定에 한 사람이 되어 奉南禪師에게서 청강보살이란 호를 받아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쳤고 1953년 8월 21일에 염불당을 창건하여 오직 일념으로 아미타불 염불 주력과 중생제도에 힘쓰다 1984년 5월 16일 향년 86세로 涅槃에 들었다. 이후 아들 권명환은 1959년 한국불교태고종 劉東山 큰스님을 戒師로 出家爲僧이 되었으며 현재 한국불교 태고종단으로 관등록을 필하고 용화사 주지(住持)로서 淸江菩薩이 포교하던 교리면을 체계화했고 병이 신통하게 낫는 원인을 과학적, 이론적 측면에서 연구하기 시작해서 책자로도 발간계획이 있다.¹⁾

7) 교인현황 : 약1000명으로 추정(약 200호)

포교지역은 구병에 의한 포교 방식 덕분에 종달리 뿐 아니라 제주시, 서귀포, 함덕, 조천, 성산리, 온평리, 수산리, 동복리, 시흥리, 신례 2리, 위미리, 가시리, 하도, 상도, 행원, 한동, 평대, 난산, 신천, 신양 등으로 광범위하다. 그 중에도 종달리가 약 30호, 함덕이 약 30호, 제주시가 약 30호, 서귀포를 포함한 성

1) 종달리지 『地屋의 脈』, 1987, p. 201 재인용.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산음이 약 97호로 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윤선유 시절에는 한 때 신도수가 1000호가 넘는 적도 있었는데 이 때에는 종달리 사람들 대부분이 청강사에 다녔다. 그러나 윤선유의 죽음으로 신도수가 많이 줄었고 지금은 종달리 사람들 대부분 청강사보다는 하도의 금봉사나 면법사를 많이 다니고 있다.

8) 법회

① 법회장소 : 대웅전

② 정기법회일 : 정월 보름(해제일), 사월 초파일(석가탄신일), 7월 15일(조상천도제), 11월 15일(봉남선사오도일), 12월 8일(석가세존오도일)

9) 당과의 관계

청강사의 교인들은 당에 다니지 않았고 일체의 미신을 믿지 않았다. 이는 윤선유 시절부터의 가르침이었는데 수행스님(권명환)에 의해 정식 太古宗으로 승인된 이후 대웅전 안에 칠성당을 설치하는 등 이전처럼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는 듯 하다. 하지만 여전히 당이나 미신에 대한 청강사의 입장은 부정적인 듯하며 신도들 대부분 역시 여전히 다른 신앙을 갖지 않는다.

10) 금기 : 윤선유 시절부터 개고기, 말고기는 금한다. 수행스님의 설명에 의하면 개와 말은 지혜로운 동물이라 하여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환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한다. 그 외의 특별한 금기는 없으며 마음을 깨끗이 하기만 하면 된다.

11) 부적 : 석가세존오도일(12월 18일)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누어준다. 부적의 신비성을 인정은 하지만 하나의 심리안정 요법으로 마음을 편히 하고 의지가 되도록 하는데 부적의 의의가 있다고 한다.

12) 운영 : 법회 때 신도들의 불전으로 운영한다.

13) 행사 : 불사는 환경에 따라 행하나 특별한 것은 없다.

14) 수련방법 : 물법계의 수련 방법을 쓴다. 아미타불이란 염불을 빠르게 외우고, 마찰을 하며 찬물을 마신다.

15) 대웅전의 내부

일반적인 절과 같이 상단, 중단, 하단의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은 상단

으로서 본부처로 아미타불(阿彌陀佛), 좌부처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우부처로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을 모시고 있다. 이들을 일컬어 미타삼존불이라고도 한다.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으로 생명과 광명이 무궁무진하다는 부처로 극락 세계의 교주이다. 관세음보살은 그 이름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어 중생을 구제해준다는 대자대비 어머니상의 보살이고, 대세지보살은 중생에게 힘을 주며 강하게 살도록 이끌어준다는 보살이다. 중단은 상단의 왼쪽으로 신장단이라고도 한다. 이 곳에는 석가모니 불상만 셋이 모셔져 있고 그 옆에는 칠성단이 설치되어 있다. 하단은 상단의 오른쪽으로 영단이라고도 한다. 이 하단에는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다. 지장보살은 지옥문에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보살로 특히 49제 때 모셔진다. 그 옆에는 상단과 같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모셔져 있다. 그 외에 영단 뒤편에 창시자인 김봉남 선사와 윤선유 보살이 탕화로 그려져 있다.

2. 기독교

1) 명칭 : 한국기독교 장로회 동제주 종달교회

1999년 8월 현재의 명칭은 '동제주 교회'이다. 그런데 조만간 '동제주 종달교회'로 개칭할 예정이라고 한다.

2) 위치 : 종달리 1742-1

3) 건물 : 교회당, 사택, 부속건물1

규모는 전체면적이 700 ~ 800평, 교회당이 40평, 사택이 20평, 부속건물이 20평이다.

4) 연혁 : 동제주 종달 교회의 전신은 '그리스도 교회'이다. 1976년 9월27일 장로교에 가입하고, 1977년에 교회를 신축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는 교회사택을 건축하였다. 1993년에 '종달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김인성 목사가 부임한 후 다시 '동제주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얼마 후 '동제주 종달교회'로 개칭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동제주 종달교회'를 거쳐간 목사는 다음과 같다.

1976년 9월 ~ 1977년 8월 이우섭 목사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1977년 9월 ~ 1979년 4월 김준근 목사
1979년 8월 ~ 1979년 9월 이경우 목사
1980년 1월 ~ 1980년 9월 한규채 목사
1980년 10월 ~ 1997년 1월 이우섭 목사
1997년 2월 ~ 현재 김인성 목사

5) 대표자 : 교회 대표는 김인성 목사(38세)이고, 교인 대표는 강태선, 김선찬 장로이다.

6) 교인현황 : 약40명(세례교인:42명, 집사:16명, 장로:2명)

7) 포교지구 : 종달리

8) 예배

① 예배일 : 주일 아침(매주 일요일) 11시와 오후 2시,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구역예배(가정예배)

② 예배장소 : 동제주 종달 교회

9) 운영방법 : 현금으로 운영한다. 1년 예산은 약 3,500만원이다.

10) 행사 : 방학기간 중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Ⅲ. 신흥종교

1. 三天教

이 마을에는 '노란집'이라고 불리우는 '삼천교'가 있다. '노란집'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삼천교 건물이 노란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주민 중에 삼천교에 대해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삼천교에 다닌다는 주민도 없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이 마을과 삼천교와의 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삼천교를 찾아갔을 때 그 곳에는 강춘심(여·88)할머니 한 분만이 사시고 계셨는데, 할머니를 통해서 삼천교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알아낼 수가 없었다. 다음은 강춘심 할머니에게서 들은 것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다.

1) 명칭 : 世界國 三天教 龍泉宮

- 2) 대표자 : 고대오(고선녀 연주님), 강춘심할머니 동생의 부인이라고 한다.
- 3) 교인현황 : 약 500여명
- 4) 포교지역 : 하천리, 태흥리, 시흥리, 제주시 등이다.
- 5) 예배
 - ① 예배일(강시일) : 종달리 매월 17일, 토산리 매월 9일, 본공 매월 7일, 시흥리 매월 5일(모두 음력)
 - ② 예배방법 : 강시일에는 8시에서 9시 사이에 교당에 도착하고, 12시까지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상제님 도술조합'을 원다.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 연주님의 설법을 듣는다.
예전에는 사과, 쌀 등을 올리고 초를 켜으나 요즘은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성의껏 보시금을 올린다.
- 6) 운영방법 : 강시일에 모여진 돈을 운영회에서 관리한다.
- 7) 금기 : 술과 담배
- 8) 특징 : 가족 한명이 교인이면 가족 모두 강시일에 교당에 온다. 4월 17일은 영혼들의 합동기념식으로 영혼들을 모셔 하늘로 보내는 날이므로 가장 큰 규모이다.

2. 山神敎

현재 마을 사람들 중에 산신교에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한두 명만이 다니고 있었다. 수소문 끝에 산신교당이 있는 곳(종달리 부두 근처)을 알아 내고 그곳을 찾아갔더니, 깨끗이 정리되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었다. 다만 예전에 있던 제단 위치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후 산신교가 어디로 옮겨갔는지는 알 수 없다.

다음은 산신교에 다닌다는 김복희(여·61)씨한테서 전해 들은 것이다.

- 1) 명칭 : 산신교
- 2) 신 : 한라영산산신님
- 3) 대표자 : 오응순 선생(사망)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4) 연혁 : 오응순 선생이 살아있었다면 73세인데, 그녀가 30세때 설립하였다고 한다.

5) 위치 : 종달리.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다.

6) 교인현황 : 10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2명이다. 대표자가 죽은 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봉사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7) 포교지역 : 정의, 하도리, 종달리

8) 제물 : 복숭아를 제외한 제철과일, 과자, 술, 지전 10장, 쌀 1되, 초, 마른 생선(육류제외)

9) 제단형태 : 제단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가장 왼쪽은 천신단이고 가운데단은 산신단이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처님 등 여러 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

10) 기도방법 : ①향을 피우고 초를 켜다 → ②물을 떠서 모든 신 앞에 놓는다 → ③각 신 앞에서 절을 세 번씩 네 차례 한다.

11) 불공 드리는 날 : 정월 초사흘(대불공), 음력 3월 3일(삼짓날), 음력 4월 8일, 음력 7월 7일(칠석날) 동지불공, 요왕맞이, 배 고사, 집 불공, 성주풀이, 아기 비념, 칠성불공, 독불공, 초감제 등

12) 창시 배경 : 오응순은 남편이 장님이었고, 아이가 넷(아들 2, 딸 2)이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였다. 그러던 어느날 꿈에, 바다 한가운데에 오름이 솟아오르더니, 그 오름 위에서 산신이 말하기를 '내 말을 들어야만 네가 살 수 있다'라고 한 후, 내 말을 듣겠다고 하면 다리를 놓아서 건너게 해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산신의 말을 따르겠다고 하니, 산신이 다리를 놓아 건널 수 있게 해 주었다. 꿈에서 깨어난 후 닷새쯤 후에 동네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에게 한번 데려오라고 한 후에, '넋들라 넋들라' 하니 병이 나왔다. 그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 명의 아이가 모두 나왔다. 그래서 종달리에 절을 지으니 단물이 솟아 나왔다. 그 물을 떠서 산신님께 바치니, 절은 날로 번창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절을 팔고 종달리 부두 근처(얼마전까지 교당이었던 곳)로 옮기더니 오응순은 눈이 멀고 삼사 년 후 죽

었다고 한다.

3. 천지대안교

종달리 마을지에는 천지대안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마을사람들은 '노란집'을 천지대안교로 알고 있었다.

IV. 민간신앙

1. 포제

제보자 김영필(남·69)씨가 포제에 종사관(심부름꾼)으로 참석한 것은 군대에서 막 제대한 25. 6세 경이었다고 한다. 그후에도 세 번 정도 포제를 지내다가 윤인지 이장 때에 없어진 후, 포제를 지내지 않은지 40년 가까이 되었다. 지금도 다시 포제를 지내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1) 제명 : 포제, 천제

2) 제신 : 천신, 토신. 상단에는 천신을 모시고, 하단에는 토신을 모셨다.

3) 제일 : 좋은 날을 봐서 정일 또는 해일에 제를 지냈다.

4) 제비 : 각 집에서 낸 돈이나 쌀을 제비로 썼다. 이것은 조합장이나 반장이 받았다.

5) 제복 : 도포를 입고 유건을 써서 제를 지냈다. 제복은 부락의 이장이 보관 관리했다고 한다.

6) 제기 : '답단'이라는 돌 위에 돛자리를 깔고 제물을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제기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7) 제장 : '할망집알'이라는 곳에



사람이 서 있는 곳이 포제단 위치.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서 제를 지냈다. 이곳은 돌로 바람을 막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제단도 만들어져 있었다고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돌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외지에서 돌을 모두 가져가 버려 포제터만 남아 있다고 한다.

8) 행제 과정

① 마을총회 : 연말에 이장이 주관하는 리민총회가 열리면 이 곳에서 제관을 뽑았다. 이 리민총회는 각 호당 1인 이상이 참석하였다.

② 제관(자격, 합숙, 제관의 종류) : 제관은 40~60세 정도의 행동이 바르고 유식한 사람으로 뽑았다. 제관들은 4칸 이상, 25평 정도의 큰집에 모여 합숙을 하였다. 합숙 기간 동안에는 율놀이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제관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사, 대축 등 10명 정도를 뽑았다.

③ 제차

① 종달리의 5개 마을에서 5년에 한번, 한 마을씩 나무와 띠로 움막을 만들었다. 이것은 제관이나 포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든 장소인데, 제를 지내는 아침에 만들어서 다음날 견어냈다.

② 출발 : 제일이 있는 날, 제관들은 바닷물로 깨끗하게 씻고, 다시 향을 끓인 물로 씻었다. 초저녁인 5시 쯤에 제장으로 출발하는데 이때 마을사람들은 집밖으로 나다니지 못 하게 하였다.

③ 도착 후 : 가지고 간 제물은 집사가 포제단 위에 진설하는데 천신, 토신 순으로 올렸다.

④ 제를 지내는 순서 : 천신, 토신 순으로 제를 지낸다.

분향→ 4배→ 초헌이 첫잔(감주)을 올림→ 4배→ 아헌이 둘째잔(감주)을 올림→ 4배→ 종헌이 셋째잔(감주)을 올림→ 4배→ 첨작(네번째잔을 첨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삼헌관이 함께 고소리술을 올림)→ 잠식→ 음복

9) 제물

① 메 : 토신과 천신에 도량서적(나록, 산도, 서숙, 기장)을 각 1사발씩 올린다.

② 채소류 : 미나리, 콩나물, 고사리를 생채로 올린다.

③ 해어 : 종달리는 옥돔이 귀하였기 때문에, 옥돔 대신 깨끗한 우럭을 사용하였다.

- ④ 과실 : 유자, 꽃감, 대추, 밤, 사과
- ⑤ 제주 : 감주와 고소리술을 올렸다. 고소리술은 소주와 비슷한 것인데, 동네 할머니 중에 예전부터 전문적으로 이 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 ⑥ 포 : 어포로는 명태를 쓰고, 육포로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썼다.
- ⑦ 희생 : 천신에는 돼지 온마리를 올리고, 토신에는 닭을 올렸다.
- ⑧ 폐백 : 무명 베나 삼베 중의 한 가지와 백지를 사용하였다.

10) 제물진설도

하단				상단			
나룩	산도	서숙	기장	나룩	산도	서숙	기장
粱	稻	黍	稷	粱	稻	黍	稷
	잔				잔		
닭				닭			
쇠	명	해	유	사	꽃	밤	
고기	태	어	자	과	배	감	
		고사	미나	콩나			
		리	리	물			
폐백				폐백			
	초	초			초	초	
제주		향집	잔	분향			
			잔	잔			잔

11) 금기사항 : 보통 10일 정도 정성을 드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마을에 금줄을 쳐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제관들은 합숙 기간 동안 성생활을 금하고 나쁜 것을 보아서도 안 된다.

13) 음복 : 제가 끝나면 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나누어 가졌는데 초헌관이 가장 많이 가졌다.

14) 참가자 : 여자를 제외한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다.

2. 백중제

백중제는 음력 7월 15일에 마소가 아무 탈 없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내는 제이다. 백중제는 음력 7월 15일 0시(자시무렵)에 말을 키우는 곳으로 가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은 음력 7월 14일 저녁에 지내고 일찍 마을로 내려온다고 한다. 이것은 4·3 사건 때, 밤늦게 산에 있으면 공비에게 습격을 당하거나 공비로 오인 받을 소지가 많아서 초저녁에 올라가서 9시 이전에 내려왔었는데 그때의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백중제는 '물친목계'를 결성해 공동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지내는 경우도 있다. 공동으로 지낼 때는 제비는 똑같이 돈을 모아 충당하고, 제물을 재수가 준비한다고 한다. 제보자 임태삼(남, 73)씨도 예전에는 다섯 가구가 물친목을 만들어 같이 백중제를 지냈었으나, 작년부터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한다.

1) 신위 : 제보자 임태삼씨는 정확한 신위를 모르고 있었다.

2) 제일 : 원래는 음력 7월 15일 0시(자시무렵)에 제를 지내는 것이지만, 4·3사건 때부터 7월14일 저녁에 지낸다고 한다.

3) 제물 : 집에서 지내는 제사 때의 제물과 거의 같게 준비한다. 제물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나 정성에 따라 준비한다.

① 메 : 말의 수에 맞게 메를 준비한다. 만약 20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말의 수에 맞게 20개의 메를 올린다. 그러나 말의 수가 그보다 더 많으면 그 수에 맞게 메를 준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수의 메를 올린다고 한다. 예를 들어, 30마리의 말이 있을 경우에는 30개의 메를 올리기는 무리이므로 세 마리당 하나의 메를 올리거나 혹은 두 마리당 하나의 메를 올린다. 이 때 손가락과 젓가락도 같은 방법으로 올린다.

② 갱이나 돼지머리는 올리지 않는다.

③ 과일류 : 복숭아를 제외한 사과, 배, 참외, 수박 등을 여건에 맞게 준비한다.

④ 떡 : 시루떡, 배시리떡, 곤떡 등을 정성껏 준비한다.

⑤ 채소류 : 고사리, 콩나물, 미나리 등은 삶아서 양념을 한다.

⑥ 돼지고기적과 소고기적을 올린다.

⑦ 제주 : 예전에는 골감주를 사용했으나 요즘에는 소주나 주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술잔도 메와 같이 말의 수와 같게 준비하거나 적당한 수를 준비한다.

⑧ 기타 : 경제적 여건에 맞춰 문어, 마른 생선 등을 준비하기도 한다.

4) 제차

① 사흘이나 닷새 전부터 정성을 시작한다. 이 때 상가집에 가는 등 몸을 비려서는 안 된다.

② 제를 지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향물로 몸을 씻는다.

③ 저녁 5시쯤에 제를 지내기 위해 집을 나선다. 이 때 제물을 담당할 여자 외에는 여자는 참가할 수 없고 남자들만 참여한다.

④ 말을 기르는 곳에 도착하면, 둥그스런 밭으로 말들을 몰아 가둔다.

⑤ 제단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깨끗하고 평평한 곳을 찾아서 제물을 차린다.

⑥ 절을 세 번하고 잡식을 한다. 이 때 축은 고하지 않지만 '우리 말이 건강하고, 다리가 상하지 않고, 새끼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원한다. 그러나 같은 마을에 사는 김병주(남·69)씨는 말에게 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절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⑥ 음복을 한 후 집으로 돌아온다.

5) 제복 : 제를 지낼 때는 유건을 쓰고 청의를 입는다.

3. 당신앙

종달리에는 오막개본향당, 틀목일렛당, 돈짓당이 있다. 이 중에서 오막개본향당이 가장 큰 당으로 마을 부녀자 대부분이 이곳에 다닌다. 그리고 틀목일렛당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만 다니는 당이고 돈짓당은 바다에서 일하는 해녀나 뱃사람들이 다니는 당이다.

1) 오막개 본향당

오막개본향당은 종달리에서 가장 큰 당으로, 지미봉 아래 당집을 지어 관리하고 있다. 대다수의 마을 부녀자들이 지금도 이곳에 다니고 있다. 오막개본향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당은 온평에서 가지갈라 온 당으로, '안카름'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4·3사건 이전에 마을유지들이 미신타파라는 이유로 당을 폐지시켰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당을 폐지한 사람들이 하나 둘 씩 죽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에 다시 당을 설립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고씨·오씨·김씨 할아버지, 고씨 할머니 등이 당을 설립하려고 나섰다. 그런데 막상 당을 설립하려고 하니 마땅한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지미봉 아래를 둘러보니 물이 좋고 정기가 좋아서 한집님이 좌정할 만하다 하여 그곳에 당을 설립하게 되었다. 지금 오막개본향당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다. 그때 마을주민들은 이순여씨를 찾아가, '순여야, 당을 매라 매라.' 하니 '나는 당을 못 매쿠다'라고 하였다. 그럴 것이면 종달리를 뜨라고 하니, 결국 이순여씨가 당을 매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는 한지에 당이 있었는데, 이순여씨가 당집을 짓는 등 이곳의 틀을 다졌다고 한다. 지금의 당집은 최근에 새로 지은 것이고 그 당시에는 한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좁은 곳이었다. 현재의 오막개본향당의 매편 심방은 마을사람들이 강보살이라고 부르는 강옥녀(여·79)씨이다. 이순여심방이 죽자 종달리에 당을 맬 사람이 없어서, 마을유지들과 부녀자들이 한동리에 있는 강보살을 찾아가 부탁을 해서 당을 매게 되었다고 한다. 강보살은 현재 한동리 본향당의 매편심방이기도 하다.

오막개본향당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같이 모신다. 종달리에는 안카름에 있던 당 이외에 초등학교 운동장 풍낭(팽나무) 근처에 할망당인 '전수물일똥당'이 있었다. 안카름에 있던 당을 오막개로 옮기면서 할망당의 신도 같이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① 명칭 : 오막개본향당

② 당신 : 오막개 한집, 백조노산국한집의 두 신을 모신다.

③ 제일 : 주로 정월 열나홀(14일)과 스무나홀(24일)에 이곳을 찾는다. 정월 열나홀에 찾은 것은 정월 명절에 돼지고기를 만졌기 때문이다. 돼지고기를 만졌을 경우에는 당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열나홀까지 깨끗하게 한 후에야 찾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반드시 이날에만 가는 것은 아니고, 당을 찾아야 할 일이 있으면 강보살에게 이야기하여 간다고 한다. 그것은 강보살이 당집을 열쇠로 잠그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월 열나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당을

찾는데, 이때의 제는 열나흘에 시작하여 열여드렛날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

④ 제물 : 매 2개, 쌀 1되, 과일(사과, 배, 귤 등), 돌레떡, 침떡, 과자, 물색 3마, 실, 흰색 양말, 향, 얼마간의 돈.

⑤ 위치 : 지미봉 아래

⑥ 당의 형태 : 당집을 지어 신을 모시고 있다.

⑦ 비념 : 가족들이 건강하고 사업이나 취직 등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빈다.

⑧ 본풀이

(방울을 울린다) 에~ 한집님 상괘문 열려옵써. 중괘문 열려옵써. 하괘문 열려옵써. 본당문 신당문 동해청문 서해용문 열려옵써.(방울) 열립네다 열립네다.(방울) 공성에는 공신은 가신 간신은 공성입네다. (방울) 천으로는 절광연(방울)전수퍼드령가민(방울) 날은 어느전 돌은 갈랑 어느전 (방울) 올금년 해도금년(방울) 기묘년 돌은 갈랑 물이 더웁 염천유월성주(방울) (청취불능) 정월열나흘 념영 유월열아흐렛날 어느 고을 어떠한 즈순²⁾달이(방울) 받은 공손을 영~ (방울) 보고 갑네다. 강남천자지국(방울) 일본노려주년국이(방울)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네다. 조차서(방울) 송곡의딴 (청취불능) 하십대강. 일차는 한양성(방울) 세차는 신인성 네차는 동경성으로(방울) 다섯차는 조글란사인성(방울) 안동반골은 자동방골 먹장고 수박골(방울) 분통대글 해골낭(방울) 경상돈 칠십칠 전라돈 오십상환(방울) 일거저 이거저 삼십산 오가완 땅 해고보난 (방울) 물루전 방이궁전 성주입네다. 산은 하로지영산 땅은 금천노일(방울) 물은 (방울) 곤룡산 저산 낭은 당이 올려 있고 (방울) 이 산앞 절이 올려 이세상은 단골머리. 범 불롭써 범도왕도 범도 신도 범왔다. (청취불능) 장관은 서병이 주인, 면은 갈라 구좌읍 종달리 마을입네다. 지미봉 아래 한집님 오막개 물 좋고 정기 좋은 좌정어른 백조노산국³⁾ 한집님입니다. (방울) 산신 두루일레입은 우리 한집님(방울) 여드렛또 삼천백매⁴⁾ 초깃발 超깃발 허구잡순(방울)

2) 子孫

3) 종달리 堂神

4) 三千兵馬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즈순들이 다름이 아닙니다. 제주도 대학에서 한집님⁵⁾ 역스들엉 이 애기덜 전대
 전순 누대전읍해영 이름 높이난 읍정 좃으멍 물으멍⁶⁾ 작년부터 좃안오라도⁷⁾
 신⁸⁾이 아니 못 오라수다. 금년당일은(방울) 오늘 하루 방학중에 이 애기덜 오
 란 한집의 집서가 앉앙 역스나 가르켜줍센 해연⁹⁾ 이리 주목하는 사름 멧설¹⁰⁾
 인고 허니 장씨로 곧 스물입니다. 장은주. <이젠 ㄹ르라. 멧설멧설 다 ㄹ라. 경
 안허믄 써서 주든지. 스물 한 살. 양씨. 이름은 현숙> 스물흐설 받으서외다. 성
 은 양씨 현숙이 받으~(칭취불능) 이 애기들 네멍 축원을 올립네다. (칭취불
 능)을 올립네다. 한집에 멧 올려 즈순들이 올금년 문¹¹⁾ 애기 채수통화도 시기
 고 댕기는¹²⁾ 길 (칭취불능)줍센고란. 이건설 (칭취불능) 스물. 스물두술 난 애
 기도 받은 성의를 (칭취불능)합네다.(방울) (칭취불능). (아마도 그곳에 첩석한
 사릅들의 나이, 성, 이름을 말하는 것 같다.) 수건을 올립네다. 한집에 올령 손
 당은 금백조 셋손당은 서맹리 (방울) 내한손당으로수첩 한집님 소찬 우리 애
 기들 철모르고 때모르고 호난 채수도 못하고 제숙도 못허곡 해연 오라수다. 승
 이시메 속는 소간 이시면 (칭취불능) 소로소천국 한집님(방울)아들애기 열여
 뒸 딸애기¹³⁾ 스물여덜 손지방상¹⁴⁾ 일흔여뒸 친순세에 손상 (방울) 한집님전에
 성심 먹영 오랏습니다. 한루영산으로 태역장군의 물장율이 아흔아홉 전당입네
 다. (방울) 높은 오름 검은오름이야. 어허등기등 예야 갈퀴로 간 구멍하나 인
 간된 길 고단이 아니구 장칼 애도 나고 부정헌 서이정 호난 종달리 말년묵은

-
- 5) 大主님
 - 6) 찾으면서 물으면서
 - 7) 찾아와도
 - 8) 강육녀 심방(매인심방)
 - 9) 가르쳐 달라고 하여서
 - 10) 멧살
 - 11) 모든
 - 12) 다니는
 - 13) 딸아이는
 - 14) 손주친척

폭낭아래 강 한집님 좌정허영¹⁵⁾ 종달리 인민들 서천미논¹⁶⁾ 일년열두돌 벌영오
 민¹⁷⁾ 한집에 진봉호공 (청취불능) (방울) 시국이 시국만치 엄중하고 영하난 당
 도 폐지허라 절도 폐지허랜 허난 당도 폐지허고 절도 폐지허난 종달리 인민들
 머리큰 사롬 다 죽고 인민이 살 수가 엇영 (방울) (청취불능) 영 허난 아무래
 도 한집에 조해영 당 설립허자 절 설립허자 (방울) 곱센하루바님과 곱센하루
 바님 이신하루바님 곱센하루바님이영 나산 오명가민 당 설립허젠 허난 지미봉
 아래 이거 오막개 물종고 정기좋은 데에 좌정시경 한집에 성심 먹어수다. 믿음
 먹어습니다. 다름은 영 아닙네다. 이거 삼신정월도 아니고 양~ 또 이전 오라
 네 (방울) 성신들 마블립 건블립도 아니고 오뉴월똥 즈순덜 믿음에 들으랜
 (방울) 대학출신들이 모든걸 역스를 맹글젠¹⁸⁾ 영협네다. 갖은 축원 올립네다.
 (방울) 돈제하루바님 돈제할마님네 남당하루바님 남당할마님네 혼반밀반 읍서.
 상서와리 천조백조 도내금상 한집도 혼반일반 읍서. 하도 별방이리 (청취불능)
 시흥리는 거천할마님 부천할마님 소원갑성 중대서열이야기 (방울) 거느립던
 한집님도 혼반일반 읍서. 일곱두성은 하루하루 오거늘 (방울) 성산은 진풍경
 만리 (청취불능) 다 물론 한집차는 오나니 (방울) 달려오랑 상을 받읍서. 소찬
 으로 받읍서. 어루엇던 정성 오늘 7치 현메나 단메나 녹이 올라 서천메나 모란
 메들 받읍서. 과거고양으로 저승강 소찬오란 오라수다. 승광메랑 즈부강저 댕
 기는 (청취불능) 키워줍센을 험니다. (방울) 어느건 허젠허민 공이 아니들고
 지간이 들까완 (청취불능) (방울) 공든 밥은 지가들고 지든 낭은 공이 듭네다.
 공든 밥도 시겨 줍서. 지든 낭은 시겨줍서. 땡이 육금천하는 복이 육근천혜에
 너른 복을 이겨내줍서. 즈순덜 댕기는다 귀인상봉행 머글년 입을년 소리에 바
 라바리 엉기덩기면서 동서남북으로 귀인상봉해영 머글년 입을년 한집에서 절
 발라줍서. 올금년 천왕손 지왕손 인왕손 고뿔이여 행발이여. 인질토질 각기 윈
 앙전성똥 이렛똥이영 오라줍서. 신이 아이 집서관 매정강 잇었습네다. 오랏수
 다. 잘못된 일이랑 용서를 고향~ 어~. 음력 (청취불능)을 드립네다. 한집에는

15) 坐定하여서

16) 모든 단골의 온갖 정성을

17) 벌어서 오면

18) 만들려고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다음대로 (청취불능)즈순들이 몰랑 모든걸 잘못된 일이 만만하십네다. 금양지로 (청취불능) 겪으면 상을 받아 올금년 운 애기난 (청취불능) 한집에 오랑 잘못되난 잘못된 거를 용서를 고해줍서. 영 흠네다. 또 이런 스물 두 살 난 이 씨 즈순 스물 두 살 (청취불능) 또 이젠 스물 하나 (청취불능) 올 금년에 스물 두 살 난 아기들이영 소찬으로 드립네다. 성심을 (청취불능) 신이 아이 몬 받든 (청취불능) 오랑 가는 길 발라줍센 원정을 드립네다.

〈본풀이가 끝나고 조사하는 학생들이 제물을 준비하고 굿을 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신이 자그마한 정성이지만 감응했다는 축원을 하고, 「이거 한집에 오젠 허몬 제숙도 해 놓고 채소도 햏여 놓고 하니까 하루바님 할마니가 와서 식서를 훌 수가 어서. 소찬으로 영 와도 너네들 착허다. 땡기는 질 발라주마 햏영 좋으켜.」 하며, 메를 세 순가락씩 떠서 궀에 놓으라고 하니 양현숙과 장은주가 떠 놓았다.〉

⑨ 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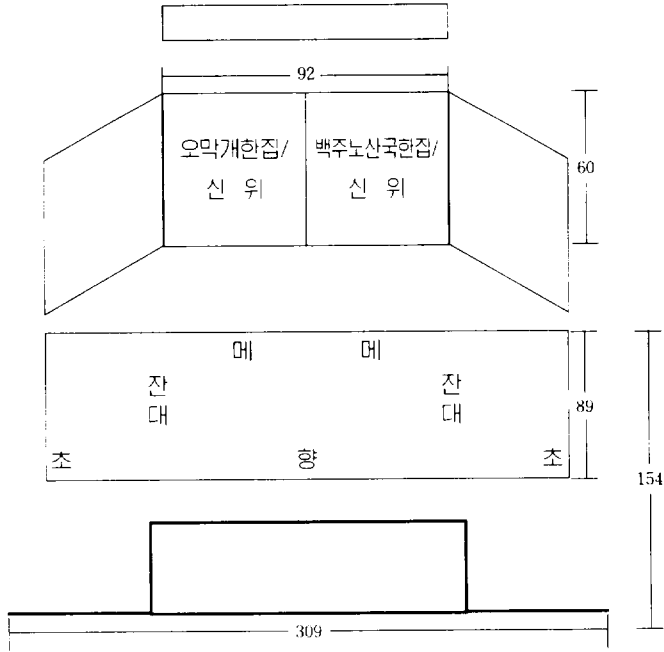
조사자가 제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원칙적인 제차를 따르지 못했다.

- ㉠ 촛불을 켜고 제물을 차린다.
- ㉡ 매인 심방이 본풀이를 읊는다.
- ㉢ 메를 떠서 양쪽의 궀에 놓는다.



← 오막개 분향당에서 조사하는 모습

⑩ 당의 내부와 제물진설도



⑪ 금기사항

㉠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 당에 가기 3일전부터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상가집에 다녀와서는 일주일 지나야만 당에 갈 수 있다고 한다.

2) 틀목일렛당(토산한집)

틀목일렛당은 토산당이라고도 하는데 타지(특히 정의)에서 들어온 사람들만이 다니는 당이다. 제보자인 김보연 할머니(71)의 경우는 종달리 출신으로 이당을 다니지 않았었는데 두 며느리가 모두 정의(정의현, 성읍) 출신이어서 이당을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김보연 할머니가 이 당에 다니게 된 것은 30년 전에 이 동네에 살던 서전 어른의 아이가 자꾸 죽으니까 이당을 다녔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서전어른이 틀목

終遠里 學術調查報告

일헛당을 다닌 것은 시조모(시할머니)가 정의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 당은 가족 중 타지에서 온 사람이 있을 경우 가족의 평안을 위해 다니는 것으로 짐작된다. 김보연 할머니는 올해로 12년째 이 당을 다니고 있는데, 이 당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모르고 있었다.

① 명칭: 틀목일헛당, 토산한집

② 당신: 브롬웃또 토산한집

③ 제일: 일년에 한 번 가는데, 특별히 정해진 제일은 없다.

④ 위치: 이 지역의 정확한 명칭은 확인할 수 없었다. 청강사를 지나 작은 샛길을 따라 한참을 가야 당도할 수 있었는데, 『북제주군 문화유적지Ⅱ』에 따르면 청강사 남쪽, 속칭 '조개왓 틀목'에 위치해 있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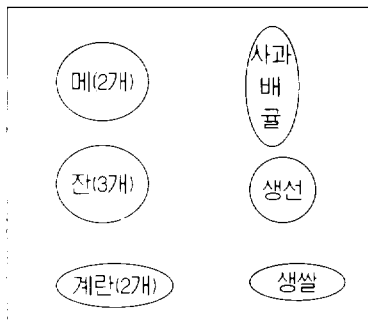
⑤ 당의 형태 : 커다란 나무 밑에 위치해 있는데, 수풀로 우거져 입구를 찾기 힘들다.

⑥ 제물

① 메 : 2개를 올린다. 메 하나는 종달리신에게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에서 가지갈라 온 신에게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숟가락도 두 개를 꽂는다.

② 그 이외에 과일(사과, 배, 귤 등), 구운 생선, 술 3잔, 생쌀, 계란 2개, 폐백(물색형걸 3조각, 백지)을 준비한다.

⑦ 제물진설도



⑧ 비념

이거 다 뭣이 없는 원한도 아니고 밥이 없는 원한도 아닙니다. 다 이거 각성 받아덜 각 밋을에서 다 이제 흑생덜 대흑생덜 몬 이거 옛날. 옛조상님들 땡겨난, 이제 헤어난. 이제 거세길 잊어불카부덴¹⁹⁾ 영 알았다그네 후제라도²⁰⁾ 뭇허젠 해네 조상님들을 잊히지 안 행 옛 조상들을 잊히지 안 행. 좃앙와시난²¹⁾ 조상님에서 그자 다 만수무강을 시겨그녕 불찰들이란 저문정즈레 그자 삼천리강산즈레 다 이제 제치시기고 만수무강을 시경 그자 재수대통을 띠와그네 이 즈순²²⁾들 땡기는디마다²³⁾ 다 그자 만스망 천스망을 일게 해그네

이거 김칩이 예순칠십하나²⁴⁾ 심방도 정식도 아니우다만 그자 영 이녁 땡기는 디난²⁵⁾ 아는 거시기로 받아줍센 행 오라시매 조상님도 그자 그대로 알아그네 해영 이 즈순들 오란 가거들랑 다 만수무강을 시경 재수대통을 띠와그네 몸 건강 신체 건강 다 소원 성취 시겨그네 (향불을 킴)/

이거 다 천소지 만소지 다 천하명산에 명을 주고 지하복산에 복을 쥬 이 즈순들 그자 다 명 있을 소지우다. 복 있을 소지우다 각성받이 다 성정 성친으로 그냥 다 이견 몬 신체 건강을 시겨주고 만수무강을 시겨그네 재수대통을 띠와그네 다 건강 소원 시겨줍센 헨 다 백소지 백권정 천소지 만소지 다 백소지 불천지 대백그르 다 올림시매 다 실은 실제랑 다 거려그녕 원 이 즈순들 신체 건강을 시겨주고 만스망 재수대통을 띠어 줍센 햄시매²⁶⁾ 하고 있으니까 그자 다 무성무패로 그자 다 만수무강을 시겨줍서. 조상님 그자 진경돌 아래 앉는 조상님 즈순들 눈에 편석들 허게 마랑 다 진경돌 알로 좌정해영 다 그자 천리도 보고 만리도 봐그네 다 몬 이 즈순들 가는디마다 오는디마다 실은 실대랑 다 보네줍써

19) 잊어버릴까 봐.
 20) 나중이라도.
 21) 찾아왔으니까.
 22) 子孫.
 23) 다니는 곳마다.
 24) 김보연 할머니.
 25) 다니는 데니까.
 26) 하고 있으니까.

終達里 學術調查報告

이거 그자 다 조상들 몬 옛 조상들 어디가 어딘고 해그네 알아났다그네 후 제라고 영 춤 뒤행 잊히지 말젠 이 즈순들 다 좃앙은거난²⁷⁾ 찾아서 온 것이니까 조상님들 다 브령. 김침이 칠십하나 그자 다 (바람 소리로 인해 청취 불가능) 그냥 오지 못행 온거난 조상님에서 다 통촉행 (쌀을 온 채로 삼김)

⑨ 제차

㉠ 나무에 물색을 건다.

㉡ 천을 깔고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진설한다.

㉢ 지전을 태우며 비념을 한다.

㉣ 술과 생쌀을 주위에 돌아가며 모두 뿌린다.

㉤ 생쌀로 제비를 잡는다. 만약 제비를 잡았을 때, 6·8·10·12 등의 짝수가 나오면 운이 좋다고 여겨 쌀을 씹지 않고 삼킨다. 그리고 7·9·11·13 등의 홀수는 재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11이나 13이 나왔을 경우는 심방을 데려다 굿을 크게 해야 한다고 한다.

⑩ 금기사항 :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은 당에 갈 수 없다.

3) 돈짓당

돈짓당은 두문포 앞 바다에 있는 당으로서 뱃사람이나 해녀 등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닌다. 대부분 두문포 사람들이 다닌다고 하여 이 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 다녔지만, 쉽게 만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바다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돈짓당은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접 두문포 마을의 집을 방문하며 제보자를 알아보았으나, 대부분은 돈짓당에 다니고 있지 않았다. 종달리 85-1에 사는 이춘자(55) 씨를 만났는데, 돈짓당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당에는 다닌다고 하였다. 이춘자씨는 시어머니가 돈짓당에 다녔기 때문에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에 다니는 것이라고 하였다.

① 명칭 : 돈짓당

② 당신 :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③ 제일 : 정월 초 일렛날 오막개 본향당에 다녀온 후 정월달 안에 돈짓당에 간다고 한다.

27) 찾아서 온 것이니까.

④ 위치 : 두문포 앞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물색을 건 나무가 있어 쉽게 눈에 띈다.

⑤ 제단 : 제단은 일부러 따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바닷가를 향하여 큰 돌과 물색을 건 나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⑥ 제물

㉠ 메 : 2개를 올린다. 하나는 돈짓당의 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왕신을 위한 것이다.

㉡ 과일(배, 사과), 과자, 계란 3~5개 정도를 준비한다.

⑦ 제차 : 잡식한 것을 식구수에 맞게 종이에 싸 후, '이거 요왕님께 드립수다. 이거 아무개, 몇살이우다.'라고 하면서 바다에 버린다. 만약 물에 빠져 죽은 식구가 있으면 요왕님 대신 죽은 식구 이름을 부르면서 버린다고 한다.

⑧ 금기사항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다. 종달리의 다른 두 개의 당과는 달리 돼지고기를 금하지 않는다.

⑨ 오막개본향당의 메인심방인 강옥녀심방이 돈짓당에 오기도 하는데, 그때는 택일하여 온다.

4. 요왕제

요왕제는 배를 가진 사람들이 풍요와 무사고를 기원하기 위해 지낸다.

1) 제일

① 음력 정월 보름 전에 두 번(초하루와 보름) 지내기도 하고 한 번(초하루) 지내기도 하는데 한 번 지내도 보름만 지내는 일은 없다.

② 작업을 바꾸거나 배를 바꿀 때 지낸다.

③ 제사 끝난 뒷날 아침에 지내기도 한다.

2) 제물

① 메는 3개 올리는데 배신(선왕), 요왕, 선주에게 각각 올린다.

② 돼지머리, 과일, 제주, 계란 3~5개 정도를 준비한다.

③ 갯은 올리지 않는다.

3) 제차

잡식한 것은 종이에 싸서 제주를 뿌려 바다에 버린다.

배에 함이 있는 경우는 그 안에 잡식한 것을 버린다. 함 안에 계속 두었다가 다음에 제를 지낼 때 꺼내어 버리는 사람도 있고 요왕제 지낸 다음날 가서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음 제 지낼 때까지 두었다가 버린다.

4) 금기사항

바닷고기를 제물로 쓰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제 지낸 것은 배 안에서 모두 처리하고 가능한 집에 가져오지 않는다.

5. 가신신앙

1) 아기가 부스럼이 날 때는 본당에 가서 제물을 차려 놓고 물을 아기에게 뿌리며 “물비리 당비리 흥허물 보제기 난거 그런거 다 썰어벼 줍서²⁸⁾”라고 빈다(제물은 당에 갈 때처럼 차린다.).

2) 아기가 뉘이 나갈 때는 본당에 가서 제물을 차려 놓고 “뉘들라 뉘들라 상가메로 들입써 중가메로 들입써”라고 하며 빈다(제물은 당에 갈 때처럼 차린다). 심방을 부르기도 한다.

3) 사람이 죽을 때는 큰 곳을 하기도 하고 작은 곳을 하기도 하는데 큰 곳을 할 때는 한동의 강옥녀 심방을 부르기도 하고 세화의 오인숙 심방을 부르기도 한다.

4) 문전제와 칠성제

제사를 할 때와 신년에 문전제와 칠성제를 지낸다.

(1) 제사 때에는 조상에 올리는 상과 함께 문전상, 안칠성상, 밧칠성상을 준비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가정에서 메는 2개를 준비하되 상은 하나만 차려 안칠성과 밧칠성을 함께 모신다. 대부분은 안칠

28) 썰어버려 주십시오.

성을 받드시 모시는데 남군에서 시집 온 사람은 밧칠성도 모신다.

(2) 신년에 심방이나 스님을 불러 문전제, 칠성제를 지내고 조왕에 잡식을 올린다.

① 메는 문전신에 1, 안칠성과 밧칠성에 각각 1을 올린다.

② 종이, 과일(배, 사과 등), 생쌀, 술(감주), 콩나물, 제숙으로 묵을 올린다.

③ 문전제와 칠성제를 지낼 때 심방이나 스님이 쌀을 잡아 한 해의 운수를 점쳐 보아준다.

(3) 칠성신은 오곡(좁쌀, 보리, 나룩쌀, 깨, 팥 등)을 백지에 싸서 향아리에 넣어 슬레트(예전에는 짚으로 만든 공간에 칠성신을 모셨다.)를 덮어 모시는데 아이들의 안녕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모시는 것이다. 고팡이 있을 때는 향아리가 두 개였는데 지금은 집 밖에 모시는 것 하나이다. 안칠성과 밧칠성을 합칠 때, 즉 고팡을 치울 때는 심방이나 스님을 불러다 “고팡을 치운다”고 고하는 제를 지냈다. 일년에 한번 칠성 단지를 가는데, 칠갈이는 정월이나 삼월 중에 한다. 칠성 단지는 심방이나 스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열어볼 수가 없다.

< 제보자 >

권명환(남·64)

김복희(여·61)

강옥녀(여·79)

김인성(남·38)

김영필(남·69)

김보연(여·71)

강춘심(여·88)

임태삼(남·73)

이춘자(여·55)

김병주(남·69)